

중국을 주께로

98/5·6

격월간 중국을 주께로/ 발행처,시님(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주소,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6-7(신우빌딩 301호)/ 전화,02-533-5497, 592-0132 발행인,이동화/ 발행일,1998. 4. 20/ 등록일 1994. 2. 14일자 (등록번호/ 바 - 2078) 통권51호



특집/ 시역언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기획/ 중국 소수민족을 알아
- 중국교회 현주소/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신학교육
- 중국은 지금/ 도시로 탈바꿈하는 중국 농촌들
- 현지에서 온 소식/ IMF한파에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열정



중국에 대해 아십니까?
중국선교의 동역자를 찾으십니까?
『중국을 주께로』가 있습니다

『중국을 주께로』는
여러분의 마음과 눈으로 읽히시기 원합니다.

희어진 밤,
중국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서 우리를 도우라’
중국교회의 희침이 당신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까?
중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때
여러분은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복음을 위해
여러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 사역자들에게는 눈과 귀요,
중국인을 사랑하는 한국인,
교회를 깨우는 목회자와 평신도들에게는 선교의 불꽃이요,
선교사로 파송된 현지 사역자를 돕는 후원자들에게는
기도의 보고요,
국내 중문과 학생들과
중국에서 유학하는 크리스천 모두에게는
유익한 정보지입니다

『중국을 주께로』는
여러분의 손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1년(6권) 구독료 24,000원을
정확한 주소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TEL: 02/592-0132, 533-5497, 594-8038, 535-4255, FAX: 599-2786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301호
『중국을 주께로』 담당자 앞
구독료 납부: 국민은행 008-01-0454-178 박성주
시중은행 지로용지 7602362(회제구독요금이라 적어주십시오.)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동화

최근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보내오는 기도편지를 보면, 한결같이 환율급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우리는 긴박한 경제 위기 속에서 돈의 위력을 새삼 절감하고 있으며, 인간이 돈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고 나약한 존재인가를 경험하고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당했고 실직의 행렬은 앞으로도 몇 년 간 계속될 것이다. 일터를 잃고 미래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대중매체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온다.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가?
이러한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돈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마6:24),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눅16:9)고 말씀하신다.

‘불의의 재물’은 불의한 방법으로 번 돈이 아니라 돈에 내재한 타락성을 의미한다. 주님은 ‘돈’ 자체가 불의한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이다. 돈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들 중 하나이다. 돈은 인간의 생명, 명예, 위신, 정치, 사회, 교육, 역사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사람의 마음까지도 살 수 있다. 이 세상의 아들이들 빛의 자녀보다 더 현명하기 때문에 돈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다 하고 있다(눅16:8).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돈으로부터 도망치기보다는, 그것을 붙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돈을 정복하여 잘 사용하면 그 영향력은 실로 무한하다. 돈은 보다 큰 목표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고, 우리 또한 돈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사용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만일 우리가 돈을 일상적인 일에 우선권을 두고 쓰면서, 보다 위대한 목표인 생명을 구하는 일에 활용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극적인가?

예수께서 위 말씀에 이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10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눅16:11)고 말씀하셨다.

‘IMF’는 우리에게 고난과 좌절을 주고 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경성비는 줄이지 않으면서 선교비부터 줄이려는 교회나 성도들은, 다시 한 번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바란다. 선교는 돈이 있을 때만 하는 선택과목이 아니다. 이 어려운 때 돈을 잘 사용한다면, 분명 이 위기는 우리를 단련시켜 새롭게 만드는 축복의 기회가 될 것이다.

특집 / 사역언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8 세상에 공짜밥은 없습니다 민한식
11 실제사역은 사역언어 습득의 지름길 강대위
16 끈기 위에 사랑과 겸손의 웃을 덧입는 노력을 강성광
19 언어극복, 무엇이 문제인가? 지인성
24 효율적인 사역언어 학습법과 학습기관 소개 석은혜

선교나침반

- 4 선교일언 네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며 주지호
30 디아스포라 한국인 동양의 빠리, 허얼빈(哈爾濱) 작은자
34 중국교회 현주소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신학교육: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주피득
40 선교전망대 21세기 중국선교의 전망 김태연
44 중국의 관문도시(2) 복음의 관통로 중국의 관문도시들 편집부
48 궁금합니다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석은혜

헌신의 삶

- 50 중국 교회 체험기(14) 속단은 금물, 야누스의 두 얼굴 황민(黃敏)
54 현지에서 온 소식 IMF한파에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열정 중국 선교사
62 중국 성도 간증 불 속에서 건진 한 개비 장작 후성도

인물·역사

- 57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사(3)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자
-이대영 목사(1) 김교철
66 중국선교의 발자취 홍콩으로 가다 방지일
68 중국 교회 순례(10) 대륙 동쪽 끝자락에서 키워가는 하늘나라의 꿈(1) 김종구
72 중국선교사 행전(5) 온몸의 사랑으로 헌신한 여정-글레디스 아이워드 안정숙

중국은 지금

- 76 중국은 지금 도시로 탈바꿈하는 중국 농촌들 장원(江迅)
79 중국동향 초점 21세기 중국 “열린 경제, 젊은 관료” 연구부

기획 / 중국 소수민족을 알자

- 84 윈난성의 소수민족(Ⅲ)-나시족, 다이족 허중선



1998년 5, 6월 통권 제51호

중국을 알자

- 71 중국·중국인 **고층빌딩 숲속으로 전통문화는 사라지고**
- 94 중국 기행 **특별한 헌신이 필요한 소수민족 선교** 허국화
- 96 중국 체험 **내가 만난 중국의 벼락부자** 석은혜
- 102 중국단기선교 여행코스(7) **라미블고 지역으로 유명한 라싸(拉薩)** 유재승
- 106 천안문 에세이 **확대지향형의 중국인** 홍순도
- 108 중국 문화 **중국인의 꽃** 이민선

자료실

- 120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 강화의 몇 가지 중요문제에 관한
중공당중앙위원회 결의(II)

발행인 칼럼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동화 1
묵상의 샘	가식의 탈을 벗기라	29
선교 다이제스트	낮선 고향	49
시사만평	일자리만 있다오	인지푸(殷紀夫) 82
중국인의 유모어	俊二救火(명칭이네 불 끄기)	99
선교 중국어	得救的道理 (구원의 진리)	100
중국어 복음성가	對你的祝福歌 (당신을 향한 노래)	101
신간도서	한권으로 이해하는 중국 외 2권	111
보도물에 나타난 최근 중국동향	편집부	112
선교단신		118
선교복덕방	새 일꾼을 찾습니다	119

벌책부록 '중국을 주께로' 기도캐럴린더(98. 5,6월)

표지 설명

어느 나라의 어린이든지 그 모습은 천진하기만 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18:3)고 말씀하신 것 같다.
 6월 1일은 중국의 어린이 날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을 회복하자



네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며

주 지 호

중국은

12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거대한 나라다.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와 선교사들의 노력 외에도 대중전파, 특히 선교방송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개인전도 혹은 마스크 선교를 생각할 때, 우리는 수용자(전도대상자)의 형편과 환경을 중시해야 한다. 잠언 27:23절을 보면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영문성경을 직역하면 “네 양떼의 형편을 확실히 살피며...”라는 말씀이 있다. 이것이 바로 전도에 있어서 주목해야 하는 수칙이다. 그러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지금까지 양들을 부지런히 살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다원화된 도시 사회에서 단지 목회자의 심방만으로 양떼의 형편을 살피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복음의 열매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러한 추세가 90년대에 와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¹⁾ 예를 들면, 국민일보 3월 5일자에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최근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칭 한미준)』이라는 단체에서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한국교회 리서치”에 착수했다.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나, 한미준은 일반 선교기관 혹은 교회의 전도대상자 조사에 대한 전문훈련을 받지 않고 자의대로 그 조사를

실행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 조사는 우리에게 “양떼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조지 바나(George Barna)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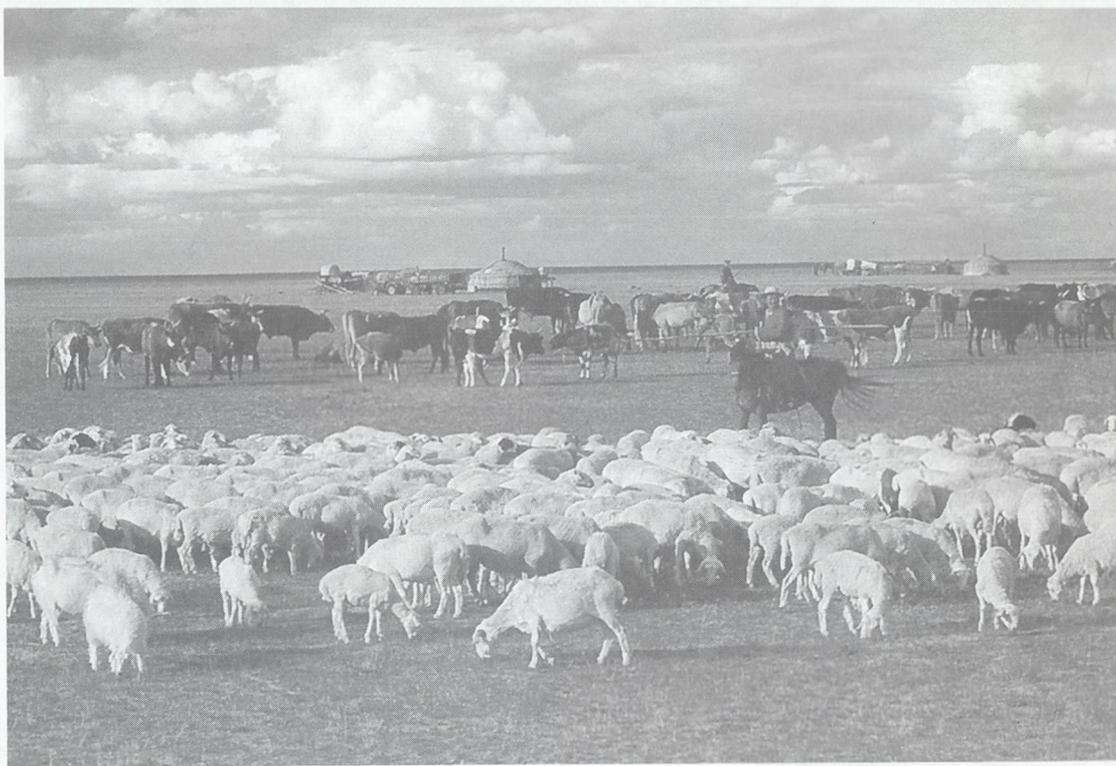
“조사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바르지 않은 조사이다.”라고 말했다.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은 12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중국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우리는 청취자의 편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 국제적인 전문가들에게 대륙 수용자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한다. 1996년 우리는 영국 국영 방송사(BBC)에 의뢰해서 홍콩 SPG회사가 1차로 중국 청취자 조사를 실시했다.²⁾ 그들은 중국 대륙의 10대 도시를 선발, 각 도시에서 무작위로 뽑은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중에서 해외 방송을 청취하는 80명을 상대로 더 자세히 조사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인구의 2.4%에 해당하는 대도시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 방송매체와 접촉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이번 조사의 대상인 20개 도시 중 극동방송, 아세아방송의 중국어 방송을 청취하는 사람은 모두 20만 5백 명으로, 이는 도시 인구의 0.7%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결과로 볼 때 중국 전역에서 800만의 사람들이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을 청취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인구의 70%가 농촌에 거

1) 90년대 이후 기독교 수용자 조사와 마케팅의 대표작 George Barna의 『A step-by-step Guide to Church Marketing』과 『Viggo Sogaard의 Research In Church and Mission』 참조. 70년대 후기에 발간된 Jim Engel의 『How Can I Get Them to Listen』은 기독교 방송 사업자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 자료 발췌는 FEBC Sky Waves No. 24, 1996 FEBC Chinese Ministries 출판



주하는 것으로 볼 때, 이것은 최소한의 수치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 농촌 거주자의 청취율이 도시 거주자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 조사 결과 나오기 전 극동방송에서는 중국에 약 2천만에서 2천5백만의 청취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 예측 역시 상당히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농촌이 도시 거주자의 2배라면 전국에 1천3백만 명의 청취자가 있는 셈이고, 만약 3배라면 1천9백만에서 2천만의 청취자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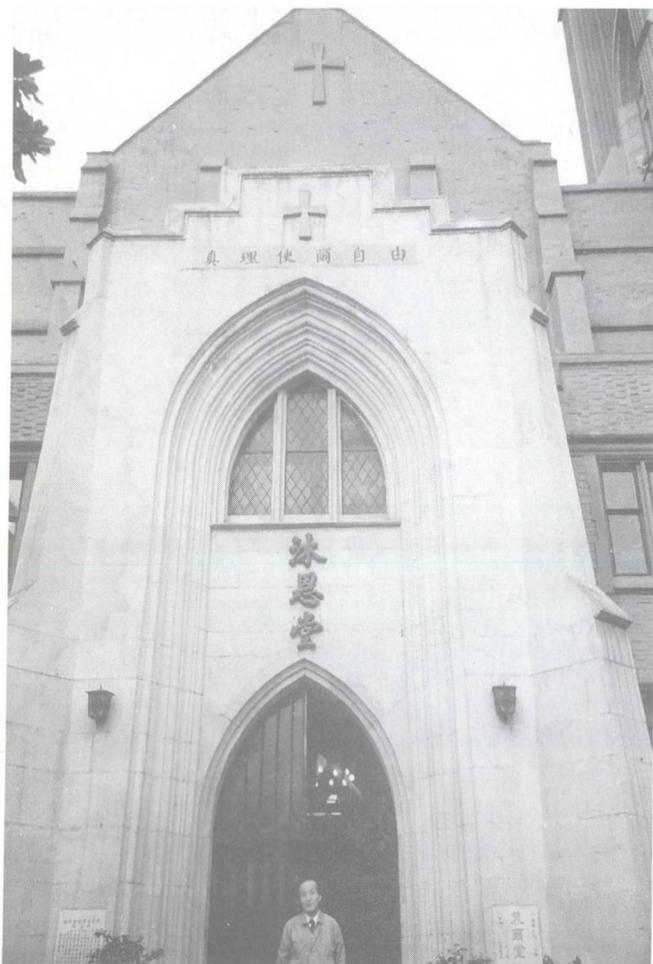
4년 전, FEBC 홍콩지사 중국어 방송부의 도움으로 또다른 하나의 시장조사를 실시해 우리의 전도대상을 연구했다. 극동방송 청취가능 지역인 동부 지방의 상황을 알고자 실시한 이 조사의 대상은 랴오닝(遼寧)성, 지린(吉林)성, 헤이룽장(黑龍江)성의 1억이 넘는 사람들이었다. 이 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세 지역의 서로 다른 계층의 윤곽을 알아보고, 그들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총 조사대상자 750명 중, 첫째 연령별로 분류했을 때 청년층(18~21세)은 33%, 중년층(30~59세)은 45%, 노년층(60세 이상)은 20%였고, 성비는 50대 50이었다. 둘째 종교별로 분류했을 때 불교가 5.5%, 기독교가 2.8%, 이슬람교가 0.7%, 기공(氣功)이 5.9%, 기타 16.7%(1.2%의 공산주의자 포함), 무교가 68.5%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 샘플에 대해서는 일정한 포괄성과 대표성을 갖추었고, 기혼자 비율이 높았다. 대학 이하의 학력자가 60% 이상이었고, 단지 9.2%만이 대학 학력 이상이었다. 평균 수입이 900원(元)에서 1,500원 이상인 사람은 '부유하다'고 답변했고, 대부분 신앙이 없었다. 여기에서 2.8%의 기독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약 280만의 신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시장조사 보고서의 내용 중 중국선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동북지역 거주자의 "인생관"과 "가치관"



중국인에게 있어서 개인수양과 애국이라는 개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사진은 상하이의 목은당 교회)

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들의 인생관에 대한 견해는 첫째, 보편적으로 자신의 삶과 가정에 대해서 만족하며, 인생이 무의미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둘째, 생활의 질을 개선, 향상시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달렸다고 믿는다. 셋째, 이 지역의 거주자들은 과학과 기술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넷째, 이들은 현재 사회가 안정감이 결핍되었다고 생각하며, 불안감 때문에 타인을 용서하기가 어렵다고 여긴다.

이런 점들로 보아, 사람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며, 행여 불만이 있다면 그것은 현재 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미래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가치관에 대한 견해는 서구의 심리학 연구에서 '가치성향의 측도'를 조사하는 도구인 The List of Value(LOV)를 이번 연구에 이용하였으며, 여기에 개인 수양, 애국 및 종교 신앙의 세 조항을 첨가하였다.

우리는 이 조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개인 수양'은 동북 지역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생활의 동기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의 자국 결과 조사와 중국 동북 지역 조사결과는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편적인 가치관은 미국과 동북쪽의 중국인이 서로 같았다. 또 중국사람은 중국 본래의 가치관이 있다. 중국인에게 있어서 개인수양과 애국이라는 개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상의 두 가지를 보아 중국인은 개인의 인간관계와 좋은 친구를 중요시 여기며, 합리적인 행동을 한다. 개인의 안전감과 국가를 중요시 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신앙과 인생에 있는 자극, 타인과의 관계는 그 중요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자료는 방송선교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일반 개인 선교사나 교회에서도 중국 선교 전략을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의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충성스런 청지기가 되기 위함이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주지호/ 극동방송 중국어 방송부 선교사

言乱语，看我把你那吃饭的家什剃下来。”说着就拔剑在手，大卫制止了他。因为他不想因这点小事与一个破落贵族争斗，使北方的各部族都小看他，说国王也不过如此，与一个无赖一般见识。谁知示每得寸进尺，骂得更凶，还用石头打他，拿土扬他，大卫的卫兵只好用盾牌抵挡。那人骂累了，仍不见大卫理他，就自己离去了。

大卫听说自己的谋士亚希多弗归顺了押沙龙，害怕他与押沙龙相互配合，如虎添翼，难以对付。他派了自己的忠实臣仆户筛

打进押沙龙队伍内部，设法取得信任，成为叛军中的高级将领。户筛在押沙龙和亚希多弗之间施离间计，亚希多弗的良策虽然很多，押沙龙却听不进去。

亚希多弗对押沙龙说：“你父亲留下看守宫殿的妃嫔，你可以与她亲近，使她憎恨你，你手下的人知道你与你父亲已完全决裂，失败了就没有退路，他们才会全心全意地跟从你。”

押沙龙听了这话，就在宫殿的平顶上支搭凉棚，在那里当着以色列众人，与亚希多弗密议。

亚希多弗又给押沙龙出了一个主意，对他说：“求你准许我挑选 12 000 人由我带领，趁他部下全都疲惫不堪之际，突然袭击他。我这就好杀了大卫王。百姓见老国王已死，自然都来归顺你，你就可以顺理成章地称王了。”

押沙龙虽然觉得亚希多弗的主意不错，但对这样大胆出奇制胜的方法，拿不定主意。他把户筛请来，向他问计，户筛听了亚希多弗的主意，暗暗为大卫捏一把汗，大卫身边的卫队不仅人数有限，而且连日奔波，早已心力疲惫，不堪一击。他故作吃惊地说：“殿下，亚希多弗的这个主意，可千万使不得呀。你也不想想，我们的对手是谁。大卫乃久经沙场的勇士。殿下以为你比他如何，亚希多弗比他如何。亚希多弗尽管人多势众，恐怕也不是对手。万

특집 지역언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선교지에서 언어는 전장터의 무기와 같다. 무기 없는 전장터의 군인을 상상해 보라. 완전히 완전 결렬, 실패했다. 사역지의 말을 구사할 수 없는 선교사의 처지가 어떠한지 짐작해 볼 수 있으리라. 그는 궁궐의 평顶上에 서서 그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은 싸움이 없는 수많은 날 동안도 생명과 같은 무기를 갈고 닦으며, 그 사용법을 익히고 또 익힌다. 아무리 소명이 투철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불타올라 급하다 할지라도 사역지의 언어를 준비하는 일은 결코 뒤로 미룰 가벼운 일이 아니다.

세상에 공짜밥은 없습니다.

(天下無免費的午餐)

민·한·식

... 成勢而向的計算精確等精微課題
 ... 研究主眼, 然而不幸, 知識面狹, 勇于研...
 ... 科學非空可學, 學本苦功, “電子和光”是量子化學
 ... 計算中起困難的問題之, 它的解決, 將會極大提高
 ... 科學的價值, 在嚴峻的“電子和光”研究中, 曾
 ... 受中由中國通信局電子和光組任了探察, 得到了其
 ... 科學研究方面更精微的課題。
 ... 幾年來, 曾從事
 ... 基本物理學, 研究光學, 非理學, 以成物地, 曾于製分
 ... 了電子和光學, 非及于中國科學工作者的最大委
 ... 任。
 ... 許多世界著名
 ... 從業教為, 用... 前研
 ... 究, 做出了巨大的貢獻。1978年, 他的研究題目“分
 ... 子軌道理論研究”在全國科學大會市大科技成果獎。
 ... 1982年, 他參加的集體科研成果“羧基物理研究”
 ... 獲全國自然科學一等獎。他的科研成果“量子化學
 ... 基礎理論”, “分子光學”, “電”和“量子化
 ... 學”獲了院地, 滿...
 ... 1987, 1993年
 ... 用備。從1946年開始, 都從業大學
 ... 系, 物理系, 武大能講授過无机化學,
 ... 化學論, 量子物理學, 其中有物理課程
 ... 化學論, 量子物理學, 无机化學, 物
 ... 理學, 在物理系中擔任過系西
 ... 在物理系中擔任過系西
 ... 完成業, 使學生的學業
 ... 有所提高, 每星期都有一
 ... 題自備。從1968年
 ... 了量子分子及應用力學力
 ... 師高, 不少大出書, 有考論教職,
 ... 為學術带头人, 和教學主任, 專
 ... 了系職。
 ... 華北載刊, 和自教育領導
 ... 副校長, 教授, 為山東大學的建
 ... 功勳。曾任山東大學工和學生
 ... 有入選, 和以黨委老
 ... 師, 九松華載, 非, 系
 ... 大和招, 師, ...

세상에 공짜밥은 없다

언젠가 책에서 읽은 이야기가 생각난다. 어느 임금이나 나라의 학자들을 모아 천하의 모든 지혜를 담은 책을 편찬할 것을 명하였다. 학자들은 20년의 시간을 들여 40권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의 지혜서를 완성했다. 그 책의 방대함에 놀란 임금은 책을 줄이라고 명령하였다. 학자들은 1년의 시간을 들여 총 3권으로 압축했다. 임금은 그래도 너무 많으니 다시 줄이라고 명령했고 학자들은 1권으로 내용을 요약했다. 그러나 임금은 “아직도 책이 너무 두꺼워 읽기가 어렵다. 다시 내용을 줄이라.”고 명령했다. 며칠 후 학자들은 종이 한 장을 들고 왔다. 임금님은 크게 만족하여 “과연, 이것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진리란다.”라며 학자들을 칭찬하였다. 종이 위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쓰여져 있었다.

“세상에 공짜밥은 없다(天下無免費的午餐).”

며칠 전 아내가 나에게 물어왔다.

“여보, 교회의 슈에루 자매 피아노 잘 친다고 생각해요?” “응, 잘 쳐. 왜?” “당신 알아요? 슈에루 자매가 피아노를 하루에 4시간씩 연습하는데요. 옛날에는 7시간씩 연습했구요.” 슈에루는 결혼 후에 피아노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연습을 한 자매다. 그녀는 음악과 출신은 아니었지만 교회에서 경배와 찬양 반주를 거의 도맡아 봉사하고 있다. 현재 그녀는 한 살짜리

와 세 살짜리 두 딸을 둔 엄마다. 매일 그들과 씨름하기에도 지칠텐데, 어떻게 하루에 4시간 이상씩 연습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아내로부터 그 말을 들은 나는 무척 놀랐으며 ‘세상에 공짜밥은 없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상기하였다.

중국어문선교회 측에서 나에게 “사역언어의 지름길”이란 제목의 원고를 부탁하였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사역언어 공부의 지름길을 나 자신도 아직 모른다. 아마 지름길이란 자체가 없을런지도 모른다. 더욱이 나는 아직까지도 내가 중국어로 사역을 잘한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없다. 다만 내가 중국어로 사역을 하기까지 걸어온 과정을 소개함으로써, 중국선교를 준비하는 여러 동역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책을 통해서 배운 중국어

나는 1980년 외대 중국어과에 입학하여 중국어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 1학년의 주요 교과서는 외대 노동선 교수님이 편집한 『中國語』라는 문법책으로, 나는 1년간 거의 매일이다시피 이 책을 갖고 외대 음향도서관(SOUND LIBRARY)의 녹음 테이프를 듣는 교실로 갔다. 정확한 중국어 성조와 발음을 익히기 위해 매일 한 두 시간 정도 테이프의 발음을 들으며 입안이 마르고 입이 얼얼해질 때까지 소리내어 책을 읽었다. 지금 생

각해 보면 이 과정이 참으로 중요한 과정임을 깨닫게 된다. 중국어 발음을 익히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정확한 문법의 기초를 익힌 것이 정확한 중국어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많은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와서 중국어를 배우고 있다. 그러나 대학시절 한국에서 정확한 문법을 배우며 공부한 선교사들이 대체로 중국어를 훨씬 잘하는 것을 발견하곤 한다. 물론 예외도 있다.

대학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국선교의 비전을 가진 후, 나는 주음부호(대만식 중국어 발음기호)가 달린 중국어 신약성경을 사서 음향도서관으로 달려가곤 했다. 요한복음부터 단어를 찾아 단어집을 만들면서 중국어 성경을 소리내어 많이 읽었다. 우스운 얘기지만 성경을 소리내어 읽을 때 침이 많이 튀겨 성경이 쪼글쪼글해 지는 것에 재미있어 일부러 침을 더 많이 튀겨가며 열심히 성경을 읽었다. 또 중국어로 된 네비게이트 60구절 성경암송카드를 구입해서 매일 중국어과 친구들과 체크를 하면서 암송을 해나가기도 했다.

1988년 타이완의 중화복음신학교에 입학한 후 본격적으로 중국어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 중국 교회에서 처음 중국어로 설교를 했을 때의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1991년 신학교를 졸업한 후 거의 매주 중국어로 설교를 해야 했는데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컴퓨터가 없어서, 한 글자 한 글자 종이 위에 써서 몇 번이고 수정한 후, 토요일 저녁에 완벽하게 외워 설교를 했다. 책으로 배우는 중국어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소리내어 읽고 외우는 것 외에도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다.

중국인으로부터 배우는 중국어

한국경제가 발전하면서 많은 중국어과 학생들이 휴학을 하고 타이완이나 중국대륙에 가서 반년이나 일 년 정도 언어연수를 하는 것을 흔하게 본다. 내가 대학 다닐 때도 몇몇 친구들이 방학을 이용하여 언어연수를 빙자(?)한 타이완여행을 가곤 했다.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나는, 중국사람을 만날 때면 놓치지 않고 중국어를 연습하곤 했다.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 되기 전 서울의 한 화교중

학교에 갔다. 거기서 얌전하게 생긴 학생 한 명을 붙잡아 중국어를 연습했다. 그의 집은 중국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었다. 나는 거기서 배달원 노릇까지 하며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중국어를 연습했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화교는 산둥성(山東省)발음인데다, 매일 배우는 말이 ‘짜장면 한 그릇’이니 ‘짬뽕 둘’ 등이어서 한두 주 있다가 포기하고 나왔다. 또한 나는 대학시절 남산으로 전도를 자주 나갔다. 거기서 중국인 관광객이라도 만나면 그를 붙들고 한 마디라도 중국어로 대화를 나누어 보려고 노력했다.

1988년 타이완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영국에서 온 선교사 한 분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그분이 해 준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다. 그는 선교사들이 타이완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문화충격을 받으면 곧바로 타이완을 비평한다고 말했다. 그 후 나는 이것을 현실로 많이 느낄 수 있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항상 중국 사람과 중국 문화를 비판하였다. “아이, 이 중국 X들은 어째서...”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중국을 비판하는 사람일수록 한국 사람하고만 어울려 다녀서, 정작 중국어를 배우 기회는 더 적다는 것이다. 나도 처음에는 중국 문화를 종종 비판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갈수록 한국과 중국 문화가 다른 것 뿐이지, 결코 중국 문화가 한국 문화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중국인에게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겸손히 그들의 문화를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중국인들의 장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잘 격려한다는 것이다. 내가 중국어를 한 마디만 해도, “야 중국어 참 잘한다. 중국사람 같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국 사람과 몇 번만 만나면 정말로 중국어를 잘하는 줄 착각을 해서 중국어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타이완에 와서 중국사람과 접촉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목회를 하면서도 기회만 있으면 교인들과 같이 야외로 나갔다. 그들이 내게 설명해 주는 중국 문화를 통해 문화와 관련된 중국어를 많이 익힐 수 있었다. 중국어를 익히는 방법 중 중국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이 과정을 결코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 한국에서도

특집/ 사역언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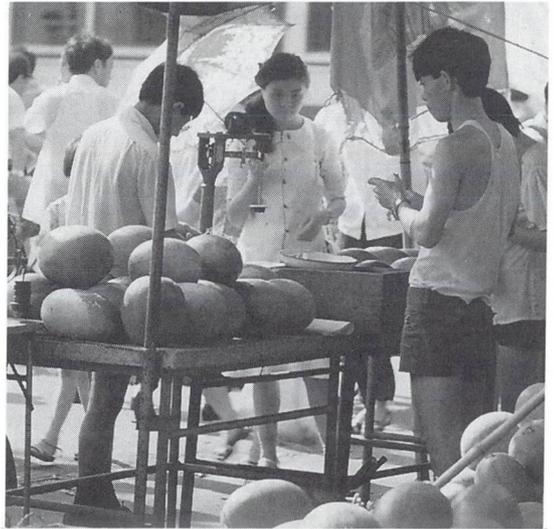
얼마든지 기회가 있으니, 중국인을 비판만 하지 말고, 그들과 접촉하는 기회를 될 수 있으면 많이 만들어 중국어를 배우라.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어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실수를 통해 배우는 중국어

타이완 현지에서 살다보면 여러 가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미국 선교사가 나에게 해준 이야기가 생각난다. 한 미국 선교사가 막 타이완에 도착해서 선배 선교사들과 함께 식당에 갔다. 초년 선교사는 한 마디라도 중국어를 배우려고 “THANK YOU(감사합니다)”가 중국어로 뭐냐고 고참 선교사에게 물었다. 고참 선교사는 태연스럽게 “처쑤(廁所: 화장실)”라고 알려주면서 외우라고 했다. 초년 선교사는 중국어를 연습하기 위해 음식을 가져온 웨이터에게 연실 “처쑤, 처쑤”라고 외쳐댔다. 웨이터는 화장실을 찾는 줄 알고 계속 손가락으로 화장실을 가리키면서 “저기, 저기”라고 했다고 한다. 이 신참 선교사는 식당을 나가면서도 “처쑤 처쑤”를 연발했다고 한다.

나 역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한번은 주일 설교 도중 앞서 인용했던 ‘세상에 공짜밥은 없습니까’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학자들이 20년의 세월을 거쳐 “대업을 완성했다.”라는 말을 하려고 했다. 중국어로 이 말은 ‘大功 告成(따푹까오칭)’이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大功(따푹)’이라는 말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뒤의 ‘告成(까오칭)’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는 것이었다. ‘따푹’을 큰소리로 외친 후 뒷말이 생각이 안 나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앞에 앉은 열심히는 몇몇 교인들이 작은 소리로 “까오칭 까오칭” 했다. 그러나 온 신경을 다 모아 귀를 기울였지만 입술의 말을 도저히 읽을 수 없었다. 예배가 끝난 뒤 나는 “다음부터는 내가 해야 할 말을 못하고 있으면 큰 소리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라고 농담을 하면서 교인들과 함께 웃었다.

최근까지도 이런 실수를 하고 있다. 한번은 설교 도중 “제가 제 정신이 아닙니다.”를 한국어의 표현 그대로 중국어로 번역해 “我不足我自己的精神”이라고 말했다.



중국인을 비판만 하지 말고 그들과 접촉하는 기회를 만들어 중국어를 배우라

예배가 끝난 후 한 교인이 “목사님 오늘 설교말씀 중 “我不足我自己的精神”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어는 그런 표현이 없고 그냥 “我沒有精神”이라고 간단히 하면 돼요”라고 친절히 알려 주었다. 이렇게 실수하면서 배운 중국어는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다. 외국인이 중국어를 배우는 데 실수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중국어를 말하다 보면 중국어의 진보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맺는 말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중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그리고 중국어를 사용하면서 선교를 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낀다. 설교준비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언어의 부족을 느껴 주님께 눈물로 간구하며 힘들어 할 때도 있었다. 지나온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나의 나 된 것은(오늘 내가 중국어로 사역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고전 15: 10)

민한식/ 대만 선교사



언어도 일종의 기능적인 습관이므로 언어 활용이 사역을 통하여 습관화 되지 않으면 어렵다

여 신청하면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92년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중국어를 공부하는 동안 화교교회에 출석했다. 기도회와 구역예배 및 성경공부에 참석하면서 중국 교회와 사역언어를 배웠다. 3년간의 대학과정을 1년에 마치고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껴 싱가포르신학원에서 1년 간 수학하면서 중국 교회의 신학적 체계와 역사를 깊이 배우게 되었다. 그러나 '수학'하는 것과 '사역'하는 것은 언어 학습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신학 수학 및 예배 참석을 통하여 많은 사역언어를 습득하긴 했으나 그것을 실제로 사역에 적용할 기회가 없으므로 활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많은 언어 습득(input)이 반드시 언어 활용(output)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언어도 일종의 기능적인 습관이므로 언어 활용이 사역을 통하여 습관화되지 않으면 특히 성인 언어학습자인 우리 선교사들은 사역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필자가 경험한 사역언어 학습의 노정

필자는 1991년 1월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사이판에 갔다. 중국에서 2~3년 계약 노동자로 나와 있는 중국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족(漢族)교회(현 싸이판 화인교회: 이만열 선교사님이 후임자로 계심)을 개척하였다. 그 당시에는 중국어를 전혀 못하였으나 사역의 절박성 때문에 독학하며 중국어를 습득하였다. 중국어 찬송을 가르치며 성경공부를 인도하다가 7개월 만에 약 200명 정도의 한족이 모인 곳에서 중국어로 설교를 하게 되었다. 그 때의 예배 모습을 담은 비디오를 보면 얼굴이 붉어질 만큼 엉터리여서 예배에 참석한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생각이 교차되기도 한다. 그러나 성령님께서서는 작은 자를 사용하시고, 형편 없는 중국어를 사용하셔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다. 그들이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석하면서 감사 감격하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

주님께서 언어 준비가 안 된 것을 핑계하는 나에게



고급언어로 사역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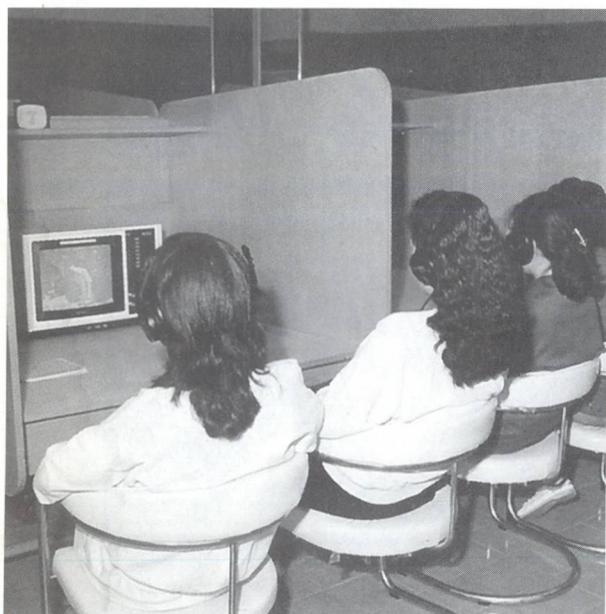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를 주시며 싸이판으로 보내셨다. 한 손에는 중국어 교본을, 다른 한 손에는 중국어 성경을 붙잡고 울면서 중국어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 달 만에 100명이 물려오는가 싶더니 두 달이 못돼 약 250명의 한족이 물려와 정신없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중국어 찬송가와 기본성경공부 교재를 사용하면서 사역언어의 기초를 잡게 되었다. 이 모든 사역언어를 스스로 익히면서 7개월 후에는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필자는 이런 경험을 통하여 사역언어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고 언어 훈련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다. 싱가포르에서 언어훈련 및 선교훈련을 받으면서도 최대의 관심은 사역언어 향상이었고, 사역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 정리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의 모든 기독교서점과 홍콩, 대만 등을 돌아다녔다(신학교 강의 테이프, 설교 및 성경 주해 테이프 400여 개, 강의 및 선교영화 테이프, 각종 단체의 성경공부 교재, 기타 서적 등). 특히 안식년을 맞아 영국의 노팅햄대학원에서 영어 교육학

을 공부하며 선교사의 관점에서 사역언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익힐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생각하였다. 그 후 베이징에서 어떻게하면 중국어 학습 방법을 사역언어 훈련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고급 중국어’를 공부하였고, 그 곳의 많은 동역자들의 언어훈련을 관찰하였다. 선교지를 떠나 사역언어를 위하여 만 5년간 6개의 대학과 대학원 및 선교훈련원에서 준비를 한 후 기본적인 장비 및 준비를 다 갖추고 제2기 사역을 다시 싸이판에서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고, 80명의 한족이 출석하는 중국인 교회를 개척하여 제자 훈련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다.

사역언어의 화석화(Fossilisation)를 경계하라.

초급 언어학습자일지라도 중국어로 얼마든지 사역이 가능하지만 여기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곧 언어의 화석화현상(Fossilisation)이다. 중국어는 성조언어이므로 성조를 익히고 발음을 완전히 익히기 전에, 교정하여 주는 조언자가 없는 상황에서 언어를 사용하면



동기는 성공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성공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릇된 발음과 언어구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될 위험이 있다. 소천하신 대만의 모 선교사님께서서는 10여년간 사역을 하셨지만 언어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여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정신 불안증세를 얻게 되어 불운하게도 선교지를 떠나시고야 말았다. 필자가 싱가포르에서 언어훈련을 마치고 선교사님을 방문하였을 때 중국어 「신생명」을 읽으시는데 중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중국어의 성조와 발음이 전혀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선교사님은 초창기 한국 선교사로서 언어 및 사역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개척자로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시다. 우리들은 이 선교사님의 값진 회생을 거울삼아 초기에 사역을 너무 서두르지 말고 언어의 기본 틀을 잡고 난 후 다시 말해 성조와 기본언어구조를 익힌 후에 사역을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언어 학습자는 언어발전과정에 있으나 그 언어는 ‘중간언어’의 상태에 있다. 이 ‘중간언어’는 목표언어와는 다른 형태로서 학습자 자신의 독특한 형태의 언어 구조

를 가지고 있다. 성공적인 언어 학습자는 이 중간언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더이상의 발전을 위한 기대감이나 목표, 혹은 동기가 없을 때 그 상태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이는 결과적으로 또다른 언어의 화석화를 초래하게 된다.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고급언어로 사역을 하고자 하는 목표와 이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수반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사역언어인 중국어도 중간언어의 화석화 상태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사역언어 향상을 위한 제언

성인이 새로운 언어를 완전히 익히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는 갈급한 영혼들 속에서 언어의 부족함을 핑계하며 사역을 미룬다면 기약이 없을 것이다. 중국어는 언어 구조적으로 볼 때 초급자도 자기의 수준에서 적은 어휘로 많은 표현을 쉽게 할 수 있는 매우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언어이다. 따라서 우리는 초급단계에서부터 얼마든지 중국어로 사역할 수 있다. 언어를 배우면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언어의 진보는 우리의 언어학적 이론을 초월하는 진보를 가져올 수 있다. 주님은 언어의 창조자이시며, 성령님은 선교언어의 주관자이시다. 뿐만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하여 작은 능력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선교사들에게 언어의 지혜와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다.

어느 언어학자는 “동기는 성공의 원인이기보다 성공의 결과이기도 하다”고 하였다. 이는 언어 학습자가 언어 활용을 성공적으로 잘하였을 때 받는 고무적인 자신감으로 인하여 다음 학습단계를 보다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이것은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이다. 우리가 배운 말로 복음 전달의 커뮤니케이션에 성공하였을 때 우리는 사역자로서 큰 기쁨을 얻게 될 뿐 아니라 한 차원 높은 사역언어를 위한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사역 중국어는 일반 중국어와 그 어휘와 구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익힐 수

특집/ 사역언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을 다 배우고 난 후에 사역을 시작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필자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사역을 하면서 그동안 배웠던 모든 언어들을 정리하며 익힐 수 있었고, 사역을 하기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전반적인 언어의 진보를 이루었다. 따라서 실제 사역은 사역언어를 습득 발전시키는 최상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앞으로도 사역언어는 사역을 통하여 발전시켜나갈 계획을 세웠다.

우리가 어느 정도 언어를 학습하면서 이미 체득한 언어의 도구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은 선교사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 따라서 언어발전의 중요 요소인 언어 활용 측면의 분명한 동기와 목적이 있는 셈이다. 이제 우리가 전한 기초(?)복음으로 불신 중국인이 복음에 큰 관심을 갖거나 그 이상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가정해 보자(이런 일은 특히 중국선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는 다음 단계로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을 해야 하며, 이와 함께 중국어로 기도를 해야 하며, 또한 찬송가도 가르치고 함께 불러야 한다. 이같은 내용은 만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므로 반복적인 언어 활용노력은 엄청난 언어발전을 가져다 주었다.

찬송가에는 복음 내용이 담긴 가사가 많으면 찬송을 통하여 상당한 사역언어를 익힐 수가 있다. 필자는 초기 사역시에 찬송가를 통하여 많은 어휘와 문장을 자연스럽게 습득하였고, 이는 설교에도 많은 유익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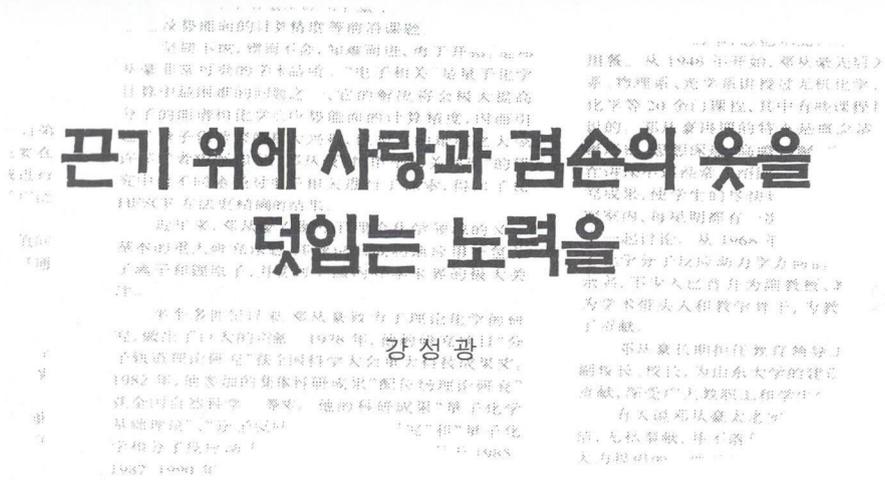
기도는 특별한 어휘 즉, 사역동사를 이용한 간구적 표현과 하나님의 속성 및 사역을 나타내는 동사 및 구문 등을 익혀야 하는데, 테이프나 기도집을 통하여 학습할 수 있다. 성경공부는 사역의 핵심이라 할 만큼 중요하다.

필자는 현재 성경공부를 인도하면서 사역언어에 많은 진보를 이루고 있다. 교재를 새로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기존의 교재를 사용해도 중국식 어휘 및 언어구조를 익힐 수 있다. 초기 사역자에게 있어서 문답식 성경공부 교재는 언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데 거의 장애를 못느낄 만큼 쉽게 이끌어갈 수 있다. 네비게이트 교재일 경우에 주제에 관하여 가장

쉬운 자신의 말로 설명한 후에 교재에 있는 주제의 해설을 피교육자에게 읽도록 한다. 이 때 새롭게 강조할 부분이 있으면 책에 있는 어휘와 문장을 이용하여 자기 말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하여 피교육자가 그 내용을 숙지하도록 한다. 이 때 교육자 자신도 자연스럽게 그 내용의 언어를 익히게 된다. 주제별로 문제에 따라 성경을 찾고 답을 기록할 때에는 먼저 본인이 문제를 읽거나 피교육자에게 문제를 읽도록 하고, 이 때 교육자는 발음을 유의하여 듣는다. 성경구절을 함께 찾은 후에는 피교육자에게 그 답을 요구하기 전에 그 성경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교육자 자신의 말로 다른 성경의 내용이나 자신의 경험 등으로 쉽게 풀어주므로 주제별 성경찾기식 성경공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용을 보다 풍성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역자로서는 표현 능력을 배양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 설명을 마친 후에 피교육자에게 답을 말하도록 한다. 이렇게 성경공부를 인도하면 성경공부 인도에 따르는 언어적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재미있게 성경공부를 해나갈 수 있고, 진도가 나가면서 사역자의 언어가 많이 진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역은 사역언어 향상의 첩경임을 필자는 날마다 경험한다.

OHP를 사용하여 성경공부를 하면 심도 깊은 주제를 매우 쉽게 강의할 수 있다. 주제를 OHP필름으로 복사한 후 그 주제에 대하여 자신의 말로 쉽게 한 문단 설명하고 난 후, 그 해당부분의 내용을 피교육자로 하여금 읽게 한다. 이같이 피교육자로 하여금 학습할 내용을 직접 읽게 함으로써 사역 언어의 부족으로 오는 내용전달의 거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역을 통하여 상당한 언어의 진보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사역을 통하여 사역자가 탄생하는 것이다. 우리가 설령 언어 부족으로 가르칠 수 없다고 해도 그들에게 읽도록 할 수는 있지 않은가. 물 속에 들어가야 제대로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부족할지라도 사역을 시작하여야 언어는 진보한다. 지면관계상 설교를 위한 언어 훈련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다루었으면 한다.

강대위/장로교 총회 선교사(합동), 사이판 중국교회 개척 사역 중



끈기 위에 사랑과 겸손의 웃을
덧입는 노력을

강정광

가장 보편적인 개념은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타문화, 즉 문화의 가장 핵심적 요소는 '언어'라고 한다. 숙달된 말로써 현지인에게 접근하기 전에 언어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수단과 도구로서 대표적인 매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현지어의 정확하고 빠른 습득은 선교사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너무 조금해서도 안 되고, 너무 태만해서도 안된다.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끈기를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사실 나 역시 이런 글을 쓸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니다. 학교에서 전공한 것까지 합하면 만 10년이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중국어 실력은 여전히 외국인 이 중국어를 구사하는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표준어(북경어) 외의 다른 한 중국 방언(지방어)을 배우고 사용하는 영향도 있겠지만 여전히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아직도 배우는 과정이지만 내가 지금까지 중국어를 습득해오는 과정 가운데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과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중국어를 극복하는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

중국어든 빨리 배우 수 있는 비결

중국어든 빨리 배우 수 있는 첫 비결은 '최대한의 흥미를 유발시키라'는 것이다. 전에 서울에서 입시 공부할 때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영어(회화)를 상당히 잘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 비결을 물어 보았더니 그는 아주 싱겁고 간단한 대답을 해주었다. 배우는 언어에 재미를 붙이면 된다는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외국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그보다 더 효과적인 비결을 듣거나 발견한 적이 없다.

오락 게임이나 바둑, 장기 등에 빠진 사람은 그 재미로 인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심지어는 밤을 새면서 몰두하게 된다. 만약 자기가 배우는 언어(중국어)에 이런 재미를 가질 수 있다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어떻게하면 최대한 흥미를 유발할지를 연구하여 재미있고 신나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일정기간 집중적인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 일차적으로 강한 흥미가 유발되었다면 거기에 몰입되고 집착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최소한 2년에서 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도 실제로 집중적으로 중국어를 배웠던 시간은 2년 남짓한 기간이었다. 대학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의



극동방송의 중국어방송을 매일 듣는 것도 사역언어에 도움을 준다.

사역 용어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사역 용어를 어떻게 따로 배워야 할지 어떻게 하면 신학적인 용어들을 잘 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이 물어온다.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사역 용어를 배우려고 특별히 신경을 쓰거나 어떤 과정을 공부한 적은 없다.

우선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중국어를 논리적으로 잘 구사할 수 있으면 사역에 관한 용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어느 사역자(선교사)도

기간으로 학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매일 최소한 3~4시간을 중국어 회화 공부를 재미있게 했다. 그래서 그 당시 나의 중국어 실력은 억지로나마 중국어 설교 통역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그 이후 중국어 학습에 별도로 신경을 쓰지 못하고 사역만을 조금씩 진보시켜 나가면서 또다른 지방어(중국 방언)를 배우는 데 신경을 쓰다보니 표준 중국어가 오히려 발음이나 구사면에서 나쁜 영향을 받기도 했다.

중장기적으로 언어를 계속 진보시켜 나가려면 의식적으로 신경을 써서 언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나는 이 단계에서 소홀히 했다. 그래서 중국어를 시작한 기간에 비해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 것 같다.

성격적인 탓도 있는 것 같다. 꼼꼼히 따지는 스타일이 아니고 쉽게 빨리 말하는 성격이다 보니 초기 단계에서는 빨리 도달한 편인데, 중국어 자체가 우리말 구조보다 간단 명료하면서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언어인지라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많은 수준 차이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깊은 문법 구조의 자연스런 표현, 적절한 단어 표현, 세련된 구사 능력이 계속적으로 체고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면에서 신경을 쓰며 노력하고 있다.

중국인처럼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나 사역자가 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가 정말로 중국인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중국어를 배우는 선교사라면 중국어 성경을 꾸준히 볼 것이고, 그 언어 수준에 맞는 개인 진도부터 조금씩 성경적, 신앙적 용어들을 구사하는 것을 배워 나가기 때문에 갑자기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생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한국에서 중국어를 배울 때 듣기 연습으로 아세아, 극동방송의 중국어 복음방송을 1~2년 동안 하루에 한 시간 정도씩은 거의 매일 들었다. 방송 사이클이 잘 맞지 않아 잠음이 많았지만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기도할 때는 같이 무릎꿇고 방송 기도도에 따라 기도하기도 했다. 그리고 은혜스런 설교가 나오면 녹음해서 반복하여 듣기도 했다. 아마 이것이 중국어뿐만 아니라 사역 용어를 습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사실 듣기 연습하기에는 TV보다는 라디오나 녹음 테이프를 듣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중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단파 라디오만 있으면 복음방송(주로 저녁 시간)을 많이 들을 수 있다. 중국에서 공부하는 것은 중국 교회 상황을 이해하면서 언어 진보도 이루고, 사역 용어를 습득하며 영적 공급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겸손한 태도가 성숙하고 높은 언어수준에 도달하게 하는 비결이다(사진은 베이징의 주쓰코우 교회).

그 다음은 여러 중국어로 된 교재, 그리고 신앙 서적, 신학 서적을 가르치는 등 사역의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읽고 사용하게 되면 사역 용어들을 습득할 수 있다.

언어는 사랑과 겸손함으로 배워야

나는 아직까지 표현, 발음,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배우는 상태이다. 기도도 설교하는 것보다 어려운 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는 그 표현이 썩 매끄럽지 못하고 유창하지 못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다.

선교사의 언어 구사 능력은 그 선교사의 인격 성숙과 겸손함의 척도와 같이 진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로 나는 나의 중국어 실력의 부족함에 감사함을 느끼기도 한다. 나의 이런 약점은 나의 교만의 본능을 억누르는 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보통 선교사는 여러 면에서 현지인보다 우월한 여건을 갖추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 교만하여 그들을 섬겨야 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그들의 선생과 주인이라는 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다. 평생토록 현지인보다 못한 언어로 인하여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 없다. 이 말은 부족한 현지어(중국어 수준)에 자족하라는 뜻이 아니라 언어를 잘 할수록 겸손과 진실의 성숙한 인격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할 때 더 높은 수준의 현지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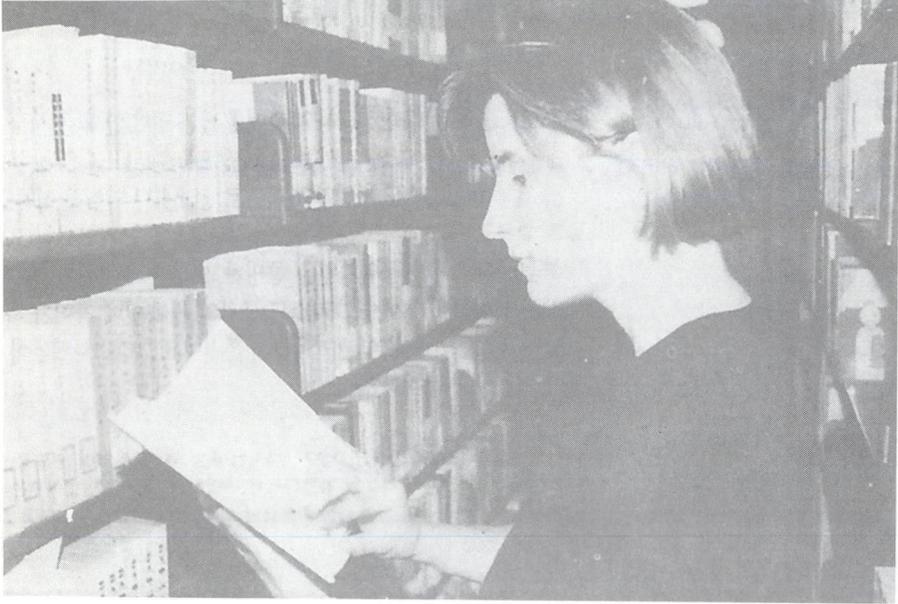
현지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만 그 언어에 사랑과 진실, 겸손의 농도가 진하지 못한다면 실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최소한 언어에서 만큼은 현지인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저의 영원한 스승입니다'라는 겸손함으로 다가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태도가 성숙하고 높은 언어수준에 도달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다.

나는 강의할 때 가끔 중국인 형제나 자매로부터 발음이나 표현 지적을 받는다. 그 때마다 무시하지 않고 지적해 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강의를 계속하곤 한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발달된 문명과 문화를 담고 있는 중국어를 배우면서 그 언어로 또한 중국인을 섬길 수 있게 된 자부심을 가지고 5천년 동안 발달되고 완성된 중국어를 배우는 데 내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틀림없이 충성되고 유능한 중국 선교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강성광/ 중국 선교사, 본지 편집위원



중국어 성경책을 많이 읽으면 성경에 나오는 어휘를 익힐 수 있다

필자: 대부분 선생님과 개인지도를 할 때 선생님이 내 준 숙제를 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김 선생님은 오히려 반대로 하셨군요. 말하자면 김 선생님의 결점을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을 잘 활용하는 것이 큰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선생님, 들어오신 지 5년 다 되어 가시죠? 처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훈련받으셨는지요? 그리고 언어실력이 한 단계 뛰어 올랐다고 생각되는 때가 있으신지요?

李 선생: 한국에서 들어 올 때 베이징(北京) 모 학원의 입학 통지서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비록 중문과를 졸업했지만 중국어를 손에서 놓은 지가 7년 정도 되다보니 말을 거의 못했습니다. 게다가 잘못된 성조가 제 입에 굳어 있어서 더욱 힘들었죠. 하지만 작문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었기에 그 학교에 등록하면서 치룬 필기 시험 결과 중급반에 배정되었습니다. 15명 정도의 외국 학생들과 함께 배우는데, 그들은 이미 중국에 온 지 1, 2년 되었으므로 제법 말을 잘 했습니다. 저는 남들

이 웃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틀린 발음으로 발표했습니다. 선생님이 질문하실 때, 다른 사람을 시켰는데도 대답하지 않으면 무조건 제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맞는 게 거의 드물었죠. 좌우지간 얼굴에 첩판을 깔고 공부했습니다. 나이도 저보다 더 어린 학생들 앞에서 어떤 때는 쑥스럽기도 했지만 상관하지 않았습니니다. 수업 후에는 담임 선생님을 기숙사로 오시게 해서 개인지도를 받았습니다. 잘 되지 않는 발음을 반복해서 소리내서 읽으며 교정해 나갔습니다. 3개월 지나서 중간고사를 봤는데 제법 좋은 성적을 얻었죠. 언어훈련을 5개월 정도 받은 뒤, 여러 친구들의 권고가 있어서 모대학 석사 과정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진수(進修)반에 들어 갔습니다. 3개월 동안 네 분의 교수님들로부터 정치, 경제, 역사 등 8과목을 들었습니다. 오전에 4시간 수업을 들을 때 수업 내용을 모두 녹음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제 아내가 그 테이프를 풀면 저는 그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그 당시 아내는 보통 저녁 2, 3시에 잠을 잤고 저는 새벽에 일어났었죠. 놀라운 것은 이 과정이

끝나고 저희들이 그 내용들을 거의 암기할 정도가 됐을 때, 잘 들리지 않던 뉴스가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경제, 역사용어를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필자: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셨군요. 그런데 어떤 언어를 배울 때 그 언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언어를 이미 배웠지만 틀린 자기발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보다 배우기가 훨씬 쉽다고들 하는데 어떠셨는지요? 그리고 지금은 극복이 되셨는지요?

李 선생: 무척 힘들었죠. 제 성조가 따로 있었으니까요. 그 때 많이 교정했는데 완전히 교정하지 못하고 학위 코스로 들어 갔기 때문에 지금도 틀린 성조가 가끔 튀어 나오죠. 기초 과정에서 확실하게 발음을 익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자: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는 박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보시죠?

초등학교 수준의 어휘라도 철저히 다져야

朴 선생: 중문과를 졸업하고 중국어를 손에서 계속 놓지 않았던 저에게도 북경어는 굉장히 낯설게 들렸고 권설음이 잘 되지 않는 발음으로 말을 하니 금방 외국인이라는 것이 표시가 났었습니다. 베이징 모 학원에서 중급반에 들어가서 몇 개월 공부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살살이 찾았습니다. 어림없하게 아는 단어는 반복해서 찾았습니다.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외웠습니다. 학교 언어과정에서 배우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표준말(보통화)로 녹음이 된 비디오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학생과 같이 보면서 그 영화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을 적도록 했습니다. 저녁에 저는 그 단어들을 사전을 찾으면서 정리했고, 그 다음날 또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학생이 기록하지 않은 말들도 들리기 시작해서 물어가면서 어휘 정리를 해갔습니다. 똑 같은 영화를 반복해서 보는 것도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구입해서 읽고 외웠습니다. 일반 언어 코스에서 놓치기 쉬운

어휘들이 많이 나와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金 선생: 박 선생님 의견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중국어 단어 암기를 학기가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계속적으로 시켜서 한 학기를 마칠 때는 모든 학생들이 국어책을 다 외울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우리는 대부분 유치원 수준도 안 되고 상용하는 어휘를 알지 못하면서도 중급회화 과정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어딘가 잘못된 거죠. 초급이다, 중급이다 하고 과정을 밟아가지만, 수많은 상황이 있는데, 책에 소개된 내용은 겨우 30여 개 상황에 불과합니다. 그 과정을 공부했다 해서 중급이 되고 고급과정이 됐다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과 대화가 가능할 때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중국 아이들과 같이 있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엄청난 시간이죠.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처럼 그렇게 많은 시간을 중국 사람들과 보내질 못하죠. 말하자면 중국인들과 삶을 많이 나눌수록 보다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李 선생: 역시 말은 책상 위에서만 다 배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과 같이 놀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인생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생각과 소망, 문화, 습관, 언어를 습득함과 아울러 체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정말 좋은 친구가 되면 교육비 없이도 중국어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자: 강 선생님은 중국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중국어를 배운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래된 선배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중국어를 잘 배우셨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언젠가 중국 삼자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배 후 설교 내용을 이야기 하시는데 거의 다 알아 들으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발음도 꽤 정확하신데 어떻게 배우셨죠?

姜 선생: 과찬의 말씀입니다. 전 한국에서 중국어를 전공한 것도 배운것도 아닙니다. 단지 처음 중국어

를 배울 때 이름난 언어학교에서 언어 훈련을 받지는 않았지만, 개인지도는 돈을 투자해서 이름난 언어학교의 경력있는 선생님을 모시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읽으시면 따라서 읽었습니다. 기초과정에서 좀 확실하게 발음을 익혔다고 생각됩니다. 목표를 한어수평고사에 두고 열심히 6개월 동안 회화테이프를 듣고 단어를 외었습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니까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잘되어 시험도 중급 수준으로 합격한 결과로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 회화와 문법이 시험을 통해서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는 거리에서 많은 중국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심한 사투리를 쓰는 농촌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제법 잘 알아 들켰더군요.

필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나름대로 각자의 수준에 맞게 언어훈련을 받으신 것 같군요. 자, 이번에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사역에 들어가실 때 사역용어를 어떻게 습득하셨는지, 혹은 아직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중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역자들에게 당면한 문제이며 또 많은 분들이 이를 위해서 타이완이나 싱가포르로 가야 되지 않는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국의 동역자들과 결손히 교제하는 가운데 배울 수 있어

차 선생: 저의 경험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자 교회에 다니면서 먼저 배워야 할 것들을 제 스스로 정했습니다. 중국 형제자매들과 한 목소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기도문, 시편낭독, 찬송가, 성경을 증점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중국어로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시편을 계속 공부했더니 기도가 들리고, 또 기도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찬송가도 악보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에 문외한인 저로서는 곡을 구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중국찬송가와 한국찬송가를 비교하면서 어려운 중국어 단어들도 찾아서 정리하였습니다. 중국어성경을 볼 때 다른 역본들과 비교해 가면

서 어휘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역을 위해서 번역을 하려고 하니가 성경용어 사용에 어려움을 느껴 집에 있는 중국어로 된 모든 신학책들을 보았습니다. 그 책들을 보면서 번역할 때 필요한 용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아주 더디고 시간이 많이 걸린 작업이었습니다. 중국어 성경을 계속 보니까 성경에 나온 어휘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면서 만난 중국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기도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들에게 기도문을 써오라고 부탁도 하고 제가 잠자기 전에 중국말로 기도하기도 하고 외운 말씀을 응용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성숙된 중국 형제자매들을 여러 사람 만나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성경 용어를 익히기 위해서 꼭 모든 한국 사역자들이 타이완이나 싱가포르에 가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기쁨을 밖에서는 배워올 수 없고 중국인들은 쉽게 마음문을 열지 않으므로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삶의 나눔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가서 배우고 오면 빨리 배울 수는 있지만 들어와서 다시 중국에 적응하려면 이중적인 시간이 투자된다고 생각합니다.

李 선생: 저는 중국에 온 지 반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중국 모 대학생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발음과 문법이 정확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보니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러던 차 어떤 모임에서 성경공부 교재를 얻었고 그 저자가 누구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 교재를 그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교재의 의도를 파악하고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소개받기 위해 그 저자에게 부탁했더니 잘 훈련된 중국 형제를 파견해 주셨습니다. 그 형제에게 중국어로 된 성경공부 교재를 며칠에 걸쳐서 강의하게 했고 그것을 녹음하여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대학생들과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읽고 내용을 발표하는 방법으로 하니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서툴렀지만 그 때 그들과의 공부 가장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1년 쯤 지나서 제가 제법 중국말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그 형제들이 웃으면서

특집/ 사역언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더군요. “형! 작년에는 형이 2~30분 이야기 하면 10분 정도는 귀를 세우고 들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머리가 너무 아팠는데(문법이 잘 맞지 않고 성조도 틀리니까), 이제 형이 철학가 같다. 야, 정말 놀랍게 진전한 거예요.” 저희 집에서 밥을 먹고 여행도 같이 가면서 1년 동안 그리스도인의 삶을 익힌 그들이 지금 졸업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각자 자기 지방에서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고 있고 삶의 모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대학생들과 1년쯤 공부한 후에 하나님께서 중국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과 몇 권의 신학교재를 같이 읽어 가면서 중점을 나누고, 서로 설명해 가면서 공부했습니다. 교재 선택은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책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교회에 참석해 보면 설교본문이 거의 신약이고, 신도들이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도 구약은 까맣고 신약은 하얗기 때문이에요. 교재를 보면서 그 안에 나오는 어휘를 이용하여 서로 설명하니까 설명해 성조가 좀 틀려도 다 알아 들었습니다. 지금은 성경을 같이 공부하는데, 한 권씩 때는 데 훈련이 잘 안 된 거나 그들에게 아주 좋은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중국 안에 신학교도 있고, 신학생도 있기 때문에(물론 그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관계를 잘 맺으면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서 얼마든지 성경용어를 그들과 함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자: 대륙의 중국어는 굉장히 간결하고 논리적이고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타이완이나 싱가포르에서 번역된 교재들은 원문 자체의 내용이 어려울수록 번역 또한 복잡문이 많은데, 중국 형제들의 이해도가 어떻습니까?

사역자가 이해 못할 어려운 교재는 피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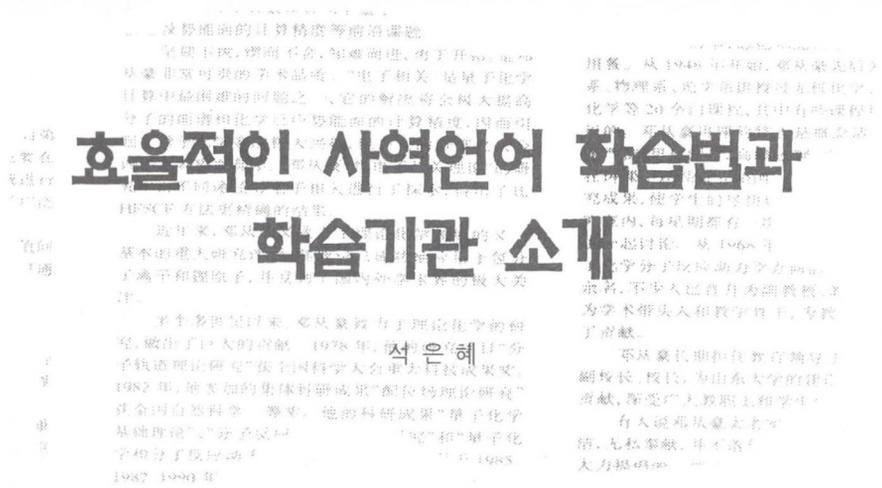
李 선생: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어떤 중국형제들은 그 문장 안에 들어가서 나오질 못합니다. 신학내용도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중국어 자체도 어려울 수가 있죠. 그럴 때에는 한국어로 번역된 교재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제가 중점적인 단어와 문장을 체크해 주기도 합니다. 처음에 교재를 택할 때 내용이 쉬운 것부터, 본인이 잘 숙달하고 있는 것부터 해야지 사역자 자신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으로 하면 서로가 힘들죠.

蔡 선생: 전 3년 정도 언어를 배웠는데 나이가 들어서 쉽게 늘지 않았어요. 특히 발음이 어려웠고 성조도 잘 읽혀지지 않았죠. 학교 수업은 빠지지 않고 들었고 개인지도도 받았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나 똑같은 고민이 있듯이 저 역시 사역을 해야 하는데 마땅하게 배울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르쳤던 형제 자매들과 제가 쓸 교재를 조금씩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어로 기도하고 중국어 성경을 보고 성경용어를 배우는 것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중국어 성경공부를 한다고 하여 같이 공부하면서 기도와 중국 찬송가와 성경 등을 같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비록 베이징에서는 표준어가 서툰 사람 중에 속하지만, 시골에 가면 중국 농촌사람들 중 대다수가 나보다 더 못하니까 차라리 마음이 편하더군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니까 대강 다 알아듣고 열심히 기록하더군요. 일단 제가 가르치는 내용이 제 자신이 10년 동안 가르쳐온 숙련된 내용들이었기에 크게 어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분야! 우리 모든 한국 사역자들이 다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학생 사역만 해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의 은사대로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자: 저희들의 언어훈련과 사역적 훈련에는 한 가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닌 것 같군요. 먼저 중국의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저희 각자가 받은 바 은사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능력을 공급받고, 중국어 성경과 씨름하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들을 보내시고, 또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리라 믿습니다. 선생님들 올해에도 승리하시길 빕니다.

지인성/ 중국 선교사, 본지 편집위원



효율적인 사역언어 학습법과 학습기관 소개

석은혜

정확한 성조로 문장을 외워야

중국어어 어떻게 하면 빨리 그리고 잘 배울 수 있을까? 이것이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다. 게다가 사역에 필요한 성경 용어까지 익히기까지는 요원하기만 한데 마음은 급하다. 그렇다면 이 언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발음을 익히고, 다음에 문법을 파악하며, 그런 후에 단어를 하나하나씩 암기해 나간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결과 눈으로 문장을 보고 해석할 수는 있지만 입을 떼어 말하는 데는 이 방법이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영어교육을 받으면서 이미 경험했다.

중국어어 빨리 그리고 잘 배우려면 문장을 많이 외우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자기가 암기한 예문을 보지 않고도 입에서 술술 나오게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외우고 또 외워서 입에서 저절로 나오도록 반복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한자 문화권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다른 외국어에 비해 중국어는 비교적 공부하기가 쉬운 편이다. 그러나 어순이 한국어와 다르므로 한국인이 중국어어를 잘 하기 위해서는 더욱 외울 필요가 있다. 외우지 않고 동사가 어떻게, 목적어가 어떻게 하면서 문법만 따지다 보면 오히려 엉터리 중국어어를 만들 뿐이다.

처음 중국어어를 배울 때 발음과 기초문법을 배운 다음 무조건 중국어 문장을 외우는 것이 중국어어를 잘 하는 지름길이다. 이런 방법으로 2년 동안 배우는 것이 외우지 않고 4년 동안 배우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외국어로 구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 그 언어로 사고하는 것이다. 외우지 않고 배우는 것은 자신의 모국어로 사고한 후 이를 번역해서 표현하는 방법이다. 외우며 배우는 것은 직접 그 언어로 사고할 줄 아는 방법이다. 또한 중국어어를 외우지 않고 배운 사람은 우선 중국말을 알아듣기가 어렵고 중국어어 문장을 쓰면 한국식이 되기 일쑤다.

중국어어를 배울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어어에는 성조라고 하는 각기 다른 네 개의 억양이 있어 한 자 한 자 정해진 성조대로 읽지 않으면 말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많은 단어를 알고 중국어어 문장을 많이 외웠다 하더라도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 또 혹 남을 가르치는 입장이 될 때 발음이 나쁘면 실력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또한 중국어어를 배울 때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속된 말로 “얼굴 가죽이 두터워야 한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배운 말을 용감하게 사용할 수 있어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야 한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자기 머리로 생각해낸 한국식 중국어가 아닌 정확한 표현을 외워서 써야 한다는 것이다. 잘못된 표현을 한번 두번 쓰다보면 버릇이 되어 고치기가 어렵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역 중국어도 공부하면 된다. 먼저 중국어 성경을 많이 읽고, 중요 성경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중국어 기도문을 암송하다보면 사역 언어를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사역 중국어를 공부할 때 성경의 인명, 지명 암기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떤 선교사들은 중국에 나가서 중국어를 배우면 더 빠르게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준비없이 나간다. 물론 그 방법도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국에서 기본적인 사역언어를 배우고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준비없이 중국에 가서 막상 일반회화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사역을 시작하다보면 사역언어를 사용하는데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어떤 선교사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역 중에 돌아오거나 혹은 안식년을 이용

해 대만이나 싱가포르에 가서 다시 신학공부를 하기도 한다.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국내나 혹은 대만, 싱가포르 등지에서 사역언어를 준비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 사역 중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기관을 국내, 대만, 싱가포르 순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자 한다면 『중국을 주께로』 96.7/8월호를 참고할 수 있다.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1992년 9월,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이 시작되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상황을 알고 충분히 준비한다면 실제로 선교지에서 겪을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사역의 효율을 배가시킬 수 있다. 중국선교훈련원은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지난 6년 동안 80여 명의 훈련생을 배출하였고, 현재 제12기 훈련생 11명이 훈련받고 있다.

전체 훈련기간은 6개월이지만 강(強)훈련이라고 할

특집/ 사역언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일반대학 중문과 3학년 수준 정도까지 강의가 이루어진다. 어찌면 이것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기초 단계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언어를 전혀 배우지 않고 현지에 파송된 사역자들이 언어연수를 위해 1년 이상 소비하는 시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전체적인 훈련은 3학기로 나뉘어지는데, 선교중국어 학습을 집중으로 하는 국내에서의 15주간(1, 2학기) 훈련이 끝나면, 9주간의 현지적용 훈련으로 들어간다. 현지의 대학과 연결하여 언어연수를 함과 동시에 중국의 문화, 생활감각을 익히는 것이다. 1학기에는 중국어 초급을, 2학기에는 초급과정을 반복하면서 본격적인 선교 중국어를 배우게 된다. 2학기에 진행되는 청력(聽力) 훈련은 훈련생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과목이다. 현지에서 이뤄지는 3학기 수업은 주로 회화와 청력훈련에 초점을 맞춘다. 이 때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국어로만 진행되는 수업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여기에서, 만약 이러한 훈련 없이 무작정 선교사로 현지에 파송될 경우, 언어를 통해 받는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시행착오가 얼마나 심할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선교훈련원>은 이러한 현지에서의 훈련을 통해 훈련생들이 어려움을 함께 풀며 서로를 세워주고 동시에, 자신의 영성을 키울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효과를 거둔다.

매주 수요일 오전과 금요일 오후에는 중국학, 중국선교 전문가들의 특강을 통해 중국문화와 중국선교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강사진은 현직 중문과 교수 및 선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알기 위한 정치, 사회, 역사, 문화, 사상뿐 아니라 중국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 교회사, 종교정책, 선교방법론 등 다양한 주제별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현지에서 잠시 귀국한 선교사들을 초청, 현장사역의 생생한 경험을 나누기도 한다.

중국선교훈련원은 1년에 두 차례(1월과 6월) 훈련생을 모집하며, 매기마다 10여 명으로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 교회나 교단 선교부 및 선교단체가 위탁하는 장·단기 선교사, 중국선교에 부름받은 예비선교사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소정의 양식과 서약서, 추천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여 접수한 후 면접을 한다. 특별한 면접 기준이 있다면, 6개월 동안의 훈련에 우선 순위를 두고 최선을 다해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자세한 것을 알기 원하는 사람은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전화: 535-4255, 594-80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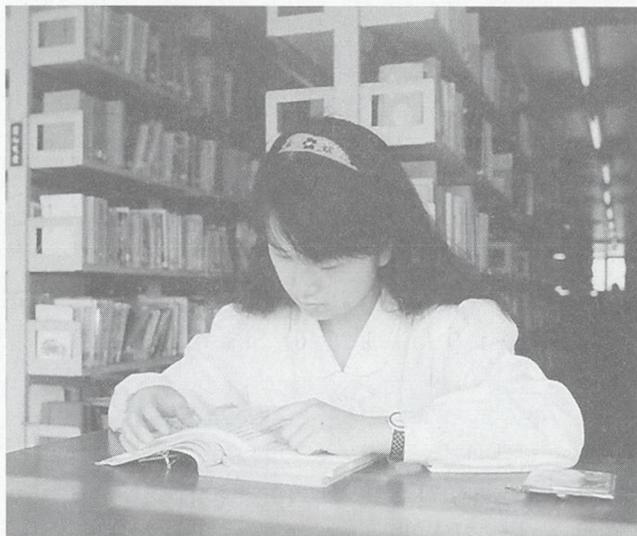
중국복음선교회 부설 중국선교사훈련원

1995년 신설된 중국선교사훈련원은 매년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간 신입생을 모집하며, 논술과 면접을 거쳐 입학할 수 있다. 중국선교에 소명이 확실하여 중국선교 사역에 평생 헌신할 자로서, 일반대학 또는 신학대학 졸업자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특정 업무에 4년 이상 근무한 자는 이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훈련원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홍콩의 <중국선교신학원(China Mission Seminary)>이 인정하는 인준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훈련원의 전임교수와 전문과목 담당교수들은 홍콩과 대만의 중국선교 단체와 신학교를 이끌고 있는 교계 지도자들,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테면 홍콩 중국복음선교회(CMI) 국제총재인 조나단 차오 목사, 대만 도생신학원 원장인 천레이 목사 등이 학기 중 특별 강의를 한다.

훈련원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성적우수, 근로, 생활, 애화 장학금 등 네 종류의 장학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지도교수 체제를 적용하여 담당교수와 정기적인 면담과 토론, 매주 수요일 채플, 목요일 기도모임, 금요일 찬양간증집회 등을 다채롭게 진행하고 있다. 학기마다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해 각 과목당 10명 이내의 청강생 제도를 실시하여 중국선교 관심자들과 각 선교단체의 기존 사역자들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현지에서 진행되는 사역 실습이 필수 교과목으로 이수하게 되어 있어서, 2년의 훈련기간 중 4회에 걸쳐 중국 현지에서 실습을 하게 된다. 언어 실습과 더불어 특수현장에 들어가 여러 계층의 중국인들을 만나는 일정기간 동안의 사역실습을 통해, 훈련생들은 중국인들



중국어를 잘 배우려면 문장을 많이 외우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과 똑같이 생활하게 된다. 국내에서 배울 때와는 달리, 막상 중국인의 생활과 환경 자체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느끼고 돌아온다. 그래서 다시금 중국인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수업에 임하면서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훈련원에서는 졸업생들이 선교지를 선정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중국복음선교회가 운영하는 도서관은 중국선교 사역학, 일반선교학, 중국선교 및 선교학 도서와 논문, 정기간행물 등을 갖춘 국내 유일의 중국선교 전문 도서관이다. 훈련생들을 위한 학습의 공간이 될 뿐 아니라, 도서와 자료 대출도 가능해 훈련생들의 학업 및 일반인들의 연구와 자료조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중국선교훈련원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전화로 연락할 수 있다(전화: 318-3956).

도생신학원(道生神學院, Tao Sheng Theological Seminary)

도생신학원은 중국복음화, 중국 교회의 하나님 나라화, 중국문화의 기독교화를 목표로 하는 대만에 있는 신학원이다. 원래 학부는 없었으나 97년부터 학부가 신설되

었고 신학원 중심으로 수업하며 초교과적으로 학생을 받는다. 특히 중국 복음사역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졸업 전에 대만 농촌단기선교와 대륙단기선교 과정을 이수하도록 학점에 포함시키고 있다. 대륙선교를 목표로 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학교이다.

개설되어 있는 과는 도학석사과(道學碩士科 M. Div), 선도석사과(宣道碩士科), 선도증서과(宣道證書科) 등이다. 도학석사과는 신학석사 과정이고, 선도석사과는 선교학석사 과정이며, 선도증서과는 선교학 증서과라고 생각하면 된다. 도학석사과는 4년 과정, 선도석사과는 2년 과정, 선도증서과는 1년 과정이다. 학제는 1년 3학기로 가을 학기에 시작하며 기숙사 생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중국어 수업을 학기중에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일대일 수업도 매학기 마다 수강이 가능하다. 타이베이(臺北)에서 유명한 양명산(陽明山)에 위치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학교로 연락하면 안내해 준다(전화: 886-2-2892-2836, 팩스: 886-2-2892-2834).

중화복음신학원(中華福音神學院, China Evangelical Seminary)

전세계에 있는 중국인들 사이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는 대만에 있는 신학원이다. 초대 원장으로 허드슨 테일러의 증손자이자 OMF 총재를 지낸 제임스 테일러가 역임하였다. 이 학교는 대만과 전세계의 중국인 교회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초교과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

개설되어 있는 과는 도학석사과(M. Div.), 성경석사과(聖經碩士科 M.A.R), 기독교연구증서과(基督教研究證書科 Diploma)가 있다. 도학석사과는 3년, 성경석사과는 2년, 기독교연구증서과는 1년 과정이다. 학제는 1년 3학기로 가을 학기부터 시작한다. 중국어로 신학원

을 수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신학석사과(神學碩士科 TH. M)와 교목학박사과(敎牧學博士科 D. Min) 과정도 있다. 기숙사 생활을 원칙으로 하며, 타이베이에 위치해 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사람은 학교로 연락하면 된다(전화: 886-2-365-9151).

이외에도 대만에 성결교신학원, 침례교신학원, 장로교신학원 등 많은 신학원들이 있다.

싱가폴신학원(新加坡神學院, Singapore Bible College)

싱가폴신학원은 현재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신학원이다. 40년 전, 싱가포르에 있는 또 다른 우수한 신학교인 트리니티신학원이 자유주의화되자, 보수적인 선교사와 크리스천들이 분리해서 생겨난 학교가 바로 싱가포르신학원이다.

싱가폴신학원의 모든 과정은 일반 신학교와 마찬가지로 영어부, 성악부, 중국어부로 나뉘어 있다. 영어부는 Th.M 과정까지 있고 중국어부와 성악부는 M.Div. 과정까지 있다. 이 M.Div.는 3년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4년제 일반대학 졸업자가 진학할 수 있고,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진학할 수 있는 학사과정도 있다. 또한 신학교 졸업생을 위한 2년 과정의 M.B.S.도 있다. 특이한 것은 계속교육 과정이 많이 있어서 졸업 후 사역하다가 몇 년 후에 다시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고, 6개월이나 1년의 단기 수업도 학교 측의 허락만 받으면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칙으로 25세 이상이어야 학교의 입학이 가능하다.

싱가폴신학원의 학비는 기본적으로 무료이다. 모든 경비는 원칙적으로 전세계 각국에서 온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신학생 1인의 매월 최소 경비, 즉 매월 350싱가폴달러(한화 30만 원)는 신학생을 보낸 교회나 단체가 자원하여 후원해야 한다. 이것은 결코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사람에게 한해서 내게 된다. 내지 않는 학생들도 많은데, 학교 측이 주선해서 생활비를 알선해 주기도 한다. 주중에는 학생들 누구나 자신이 맡은 부분에서 봉사를 해야 한다.

기숙사 생활에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학생 개개인의 매끼 식사에 소용되는 쌀과 부식값은 누구나 다 부담해야 한다. 매달 80달러(한화 7만 원)인데, 이것만

저도 특별한 상황에서는 면제받을 수 있다.

3월 말까지 입학 신청자들의 사정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입학지원을 하려면 1~2월 중에 학교 측으로 편지를 보내 입학지원서를 교부받고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특히 인비 처리된 3인의 교역자나 신앙선배의 추천은 필수적이다.

주소는 반드시 영어로 표기하여야 한다. 내용은 중국어나 영어로 쓰면 된다.

주소: SINGAPORE BIBLE COLLEGE, CHINESE DEPT. 9-15 ADAM RD SINGAPORE 1128

언어를 배우는 것은 문화이해의 지름길

다른 나라 말을 배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중국어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러나 언어를 배운 후에는 유익한 점이 많이 있다. 중국어로 말하고 중국어로 제자훈련과 사역을 한다면 비록 그 말이 세련되지 못하다 해도 중국인들과 선교사의 그 노력을 깊이 감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통역을 통해 사역하는 것보다 더 쉽게 중국인들과 가까워질 수 있고, 유대감을 증진 시킨다. 또한 중국어를 배우다 보면 중국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복음과 문화는 떼어낼 수 없는 관계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문화를 알아야 하는데, 중국어를 배우으로써 문화이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중국어로 사역을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 그들이 이미 익숙해져 있는 그들의 말로 복음을 듣고, 제자훈련을 받고, 기도한다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온전하게 전달이 되기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 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서 선교사는 점점 더 자신을 얻게 될 것이고 중국에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되어 갈 것이다.

중국어를 배우는 것은 평생의 과정이다.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고, 중국인들과 부딪히면서 계속해서 잘못된 표현들을 고쳐나가야 한다. 아무쪼록 이 언어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석은혜/ 본지 편집장

가식의 탈을 벗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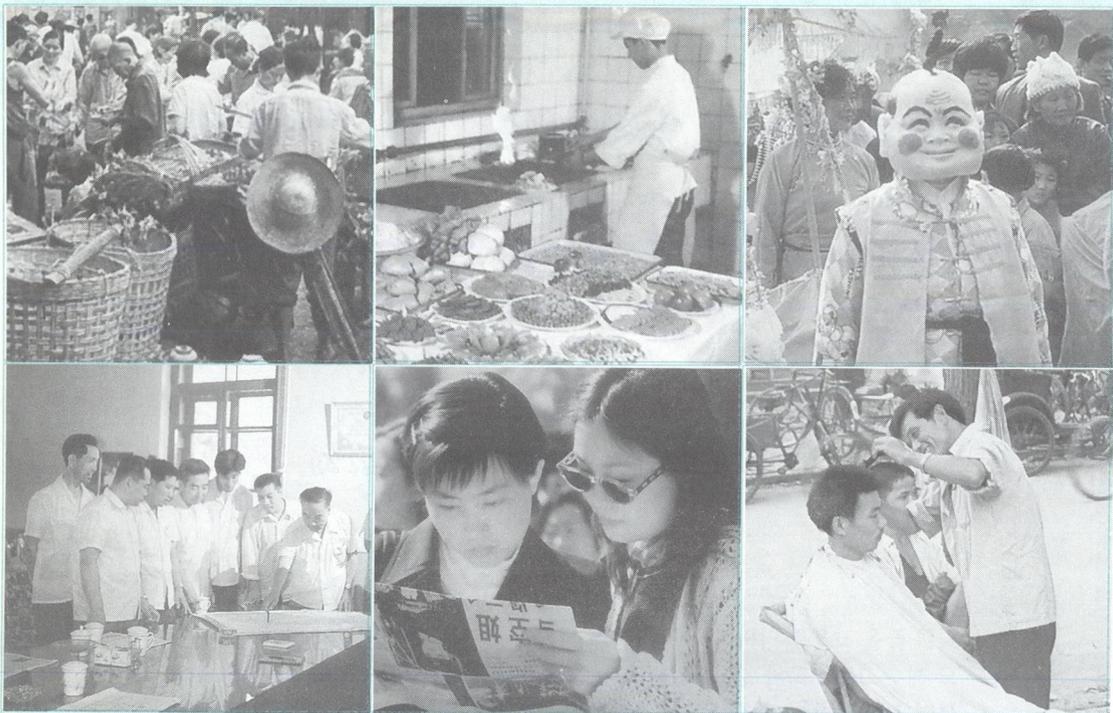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갈2:20)

죄를 끊을 각오뿐 아니라 사물을 전혀 새롭게 보려는 자세가 있기 전까지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은 무엇인가? 우리들이 무엇을 움켜잡기 전에, 가진 것을 먼저 내놓고 일체의 허식을 버리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들이 바치기를 원하시는 것은 선(善)도, 정직도 혹은 열심도 아니고 우리들의 굳은 죄이다. 주님이 우리들에게서 가져가고 싶으신 것은 우리의 죄밖에 없다. 그런 죄를 가져가고 대신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반석같은 의(義)이다. 우리는 무엇이 된 듯한 가식의 탈을 모두 벗어야 한다. 하나님의 인정이나 고령을 받을 만하다는 자부심을 말끔히 던져 버리라.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들이 다음 단계에서 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것이다.

내 자신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주장은 어떤 분야에서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 나는 모든 소유와 애착물에 대해 권익(權益)을 파기(破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자신을 동화시킬 용의가 있는가? 권익 파기를 하려면 뼈아픈 고통의 환멸을 체험하게 된다. 주님이 보시듯 우리가 자신들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육신의 더러운 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려는 무서운 자만심의 본성임을 깨닫게 된다. 자신을 주님께 비추어 보면 수치와 두려움과 죄에 대한 뼈아픈 확신이 우리들의 심장 속을 파고들 것이다.

권익파기에 대해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면 지금 주님의 눈으로 자신을 들여다 보고 모든 세욕의 집착을 던지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실 것이다.

이 글은 기독교문서선교회에서 출판한 오스왈드 챔버스 저, 「주님은 나의 최고봉」 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한국인

동양의 파리(Paris), 하얼빈(哈爾濱)

작은 자

일할 곳을

찾고 있던 우리 일행에게 한 청년이 도전하였다. “하얼빈으로 오십시오. 이 곳은 당신같은 일꾼을 부르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얼빈 청년의 소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그 곳으로 갔다.

갯빛의 도시는, 바닥의 눈을 끌어 올리며 전선줄과 나뭇가지를 스치면서 내는 휘~이잉 하는 바람소리로 우리를 맞았다. 때마침 맞은 춘절을 지내느라 터뜨리는 폭죽소리는 이 곳이 중국임을 알렸다. 그 폭죽 꺾질들이 시내의 길바닥을 온통 붉게 만들었는데, 마치 한국



한족 1만명, 조선족 600명의 신도가 있는 남강교회

에 있을 때 단풍이 낙엽으로 밭을 덮은 듯하였다. 수북이 쌓인 폭죽 파편들을 보니 장난이 아니었다. 그 폭죽 소리로부터 피할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어떤 이는 아파트 창밖에서도 기관총처럼 터뜨리는 그 소리에 정신병이 들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 내가 도착했을 즈음, 폭죽을 가득 싣고 가던 트럭이 버스 승객이 던진 담배불 때문에 불이 붙은 사건이 있었다. 시내 한 귀퉁이가 몇 시간동안 터지는 폭죽소리와 섬광으로, 사람들이 질러대는 환호성으로 야단이었다.

하얼빈 사람들이 즐기는 음식인 ‘싼양로우’를 먹으러 식당에 갔다. 옆에 앉은 사람의 소리가 도대체 들리지 않는다. ‘하얼빈 사람의 소리’ 때문이다. 싸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모두들 옷통을 벗고 맥주를 마시면서 여자고, 군인이고 학생이고 가릴 것 없이 모두들 큰 소리로 떠들면서 즐겁게 식사를 한다. 나도 거기에 섞여 힘차게 떠들면서 식사를 즐겼다. 그리고 점점 하얼빈 사람이 되어갔다.

수 년이 지나 한국에 와서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내가 한 마디하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주목하게 되었다. 우리 가족은 이제 한국

에 있다. 한국 사람들을 놀래키지않도록 나는 늘상 아이들에게 목소리를 낮추라고 타이르게 되었다.

하얼빈으로 온 디아스포라들

하얼빈과 그 주변의 땅은 원래 중국이 아니었다. 봉건 시대에는 척박한 이 황야를 ‘북대황’이라고 불렀다. 춥고 건조한 이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없었다. 아무 것도 없던 땅에 러시아 사람들이 철도와 내륙 수운의 거점으로 도시를 건설하면서, 러시아풍으로 바뀌었다. 러일전쟁이 터지고 일본이 승리하자 도시의 한쪽에는 일본식 가옥들이 지어졌고, 러시아 풍의 호텔들과 거리에는 기모노 차림이 예우되었다. 모든 학교에서 러시아어가 공통어였는데 일본어로 수업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괴뢰정부인 만주국의 범위에 들어갔다. 일본이 패망하자 ‘만족(滿族)’이라고 일컫는 소수민족은 ‘만족향(滿族鄉)’이라는 집단촌을 만들고 서서히 한족으로 동화되어 가고 있다. 봉건시대부터 이민의 역사를 가진 조선족은 두만강 너머 엔벤지역으로 개발하고 넓은 동북 3성의 들판에 고루 퍼져 거친땅을 개간하고 중국에 없던 쌀맛을 제공하는 등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가며 용기있게 살아오고 있다. 하얼빈 근교에

도 '조선족향(朝鮮族鄉)'이 두루 퍼져있으며 한족이나 다른 소수민족 집단촌 보다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월등함을 자랑하고 있다.

마오쩌둥(毛澤東)은 문화혁명 기간에 지식인들을 노동개조 하기 위해서 중국 전역의 반동분자들을 하얼빈 윗쪽에 있는 '흑하(黑河)'에 보내어 공부대신 농사를, 펜대신 곡괭이를 쥐게 하였다. 이것은 버려진 땅임을 증명해주는 좋은 예이다. 중-소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이 땅을 희생하면서 전쟁을 치루고자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은 중국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이 척박한 땅에 1960년대에 석유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헤이룽장(黑龍江)성과 그 일대는 엄청난 양의 석유와 광활한 농경지, 그리고 삼림자원이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마오는 한국인처럼 부지런하고 손님을 잘 접대하며 보수적인 기질을 가진 산동사람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켜서 이 곳을 개발하게 하였다.

원래 이 곳에 살던 사람들은 여진족의 후예이거나 척박한 땅을 개간하며 살아온 농민들, 그리고 그들을 수탈하던 만주의 무법자인 마적단의 후손일 것이다. 나머지는 이민의 역사속에서 들어온 디아스포라들이다. 여러 민족들이 섞여져서 그런지 아니면 추운 기후 때문인지 이 곳의 주인공들은 살결이 희고 키가 큰 미남 미녀가 많다. 성격은 화끈하고 단순하다. 유난히 모델 같은 이들이 많고 강도도 많다. 맥주소비량이 전국 1~2위이고, 옷시장은 전국에서도 유명하다. 이 중 한국인의 수는 약 300~500명 정도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최근에 형성된 이땅의 디아스포라로서 도시에 사는 한국인들은 중국의 다른 도시에 사는 한국인들과 크게 다른점이 없다. 착한 유학생들, 열심히 있는 사업가들, 그리고 중국인을 섬기려는 능력있는 젊은이들이 드러내지 않고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과 수교하기 전에는 소수의 한국인과 미국, 캐나다 국적의 사업가들이 자기 사업을 개척하고 있었고, 수교 후 5년 정도는 기업인, 학생, 사업가들이 러시를 이루었으나 지난해 한국이 IMF 사태를 맞으면서 기업은 어려워지고 철수하는 학생들도 많아져서 용기있는 자들과 뜻을 가진 일꾼들만이 학생들과 함께 남아있다.

성령이 세운 교회

한족 1만 명, 조선족 600명의 신도를 가진 남강교회와 또리교회 그리고 20여 개의 지교회들이 시내에 흩어져

있고 계속 부흥 중이다. 남강교회는 새로 교회당을 건축하고 있다. 공안국의 감시와 사찰을 받아야 하는 비공식 가정교회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특이하게도 그 부흥과 발전의 배후에는 외국에서 온 선교사보다 현지인 사역자들이 더 많으며 그 중에서도 '허난(河南)' 디아스포라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민이나 강제이주를 통한 것도 아니고 핍박을 피해서 도주해온 사람들이 아니다. 순수하게 복음전도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자력으로 파송된 일꾼들이다.

나는 늘 이 지역 선교의 뿌리와 주체가 누구인가를 알고 싶었다. 최근까지 조사한 내 개인의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해방전(중국)까지. 많은 선교사와 허드슨 테일러와 그 팀에 의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그 후의 공산화 과정과 핍박기간 동안 지하에서 뿌리를 내리고 밟히다가 1993년에 와서 '허난' 지방에서 많은 열매로 맺힌 것 같다. 그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때 성령 폭발이 있었고, 그 결과 헌신자들이 스스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각지로 나갔다고 한다. 그러한 팀은 13개로 조직되었고 강력한 멤버들이 헤이룽장성 일대로 들어왔다. 몇 년동안 수많은 교회가 생겨났고 헌신자들이 나왔다고 한다. 더러는 투옥되기도 했으나 여전히 왕성하게 지식인 사회의 농촌사회 속에서 전도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열심과 수고 속에서 부작용도 생겼는데, 성경적 지식과 신학적 기초가 부실하다보니 종말론, 교회론 등에서 이단성을 띠게 된 것이다.

나는 두 교회를 세웠으나 이들을 돕는 것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사역의 방향을 수정했다. 그러나 이 지역 지도자들의 요구는 교회당 건물을 세워 주거나 사역비를 보조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말씀의 기초로 무장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이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나의 중국어 실력, 특히 성경신학적 용어가 부족함을 깨달았다. 나중에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내 가족을 훈련시키셨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선교의 방향을 확고히 잡게 되었다. 미국이나 한국의 어떤 교회처럼 중국에도 선교를 두려워하는 교회를 더러 만날 수 있었다. 이러한 교회들은 이웃과 지역사회 복음화에 주력하면서도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복음이 필요한 지역에 파송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다. 이들을 깨우는 일도 디아스포라 중의 하나인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느꼈다.



겨울이 되어야 참 모습을 볼 수 있는 강인한 사람들이 가득찬 북방의 도시 하얼빈(사진은 구두를 수선하는 모습)

성공의 비결

하얼빈에서 살기 시작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 나는, 회사를 3개로 확장한 성공 일로에 있는 한 기업인을 만나게 되었다. 그에게 성공의 비결을 묻자, “저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여기 오는 한국분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지요. 하나는, 중국인을 사랑하여 친구로 삼고 의형제, 의부모 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국어도 열심히 배우지요. 통역 없이 마음이 통하는 언어를 쓰기 위해 서지요. 이 사람은 중국을 좋아해서 자주 중국 전역을 여행도 하기도 합니다. 중국인을 훈련시키고 믿고 일을 맡기며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의 보호자가 됩니다. 그들이 그의 보호자요 친구가 됩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성공

합니다.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중국인을 고용하고 일을 맡기기는 하지만, 돈을 위해서 부리며 늘 의심하지요. 마음이 통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중국말을 자기 사업의 발판으로만 여기지요. 성공하는 것 같지만 길게 버티지는 못하더군요. 결국 떠나고 말아요. 중국인과 이 땅을 저주하면서 말이지요. 본인이 진정한 친구가 되려고 하지 못했으니 그럴 수밖에요.”

나는 나중에 웃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중국인들에 의해 보호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리고 몇 년이 더 흘렀고 많은 실수를 했지만, 내 주위에는 사랑하는 이들이 생겼다. 지금도 어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만나고 싶다. 이제는 아내도 좋은 옷이 생기면 우선 포장부터 한다.

청년의 도시 하얼빈

문화가 없는 이방인의 도시. 이민과 소수민족이 여러 개의 집단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의 도시. 겨울이 되어야 참 모습을 보이는 강인한 사람들이 가득찬 북방의 도시 하얼빈. 이곳에 안중근은 이토히로부미의 가슴을 향해 권총소리로 민족의 정기를 세웠고, 그 정기를 받은 후손들은 이 시대의 개척자로서 야망의 도시를 깨우고 있다. 학생은 공부의 열기로, 기업가는 혼신의 정열로, 선교사는 여러

감시망 속에서 몇 배의 노력과 수고로 잘생긴 북방의 이민들을 깨우고 있다. 다행히 아직 이곳에서의 한국인은 칭찬받는 소수민족이다. 처음 하얼빈에 왔을 때 나를 반기던 특이한 소리는 이제 일상의 소음이 되었고, 이제는 이 곳에 사는 이들을 깨우는 한국인의 열정있는 소리의 하모니 속에 나도 귀기울이고 싶다. 전문적으로, 하얼빈은 그 소리를 열망한다.

작은자/ 중국선교사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신학교육과 신학사상(1)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신학교육 :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주 피 득

사회주의

중국의 기독교(신교) 신학교육의 흐름과 그 신학사상 자체에 대해 묘사하고 평가하는 일은, 여러 가

지 정치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 때문에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니지만, 앞으로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접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관련된 주요사항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라도 살펴보고 싶다. 이를 위해 우선 최근까지의 중국에서의 신학교육의 역사적 흐름 가운데 나타나는 주요 사실들과 앞으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고, 그런 후에 중국 삼자교회의 신학사상 그리고 가정교회 혹은 비삼자교회의 신학사상을 각기 살펴보고 평가하는 일, 그리고 21세기 중국 가정교회를 위한 목회자 교육/신학교육의 방법을 토론해보기로 한다 (본고에서 '신학교육'이란 주로 목회자/사역자 배출과 배양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의미한다).

1. 목회자 훈련과 신학교육: 중국 교회의 가장 긴급한 필요

중국 교회에서 가장 긴급한 필요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목회자를 배양하는 일임을 중국 교회와 관련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교

회지도자들을 배양하고 훈련시키는 일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는 이유들로서 조나단 차오는 다음 5가지 요인을 든다.

1. 교회의 급속한 성장과 그에 따른 영적 굶주림(젊은 지성인들 가운데에서)의 확산
2. 급속한 포교 개척 전도의 단계로부터 기독교 신앙과 삶에 대하여, 개인적인 면이나 공동체적(교회적)인 면에 대해서 총체적인 이해를 하도록 도와줄, 양육과 목회사역으로 전환해가는 시점을 맞게 됨. 단기간에 목회의 전반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신학전반의 교육을 필요로 하며, 교회의 기능적인 면들을 개발해 나가야 하고 성례전도 집전해야 한다.
3. 지난 여러 해 동안 수 많은 도시 가정집회들과 대학 캠퍼스 소그룹들 내의 지식인 신자들의 성경적 신학적 질문과 요구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해 줄 필요가 생김.
4.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생겨나는 각종 이단들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생김.
5. 외국 선교단체들의 영향이 땀과 눈물과 복음으로 사수(死守)된 토착교회들에 미칠지도 모르는 부정적인 영향을 경계하기 원하는 목적에서 중국기독교 역사뿐 아니라 전세계 교회의 역사와 그 다양한 현재의 모습이 실로 어떤지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원하는 필요가 증대됨.

위에 든 5가지 요소에다 필자가 꼭 덧붙이고 싶은 것은:

6. 중국 가정교회(실은 삼자교회도 별 차이가 없다)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거의 훈련되지 않은 사역자들이든지, 혹은 그들이 이미 받은 훈련의 정도가 요즘처럼 급변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훈련이 안 되었거나 매우 부족한 사역자들이 사역할 때 생기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 훈련받은 사역자가 너무 적다는 사실.

7.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영향 때문에 갖게 된 극단적 은사중심주의 사상이나 신비주의와 극단적 체험주의적 사상과 그들의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신학사상 가운데 어떤 부분들, 예를 들면 중국 전통적인 반 지식적 사상이나 극단의 세대주의적 사상이나 무조직(질서)교회에 대한 절대적인 신봉사상 등에 의하여 적지 않은 가정교회들이 혼란을 맞게 되고 급기야는 분열의 위기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 본토가 사역현장에서 우리는 요즘, 성경 중심적인 바른 신학교육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확인하라고 부탁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듣고 있다. 과거에는 그 상황에 맞게 인도해오신 성령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지를 영안을 뜨고 보게 된다. 어느때 보라도 더 바른 말씀교육이 특별히 필요한 이 때에 만약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말씀 순종에 게을리한다면, 중국 교회의 앞날이 그렇게 밝을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순종과 믿음은 들음에서 배움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주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 중국 교회는 이제 더욱더 바른 말씀교육, 즉 말씀에 근거한 바른 신학교육과 순종의 교육을 통하여 또한 단계 한 단계 꾸준히 올라가야 할 때에 와 있다.

바로 위와 같은 사실들 때문에 중국 교회에 가장 긴급한 일은 목회자 교육, 신학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이제 중국의 신학교육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잠깐 살펴보기로 하자.

II. 중국의 신학교육 역사와 현황

중국에서의 기독교 신학교육의 역사는 대략 다음과 같

이 4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기독교 선교 개척기(1807~1900년)
2. 초기 성장기(1900~1949년): 전면 서구화 시기와 토착화 시도기
3. 사회주의 초기(1949~1966년)
4. 문화대혁명시기(1966~1976년)
5. 문화대혁명이후(1977~현재)

A. 선교개척기(1807~1900년)의 신학교육

기독교 선교개척기인 1800~1900년의 기간은 선교사들이 입국하기 시작하여 선교사역의 기초를 놓던 때였다. 1807년 런던선교회 소속 로버트 모리슨은 중국 역사상 첫 번째 개신교 선교사로서 마카오와 중국 남부에 도착하여 1834년 죽을 때까지 언어를 배우는 학도로서(중국사전을 편찬했다), 성경번역자(중국어 성경을 완역했다)로서, 중국 문화연구가로서 매우 헌신적인 노력을 다했으며, 그 후의 많은 영국 선교사들도 그의 발자취를 따라 중국이 외부에 개방될 때까지 언어연구와 문서보급에 그들의 대다수 시간을 투자했다.

이 시기에 그들은 주로 복음전도와 교회의 설립에 주력을 하였으나 신학교육에는 깊은 관심을 보인 것 같지 않다. 단지, 복음전도와 기초적인 양육이 행해지다가 여러 지역의 복음전도자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나타나므로, 처음에는 단기 형태의 설교자 훈련과정인 간헐적으로 개설되었다. 그러다가, 1877년에 상하이(上海)의 선교사회의에서 좀 더 학적인 수준이 갖추어진 신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B. 초기성장기(1900~1949년): 전면적 서구화적 신학교육의 모습과 토착화된 신학교육의 시도.

19세기 전반부는 기독교 신학교육의 초기 성장기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그 중 1900년부터 1920년의 신학교육은 '전면적으로 서구화된 신학교육'이 그 특색이라고 할 수 있으며, 1922년부터 1927년 사이의 반기독교운동의 결과로 1927년부터 1937년 사이엔, 중국 기독교의 토착화운동이 일어남과 함께 전면적으로 서구화된 교육과는 달리 '토착화적 신학교육(목회자 교육)'이 시도되는 때였다.



중국 신학교육의 자율성이 제한되어 있어 아직도 성경적 신학교육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사진은 난징의 금릉협화신학원)

이 기간 중 외국선교사들에 의하여 약 60여 개의 성경학교와 신학교가 설립되었다. 물론 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신학교나 성경학교라고 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면에 있어서 특별히 뒤진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 60여 개의 신학교 중 약 1/4정도는 학위과정을 정식으로 개설한 대학이 되어, 다른 학교들보다도 학구적인 것을 강조하는 서구적 교육행태를 더 보여주는 모습으로 발전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시기의 신학교육은 선교 개척 초기 보다도 상당히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으나, 동시에 많은 면에서 서구적 교육행태를 그저 답습하여 시대적인 흐름 속에 나타난 반기독교 운동 때에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이에 따라, 이 기간 후기엔 토착화적 신학교육운동이 조심스럽게 시도되게 되었다.

C. 사회주의 초기(1949~1966년)의 신학교육
중국대륙에 공산당이 들어온 사건은 중국 교회 전체와

신학전개와 발전에 급격하고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근본적으로 무신론적인 공산당과 그 정부는 기독교를 부르조아적 서구 제국주의의 앞잡이 혹은 인민의 아편으로 묘사 혹은 정죄하고, 1950년경부터 중국공산당은 공산당 혁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기독교의 일부 급진적 인물들(자유주의 신학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소위 기독교 혁신운동을 일으켰고, 새로운 사회주의 정치현실에 따라 전통적인 신앙과 기존의 신학에 대해서 재사고할 것을 주장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지지하며 그것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신학사상을 구축할 것을 추구하였다. 결국 그들을 1954년에 '중국의 기독교와 제국주의 사이의 관계를 끊는다'는 명목으로, 즉 '중국의 교회를 중국 사회주의의 현실에 맞게 개조시킨다'는 명목으로 당과 정부의 지도 감독 관리하에 정식으로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속칭 '삼자교회')' 즉 공산당의 어용교회를 결성하고, 그 조직 내에 중국의 모든 교회와 기관들과 인물들을 속하게 강요하

고 본격적으로 중국 교회를 강제적으로 통제하기 시작 했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 공개적으로 제공될 수 있었던 신학교육 내용이란 오직 공산당을 중국 사회 모든 면의 절대 지도사상으로 받아들이는 신학교육뿐이었고, 공산당치하 사회주의 현실을 무조건 지지하고 정당화시키는 일을 곧 상황화(contextualization)와 토착화(indigenization)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행하였다(물론 상황화나 토착화 자체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 때에야 비로소 이전의 거의 서양식으로만 진행되었던 신학교육의 모습이 강요된 정치적인 현실 속에서일지라도 중국에 맞는 상황화 신학의 구현을 위해 재사고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아주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들의 소위 '기독교혁신운동'은 공산당치하에서 공산당을 무비판적으로 지지한 상황 가운데서 나온 운동이긴 하지만, 당시 기존의 교회와 신학에 큰 충격과 함께 새로이 바뀌어진 현실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였으며, 이로 전개된 '서명운동' '공소운동' '사회주의식 개조운동' '삼자조직 가입운동' '교회연합운동'으로 전국의 기독교인과 교회는 어떤 동기와 모습 속에서건 소위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고 '새로운 빛'을 받게 되었다.

여기서 '거듭남'이란 물론 사회주의 정치현실(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각함으로써 얻게 되는 사상적 각성을 의미하며, 그 '거듭남'의 참 결과는 모든 제국주의와 장개석 정부에 대한 전면적인 배척과 척결, 그리고 그들의 관점에 의한 '인민의 입장'과 '애국주의의 입장'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새로운 빛'이란 사회주의 정치현실의 상황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에 갖게 되는 새로운 시각과 그 해석을 말한다. 그러므로 그들 '기독교혁신운동(삼자교회)' 인물들은 곧 삼자교회신학의 특성을 세우고 그 신학교육의 기초를 세웠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 정치현실의 각도와 관점에서 모든 전통적 신앙을 재사고 하고 새로이 해석하기 시작했다. 결국 사회주의 체제를 조금도 비판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었다. 조화만 이를 수 있는 '상황화신학'은 공산당과 정부에서 공인한 신학이라고 볼 수 있는, '삼자교회신학'을 만들어냈고, 그러한 종류의 공산당 신학 혹은 사회주의 신학을 가르치기 시작하

였다(중국교회 중국선교 1호, 왕쓰웨이, 1996).

그러나 이때, 주를 사랑하는 중국의 수 많은 교회들과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과거부터 이미 어느 정도 추진되어 온 중국 토착교회 운동의 배경 속에서 가중되어 오는 기독교회에 대한 공산당 정부의 압력을 새로이 경험하면서, 즉 교회가 공산당과 몇몇 정치적 급진주의인 기독교인사들을 통해서 변질되어가든지 혹은 그렇게 되는 현실에 맞는 신학적 사고의 필요성을 계속 추구해야만 하는 현실을 맞게 되었다.

실상 이때 이전의 중국교회사를 간단히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은, 중국땅에서 전개된 토착교회 운동은, 결코 공산당과 몇몇 공산당에 우호적인 급진적 정치적 기독교 인물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나 발전된 것은 아니다. 이미 공산당시대 이전, 즉 타이완으로 이전하기 전의 중화민국교회 시대에 일어난 신문화운동(新文化運動)인 5·4운동(1911)을 계기로 나타난 대중적인 반기독교운동과 그에 따른 교회에 대한 일반대중의 폄박으로 인하여 1912년부터 1919년 사이에 중국의 북부와 동부, 남부에서 이미 효시적으로 일어난 운동이었다. 장개석이 북벌을 완성하고 난징(南京)에 도읍한 이후 기독교에 호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약 10년 정도(대략 1928~1937년 사이) 숨통이 트이는 시기에, 당시 전국기독교협회와 복음전도와 신앙회복운동을 전개하기도 하며 왕밍다오(王明道), 송상제(宋相節), 위치만니와 같은 토착적 중국인 복음전도자들이 주창하며 활동하던 일과 관계된 그런 운동이었다. 결코 중국 삼자교회가 토착교회 운동을 시작한 것도 아니며 바른 동기에서 시작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의 그런 운동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구조와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용하는 수단일 뿐이었다.

D. 문화대혁명시기(1966~1976년)의 신학교육

이 때는 중국의 교회가 '불속을 통과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때인데, 이 때 중국 공산당 정부는 드디어 국내의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키고, 자기들의 통제 감독하에 있던 어용교회들을 포함한 모든 교회 문을 강제로 다 닫게 하고, 일체의 종교활동을 모두 중지시키고

야 말았다. 따라서 이 때는 신학교가 완전히 폐쇄되고 모든 종류의 공개적 신학교육의 모습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된 때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게 되는 시기인 1979년쯤까지 계속되게 된다.

이때 교회와 성도들은 극심한 탄압 속에서 모두 개별적으로 신앙을 유지하거나 혹은 지하교회의 모습으로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유지 발전시킨 때이다. 그러므로 이 때의 신학교육 혹은 목회자 교육은 어떤 모습으로도 공개적으로 행해질 수 없었던 때이므로, 성령님의 특별한 인도하에 극도로 은밀한 상황 속에서 소규모로 혹은 개별적으로 행해진 신학교육의 형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Ⅱ. 문화대혁명 이후(1977~현재): 중국 교회의 신학교육 현황

1. 삼자교회의 신학교육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마오쩌둥(毛澤東)은 죽고 역사적으로 볼 때 종교에 대해 어느 정도 온건한 입장을 표명하는 덩샤오핑과 그 개혁개방파가 정권을 쥐게 된 이때부터는, 교회의 문이 다시 또 '삼자교회'라는 이름으로 새로이 열렸다. 전국 각지의 삼자교회 신학교들도 복교와 창설을 해서 13개의 신학교가 존재 운영되게 되었고, 새로이 또 삼자신학(三自神學)의 교육이 재개되게 되었다.

이들 13개 공인삼자교회 신학교들은 그 지원 및 모집 대상과 개설과정 내용에 있어서 각기 전국적 성격의 신학교와 대지역적(두 개의 성(省) 이상 대상) 신학교와 한 성만 관련된 신학교, 이렇게 3가지 종류로 나뉘어진다. 예를 들면 신학교 중에서 4년제 본과 이외에 유일하게 3년제 연구과정(석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난징(南京)의 금릉협화신학원은 전국적 성격의 신학교이고, 4년제 본과 및 2~3년제의 전문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상하이 화동신학원이나 베이징(北京)의 연경신학원같은 5개의 대지역성 신학교와 7개의 광동협화신학원같은 성(省)급 신학교가 있다. 그리고 이외에도 어느 정도의 성경학교 혹은 평신도지도자 훈련과정 등과 성경통신 교육과정 등이 있다.

이들 신학원들은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들이며

도 불구하고, 기숙사나 도서관 수준과 일반설비뿐 아니라 교수나 학생의 헌신도와 자질, 신학사상과 교육방법 등에 있어서 아직도 상당한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요즘 이러한 한계점들에 대해, 장쩌민(江澤民) 체제하의 변화속에서 있는 삼자교회와 신학교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정치적 변수들 속에서 약간 불안해하면서도 계속 강력한 지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애쓰는 장쩌민이, 경쟁자인 보수파들에 대해서 한편은 너무 밀게 보이지 않길 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정치 현실 즉, 경제적으로는 개방, 정치적·사상적으로는 더 분명히 보수를 표명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써야 하는 현실을 직면한 중국 삼자교회와 신학교들은 위와 같은 너무나도 수준이 낮은 신학교를 지지하는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더욱 공고히 하면서도 내적으로는 위에 언급한 자기들의 한계점들을 극복해 보이려는 시도를 작·간접적으로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삼자 신학교에서나 삼자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시대적 조류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한편으론 외국교회들을 더 심각하게 경계하면서, 또 한편으론 외국교회의 자본과 인력과 배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일과 외국교회 특히 세계교회협의회 소속 교회들과 교류를 더욱 증진시키고 오히려 이 모든 관계들을 이용하여 더 적극적으로 사회주의 신학을 정당화하려는 데 애를 쓰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기치에 맞게 더욱 '중국상황화신학과 교회' 운동의 뿌리를 내려보려는 움직임을 뚜렷하게 볼 수 있다. 이런 자기들의 모습에 대해, 중국전국기독교협회의 총 간사인 수더츠(Su Deci)는 1950년대의 삼자운동과 요즘의 삼자운동의 차이를 1950년대의 삼자가 더욱 '정치적' 성격을 지닌 운동이라면, 요즘의 삼자는 '삼자원칙에서 신학적 중요성이 강조되는, 즉 '더욱 신학적'인 성격을 지닌 운동이라고까지 표현한다(Su, 1997). 따라서, 이와 같은 사상적 흐름과 배경 속에서, 남경신학원을 포함한 전국 13개의 삼자신학교들은 이전보다 더, 신학 특히 중국 상황화 신학을 강조하며,

그들의 신학을 더욱 체계화, 국제화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의 신학교육에서 그것을 더욱 꾸준히 강조해왔다. 바른 신학의 발전인가 아니면 정치적 혼합주의일 뿐인가? 신학적 발전의 형태인가? 아니면 퇴보나 기형적 발전의 모습인가 하는 질문과 같은 종류의 질문인 것이다.

어쨌든, 이런 모든 삼자신학교육의 내외적 모습들이, 중국 신학교육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긍정적인 결과들을 보여줄지는 미지수이지만, 이런 정치적 변화의 모습과 신학교육에서의 신학자체(?)의 강조의 현상은 적어도 외국의 교회와 신학교들에게 있어서 이전보다 더욱 더 적극적, 공식적으로 중국 삼자교회와 신학교육 현장을 접촉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진 것이 사실이다. 주변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과의 경제교류의 확대를 통해 한국 교회와 신학교가 중국 교회에 이런 저런 모습으로 꾸준히 관계하게 된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이것은 홍콩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이제 원하는 원치 않는 이전보다 더욱 더 교류를 강화해야만 하는 홍콩과의 관계에서 그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야 하게 되었고, 홍콩 교회와 신학교들도 이제 막연히 두려워하며 기다리기만 하고 있던 자세에서 일어나 문제를 직면하기 위해서건 지상명령 수행을 위해서건 본토 교회와의 교제를 위해서건 손과 발을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왔다.

실제로 중국사회의 국제(해외) 경제부분에서 분명히 홍콩을 우대하는 것처럼 중국 삼자교회는 외국 교회보다도 홍콩 교회에 대해서 좀 덜 두려워하고 좀 더 자연스럽게 접근 교류를 강화하고, 홍콩 교회와 신학교육의 자원을 본토 삼자교회와 신학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해보려는 시도를 많이 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홍콩 교회는 특히 1996년부터 신학교육을 포함한 본토 삼자교회에 대한 사역에 이전보다 좀 더 많은 참여를 하기 시작했다. 1997년 7월의 홍콩반환을 염두에 둔 홍콩 사회 각계의 준비작업 및 활동과 직접 관계된 일들이었다. 홍콩 각 교파, 교회들이 서로 앞을다투며 중국을 방문, 예배당 건물 신축 및 증축을 위해 기금을 보조해 온 일 뿐만 아니라, 정도는 다 다르지만 여러 모로 본토

중국 교회와 교류해왔다. 이런 교류를 통해 홍콩의 각 교파지도자들과 신도들은 제한된 면에서라도 중국 교회 및 중국 본토 공인 신학교들의 신학 교육 현황에 대하여 이해하게 되었고, 현장 경험도 얻게 되었다. 물질적으로 중국 교회를 돕는 경험을 통해 교회모델 및 양육 경험에 있어서 중국 교회와 홍콩의 상황을 서로 나눌 수 있을 것이며, 사역자를 훈련하는 일에 있어서도 자기들의 담당할 몫이 크다는 것을 점점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1996년부터 시작된 중국 삼자 신학교들과 홍콩의 신학교들 사이에서의 자매결연 비슷한 식의 방문교류 차원을 넘어 요즘은 더욱 광범위한 교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많이 보이고 또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중국 삼자신학교들이 청년 교수요원 육성에 열심히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 홍콩의 역할이 주목 받고 있다. 이 모든 홍콩 교회 및 해외 교회들과 중국 삼자교회와의 교류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긍정적인 면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문화혁명 이후의 중국 교회의 신학교육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삼자교회의 13개 신학교를 통하여 행해져 왔고, 삼자신학교들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자기들이 처한 상황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대처해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내외적으로 중국적 신학화를 강조하며 또 한편으론 가정교회 운동과 사상 및 외국교회의 '제국주의적 종교침략' 활동을 경계하느라 무던히 애를 쓰는 분위기다.

근래에 들어와서 학교에 따라 어느 정도는 복음주의적인 신학을 가르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곳도 있어서 어떤 다른 학교(예를 들면 난징의 금릉협화신학원)와는 달리 그래도 좀 좋게 보이는 곳도 있지만,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야만 하고 직·간접적으로 계속되는 공산당과 정부의 통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신학교육의 자율성이라는 것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어서 모든 면에서 아직도 성경적 신학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21세기 중국선교의 전망

김태연



I 서언

오늘날 중국 교회는 한국 교회의 최대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IMF 시대에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중국을 바라보면 한 마리의 양이 예루살렘을 향해 앉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선교의 불꽃이 안디옥으로 튀어 강렬한 그 불꽃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여 소아시아를 휩쓸고 유럽과 미국을 거쳐 약속의 땅 한국에 뿌리를 내린 지도 어언 110여 년, 이제 중국을 향하여 복음이 돌진하여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인고(忍苦)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선교학자들은 마침내 중국에 선교의 꽃이 피어나고 신장성 그리고 실크로드를 지나서 중동을 휩쓸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을 그려본다.

지금 중국은 개혁 개방 이래 급성장하여 숫자적으로는 세계 최대교회로 음으로 양으로 성장하였으며, 신앙적으로는 가장 생명력이 활발한 유기체적인 교회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헌신적인 교회로 성장하고 있으며, 중국인들의 자력으로 해외에 선교하는 중국 선교의 계절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종교활동의 통제와 제한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가정교회와 삼자교회가 각각 8천만과 1천만의 신자를 가지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II 본론

선교실습차 단기로 중국 내 몇몇 지역을 다녀보면 이단과 극단 그리고 편견이 득머섯처럼 중국 대륙에 자리잡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중국기독교협회는 자유주의 신학노선에 기초한 종교다원주의적 태도로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지 않기 때문에 21세기 중국 선교를 전망할 때 중국종교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접근이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 뿐만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중국을 알고 있으며, 한국에 도착화된 기독교를 전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현지의 가정교회 또는 삼자교회의 지도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다양한 계층의 지도자들을 특히 농촌의 청년지도자들을, 훈련시켜서 각 교회에 목양사역과 교육사역을 담당케 해야 한다.

40 請問, 你們幾位是韓國貿易代表團的嗎? Qǐngwèn, nǐmen jǐ wèi shì Hánguó Màoyì Dàibiàotúán de ma? (칭원, 너먼 지 웨이 스 한궈 마오이 따이바오투안 더 마?) 실례지만, 여러분들은 한국무역대표단입니까?

선교역사로 볼 때에는 현재 중국은 제2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서양의 기독교 문화, 신학, 세계관을 중국화하려고 시도해 온 것으로, 새 종교개혁(New Reformation)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에 기초하여 이신득의(以信得義: Justification)를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은 제2, 제3의 루터와 같은 의명의 지도자들이 고난과 질곡의 시대를 오직 믿음으로 이겨나가려고 하며, 믿음 한 가지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는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21세기 중국선교의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예견하기에는 새로운 선교세계관이라는 새 패러다임(new paradigm)에 기초하여 볼 필요가 있다.

새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OMF 선교회가 21세기에 중국선교를 과연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 하는 것은 C.I.M.(China Inland Mission)에 기초한 중국내지선교로 중국선교를 구체화한 전략을 가진 OMF 선교회로서는 당연히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만일, 중국이 21세기에 세계 최강의 국가로 공인되고 서양의 문화(Western Civilization)를 동양의 사고(Asian Thinking)가 지배하게 되면 더욱더 선교가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과 같은 전환기의 시대니까 그나마 선교가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약간의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현재 상태의 선교가 중국의 체제를 수용하는 선교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take-off theory(철수이론)¹⁾를 이야기하는 미국 중심의 서구의 선교방법과는 관심의 정도가 다른 것이다.

현재까지의 중국선교에 대한 현황을 선교전략차원에서 분석해보고 21세기 선교전망을 해보려고 한다.

현재 선교사비자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4가지 정도가 있다.

첫째, 중국정부기관에 전문가로 초청받아 활동하는 경우이다.

둘째, 중국에 회사설립 및 직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이다.

셋째, 중국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을 설립하여 활동하는 경우이다.

넷째, 유학생으로 활동하는 경우이다.

다시 말해서, 전문인선교사로서 선교하는 유형인데, 현실적으로 볼 때 선교를 한다기보다 선교현지에서 견디며 중국의 만만디, 유유자적을 이해하고 배우는 차원에서 머물러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평가이다. 학점으로 말하면 C학점 정도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C학점인 것은 중국에 선교하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자위도 해본다. 그래도 “양자강 왕서방” 노래만 부르고 중국에서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여전히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정교회 지도자와 악수하다가 그들중 손가락이 끊어진 분들을 가끔 보게되었는데, 그들은 그 이유를 말하지 않지만 복음의 박해로 인한 흔적이 아니었을까? 그들을 위로하며 한 곡(曲)을 부르고 지나가자

양자 江 黃鬚물에 노젓는 왕서방
 흘러간 그 옛날에 오리를 싣고
 떠나간 그 배는 어디로 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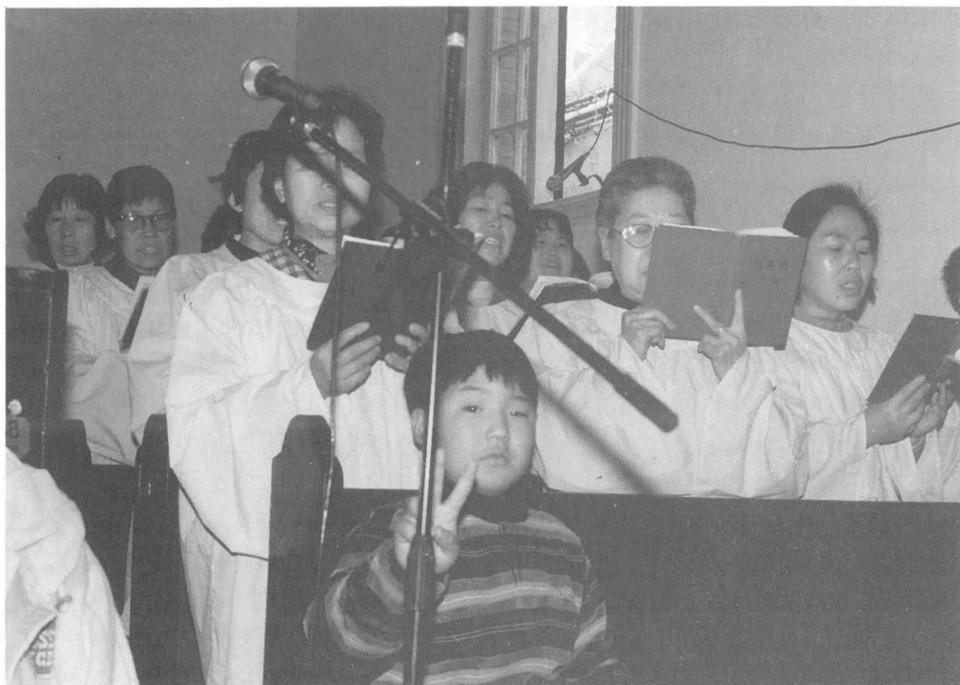
그리운 주님이여!
 그리운 주님이여!
 언제나 오시려나! 언제나 오려나!
 할렐루야!

그래도 21세기에라도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사역의 형태와 실재를 소개해보면,

첫째, 양육사역

순회전도를 통하여 지역교회에서 집회인도 및 양육사역을 한다. 순회전도시 개인적으로 접촉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영접한 사람에게 성경을 전달하고 주소를 교환한 뒤 연락을 취한다. 제자 방문하여 새벽이슬을 밟으며 확인하고, 지역교회에 소개 및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거주지에서 학원 중심으로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제와

1) take-off는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선교에 있어서 take-off라고 하는 용어는 소정의 선교사역을 모두 마치고 자기나라로 귀환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선교에 대해서 서구의 선교단체들은 내용적으로 이 이론에 동조하나 현실적으로 중국의 추이를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본다.



중국 교회는 중국 목회자에 의해 다듬어져야 한다

양육을 한다. 이러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사역을 겸비한 자가 선교사로 가야 한다.

둘째, 삼자교회 목회자 양육

일반적으로 삼자교회 지도자로는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삼자교회에 배치되어 사역하므로, 순회전도 및 교회방문 사역을 할 때 신학교에서 신학생을 만나서 교제를 하는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일 대 일 제자양육을 통하여 청년신도 및 처소교회 구역장을 단계별로 양육할 수 있도록 격려함으로써 삼자교회에 복음적인 방향을 갖추도록 돕는다. 결론은 중국 교회는 중국 목회자에 의해 다듬어져야 한다. 한국 교회를 중국 교회에 심으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셋째, 교회개혁사역

중국의 복음화 상황은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선교사가 해야 할 일은 교회개혁 사역이다. 여기서의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우선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져야 할 것이다. 인터넷 교회라든지 비거주선교사들에 의한 미전도 종족들에 대한 가

정교회 사역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전략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 교회는 우리의 잣대로 잴 수 있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다림줄에 의해 재어져야 할 교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중국에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중국에 선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성육신 선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세에서 중국의 선교를 다시 새 지평선에서 이해해보는 것이다.

지금 현재에도 각 지역의 중국 교회 선교가 계속적으로 지리적으로 확대되어가며 동시에 중국선교의 입장에서 심화되어가고 있다. 특별히 안후이(安徽), 허난(河南), 장쑤(江蘇), 동베이(東北)지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후베이(湖北), 쓰촨(四川), 내이멍구(內蒙古) 지역은 성장하는 추세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지리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도자의 배출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걸어가는 한 마리의 양으로서 중국을 생각해보는다면, 중국의 미전도 종족에게 비거주선교사



중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려면 넓은 마음을 가지고 가라(사진은 상하이의 경영당 교회)

(Non-Residential Missionary)의 개념을 도입하여 미전도 종족을 입양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채널로 활용하는 것이 마지막 대안으로 여겨진다. 이들은 전문인 선교사 중의 전문인 선교사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한족은 열 개의 종족집단¹⁾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전문인 선교사들이 한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북경에 살아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모순이다. 따라서, 21세기의 중국선교의 모델은 SIREN(싸이렌)²⁾ 선교사로서 중국의 미전도 종

1) 미국 AAP에서는 중국의 한족을 10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있다. AAP의 people of the world-people list executive summary profile order form을 참조하면 이들 한족집단은 chinese, gan, hainane, hakka, mandarin, min nan, min pei, shanghai, wu, 그리고 xiang 이렇게 10개로 세분되어 있다.

2) SIREN은 strategy information research network의 약자로 전략정보네트워크 선교사를 말하며, 미전도종족 또는 선교사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싸이렌 선교사는 ①종족과 지역자료의 정보수집, 연구조사와 분석 ②해당종족 내 교회개혁에 적합한 최적의 사역형태 개발 ③연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 체계화되고 다양한 기도정보의 도출과 공급 ④관련교회, 교단, 선교단체 관련자들과 현지선교사와의 network 형성, 협력지원 사역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사역을 하게 된다.

족을 선정하여 100개의 관문도시를 중심으로 집중 공략하는 방법이라는 미전도종족입양운동본부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싸이렌 선교사가 민난한족, 하카한족, 만다린한족 등을 대상으로 사역한다면, 그 종족들 가운데 장기 혹은 단기로 머물면서 정보와 자료를 수집, 연구,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적합한 복음화 전략을 도출하고 동원하는 사역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 유사집단인 다른 한족들을 복음화하는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선교사의 자녀교육문제도 일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비거주선교사는 일 주일 단위로 현지의 사역지를 돌아보고 그들이 그들의 방법대로 자신들의 자금을 가지고 선교하도록 도와주면 되는 것이다.

III 결어

그러므로 21세기의 중국선교의 전망은 계획을 세워서, 측정 가능한 전략으로, 중국 종족을 입양하는 선교를 해야 하며 소총부대와 같이 전통적인 믿음선교(faith mission)로 사역하는 데에는 점점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우선은, 양자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선교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리에게 빼앗긴 양을 찾기 위해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하듯이, 그 다음 단계의 선교전략이 필요하다. 그것이 SIREN(싸이렌) 선교사의 배치전략이다. 중국사람에게 가려면 넓은 마음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중국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

김태연/ 목사, 한국전문인선교훈련원(GPTI)원장

你們一路上累了吧? / Nimen yilù shàng lèi le ba?
(니먼 이루상 레이 러 바?) 오시느니라 피곤하셨죠?

북음의 관통로, 중국의 관문도시들

난징(南京)

나무들이 울창하며 청아함이 가득한 도시 난징은 나무 심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도시다. 이는 도시 미관뿐 아니라 여름철에 장강(長江)이 달아올라 뜨거워지면 많은 나무그늘이 그 더위를 식혀주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이다. 난징은 베이징(北京)을 제외하고 중국 역사상 가장 여러 차례 수도로 지정되었던 곳이다. 그러나 베이징의 많은 유적들이 여러 차례 걸쳐 지어졌고, 연대가 오래되지 않아서 비교적 잘 보존되어 오고 있는 반면 난징의 유적들은 수차례에 걸친 전화(戰火)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다.

행정구역

장쑤(江蘇)성 성도

총면적

6,516km²

인구

502만

기후

비교적 습기가 많은 아열대성 기후로 4계절이 분명하다. 여름철 평균기온이 섭씨 27℃로 내외로 충칭(重慶), 우한(武漢)과 함께 중국의 '3대 썸통'의 하나이다. 연강수량은 1000mm 정도이다.

역사

장쑤성의 역사를 대변해주는 난징은 역사를 통털어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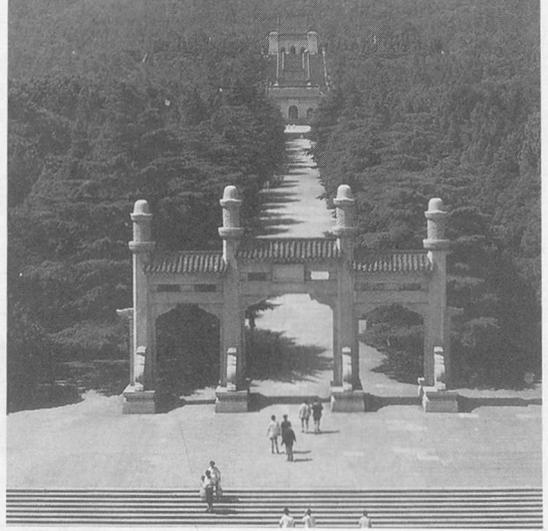
국의 가장 중요한 거점 중의 하나였다. 기원전 478~221년, 삼국시대 오나라의 수도였고 진시황의 통일이전 은나라의 5천년 역사를 함께 해온 도시로 꼽힌다. 또한 명 태조 주원장의 통치기간, 그리고 근대사에 자주 등장하는 태평천국의 봉기군은 청나라 군사와 서양 열강에 대하여 이 곳에 수도를 정했고, 신해혁명 후인 1912년 쑨원(孫文)도 이곳을 중화민국 임시정부의 수도로 정했으며, 중일 전쟁 때에는 일본군에게 점령될 때까지 국민당 정부의 소재지이기도 했다. 특히 1937년에 12월 13일부터 난징을 함락한 일본군에 의해 1주일간 대학살이 자행된 곳이기도 한데, 이때 집단 총살당하거나 생매장당한 사람의 수가 30만을 넘는다고 한다.

사회 및 경제

난징이 수도인 장쑤성은 과학기술이 상당히 발달하였다. 난징은 중산 식물원, 고생물연구소, 지리연구소, 토양연구소 등에 약간의 대형 정밀측량기를 보유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자, 자동차, 광섬유통신, 생물의학, 건축, 수문, 농업미생물, 유전공학, 작물재배 등의 연구수준에 전국의 선두그룹을 유지하고 있다. 근래들어, 장쑤성이 국외의 정부 및 민간과 광범위한 연계를 강화하여 대외과학기술 합작 교류의 교량역할을 전개하는 것에 힘입어 난징에 “중국 장쑤성-캐나다 안대략성(安大略省) 과학기술교류센터”와 “장쑤성 대외기술교류센터”를 세웠다.

또한, 난징에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서관과 제2위로 소장품을 가지고 있는 박물관, 대량의 국민당 시절의 역사문서를 보존하고 있는 중국 제2역사문서관 등이 있어 중요한 교육도시이기도 하다.

난징에는 중국내륙에서 제일 큰 항구가 있다. 주위 교통이 편리하여 철로, 도로, 수로, 항공, 케이블 등 5가지 운송방식이 고루 갖추어져 화둥(華東)과 양쯔강(陽子江) 중상류 물자의 주요 집산지이다. 특히 난징시 첨단기술산업개발구는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국가급의 첨단기술산업개발구이다. 6년의 개발건설을 통해 구내시정공용으로 기초시설이 완벽하며, 개발구관리 위원회는 난징시 정부에서 개발구에 파견한 관리기구로써 도시급 경제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다. 외상투자 항목의 확립, 비준, 공상등록, 세무, 출입변경의 관리 등은 개발구내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다.



난징에 있는 중산릉(中山陵)

종교 및 기독교 현황

통계에 의하면 인구 중 약 59%가 종교를 갖고 있지 않으며 기독교는 약 6%정도이다. 교인수는 약 10만 6천 명이다. 19세기 ‘장발적의 난’ 동안 중국인 기독교 군대가 대부분의 남부 중국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외국세력의 도움을 받은 청나라에 의해 그 혁명이 진압되었다. 교회는 계속 성장했으나 문화 혁명으로 교회대부분이 지하로 숨어 버렸다. 거의 50년 동안 가정교회는 성장하였다.

또한, 난징에는 중국 기독교를 중국의 토양에 뿌리내리게 하고 중국 교회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만든 독립적인 사회지원 단체인 애덕기금회(Amity Foundation) 본부가 있다. 이 단체는 기독교의 신앙과 사랑을 비기독교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목표로 교육, 의료위생, 사회복지, 농촌개발, 구제, 성경인쇄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기도제목

1. 난징 금릉협화신학원의 선생들과 학생들이 열의를 가지고 잘 배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2. 금릉협화신학원의 도서관 건축이 잘 마무리되도록.
3. 농촌교회 목회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농촌 목회자들의 양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4. 애덕기금회에서 성경을 더 많이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손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청두(成都)

인구 1억 2천만의 비교적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쓰촨(四川)성의 성도(省都)인 청두는 쓰촨성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중심지이며 아울러 중국 서남지역의 요충지이다. 쓰촨평원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중국의 곡창 가운데 하나이며, 예로부터 아름다운 산수, 풍부한 물산 때문에 '토펬(天府)'라 불리웠다.

육·공 교통의 중추로서 여객과 화물운송이 빈번하다. 예로부터 농업이 성하였고 채색비단 등의 수공업 제품으로 이름을 떨쳤다.

행정구역

쓰촨성의 성도.

7개 구(區), 1개 시(市), 12개 현(縣)으로 구성.

총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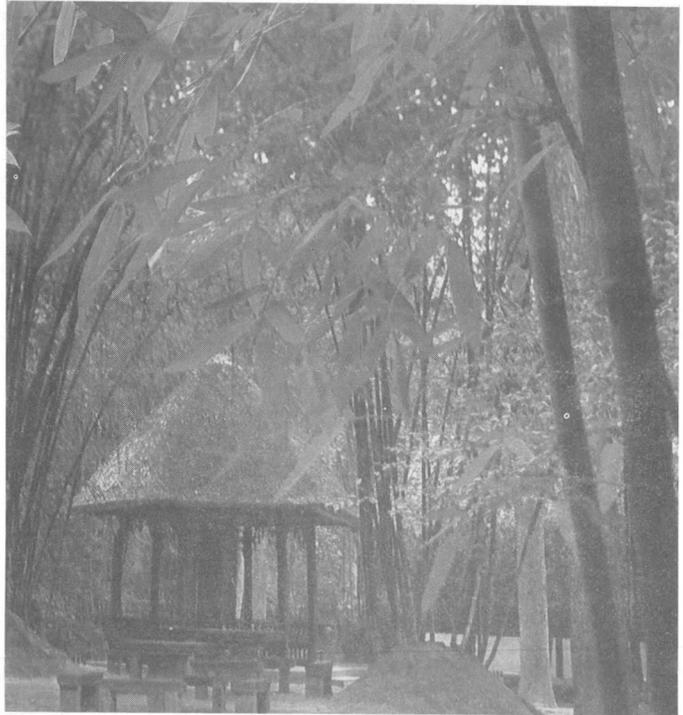
12,390km²

인구

960만 명('94년 말 현재)

기후

청두는 아열대계절풍 기후에 속한다. 기후는 온난하고 강우량이 많다. 봄이 일찍 시작되며 여름은 덥고, 가을은 서늘하고, 겨울은 온난한 특징을 갖고 있다. 연평균 기온은 16℃이며 연간 강우량은 1,000mm 내외이다. 구름과 안개가 많아 일조시간이 짧고 공기가 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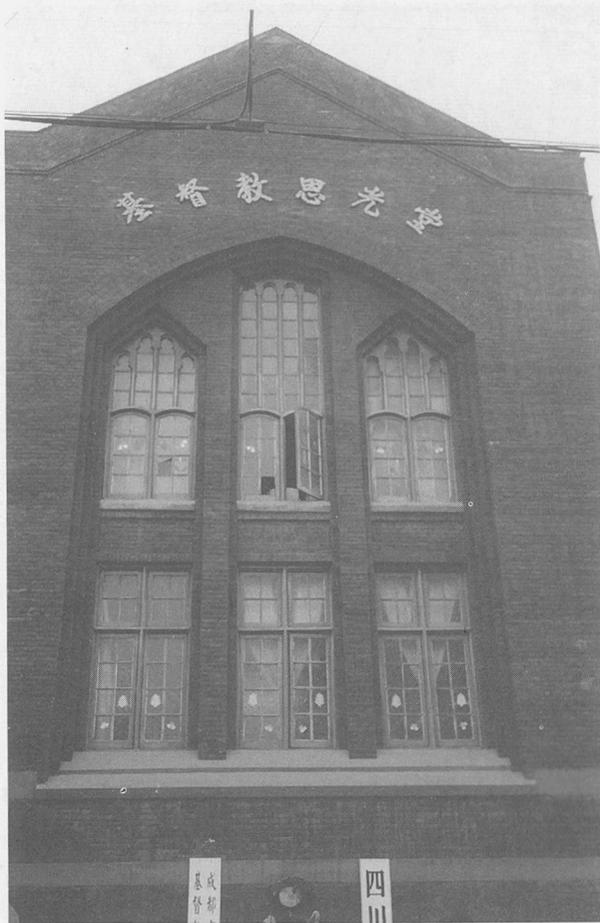
청두에 있는 두보초당(杜甫草堂)

역사

청두는 중국에서 역사적, 문화적으로 유명한 도시 중의 하나이다. 2,50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청두는 전국시대에 세워져, 춘추, 삼국시대에는 촉한(蜀漢)의 도읍이었으며, 당나라 말의 오대십국(五代十國) 때에는 전촉, 후촉의 중심지로서 번성하였다. 명대에 이르러 쓰촨성을 설립하고 성정부 소재지를 청두에 두었다. 청대에는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시되었다.

사회 및 경제

93년말 청두시의 지역 총생산액은 366억 원(元)이었으며 고정자산 투자총액은 71억 원에 달하였다. 서남지구의 중요한 공업기지로서 전국 4대 전자공업기지인 동시에 항공산업과 기계공업기지이다. 특히 일찍부터 방적공업이 발달하여 견직물, 면직물, 화학섬유를 대량으



사천신학원이 있는 은광당 교회

종교 및 기독교 상황

청두의 삼자교회는 사성당(四聖堂), 상상당(上翔堂), 은광당(恩光堂) 등 세 곳뿐이다. 얼마전 직할시로 승격된 ‘중칭(重慶)’의 21곳의 삼자교회와 비교해 보면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윈난(雲南)성, 꾸이저우(貴州)성, 쓰촨성에서 온 학생들이 신학수업을 받는 ‘사천신학원’이 있는 ‘은광당’과 ‘사성당’교회는 매주 수백 명씩 예배를 드리며, 성경읽기반, 찬양반이 있고, 성경판매, 신앙서적, 달력 등을 팔기도 한다.

‘사성당’교회 같은 경우에 토요일예배와 주일예배로 두 번 나누어서 드려, 장소의 부족함을 덜고 있고, 신학원에서 훈련을 받은 젊은 신학생들이 설교를 대부분 인도하고 있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토요일예배를 찾고 있다.

하지만 세 교회가 긴밀한 상호협력을 하고 있어서 은광당에서 설교하신 분이 다음 주에는 똑같은 주제와 내용으로 ‘사성당’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어서 어쨌든 세 곳 중 한 곳만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게다가 굉장한 여당의 색이 짙은 청두는 가정교회가 받는 압력이 다른 곳보다 더욱 심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바른 복음에 눈이 뜨인 젊은이들로 인해서 청두의 가정교회도 점점 활발해져가고 있다.

로 생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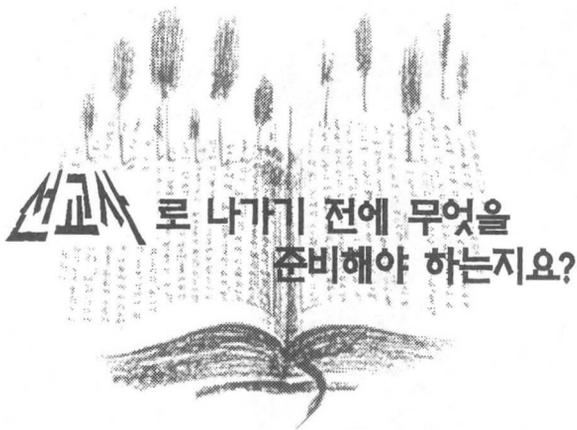
주변 지역의 농촌에서 많은 민공(民工)들이 직장을 찾기위해 청두로 이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유기업이 도산하면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해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아졌고, 힘들이지 않고 쉽게 돈을 벌기 위해 많은 젊은이들이 유흥업을 찾고 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했지만 신앙이 깊지 못한 젊은 여성들은 돈을 벌기 위해 유흥업에 종사하면서 쉽게 유혹에 넘어간다.

날마다 유흥업소, 식당, 가라오케 술집이 늘어나고 있고, 주식에 돈을 투자가 하여 때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 증권업소에는 사람이 붐비고 있다.

기도 제목

1. 사천신학원에서 훈련받고 있는 젊은 신학생들이 바른 복음으로 세워지도록.
2. 청두시에 더 많은 삼자교회가 세워지도록.
3. 시골에서 무작정 올라온 수 많은 민공들이 직업을 찾고 안정된 삶을 살도록.
4. 물질이 최고 목표인 그들의 강해지고 메말라진, 그래서 서로를 불신임하고 상처를 주고자하는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이 넘치도록.



저는 중국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매입니다. 먼저 어떻게 중국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알고 싶습니다. 어떤 길이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신학 공부를 마치고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수에서 박 **



보내주신 엽서는 잘 받았습니다. 중국은 아직까지 선교사가 자유롭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선교사 신분으로는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적인 직업이나 직장인으로 들어가 일하면서 사역하는 방법이 있고, 학생으로 들어가 언어공부나 혹은 학위과정의 공부를 하면서 선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한 가장 우선 조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명한 소명입니다. 신학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하므로, 만약 전문적인 직업을 통한 전문인 선교사가 되기 원한다면 먼저 어떤 종류의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의료, 문서, 언론, 교수, 영어 교수, 한국어 교수, 사업, 재정, 회계, 비서일, 언어학, 유치원 선생, 항공기술 등의 전문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이런 분야의 전문 기술자를 절실히 요청하고 있기에 이런 기술을 익힌 후에 현지에 가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영어 교수, 한국어 교수, 컴퓨터 기술자, 유치원 교사, 한글학교(국민학교) 교사, 피아노



교사, 제빵 기술자, 태권도 사범, 사업가 등의 전문인을 찾고 있습니다.

전문인 선교사든 전통적인 선교사든 선교사는 성경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신학적, 성경적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선교사는 분명한 선교관이 정립되어 있어야 하며, 전문적인 선교훈련이 필요합니다. 문화적응을 위한 훈련, 영적으로 홀로 설 수 있는 신앙훈련, 각종 기술, 건강관리, 내적치유, 인격훈련, 은사와 사역개발훈련, 공동체훈련, 일반 선교학에 대한 훈련 등입니다. 아울러 중국어와 중국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연구, 중국의 종교 정책, 중국선교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선교사 열전, 선교관련 도서, 중국선교관련 도서 등을 많이 읽으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전문적으로 선교사를 훈련하는 단체는 한국 선교 훈련원(GMTC), 총회선교훈련원(MTI), 세계선교훈련원(KWMTI), 한부선교회(MTI), 예수전도단 예수제자훈련학교(DTS) 등이 있고, 전문인 선교사 훈련을 받으려면 한국전문인선교훈련원(GPTI)과 성광 전문인훈련원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어와 중국에 대한 상황을 알기위한 훈련을 받으려면 중국어문선교회나 중국복음선교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훈련기관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면 『중국을 주께로』, 1997년 11, 12월호를 참고(32쪽)하면 됩니다.

전문적인 훈련을 마치고 나면 실제적으로 파송해줄 선교단체나 교회를 찾아야 하고, 선교비를 후원해 줄 후원자를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실제적인 선교 경험을 쌓고 선교지로 가는 방법도 있는데, 중국선교 전문단체에서 단기로 사역을 할 수 있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과 교체하면서 그들을 제자훈련하는 사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준비하고 훈련을 받아 좋은 선교사가 되어 중국의 13억 영혼의 추수꾼이 되길 바랍니다.

석은혜/ 본지 편집장

선교 다이제스트

돌아오는 장 · 단기선교사들을 위한 지침서

낮선 고향 (Re · Entry)

선교지를 떠나 일상 생활로 ...



이 책은 선교지로 막 떠나려는 사람들과 현재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 그리고 선교사역을 떠났다가 귀국한 사람들을 위해 썼다.

특별히 이 책은 장기건 단기건 상관 없이 해외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다가 사역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와 재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모든 교회와 선교단체, 그리고 이들을 돕기 원하는 사람들을 서로 이어주는 실제적인 끈이 될 것이다.

피터 조던 지음/ 김원주 옮김, 예수전도단 출판, 신국판 180면 · 값 4,500원

* 이 책에 한해 예수전도단 본부 사무실에 가서 직접 구입할 경우 가격의 40%를 할인해 드립니다.
(전화: 871-6983, 팩스: 871-7354)

속단은 금물, 야누스의 두 얼굴

(중국 종교 정책)

황민(黃敏)

외유내강 전술하의 중국 교회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입법문제에 대해서 그리 열성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정책은 오히려 매우 순조롭게 운용되어 왔다. 정책이 뛰어난가 그렇지 못한가의 여부는 정부 정책 이외에 그에 상응하는 책략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책략이란 정책을 집행할 때 어떤 방법과 순서를 택하느냐를 가리키며, 마지막에 나타나는 효과가 정책의 표면상에 나타난 뜻과 일치하도록 하거나, 그와 상반되는 상황에도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다. 종교정책의 전술은 후자의 한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정책은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명시하지만, 실제 집행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효과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없다는 느낌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나는 최근에 중국 내에 있는 여러 지방의 많은 가정교회 지도자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들로부터 1년 간의 상황과 사업의 정황을 들었고, 나는 현재 중국내 종교정책과 관련된 일련의 전술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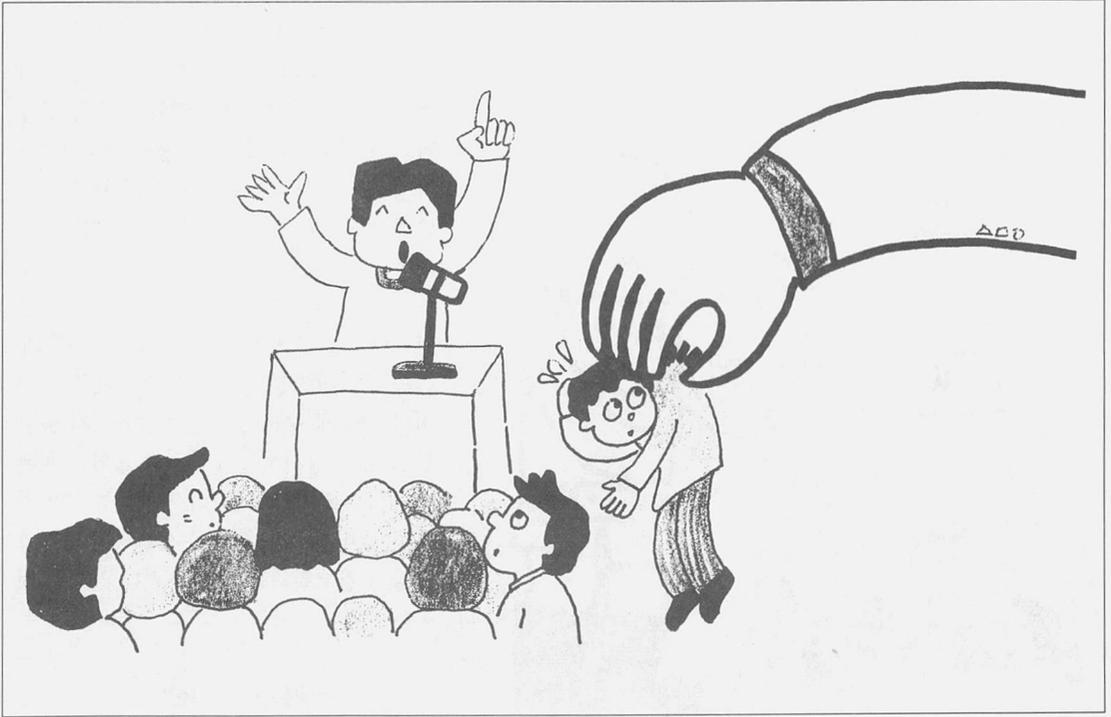
1. 새로운 전술은 과거와 비교해 볼 때 큰 차이점이 있다.

1)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는다

이전에 공안국에서는 가정교회를 색출하기 위해 신도들이 모이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현장에서 즉시 포위하여 잡았다. 그러나 오늘날 이 방법은 신도들의 분노를 유발시켰다. 사회가 개방되면서 이제는 집회장소에 직접 가서 행동을 취하지 않고 대신, 저녁에 전도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를 체포한 후 몰래 한 사람씩 소환하여 심문한다. 체포된 사람은 수감, 심문, 구타, 경고를 거친 후에야 집으로 돌려 보내진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그들은 더이상 거룩한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다.

2) 대대적으로 일을 벌리지 않는다

오랫동안 정부는 지역 사람들을 선동해 밀고하게 하거나, 가정집회의 활동을 감독하고, 민중대회를 개최하여 전도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등 민중통제의 방법으로 가정집회에 대처해왔다. 그러나 이 방법은 오늘날에는 비교적 적게 사용하고 있으며, 공안국, 종교국과 통전부의 간부가 직접 표면에 나서서 집행하고 있다. 어떤 때



장승원 그림

는 가정집회 지점을 봉쇄하여 전도자를 수색하여, 체포한 후에도 지역 민중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기도 한다. 타격의 대상은 항상 몇몇의 전도인이거나 신도 중에서 핵심인물이므로 이들이 받는 압력은 더욱 크다.

3) 사태를 확대시키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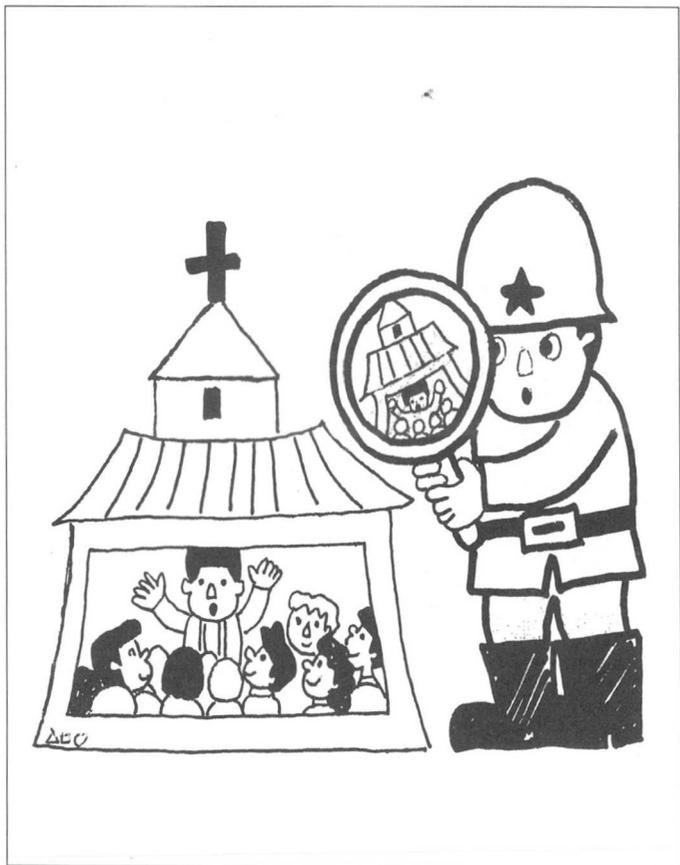
예전에 장기 집회를 단속할 때는 신도의 반항으로 사태가 확대되거나 비교적 영향력이 크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단속할 때 신도들이 분노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한 영향이 미치는 범위를 축소하려 한다. 만일 집행 중에 신도가 쟁의를 유발시켜 그 과정이 커진다면 집행계획을 잠시 유예하였다가 후에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재기한다.

4) 거물급 인사에게 강경하게 대하지 않는다

중국 내의 가정교회와 자유 전도를 말할 때마다 우리는 광저우(廣州)의 린센가오 목사를 떠올린다. 많은 사람들이 만일 가정교회가 압제를 당하게 된다면 따마잔에

있는 린센가오 목사의 가정집회소가 틀림없이 맨 먼저 공격의 대상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해외의 크리스천들은 그곳의 집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가지고 가정집회의 처지를 가늠한다. 따라서 오늘날 중국 정부의 전술은, 가정집회의 명망있는 전도인은 암암리에 감시와 통제를 엄중히 하면서 호되게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꼬투리를 잡을 기회만을 노리는 반면, 소규모의 가정집회 지도자에 대해서는 체포, 수감, 구타, 처벌 등 심한 압제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해외 크리스천들이 이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기 때문이다. 간혹 중국의 가정교회가 학대와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 해외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의외로 여기거나 매우 놀란다. 이것은 중국 사회가 개방되어 중국 크리스천들의 신앙생활이 조금은 자유롭게 되었고, 갈수록 더욱더 많은 신앙의 자유와 권리를 누릴 것이라는 생각과, 실제 중국의 종교상황이 예상밖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2. 꼬투리를 잡은 후 법에 의거하여 엄중히 처벌한다



장승원 그림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데는 국경이 따로 없다는 것이 진리의 가르침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그들의 통제 하에 있는 삼자교회만이 해외 교회, 신도들과의 왕래를 허락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가정집회의 신도가 해외 신도와 왕래를 한다면, 이는 곧 “외국 세력과 내통한다”는 명목의 죄상(罪狀)이 성립된다. 올 한 해 동안 많은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체포되고, 공안국에 의해 그들의 재산을 몰수당했는데, 이는 문화대혁명 당시의 상황이 재현된 것이다. 공안국 수사의 목표는 해외에서 출판한 성경, 신앙서적들의 출처나 들어오게 된 배경 및 과정을 하나하나 자백받는 것이었으며, 나아가 해외에서 온 사람과의 관계와 그들의 언행일체를 자백받는 데 있었던 것이다.

3) 불법 인쇄물을 수사한다

중국 정부는 역사 이래 인쇄출판에 대해 엄격한 규정과 통제를 해왔다. 개혁 개방 이후 간단한 인쇄물을 청부받아 인쇄하는 개인 전문인들이 출현하여 높은 이윤을 남기는 신앙서적을 기꺼이 인쇄함으로써 기독교 문서사역에 새로운 길을 개척하였다. 국

내의 많은 신도들은 신앙서적에 대한 사모함이 무척 크다. 따라서 비공식적으로 인쇄하여 배포하는 방법을 채용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큰 대가를 치루었고, 심지어 판결을 받아 수감되거나 옥에서 죽기도 하였다.

4) 단기간 수감하여 생산노동과 정치교육을 한다
대다수의 가정교회 지도자는 체포된 후 단기간 수감되거나, 심한 구타와 처벌 -일반적으로 체포되었다하면 수천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을 당하거나, 혹은 노동교도로 판결된다. 노동교도는 법률 분류상 판결이라 하지 않고 단지 행정처분이라고 하지만, 실제 대우는 정식 판결의 노동개조와 다를 바 없다. 노동교도가 법률 표준에 의거한 것이 아닌 행정표준에 의거한 처분이므로 죄를 가늠하는 척도가 자유롭고 느슨하며, 법률상의 입안이나 정안(定案) 등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1) 불법건축물은 단호하게 철거한다

가정집회 신도수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자 집회장소가 부족하게 되었고, 80년대부터 각 지역의 가정집회는 중국 사회의 기운이 변함에 따라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오게 되면서 적지 않은 집회장소가 겨우 바람과 비와 햇빛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간편한 건축물을 지었다. 그러나 가정집회의 합법성이 지금까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건물 또한 정부의 인가를 얻지 못했다. 1여 년 동안 불법 건축물을 철거한다는 지침하에 수많은 가정집회 장소가 봉쇄, 철거되었으며, 심지어 폭파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지방의 집회의 천막 골조물은 정부에 의해 철거되어 다시 짓기를 수차례 반복했다고 한다. 신도들은 골조가 철거된 상황에서 피혀 위에서 여전히 집회를 열고 있다고 한다.

2) 해외와의 관계를 추적 조사한다

따라서 설령 많은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감금을 당했다 하더라도 정부는 여전히 법률을 시행하는 차원에서 결코 그들을 박해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3. 가정교회가 더욱 심한 대우를 받는 원인

1) 급속한 교인수 증가는 중앙 최고지도자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가정교회는 이미 중국 내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최대의 단체가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비록 가정교회가 조직적이지 않다하더라도, 각 지방에 있는 가정교회 구성원들의 행동의 '정체성'과 모든 가정교회가 동일한 진리를 표현하는 '일치성'은 정부가 하나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단체로서 이들을 다루게끔 만든다. 이 때문에 효과적으로 그들의 활동상황을 파악하고 아울러 정부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넣지 않고는 정부는 그들에 대해 마음놓고 신임할 수 없는 것이다.

2) 당원과 간부 중 종교를 믿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짐에 따라 정부의 불안을 야기하다.

삼자교회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일을 처리할 때 당원이 종교를 믿는 것을 공개적으로 엄격히 금한다. 따라서 대다수의 당원과 간부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가정교회로부터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진리는 사람의 마음 속에 파고들어 정치선전의 빛을 잃게 하고 신자들에게 자신의 믿는 바를 성실하게 지키도록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깊은 불안을 느끼며, 만약 정부가 통제력을 잃고 그들을 다스릴 방법이 없게 된다면 동유럽의 전철을 밟게 될 것으로 염려한다.

3) 7월 1일 홍콩정권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이 엄중한 통제하에 있을 것을 요구하다.

홍콩반환은 97년의 가장 큰 사건이었다. 중국 정부는 정권이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인계 인수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모든 요인을 미리 미리 제거하라고 각급 성정부에 지시하였다. 가정교회의 사적은 본래 홍콩 반환과는 어떤 관계도 없다. 그러나 정부의 통제하에 있지 않는 이단이 조직한 집회 때문에 가정교회는 배로 매서운 대접을 받아야 했다.

이제 7월 1일은 지났다. 그러나 98년 3월에 열릴 중국 공산당 제15차 인민대회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회 안정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여전히 무거운 압력을 받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국내의 많은 형제자매들은 15대 대회 이후 상황이 완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4) 집회처를 등록하는 정책을 관철 집행한다.

국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모두 정책 집행의 시기성에 이끌리 나 있다. 정책이 발표된 후 일정한 시간 내에 마치 모든 것을 다 완수할 것처럼 열심히 준행하는 듯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한편으로 내버려 두거나 혹은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된다. '위에는 정책이 있고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는 말처럼, 종종 여러 방법을 마련하여 정책의 동향을 피했다가 자연스럽게 기세가 누그러들기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인 것이다. 집회처를 등록해야 하는 정책이 정식으로 반포된 지 1여 년이 지났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가정 교회 집회처들은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지금도 여전히 강제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다. 다만, 각 지역의 정부와 간부가 똑같이 이 정책을 우선 순위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지역의 동향 기간 역시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가 국내 교회의 처지를 들을 때 어떤 지역의 가정 교회는 특별히 어렵고, 다른 지역은 마치 아무런 미동조차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모든 상황들은 우리에게 밖으로는 느슨하면서 안으로는 팽팽하고, 형태는 느슨하나 실제로는 긴장감이 팽팽하며, 이것은 느슨하나 저것은 팽팽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중국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의 복잡성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비로소 중국 복음 사역의 적합한 방법과 수단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글/ 황민 · 중국인 사역자

번역/ 김형미 · 자원봉사자



현지에서 온 소식

IMF한파에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열정

你們好!

죽 안에서 동역자된 형제 자매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경제가 무척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음을 인터넷을 통해 보았습니다. 고국에 계신 여러분의 힘겨운 삶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하여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멀리 있는 우리들도 후원금의 감소로 강장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미화 1천 달러당 약 20만 원의 환차손이 생기니 허리띠를 졸라대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가정도 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송금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하주 속히 하나님께서 조국을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길 전심으로 기도하며 패를 짜와 도수시는 하나님을 의뢰할 따름입니다.

여름과 겨울만 있는 곳

이 곳의 날씨는 봄, 가을이 거의 없고 여름에서 바로 겨울로 넘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4월 중순부터 구름이 걷히고 해가 나오기 시작하면 바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다시 10월 중순부터 구름이 끼기 시작하면 온도가 내려가서 곧바로 싸늘한 기온이 감돌지요. 이 때부터는 태양을 보기 힘든 날씨가 계속되고 안개와 습기가 많은 스산한 날씨로 변하게 됩니다. 열하권으로는 거의 내려가지 않지만 집안에 난방장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온도는 사람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이 곳 벵츄상 양자강(長江)이남에는 난방장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전기를 사들여 난방을 하므로 추위를 피할 수 있지만 서민들은 겨울이 나기 힘든 계절입니다. 때때로 시장이나 거리의 노점상에서 설하는 사람들의 손이나 귀를 보면 동상에 걸린 사람이 꽤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국의 이중적인 면을 보게하는 모습입니다.

이 곳에서는 이치럼습하고 추운 날씨를 견디기 위해 예로부터 맵고 자극적인 음식이 발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곳의 음식하면 매운 맛으로 유명합니다. 이중 '취귀'(고추의 산초나무의 열매를 달인 물에 음식을 익혀 먹는 요리)는 이곳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요리 중의 하나입니다. 이 요리는 처음 먹는 사람들은 설사를 하거나 배앓이를 할 정도로 매운 맛과 자극적인 맛으로 유명하지만, 몇 번 먹어본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먹고 싶을 정도로 구미가 당기는 요리



현지에서 온 소식

입니다. 이러한 음식은 날씨의 영향으로 오는 관절염과 저혈압 등을 예방하고 의기소침하기 쉬운 기분을 풀어주는 데 좋다고 합니다.

중국인 지도자 양성, 중단되시는 인돼

이런 여러 상황속에서 저희 부부는 각각 한 명의 자매들과 신앙독본(信仰讀本)-현지어와 한글이 함께 적혀 있어서 의심할 여지 없는 좋은 언어교과서라고 생각함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곳의 상황에 맞게, 그러면서도 쉽게 기술한 책인데, 자매들과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A양은 철저한 무신론자로서 공산당원 예비후보입니다. A양과 6개월 정도 함께 생활했는데(실주일에 2, 3일은 함께 기거함), 사실 내적으로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셨으므로 모든 불편을 감사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나는 그녀가 내용을 기억할 수 있도록 수리가 되을 때까지 그녀로 하여금 책을 보고 읽도록 합니다.

K양은 2년 전부터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복음을 접한 터라 기독교에 대해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수리와 함께 공부하면서, 이 책이 자기를 위해서 쓰여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팀은 한국어를 배우는 한족 고등학생들이며 그들의 언어표현 능력과 수리들과의 관계가 현저히 발전되어지면 삶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 중입니다.

그동안 저는 베이징(北京)에 회의가 있어서 두 번이나 다녀와야 했습니다. 베이징은 기차로 꼬박 이틀이나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한국은 고작 몇 시간이면 끝까지 도착하는 좁은 국토임에 비해 중국은 대국이지요. 넓은 국토 못지 않게 인구도 매우 많아 가는 곳마다 그야말로 인산인해입니다. 어떠한 일든지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고 무슨 모임이나 집회든지 열기만 하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 나라는 분명 하나님께서 머지 않아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모으실 것임이 확실합니다. 다만 이렇게 많은 사람을 건질 실골이 부족합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 그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몇몇 중국 사람을 통해서 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도자를 양육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IMF한파에 고국이 휩싸여 있다는 소식은 이곳의 신문과 TV에도 계속해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온 소식

이 곳 역시 철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많은 유학생들 역시 귀국의 대열에 이미 속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은 모두 수리를 떨게하고 낙심되게 하지만 소늘도 복음은 사뭇 전 막힘없이 수리의 가슴과 입에서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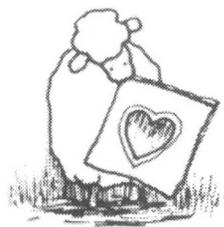
수리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수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공훈과 풍성한 자비로 수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여 그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릴 때, 수리를 씻기시고 수리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수리의 피난처 되심과 하나님 됨을 알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길 기도합니다.
평안하십시오.



1998년 3월

이△△, 김○○ 올림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자

-이대영(李大榮) 목사(1)-

김 교 철



산동선교사 시절의 이대영 목사 가족

1. 중국 선교지 도착(1922. 6. 13) 및 즉묵(卽墨)으로 이동(1923. 4. 30)

이대영 목사는 1887년에 경북 예천에서 출생하였으며, 기독교 신앙으로 인하여 집안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경상도 장산교회, 경주 제일교회, 남성정교회(현 대구 제일교회) 등 여러 교회에서 조사로 활동하였고, 1920년 12월, 제14회로 윤하영, 황보덕삼 등과 같이 평양에 있던 신학교를 졸업하였다. 신학교 졸업 후 1921년 1월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으며 안동읍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시무하다가, 이대영 목사는 총

회 전도국의 선택을 수락하여 기꺼이 안동읍교회 목사직을 사임하고 노회 결의를 거친 후 1922년 봄까지 선교사로 출발 준비를 하였다. 대구 계성학교에 다니는 장남 규원은 대구 남산교회에 다니는 최성연 권사댁에 맡기고 고국을 떠나 1922년 6월 13일 중국 산둥(山東)성 선교 임지에 도착하게 되었다. 중국선교사로 파송되지만 당시에는 총회전도국에서 선교비를 관리하였고, 이대영 선교사의 선교비는 평북 여전도회에서 담당하였다. 총회 전도국은 이미 세운 예산대로 여비 등 비용을 지불하였다. 선교 임지인 산둥성에

는 선배인 방효원(方孝元) 목사, 홍승한(洪承漢) 목사, 박상순(朴尙純) 목사가 이미 사역을 하고 있었고, 라이양(萊陽)에는 경성 세브란스를 졸업한 김윤식 의사도 활동하고 있었다. 라이양 남관에는 선교기와 남관 예배당이 건축되어 있었고 선배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대영 목사는 라이양에 10개월 간 거주하면서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이대영 목사 가족은 라이양에서 어학을 공부하다가 선교 임지로 정해진 즉묵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대영 목사는 라이양 선교사로 파견된 것이 아니라 즉묵 선교사로 파견된 고로 라이양에서 중국어를 배우다가 즉묵으로 이사하였던 것이다. 즉묵은 조선선교회(朝鮮宣教會)가 새롭게 선교사역지로 중국 측 노회로부터 허락받은 지역이었고, 홍승한 목사가 조선 선교사로는 개척자가 되어 활동을 시작하는 한편, 선교사 주택을 신축하여 놓은 지역이었다. 홍승한 목사는 1922년 7월 즉묵에 건축하던 사택이 낙성된 고로 가족을 대동하고 1922년 7월 25일 즉묵으로 이사하였다. 중국 산둥 조선선교회는 1922

년 9월 1일부터 라이양과 즉묵 선교 회로 분립하여 1923년 임원을 선정 하였는데, 즉묵 선교회 회장 겸 회 계는 홍승한 목사가 담당하였고, 이 대영 목사는 서기를 맡게 되었다. 본국에 있을 때 경북노회에서 대선 배이던 홍승한 목사와 같이 즉묵사 역을 시작한 것이다.

2. 즉묵에서의 선교사 생활과 사역

이대영 목사는 1923년 4월 30일에 부인과 유아 1명 그리고 중국인 어 학교사를 동반하고 라이양에서 남 쪽으로 180리 떨어진 즉묵으로 출발하였다. 즉묵에 도착한 이대영 목 사 가족은 홍승한 목사 사택으로 건 축한 주택에 짐을 풀었는데, 홍승한 목사 가정은 1917년 중국 산둥에 도 착하여 활동하다가 처음으로 안식 년을 당하여 1923년 본국으로 귀국 한 상태였다. 이대영 목사 가족이 즉묵으로 이사하기 전인 1922년 9 월, 즉묵은 토비(土匪) 수백 명이 성 을 함락하려고, 관병과 6시간이나 교전하여 공포 분위기였고, 홍승한 목사 주택에 피난민들이 다수 몰려 와 수용하기도 하였던 일이 있었다. 1920년 당시 중국에는 큰 흉년이 들 어 비참한 정형이 목불인견(目不忍 見)이었는데, 산둥과 산시(山西) 지 방이 심하였고, 토비들이 일어나 어 지러운 시대였다. 1923년에도 즉묵 과 라이양 등지에는 토비가 출몰함 으로 인심이 분분하고 촌리여행이 위험한 때였다. 이대영 목사 가족은 홍승한 목사가 안식년으로 귀국한

터라 중국어도 익숙지 못하고 중국 풍습도 잘 알지 못하는 중에 부득이 즉묵에 외로이 거주하게 되었다. 당 시 즉묵에는 홍승한 목사와 중국 전 도인의 수교로 1923년 봄경 매주일 30여 명이 회집하고 있었으며, 소아 주일학생도 40여 명 출석하고 있었 다. 이대영 목사 가족이 즉묵에 거 주하던 중 1924년 1월에 안식년을 마친 홍승한 목사 가족이 즉묵으로 귀임하였다.

1923년 여름 즉묵에서 여름수련 회를 개최하였는데 18명이 참석하 여 이주일간 공부하며 많은 재미를 보았으며, 칭다오(靑島)를 관광할 때에는 칭다오 지역 유력인사와 선 교사들의 대우를 받았다. 수련회 폐 회 후 전도선생들이 각지로 분산하 여 여름 수양회를 개최, 교인들의 신앙이 진보되기도 하였다.

3. 선천북회 주현칙(朱賢則) 장로 즉묵 선교사 주택에 병원 개설 (1923년)

이대영 목사 가족이 즉묵에 거주하 기 시작한 1923년에, 즉묵으로 경성 제중원의학교를 졸업한 의사 주현 칙 장로가 들어와, 선교사 주택에 임시로 병원을 개설하고, 선교사 이 대영 목사를 돕게 시작하였다. 즉묵 에 병원을 개설하고 선교사를 돕기 시작한 주현칙 장로는 1883년 출생 하여 1908년 제중원의학교를 제1회 로 졸업하여 한국 최초의 의사면허 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평북노회 선천북교회 장로로 시무하였으나, 1919년 대한독립운동 사건 이후 상

하이(上海)로 망명하여 임시정부 산하조직에서 활동하다가, 중국 산 동 즉묵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주 장로는 병원명을 '삼일의원(三一醫 院)'으로 정하고 운영하여 병원 사 업도 잘 되었고 교회와 선교사를 잘 도와주었다.

이대영 목사 가족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으며 선교사역에도 큰 도움이 된 것이다. 의료기술을 가진 의사가 협력하는 모양이 되어, 외로 윳던 차에 동지가 생긴 듯했고 좋은 교제가 있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선교사는 이 사실을 본국 총회에 보고하였다. 주현칙 장로는 1925년에 도 즉묵에 거주하며 의료사업을 하 며 선교사와 교회를 돕다가 귀국하 였고 1926년 9월에는 제15회 총회 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4. 교동(膠東)노회 출석(1923. 11. 6부터 중국 칭다오)

조선예수교장로회 경안노회에 소 속되어 있던 이대영 목사는 중국선 교사로 파송되어 오면서 산둥성 교 동노회로 1922년 11월 이명하여 중 국 노회원이 되었는데, 이대영 목사 는 선배선교사 박상순 목사와 같이 1923년 11월 6일부터 중국 칭다오 명덕(明德)중학교에서 개최된 교 동노회에 참석하였다. 당시 교동노 회에는 서양선교사와 중국인들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었는데, 조선 인 목사이자 선교사로는 이대영, 박 상순 목사만이 소속되어 있어 관심 의 대상이 되었다. 칭다오 명덕중학 교에서 개최하여 일주일간 사무를

처리하며 강연회를 열었는데, 조선인 박상순 목사는 교동노회 부회장으로 피선이 되었다. 교동노회에서 부회장이 된 박상순 목사는 조선 교회의 조직방법과 전도의 정책을 건의하여 다수 채용되었다. 신참 선교사 이대영 목사는 선배 박상순 목사가 교동노회에서 부회장이 되어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배우게 되었고, 분위기를 익혀 나가며 중국 교회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5. 즉묵에 입시사택 건축과 득녀 (1924년 7월 7일)

이대영 목사 가족은 즉묵 홍승한 목사 주택에 거주하다가 홍승한 목사가 안식년을 마치고 1924년 1월 선교지에 귀임하게 되면서 입시 사택 5칸을 건축하여 거주하게 되었다. 1924년 당시에 이대영 목사는 중국 말로 설교(講道)를 하게 되었는데, 이 목사와 그 부인이 열심히 어학공부한 결과였다. 1924년 7월 7일에는 처음으로 선교지 즉묵에서 딸을 얻게 되었다. 당시에는 감사하게도 조선인 의사 주현칙 장로가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이대영 목사가 득녀한 후 7월 17일에는 홍승한 목사가 정에서도 아들을 낳아 선교사 두 가정에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었다.

이대영 목사는 1924년도에 조선 선교회의 총선교회 회장 및 즉묵선교회의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1924년 당시 라이양선교회 회장은 박상순 목사, 서기 방효원 목사였고 즉묵선교회 서기는 홍승한 목사가 담

당하였다. 이대영 목사의 선배 홍승한 목사는 1924년 8월 이전까지 즉묵성, 강산(姜山), 궁가장(宮家庄), 박자(泊子), 오산위(鰲山衛) 등 5개 지방교회를 책임 맡고 있었으나, 이대영 목사는 책임을 맡은 교회는 없던 시기였다. 어학공부를 하면서 선교사역을 익히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6.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이대영, 홍승한 선교사 소환 결정(1924년 9월, 함흥)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1913년부터 중국 산둥선교를 시작하여 진행하던 중 1916년에 박태로 목사가 질병으로 귀국하게 되었고, 1917년에는 선교사 김영훈, 사병순 목사가 선교지를 이탈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총회는 1917년에 방효원, 홍승한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였고, 1918년에 박상순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등 의욕적으로 중국 선교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1923년에 이르면서 심각한 재정압박에 시달리게 되어 급기야 선교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는 안전이 총회에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선교사 소환 건이 상정되게 된 배경으로 당시 조선경제의 폐쇄와 총회산하 각 노회에 분배한 분배액 수입 성적이 좋지 못한 이유를 들 수 있으며 산둥선교 지역 확장에 따른 선교사업 비용의 증액을 계속 감당하기 어렵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조선 선교사들의 선교구역이 확장되면서 미북장로교 선교사들이 담당관리하던 중국 교회들을 인수

받아 현지 지방교회 보조를 시작하면서 지출이 증가하였는데, 1924년 산둥선교 예산표에 의하면 선교사 4명 비용이 6,240원이고 지방 보조비로 2,850원을 책정하였다. 산둥조선선교사회는 1924년도 예산액으로 35,350원을 청구하였는데, 총회전도부는 20,000원으로 줄여서 1924년도 예산을 편성하였고, 선교사 2명 소환건을 제출하였던 것이다. 산둥선교 사업비용이 어려워지자, 1923년 9월 8일 신의주교회 예배당에서 개최된 제12회 장로교 총회에서 전도부장 이자익 목사는 “산둥선교 사업은 여전히 계속키 불가능하므로 즉묵선교사 2인을 소환하자는 보고는 기각되었고 현상대로 계속하기로 결의되었다. 총회전도부(부장 이자익 목사)는 즉묵 선교사 홍승한, 이대영 2인을 소환하자고 보고하였으나, 제12회 장로교 총회는 중대한 문제인즉 이 사건을 다시 전도부와 각 노회장과 지회계에게 맡겨 신중히 의논한 후 보고케 하기로 동의를 결정하게 되었다. 당시 총회 전도부는 첫 선교지인 라이양사역은 지속하되 확장된 지역인 즉묵지방 선교사역을 축소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즉묵 선교사 이대영과 홍승한 목사의 소환사건이 총회에서 거론되고 있던 당시, 안식년 중이던 홍승한 목사가 선교 상황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1923년이 지나고 1924년 9월 13일 제13회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함흥읍 신창리 예배당에서 개최되었는데, 총회 전도부장이던 이자

익 목사가 총회장으로 선출이 되었다. 제13회 총회에서는 새로 선출된 외지 전도부장 차재명 목사가 즉묵 선교사 이대영, 홍승한 목사 소환건을 청원하였고 그대로 가결이 되었다.

제13회 총회에서 선교사 소환 결정과 아울러 결정 사항을 중국 교동노회와 대회에 총회장 명의로 편지하기로 하였다. 총회 외지 전도부는 1925년도 산동선교 예산에 소환되는 선교사 이대영과 홍승한의 1924년 9월과 10월 두 달 봉급 합 280원과 취학자녀 4명 자녀비 80원, 미취학자녀 4명 자녀비 64원을 포함시켜 작성하였다.

1924년의 제13회 총회에서는 중국 산동선교사의 봉급으로 매월 90원이던 것을 70원으로 삭감하여 지불하기로 결정하였고, 자녀비도 매월 12원이던 것을 1924년 9월부터는 10원씩을 정하였다. 선교사의 봉급과 자녀비를 처음으로 삭감하여 지불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1922년에 중국 선교사로 파송된 이대영 목사는 언어공부도 다 마치지 못한 시기에 소환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선배 홍승한 목사와 이대영 목사의 소환결정과 동시에 이름이 밝혀지지 아니한 어느 선교사가 300원을 현금함으로 두 달 간 이대영 목사의 소환을 연기하고, 계속하여 힘써 보아서 아니되면 소환하기로 청원한 것도 그대로 가결이 되었다. 홍승한 선교사의 소환은 결정되었으나 이대영 선교사는 두 달 간 연기되었다가 소환당하게 될 상

황이었는데, 경북노회가 이대영 선교사 소환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노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7. 이대영 선교사 소환에 대한 경북노회의 대책과 이대영 선교사 유임

이대영 선교사는 중국 산동선교사 가운데 유일한 경상도 출생이었고 경상도 여러 지방교회에서 조사시절부터 안동읍교회 목사로 부임하여 시무하기까지 활동하였다. 그후 중국선교사가 되어 파송된 지 얼마 아니되어 세계적 재정곤란의 파급과 국내의 여건이 어려워 소환당하게 되자, 1925년 1월 7일부터 대구 동산성경학교에서 회집된 제17회 경북노회에서 이대영 선교사 문제가 거론되었다. 제17회 경북노회는 산동선교 사업에 대해 토의하기로 가결하여 토의한 결과 선교사 이대영 씨 원류(願留)방책 연구와 실행하기까지 연구위원을 선정하였는데, 연구위원은 염봉남, 위철지, 김영옥(경북노회장), 방해법 4인으로 결정하였다.

동년 1월 9일 경북노회는 산동선교사 이대영 씨 원류방책 연구하는 별위원 보고를 받기로 가결하였다. 보고내용을 보면 산동성 즉묵선교사 이대영 목사 원류하기 위하여 경북노회 내 동편 시찰 구역에서 500여 원 그리고 외지 전도회에서 130원, 부인 전도회에서 30여 원, 합계 600여 원을 경북노회에 올리니, 총회전도국과 교섭하여 1년간 유임하여 달라는 내용과 함께 연구위원들

에게 허락하면 장래사를 위하여 활동하여 선후책을 연구하겠다는 내용이였다.

그리하여 소환되었던 이대영 선교사는 경북노회 회장의 청원에 의하여 1925년 총회 때까지 유임되었다. 유임된 이유는 경북노회에서 730원을 보내고 선교사 11명이 220원을, 그리고 라이양 어떤 교인이 50원을 보내어 1,000원이 수입되었기 때문이다. 경북노회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으로 소환당할 위기에 처하였던 이대영 선교사는 유임되었고, 중국 산동 즉묵에서 계속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대영 선교사는 자신의 선교사역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경북노회 앞으로 서신을 보내어 선교보고를 하였고 즉묵선교부에서 경북노회 지경 내 기근에 대한 동정금으로 금 30원을 보내기도 하였다. 경북 도 제직회장 염봉남 목사는 1925년 6월 노회에서 1925년도에도 제직회를 허락하되, 이대영 목사를 청하려 하니 허락하여 달라고 하기도 하였다. 즉묵성에서 선교활동을 계속하게 된 이대영 선교사는 중국어도 발전하여 중국말로 설교하게 되었다. 중국어가 익숙치 못한 시기였으므로 내용전달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지만 중국어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1925년 봄이 지나고 이대영 선교사는 자기 자친과 장모회갑을 당하여 여비(旅費)는 자담하고 2개월 간 귀국하기를 청하여 허락을 받은 후 귀국하게 되었다. 이대영 선교사의 귀국 즈음인 1925년 7월에 라이양에 거주하

던 박상순 목사 가족이 즉묵으로 이사를 하였고, 이대영 선교사는 중국 즉묵 선교사역에 대한 전망이 그리 좋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귀국하여 가족들을 만나고 그리운 얼굴들을 대하여 기도와 격려를 받게 되었으며, 경북노회 지방도 제직 사경회를 인도하여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이대영 목사의 장래 문제를 결정짓게 될 제14회 총회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대영 목사는 제14회 총회가 열리게 될 평양으로 향하였다.

8. 이대영 선교사 인임(仍任) 결정 (1925년 9월 17일, 평양)

제14회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는 1925년 9월 12일 평양부 서문밖 예배당에 회집하여 개최되었다. 제14회 총회가 진행되던 9월 14일 오후 2시 계속회에서 당시 외국 전도부장 차재명 목사는 보고와 청원을 하였다. ‘즉묵성에 전도기관 설치하는 건’과 ‘즉묵 선교사업 형편에 의하여 이대영 선교사 인임하자는 것’, 그리고 ‘선교에 대한 예산은 신중히 처리하기 위하여’ 라는 이유로 다음날까지 유안되었다. 1925년 9월 1일부터 1926년 8월 31일까지 지출될 중국선교 예산액은 도합 14,176원이었으며, 선교사 3인과 자녀비를 포함하여 4,128원 그리고 중국 교회 보조비(지방보조비)로 3,300원 등 여러 항목으로 책정이 되었다. 1925년 제14회 총회에서 정도부 명칭이 외지전도부에서 “외국전도부”로 변경되었고, 1925년 당시 외국 전도부

부채는 1,770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총회 외국전도부는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전도부가 1년 2차 회집하는 규칙을 1년 1차씩으로 하여 총회 시에만 회집하기로 규칙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대영 선교사의 인임 건 청원이 연기된 9월 14일 오후 8시에 이대영 선교사가 기도한 후 스윗스 박사의 “전도와 교육의 요령”이란 제목의 강설시간이 있었고, 이어서 즉묵선교사 이대영 목사의 선교상황 보고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이대영 선교사는 이사야 54장 1~2절 “인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하며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하며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는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하자.”는 제목으로 잠깐 설명한 후에 산동선교 형편과 그 지방 풍속을 열정적으로 보고하였다. 이대영 선교사의 보고를 듣고 총회원들이 많은 감동을 받게 되어 산동 선교를 위하여 당석에서 헌금하게 되어 길선주 목사가 기도하고 연보하게 되었다. 이대영 선교사의 선교보고로 총회원들이 감동을 받은 상태에서 그 다

음날인 9월 15일 오전시간에 자녀 교육문제로 귀국을 허락받은 박상순 선교사 부인의 인사에 이어서 의사 김윤식 씨가 총회에 참석하여 인사하면서 의료사업에 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김윤식 의사는 산동 선교사업에 큰 도움을 주는 인물로 총회에서 환영을 받았다. ‘이대영 선교사의 인임의 건’은 그 다음날 16일 오전에 다시 제출되어 두 회원이 기도하고 장시간 토의하다가 전도부가 보고하기까지 유안하기로 가결되었다.

이대영 선교사 인임문제로 장시간 토의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대영 선교사의 인임건은 1925년 9월 17일 오전에 다시 상정되어 토의하다가 두 회원이 기도한 후 이대영 선교사를 다시 인임하기로 하고, 선교예산도 그대로 허락하고 즉묵성 전도기관 설치 건은 외국 전도부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였다. 이대영 선교사가 총회에 참석하여 기다린 지 6일 만에 중국선교사로 계속 활동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이다. 이대영 목사와 함께 선배 흥승한 목사가 선교경비 부족문제로 소환결정이 되었으나, 흥승한 목사는 결국 사임하게 되었고, 후배 이대영 목사는 경북노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중국선교사의 길을 계속 걷게 되었던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김교철/ 중국선교연구협회 상임총무, 연구원, 부개동교회 외국인 예배 담당목사

불 속에서 건진 한 개비 장작

후 성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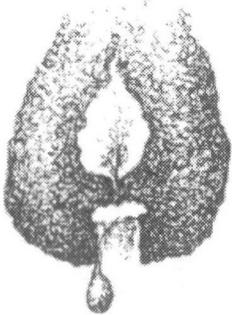
드넓은 우주 속에서 망망한 중국대륙의 오천여 년 역사를 통틀어 볼 때,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한시도 돌보지 않으신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비록 인류는 그분을 알지 못하고 배척하며 심지어 저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지 20여 년이 되었다. 그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매우 깊은 체험들을 하였다.

우스 땅에 읍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욘 1: 1)

1920년대 초, 하나님께서는 서양의 한 선교사를 중국의 오지인 화북 변

경의 한 작은 도시-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다-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셨다. 그들 중에 그 지방 지주의 큰아들인 왕유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일찍부터 중국 땅 전역을 두루 다니면서 학문을 추구하던 학생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세상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다. 일본의 침략과 국내의 수십 년에 걸친 내전에 이어 새로운 중국이 탄생하였다. 70년대 말까지 무수한 운동들이 일어났으며, 해를 더해갈수록 뜨거운 혁명과 투쟁이 줄기차게 일어났다. 수십 년





장승원 그림

동안 그는 계속 기도했다. 무릎을 무기로 삼아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꿇어앉았고, 항상 말씀을 묵상했다. 이로 인해 그의 가족 안에는 기적들이 일어났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차례 차례 크리스천이 되었다. 동시에 그가 살던 지역이 부흥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였다. 오래 전 한 시대에 하나님

께서 읍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면서, 다음 세대의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잠 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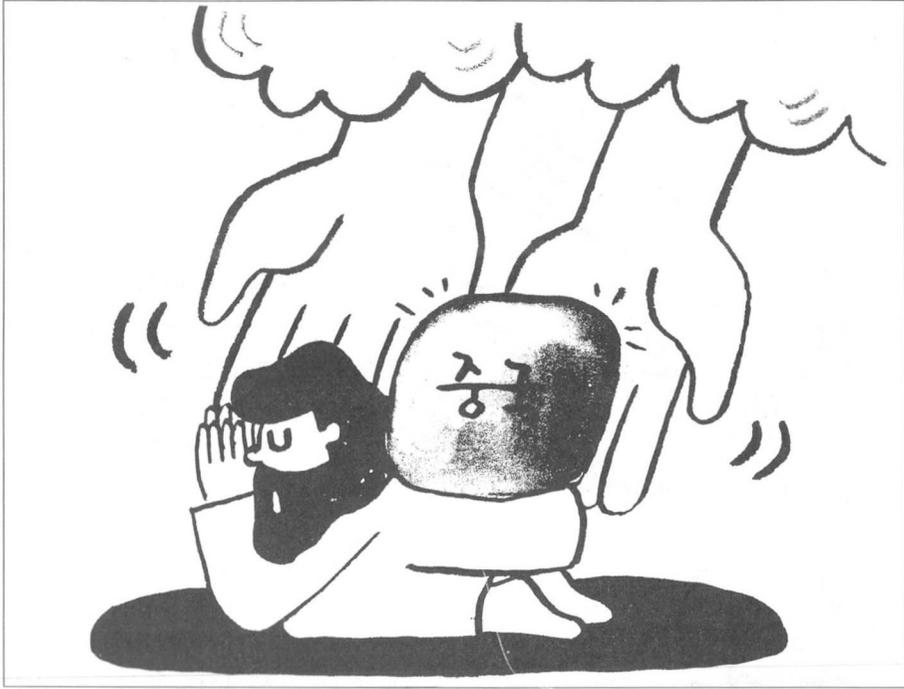
나는 유년시절을 시골에서 보냈다. 그 때는 자동차가 무엇인지도 몰랐

으니 기차나 비행기 같은 것들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내 고향은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눈길이 닿는 곳은 어디나 산들과 조약돌, 소와 양떼들이 있었다. 초등학교가 있긴 있었지만 선생님은 마을의 회계원을 겸하고 계셨고, 학생들은 1학년부터 5학년까지 모두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았다. 이렇듯 나는 매우 낙후된 환경에서 성장했다.

1978년 가을 중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 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다. 졸업을 하긴 했지만 학교 성적이 좋지 못한 데다가 타고난 머리도 우둔하여 진학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게 사형 선고나 다를바 없었다. 그때 나는 한 평생을 시골에서 땅을 파면서 농사를 짓는 것 외엔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 보였다. 내 미래는 참으로 어두웠다. 그러나 어느 날 오후,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시던 어머니가 나를 찾아 역사적인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을 믿어야 비로소 갈 길이 보이며, 사람답게 될 수 있고 아름다운 미래가 있을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처럼 밝히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받아들였다. 나는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희망으로 삼았다. 아침과 밤에 한 번씩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은 시작되었다. 비록 내



장승원 그림

주위에는 유물주의와 무신론으로 가득차지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는 말씀을 내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이 말씀은 나의 사고방식의 방향을 결정하였으며, 나의 심령과 생각 속을 뚫고 들어와 나의 세계관을 바꿔 놓았다. 이후로 내 삶은 180도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기도 하였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대학교에서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나는 이 말씀대로 나에게 허락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였기 때문이다.

내 중인이 되리라(행 1: 8)

87년 여름 만 22세 되었을 때 대학을 졸업한 나는, 한 고등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아 선생으로서의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무렵 그 지역 교회의 형제, 자매들은 나를 그들의 희망으로, 교회의 기둥으로 여기고 설교자가 되어줄 것을 강청하기 시작했다.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던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형제, 자매들의 기도에 힘입어 부족한 입술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 되었다.

그 당시 내 생각은 이러하였다. ‘평신도로서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 학생들을 훌륭하게 키워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교회에서 설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들의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과 요구, 그리고 설교할 사람이 없는 환경을 아시고 나를 그들을 위해 설교자로 강단에 세우신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6년 동안 학교 선생님이로, 교회의 설교자로 살아갔다. 그러나 어느 날 설교를 하던 중, ‘내 중인이 되리라’는 말씀에 사명감을 느낀 후 사역자로서의 책임감이 날로 가중되어 갔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울

소망도 생겼다.

다시 그 때를 회상해보면 발 갈고 씨 뿌리는 고통과 발버둥침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기쁨과 만족 역시 매우 가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탈곡장에서 너무나 많은 필요들을 대할 때마다 힘이 마음을 따르지 못함을 느낀 것도 사실이다. 마치 한 사람이 전체를 혼자서 다 장악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나 혼자서 교회 전체의 일들을 알고 다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영에 속한 인재들을 훈련시켜 교회의 지도자로 일으켜야 한다는 사명과 소망이 날이 갈수록 강해졌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는 나의 고민거리이자 기도제목이 되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니 (막 4: 35)

6년간 교편을 잡으면서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보충수업 학생들을 가르친 나는 일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컸다. 게다가 주일날 설교하는 것 외에 주중에도 시간을 내어 말씀을 전해야 했다. 이런 생활을 6년간 하고 나니, 나도 다른 선생님들처럼 ‘만성인두염’이라는 직업병을 얻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근무를 계속했다.

어느 날 수업을 시작하니 15분 정도 지났을 때, 목이 아파 더이상 수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며칠 동안 계속되자 학교 측에서는 휴가를 줄 테니 집에 돌아가

서 쉬라고 했다. 이 소식을 들은 교회의 형제자매들은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여러 곳에 가서 전도할 수 있는 무척 좋은 기회라고 여겼다. 그들의 부탁을 도저히 사양할 수 없었고, 또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므로 나는 그들과 함께 곧바로 출발하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그렇게 아프던 목이 두세 시간을 쉬지 않고 설교를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 어떤 통증도 전혀 느끼지 못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나는 병이 완전히 나았다고 여기고 학교로 돌아가 수업을 다시 하려고 했다. 그런데 나를 더욱 놀라게 한 일이 일어났는데, 수업을 다시 시작한 지 15분이 지나자 다시 목이 아파오더니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닌가.

나는 기도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가족 모두가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믿음의 연단을 거친 후 1992년 말 드디어 사역자의 길로 완전히 헌신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먼저 하나님은 한국 선교사를 만나게 인도하셨고, 그를 통하여 나에게 도전을 주셨다.

‘미래의 5년, 10년 후의 중국과 중국 교회를 위해 신학을 공부하라’, ‘한국 교회를 보고 배워라’
최후의 하나님의 음성은 뚜렷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기대가 가득한 가운데, 또 역사적인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3년 전 한국에 왔다. 앞서 내가 경험한 한 가지 이상으로 인해 힘에 힘을 더하여 공부하여 이제 모든 학업을 마치고, 새로운 헌신의 길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건너와서’ 공부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내가 중국으로 돌아간 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을 섬기는 길을 가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나는 본래 불 속에서 건져낸 한 개비 장작으로서, 불 태워지고 죽어 없어지는 것밖에는 별다른 희망이나 기대가 없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멸망의 불구덩이에서 구해내셔서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분의 한 지체가 되게 하셨다.

후성도/ 중국인 사역자
번역/ 여수옥 · 자원봉사자

중국선교의 발자취

'자유'의 다리' 건너면서 긴 숨 내쉬고, 맞이하는 이 없 이 무일푼으로 차 타고 시내로

중국 공산당의 마지막 거점은 광둥(廣東)성 선전(深圳)이다. 이 곳까지 우리 가족은 중국 공산당의 호송을 받아 왔으며, 이제 비로소 그들의 세력에서 벗어나 자유 세계로 가는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다. 선전에서 중국 공산당원에게 마지막으로 검문심사를 받았다. 중공과 홍콩 사이에는 50m 넓이의 운하가 있었고 그 양편을 연결하는 다리가 놓여 있었다. 선전의 마지막 지점에서 일체의 수속을 모두 마친 뒤 관원의 안내로 경제지역인 언덕으로 올라갔다. 언덕에서니 파진 운하와 다리뿐만 아니라 다리 건너편의 펠릭이는 영국 국기도 눈에 들어왔다. 공산당의 손아귀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리라 생각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있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내 마음 속에서 '정말 저 곳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말이 설 새 없이 들려왔다. 그들은 우리에게 다리를 건너가라고 명령하였다. 우리 가족은 다리를 건너 자유의 땅을 향해 한 걸음씩 천천히 발을 내디뎠다. 그 때의 심정을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50m 정도 건너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중공기가 바람에 펠릭이는 것이 보였다. '드디어 저 곳을 벗어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제서야 안도의 긴 숨이 나왔다.

홍콩으로 향하는 사람 중에 노무자로 보이는 필리핀 사람이 있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필리핀 외교관은

그가 다리를 건너자마자 곧바로 데려 갔다. 그러나 나를 맞이하기 위해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리저리 둘러보았지만 허사였다. 해는 서산에 기울어 날은 어두워져 갔고 거기서 홍콩까지 가려면 기차를 타야 했다. 그러나 그때 내 수중에는 단 한 푼도 없었다. 그렇게 원해서 자유의 땅인 홍콩에 발을 들여놓았건만 당장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좀 기다려 보면 누군가 나오겠지 하는 생각이 기다려보기도 했지만 역시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참으로 당황스러웠다. 마침 근처에 운수회사가 있어서 나는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



기로 결심하고 그 곳으로 갔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제 막 대륙에서 홍콩으로 건너온 사람인데 아무도 마중나오지 않았고, 또한 저에게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구룡(九龍)역까지 가는 기차표를 사 주시면, 그 곳에 가서 마중나온 사람을 통해 그 값을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구룡역에는 틀림 없이 누군가가 마중나와 있을 것이

중국선교의 발자취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통사정을 하였다. 내 처지가 매우 딱해 보였는지 그들은 내 부탁을 받아들여 한 운수원이 구룡역까지 동행하게 되었다. 구룡역에 도착하니 밤이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구룡역에 나를 마중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너무나 당황한 나는 급히 공중전화를 찾았다. 전화번호부에서 한국은행을 발견하고 전화를 걸었다. 어떤 여자가 받았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밝힌 후 내가 얼마나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그녀는 은행장의 부인이었으며 내가 전화를 건 곳은 그들의 집이었다. 그녀는 이미 남편으로부터 나에게 관한 얘기를 들어서 나를 알고 있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그는 집에 없고 무슨 연회에 참석 중이었다. 그녀는 그 곳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아마도 거기에 출영사도 계시지 모른다고 전해주었다. 전화를 끊고 운수원에게 공중전화비를 빌려 그녀가 일러준 번호에 전화를 걸었더니 마침 바로 출영사가 받았다. 그는 나의 후배로 이전부터 잘 알고 지냈던 사람이다. 그는 내 처지가 무척 딱하긴 하지만 오늘 매우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나가지 못하고 대신 내일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운수원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나는 다시 그에게 또다른 한 곳의 주소를 보여주며 그 곳으로 갈 것을 부탁했다. 택시요금 역시 그가 또 지불해야만 했다. 거기에 갔더니 마침 임 선생이 계셨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기분이었다. 이제야 비로소 여기까지 오는 데 빌린 차표값부터 택시비까지 모든 비용을 동행한 운수원에게 계산해 줄 수 있었다. 임 선생은 내게 왜 소식을 주지 않고 갑자기 왔느냐고 물었다. 어제 선전에서 전보를 친 나는, 그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그 다음날 모든 의문이 풀렸다. 나는 선전과 홍콩이 매우 가까우므로 전보를 치면 바로 그 날로 도착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공산치

하였기에 지척에 있는 지역간에도 전보가 전달되는 데 며칠이 걸렸던 것이다. 내가 보낸 전보는 다음날 임 선생의 집에 도착하였다. 나는 공산치하의 대륙을 빠져나와 자유의 땅인 홍콩까지 오고, 또 국경에서 임 선생의 집까지 오면서 겪은 일들을 돌아보면서, ‘필리핀의 노무자도 외교관이 국경까지 마중나와 데리고 가는데, 선교사인 나는 이게 뭐냐. 선교사로 갔다가 추방되어 돌아오면 모두 이렇게 되나’ 하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긴 여로에 우리는 무척 지쳐 있었다. 임 선생의 집은 무척 편안했으므로 그동안 쌓인 여독을 푸는 데는 안성맞춤이었다. 다음날 생기를 되찾은 후 먼저 미 북장로교 사무실에 갔다. 1949년 공산당이 중국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내 딸이 미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도록 추천해 주었으므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터라 감사인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또 한국에서 나에게 송금하는 돈이 이 곳으로 오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그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했다.

홍콩에 있으면서 중국 대륙에서 피난온 중국 동역자 교인들의 소식을 들었다. 배를 타고 꽤 멀리 가는 토경랭 지방은 완전히 난민촌이었는데, 칭다오에서 피난온 사람들은 그 곳에 교회를 세웠다. 그들과 연락이 된 나는 그들의 모임에서 설교를 하였다. 어떤 날은 며칠씩 머무르며 그들과 생활하기도 했다. 한국에서 여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한편 한 달여 동안 이런 식으로 교인들의 모임에 왔다갔다 하다보니 나의 홍콩생활은 예상밖으로 분주하였다.

정정보도: 지난호(50호) ‘중국선교 발자취’에 실린 사진은 「중화기독교회 증가와교회 도리반(道理班)의 교사와 학생들」입니다.

방지일/ 전 산동성 선교사 · 중국어문선교회 고문



대륙 동쪽 끝자락에서 키워가는 하늘나라의 꿈 (1)

아편전쟁 이후 비교적 일찍 개방된 지역인 탓에 일찍부터 세계 각국의 교회와 교파, 선교회들이 각축을 벌이며 선교활동을 전개하였던 지역이라 교파가 난립해 있었으나, 오늘날 아주 성공적으로 '하나된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

김 종 구

대륙의 관문-산둥(山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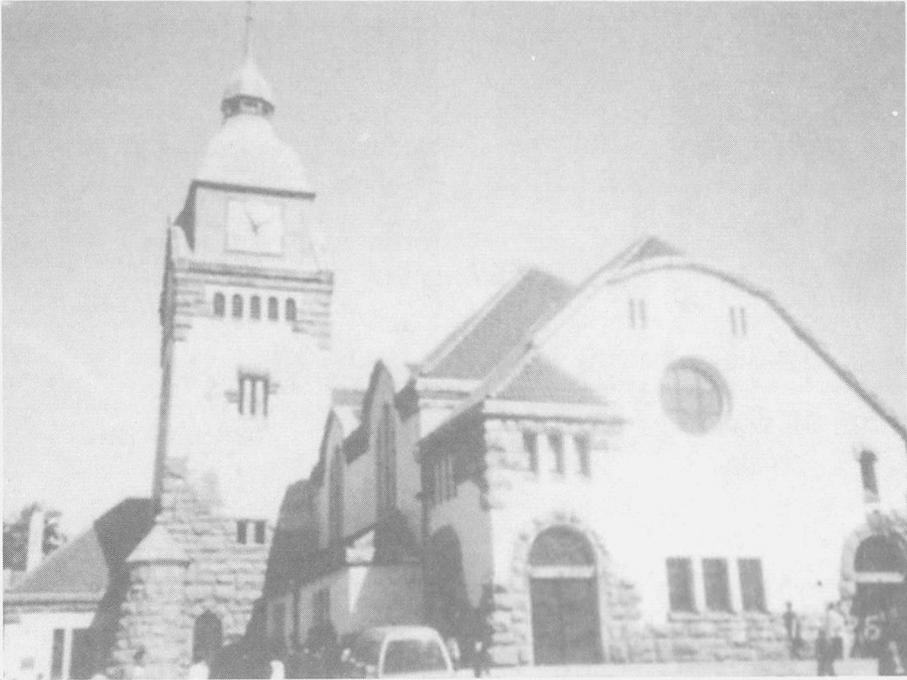
산둥성은 남한과 가장 가까운 중국땅이다. 이런 까닭에 일찍부터 한국과 산둥성의 인적교류는 비교적 활발하였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의 상당수가 산둥인이며, 중국이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기(1992년) 이전부터 한국인들의 중국 내왕은 웨이하이(威海), 옌타이(烟台), 칭다오(靑島)를 중심한 뱃길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이 세 항구들은 한국인들이 베이징(北京) 혹은 동북삼성(東北三省)으로 나아가는 출입구 노릇을 하였을 뿐 아니라, 투자의 중심지가 되어 한국인 공장회사가 속속 설립되었다. 이와 더불어 동북삼성으로부터 많은 조선족들이 이 지역으로 이동해 왔다.

교회사적으로 보아 산둥성은 한국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13년 조선장로회 해외선교회는 방효원, 박상순 등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라이양(萊陽)현에 선교기지를 마련하였다. 1928년 산둥성 기독교대회는 라이양, 지모(即墨) 두 지역을 조선장로회 라이양 선교구

로 확정하였다. 1937년 칭다오를 점령한 일본은 조선인들이 칭다오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함으로, 라이양 선교구의 활동은 중지될 수밖에 없었으며, 2차대전이 끝난 이후 다시 라이양 지역에서 선교활동이 재개되었으나, 1958년 중국 교회의 교파일치 달성과 더불어 외국 선교사들이 모두 떠남으로써 조선장로회의 산둥성 선교도 막을 내렸다.

22개 교파에서 '하나된 교회'로

전반적으로 교회는 건전하게 성장하고 있었으며, 종교정책의 실행이나 종교국의 협조는 대단히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아편전쟁 이후 비교적 일찍 개방된 지역인 탓에 일찍부터 세계 각국의 교회와 교파, 선교회들이 각축을 벌이며 선교활동을 전개하였던 지역이라 교파가 난립해 있었으나, 오늘날 아주 성공적으로 '하나된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하나된 교회'



1910년에 건고한 독일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석조예배당인 장쑤루교회

를 이루는 과정은 매우 어려웠다. 이전에 칭다오시에만 22개 주요 교파가 있었으며, 특별히 집회처는 연합 교회의 가입과 탈퇴를 무려 다섯 차례나 반복하였다 하니 그 어려움이란...

칭다오시 교회—하나된 교회의 자부심

칭다오는 매우 아름다운 해양도시이다. 따론펬(大連)이 비교적 세련된 귀족풍의 고전미를 지녔다면 칭다오는 다소 서민적인 고전미에 비할 수 있겠다. 플라타너스가 색깔을 입고서 찬바람을 맞이하는 길거리며 모든 것이 우리네 분위기와 너무나 비슷하였으나, 차창으로 언뜻 언뜻 보이는 구라파식 주택들에서 일찍부터 독일사람들이 자기네 풍격을 심어놓기 위해 들인 노력도 읽을 수 있었다.

1898년 독일의 조차지가 된 칭다오시의 기독교 선교

는 1897년 독일 루터교의 베를린교회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후 침례교, 하나님의 성회, 감리교 등의 외국의 교파와 처소, 예수가정 등 중국 자생의 교파들이 제각기 활발한 선교활동을 전개한 지역이다. 특별히 칭다오시는 아름다운 교회당을 갖고 있었는데, 현재 칭다오시 교회당의 중심이자 시 양회가 위치한 장쑤루(江蘇路) 예배당은 시내중심의 작은 동산 위에 웅장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이 예배당은 아마 당시 동네에서 가장 크고 높은 집이었을 것이다. 독일식 건축양식으로 1910년에 지어진 석조예배당이며 내부구조 또한 전혀 변함없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음에 견고한 독일건축의 매력과 장기적 안목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칭허루(靑和路) 예배당은 1940년대 미국 루터교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중국 전통 궁전양식으로 지어진 예배당이어서 또한 이채로웠다. 그래서인지 칭다오 사람들 대부분은 이 교회



도교사원 같은 모습의 칭허루교회



칭다오시 양회 임원들

당을 ‘도교사원’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탄 차의 택시기사는 칭허루에 있는 교회당으로 가자는 말에 대뜸 ‘아, 도교사원이요?’ 하면서 우리를 정확히 교회당 앞에 데려다 주었다.

현재 칭다오시는 3만여 명의 기독교신자들이 7개 교회와 2개의 처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물론 이 숫자는 80년 이후 세례받은 교인들만이며, 해방 이전에 세례받은 교인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숫자이다. 목회 인원은 약 30여 명인데, 목사가 10명, 장로가 19명이며 나머지는 전도사들이다. 목사 중 현재 매일 출근하여 사역하는 이는 6명으로 모두 30대와 20대의 젊은이들이다.

칭다오시 기독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자랑거리로, 그들은 ‘하나된 교회’를 주저없이 꼽았다. 그만큼 그들에게 이 과제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다. 현재 양회의 주요 임원진을 보면 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회장 장텐런(張天人, 83세, 집회처) 장로, 부회장 리충언(李崇恩, 76세, 중화기독교 자립회) 목사, 삼자애교회 왕주임(85세, 성공회), 그리고 기독교협회 부회장과 삼자애교회 부주임을 겸하고 있는 명칭후(孟慶浩, 69세, 침례회) 장로는 서로 다른 교파 배경을 지닌 채 한 사무실에서 십수 년 간을 함께 사역하고 있다. 1958년 처음으

로 교파일치를 이룰 때 집회처는 무려 다섯 번이나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였다 하니 교회일치의 힘든 과정을 짐작할 만하다.

칭다오시 기독교협회 임원들은 칭다오시 교회역사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듯이 보였으며, ‘칭다오시 교회사’ 편찬에 특별한 열의를 갖고 있었다. 한편 연로한 목회자들의 소장서적을 중심으로 ‘칭다오시 교회 목회 도서관’을 만드는 사업이 젊은 동역자들 사이에서 모색되고 있다.

이 글은 <중국교회> 편집자 김종구 목사가 1997년 10월 25일부터 11월 3일 까지 산둥성 세 도시 교회들을 방문한 기록이다. 다음호에서는 칭다오시 교회에 이어 ‘웨이하이시 교회’와 ‘옌타이시 교회’를 실을 것이다. <편집자 주>

출처/ <중국교회> 제 14회
김종구/ <중국교회> 편집자

고층빌딩 숲속으로 전통문화는 사라지고

베이징 사람들은 알지 못할 게 많기도 하다. 나이가 지긋한 두 토박이가 서로 만나면 허리를 굽실 하며 “잡수시었소?” “먹었수다. 당신은?” 하고 인사하는 것이 상례다. 끼니때든 아니든 상관없다. 도대체 하루에 몇 끼니를 먹길래 늘상 “먹었소?”하는 말밖에 모른다는 말인가?

사실 여기에는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여기고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다”는 전통 문화의 특징이 깃들여 있다. 먹고 못먹고를 운운하는 것같지만, 사실은 “먹을 것이 충족하냐”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백성이 잘 먹어야 태평성대이다. 베이징 사람들은 생활에 여유가 있고 편안한 것을 태평성대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이다.

베이징의 옛 문화는 후통(胡同·골목길)과 쓰허위엔(四合院·폐쇄된 사각형의 전통 가옥)의 두 가지를 특징으로 한다. 골목으로 들어서면 옛 베이징의 생활 정서가 물씬 풍겨 온다. 계집 아이들은 한데 모여 참새처럼 재잘거리며 머리 공지를 땅았다 풀었다 한다. 담 밑의 사내아이들은 한담을 하는 체하며 위쪽의 계집아이들에게 한눈을 판다.

좀더 어린아이들은 굴렁쇠를 굴린다. 딱지를 친다. 팽이를 친다 하며 소다닌다. 마당 안에는 울창한 나무와 가득한 화초에 벌들이 웅웅거리고 나비가 춤을 춘다. 마당 밖에는 동풍한 영감들이 파초(芭蕉) 부채질을 하며 한담을 하고 할머니들은 야채 바구니를 든채 웃음꽃을 피운다.

어음이 깃들이고 등불이 가물거리며 밥 냄새를 풍기면서 집집마다 아이들을 불러들인다. 주위는 고요해지고 사람들은 코를 골며 꿈 나라로 들어간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남자들은 퇴근 바람으로 집에 돌아갈 뿐 놀음을 탐내지 않는다. 집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에서는 친구를 중히 여긴다. 부인들은 아이를 잘 키우고 노고를 마다하지 않으며 근검하게 살림을 꾸려 나간다.

식구들이 난로가에 둘러앉아 구운 빵 조각에 멀건 배추 국을 마시면서도 국가 대사를 운운하며 얼굴을 붉히며 토론을 벌인다. “빨리 돈을 벌어 배추국을 생선탕으로 바꿀 생각은 안하고 무슨 놈의 국가 대사를 근심하느냐”는 생각이 들만도 하다.

그러나 이것 역시 전통문화에 기인한다. 효자의 가문에서 충신이 나올 것이고, 또 나라에 충성해야 진정한 효자인 것이다.

베이징 사람들은 소양이 높고 안목이 넓으며 배포가 크다. 남자들은 사나이 대장부의 기질이 강하다. 여자들은 침착하고 정중하며 꾸밈이 없다. 돈이 있다고 우쭐대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천금을 주고도 사기 어려운 기질이 있다. 그런 기질은 하루 아침에 터득되는 것이 아니라 천여 년에 걸친 황성(皇城) 문화의 침적과 융합의 결과이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배고 피에 스며든 것이다. 지금 베이징은 고층 건물이 도처에 솟아오르고 가는 곳마다 열광적인 노래와 춤이다. 후통과 쓰허위엔도 자취를 감추고 있다. 공중누각 때문에 전통문화가 사라질 판이다.

그러나 제아무리 변한다 해도 이 땅만은 의연하다. 수토(水土)에 따라 문화가 생긴다고 하지 않는가. 중화의 문화는 영원히 중화의 대지에 매여 있을 터인즉 슬퍼할 게 무엇이랴?

온몸의 사랑으로 헌신한 여정

-글레디스 아일워드(Gladys Aylward)-

안 정 숙

글레디스 아일워드(Gladys Aylward)는 영국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배우가 되어 무대에 서고자 했던 그녀는, 하녀로 일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참석한 한 기독교 집회에서 그녀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녀로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당신을 위해 자신의 생애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당시 [The young life campaign] 이라는 기독교단체에서 잡지를 발행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녀는 엄청난 숫자의 중국인이 예수에 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내용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중국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 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선교단체에서 그녀의 자격과 교육 조건이 선교사가 되기에는 너무 형편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선교사 허임을 거절하였다. 그들은 중국어가 그녀가 배우기에는 매우 어려운 언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후 그녀는 브리스톨에서 은퇴한 의료 선교사 부부를 위해 일했다. 그리고 스완시에서 밤마다 선창가나 술집으로 가 몸을 파는 윤락여성을 구조하는 일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는 항상 중국을 생각했으며, 선교단체가 받아주

지 않는다면 혼자서라도 중국에 가기로 결심했다. 중국으로 가는 여비를 벌기 위해 다시 하녀의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자신의 방에서 느헤미야서를 읽고 있던 중, 한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왔다.

“글레디스 아일워드,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인가? 만약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하고 가거라. 나는 분명히 그의 하나님이며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녀의 반응은 단순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간절히 주고 싶은 성령이 여기 있고, 날마다 저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는 『매일의 빛』 과 2펜스 만이 저의 전 재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원하신다면 저는 이것들을 가지고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텐진까지의 극적인 여로

당시 만주는 전쟁 중이어서 매우 위험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중국에 가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흔들림 없이 3년 동안 텐진(天津)까지 가는 데 필요한 기차표를 모았다.

1932년 10월 15일, 그녀는 리버풀 스트리트역을 출발하였다. 기차는 독일

을 거쳐 러시아, 시베리아까지 무사히 통과했다. 그러나 만주 국경 근처에서 일본군이 기차 하나를 나포하는 바람에 그만 기차가 멈춰버렸다. 밤인 데다가 배는 매우 고팠고, 황량한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세찬 눈보라는 온몸을 얼어붙게 했다. 그녀에게 처음으로 회의가 밀려왔다. 그 때 섬광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주재(主宰)라는 걸 기억하여라.”

그녀는 선로를 따라 세찬 바람을 맞으며 날이 샐 때까지 걸었다. 그녀는 몹시 지쳐 있었으며 지저분했다. 몸은 점점 얼어갔고 의식은 몽롱해졌다. 그녀를 발견한 러시아 군인들은 그녀를 포그라닐크나이로 보내주었다. 그러나 일본군이 인접해 있었으므로 모든 기차는 운행이 중단되었다. 그녀는 하얼빈 대신 블라디보스톡으로 갔다. 그러나 그녀는 외인관공국에서 통역관이라고 자처하는 자람에 의해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당하였다. 한 노인의 도움으로 그 집을 탈출하여 선창가로 간 그녀는 거기서 일본인 선장을 만났다. 그는 그녀를 일본으로 데리고 갔다. 일본은 그동안 짓눌리고 지쳐 있던 그녀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에 좋은 곳이었다.

11월 5일 그녀는 텐진으로 가는 배에 승선하였다. 5일 후 텐진에 도착한 그녀는 '루'라고 하는 중국인 남자를 만나 영국인 선교사 로슨 부인이 있는 양첸으로 갔다.

양첸은 호페에서 호난으로 이어지는 고대 노새길이어서 낮이면 긴 노새행렬이 통과하였다. 로슨 부인의 집은 매우 넓고 오래되었으며, 커튼은 물론 유리창조차 없었다. 그리고 빈민가에 위치하고 있었다. 로슨 부인과 그녀는 노새몰이꾼들을 위해 그들의 집을 여관으로 바꾸었다. 로슨 부인과 루씨는 밤마다 그들에게 성경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녀는 노새 입자들이 편안히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새들에게 먹이를 주고 노새 위에 묶은 더러운 흙을 문질러 내는 일을 했다. 이것은 그녀가 중국에서 하리라고 생각했던 일은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했다. 그 외에도 그들은 전도를 하기 위해 각 마을들을 방문하였다. 그녀가 양첸에 도착한 지 1년이다 되어갈 무렵 중국어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른 사람의 말도 이해할 수 있었다. 훗날 그녀는 자신이 중국어를 영어처럼 말하고 읽고 쓸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라고 말하였다.

‘아이웨데’란 이름의 중국 여자

로슨 부인이 임종한 후 그녀는 그 지역의 유일한 유럽인으로 남겨졌으며 여관을 계속 경영해 나갔다. 뿐만 아니라 각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적인 도움을 주고, 여러 마을들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

당시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 대대로 내려온 악습 중의 하나인 여자들의 진족을 폐지하라는 공문을 각 지역에 보냈다. 양첸 지역의 고위 관리는 이 일을 그녀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그녀가 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녀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중국에 만연해 있던

잔인하고 끔찍한 관습을 추방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셨다. 그녀는 산시(陝西)성 전역을 여행해야 했으므로 여관 경영은 요리사와 루씨가 맡았다. 전족 폐지 사업이 해를 거듭하면서 마을마다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늘어났고, 그들이 모여 작은 모임을 만들었으며, 이들이 성장하여 교회가 되었다.

그녀는 중국옷을 입고 중국음식을 먹으며 중국사투리로 말했을 뿐 아니라 사고방식마저 중국인처럼 되었다. 1936년에 그녀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이웨데’라는 공식 이름으로 귀화하였다. 이제 중국은 그녀의 나라가 되었고, 그녀는 중국인이 된 것이다.

고이들의 어머니

어느 날 그녀는 한 여자와 어린아이가 함께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아이는 매우 더러웠고 중병에 걸린 것처럼 수척하였으며 온몸은 종기투성이었다. 옆에 누워있던 여자는 이 아이를 그녀에게 팔려고 했다. 이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그녀는 가슴 깊이 울었고,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버려지고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이 그녀의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는 전족폐지 사업과 함께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 주었다. 더불어 그 지역의 병자들을 돌보고 분만을 도와 주며 범죄자들을 방문하는 일도 계속되었다.

중일전쟁 동안 그녀의 집은 부상자들을 위한 병원이 되었다. 거의 매일 그녀의 뜰에는 30~40명 되는 부상자들이 누워 있었으며, 그녀는 그들을 간호하였다. 그러나 얼마 못 가 그녀의 집은 일본군의 폭격으로 파괴되었다. 그녀는 다른 선교사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도시 곳곳에서 죽어갔다. 그녀는 죽은 자를 묻고, 산 자를 위로하며, 부상자들을 간호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충격받은 가련한 사람

들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루씨와 함께 다른 마을들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다.

1938년부터 양첸은 더욱더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으나 그녀는 떠날 수가 없었다. 버려진 아이들과 부상자들,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전쟁 중에 고아들은 계속해서 그녀에게 맡겨져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돌보게 되었다.

전쟁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가자 ‘아이들을 위험한 양첸에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한 그녀는, 정부의 보조를 받아 전국적으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던 치양부인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을 안전한 쉼터로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양첸에서 쉼터까지의 여정은 황하를 비롯한 수많은 강과 산을 지나야 하는, 한 마디로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었다. 100명의 아이들과 그녀는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매일 걸었으며, 밤이 되면 하늘을 지붕 삼아 잠을 잤다. 12일을 고투한 끝에 황하에 도착했다. 그러나 일본군 때문에 나뭇배는 운항되지 않았고, 마을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녀는 깊은 절망 속에서 인간한계를 경험하였다. 밤새도록 걱정하며 기도하는데 한 음성이 들려왔다.

“나는 이 아이들을 위해 죽었고 이 아이들 모두를 사랑한다. 내가 이 아이들을 네게 주어 나를 위해 그들을 돌보도록 한 것이다.”

다음날 그녀는 몇몇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실 것을 굳게 믿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잠시 후 어디서 나타났는지 한 중국인 장교가 그들에게 왔다. 그는 배를 한 척 보내 주었고 그들은 모두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 거기서 시안(西安)까지 가는 동안 그들은 군인들이나 마을 사람들에게 음식을 얻어먹고, 길에서 자며, 의지적으로 노래를 불렀다. 많은 아이들이 이미 병들어 있었다. 그러나 시안

에 도착했을 때 성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이미 시안에는 피난민으로 꽂 차 있어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치안부인의 고아원 중의 하나가 있는 푸펑으로 갔다. 악몽과도 같았던 여행이 모두 끝나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고아원에 맡겨졌다.

부서진 몸과 정신

아이들과 헤어진 후,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으나, 더이상 몸이 그녀의 삶을 지탱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그녀의 생활이 인간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폐렴, 발진티푸스, 재귀열, 영양실조, 극도의 피로라는 진단과 함께, 그 외에도 작은 병들이 있음을 전했다. 너무 깊이 병든 나머지 한 달 이상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한 마디도 하지 못했고 걷지도 못했다. 발진티푸스는 그녀의 기억을 손상시켰다. 이렇게 하여 그녀의 육체는 물론 정신까지 모두 파괴된 것이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선교사인 피셔 부부의 가정으로 갔다. 그들은 그녀를 사랑으로 극진히 간호하였다. 기적적으로 몸이 회복되자 다시 그녀는 마을로 나가 복음을 전하며, 시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았다.

이상한 전도 여행

동쪽으로부터 시안으로 많은 피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는 그들 중 경건한 그리스도인인 왕 부부, 쉐씨와 함께 폐기된 공장을 예배당으로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였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쇠약했고 정신마저 흐려져 무엇을 잘 잃어버리거나 부주의할 때가 많았다. 그러나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정신이 완전히 맑았다.

그녀는 카이펑에서 온 학생들로부터 수련회의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아팠으므로 계속해서 강의를 할 수 없었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다. 강의조차 하지 못할 만큼

쇠약해진 자신을 보면서 그녀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이들에게로 오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열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이한 기도모임을 보게 되었다. 15명 가량 되는 학생들이 지도를 중심으로 모여 앉아있고, 한 사람이 눈을 감고 한 곳을 짚었다. 그가 짚은 지역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모두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다음 그지역을 위해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였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중국의 북서부지방을 마음에 품고 매일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3주 동안 이 기도모임을 지켜본 그녀는 그 지역으로 누가 갈 것인가를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학생이었으므로 자유롭게 갈 수 없다며, 대신 그지역을 조사하고 복음을 전할 사람을 보내주시도록 특별히 기도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후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녀가 그 곳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그녀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을 받으며 중국인 의사인 닥터 황과 함께 길을 떠났다. 여행을 시작한 지 10일째 되던 날, 하루 종일 걸었지만 사람이라고는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으며 인가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필요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들의 찬송소리는 맑은 산공기를 타고 멀리 퍼졌다. 그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을 때 갑자기 멀리서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티벳의 라마승이었다. 그는 그들을 라마사원으로 초청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많은 라마승들이 걸으로는 거룩하게 보이지만, 부도덕하고 무지하고 미신적이라고 알고 있었으므로, 그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과 두려움에 싸여 망설였다. 그 때 돌연 그가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에 관하여 말해 줄 당신들을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고 말하는 것

이 아닌가. 그녀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다.

라마사원에 들어서자 일단의 라마승들이 나와 그들에게 공손히 인사를 했으며, 씻을 물과 음식 그리고 아름다운 방식 등을 가져와, 최대한 그들이 편하도록 대접하였다. 잠시 후 그들은 500개의 반원형 방석 위에 앉아, 경건하게 팔을 교차시키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 라마승들에게로 안내되었다. 장내는 쥐죽은듯이 고요했으므로 그녀는 무척 두려웠다. 그들은 먼저 찬송을 불렀다. 그리고 나서 닥터 황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해 말씀을 전하였다. 마지막으로 찬송을 부르고 그 자리를 나왔다. 그녀가 막 잠자리를 청하려는데 몇몇 라마승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예수님이 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물었다. 계속된 그들의 방문과 질문으로 그날 밤 그녀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라마승들을 보며 그녀와 닥터 황은 티벳에서 일주일도 더 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라마승들은 틈만 나면 그들에게와 질문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들이 3년 동안 자신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말해 줄 사람이 올 것으로 믿고 기다리면서 준비해왔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 데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었다. 한 라마승이 어느 날, “구원은 거저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영원히 삽니다. 이것에 대해 알고 싶으면 예배당으로 오십시오”라고 외치는 어느 전도자를 만나 그가 준 전도지를 들고 왔다. 거기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적혀 있었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5년 동안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다. 하나님을 알아 오겠다고 길을 나선 그 라마승

은 중국인 전도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로부터 4개의 복음서를 받았다. 그들은 복음서에서 '은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읽고, 언젠가는 틀림없이 자신들에게 하나님에 관해 더 많이 말해줄 누군가가 올 것으로 믿고 준비하면서 기다린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미 그 땅을 준비시켰으며, 때가 이르러 그녀와 닥터 황을 이 일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다.

사랑으로 감옥의 벽을 뚫다

라마사원에서 돌아온 후 그녀는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감옥이 있는 도시로 갔다. 지금까지 그 감옥에서 예수를 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녀는 어렵게 교도소장의 허락을 받아 수감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매우 더럽고 끔찍했으며 생김새도 잔인했다. 그녀는 작은 토루(土壩)에 서서 복음을 전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그녀를 비웃고 조롱했다. 그러나 매일 밤 그녀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감옥을 방문하는 일 외에 나환자촌을 방문했다. 문둥병자들은 그녀가 감옥에서 사역하는 데 힘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준 귀한 동역자였다. 드디어 수감자 중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 몇 명으로 감옥이 변화되지는 않았다. 수감자 중 살인죄로 들어온 산이라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젊고 잘생겼지만 매우 악했고, 그녀를 공격적인 태도로 쳐다보며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하루는 그녀가 그에게 말을 걸려고 시도하자 그는 그녀에게 욕설을 퍼부었을 뿐 아니라 그녀의 얼굴에 침까지 뱉었다. 수감자 중 그리스도인은 40명으로 늘어났지만 감옥은 여전했다. 어느 날 수감자들이 감방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그녀는 '그에게 가서 말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나 교도소 규칙상 수감자들이 움직이는 동안에는 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녀는 자신을 멀리하고 침을 뱉은 그에게 다가가고 싶지 않

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계속 말씀하셨으므로 그녀는 하는 수 없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자신의 삶이 비참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 그녀에게 갖은 욕설을 해대며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는 낙담과 수치감을 안고 감옥을 떠났다. 그러나 그 때 산의 마음은 그녀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그날 밤 그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고 예수를 영접하였다. 이렇게 해서 산은, 위대한 설교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온몸과 삶을 바친 한 가냘픈 여인의 사랑을 통해 예수를 만난 것이다. 그의 구원은 감옥의 부흥을 가져와 수많은 수감자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다.

끝까지 중국인을 위하여

공산당이 중국을 장악하면서 수많은 그리스인 젊은이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다. 그녀는 영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지만 자신은 이미 중국인이 되었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은 영국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고 풍요와 사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영국의 현실을 한 중국인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녀는 영국으로 돌아가, 중국 교회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증거함으로써, 영국을 뒤덮고 있는 영적 무감각을 깨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젊은이다운 각오를 제외하고는 거의 가진 것이 없이 중국으로 갔던 그녀가,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지식 외에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이 중년이 되어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다.

20년 만에 돌아온 영국은 많이 변해 있었다. 그리고 영국에서의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은 그녀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는 전쟁과 악의 세력 중에도 순수하고 깊은 신앙을 영위했던 중국에서의 생활과 중국인들을 매우 그리워했다. 그러나 공산당 때문

에 더이상 중국으로 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영국에서도 중국옷을 입고 중국어로 얘기하였다. 얼마 후 그녀는 런던에 살고 있는 수십 명의 중국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며 중국 그리스도인교회를 세웠다. 그녀는 브리스톨과 리버풀을 오가며 그 지역의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다.

그녀는 늙어가면서 남은 생을 다시 중국인들에게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고,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기 힘든 곳에서 다시 한 번 복음을 전하고 싶었으므로 타이완(臺灣)으로 갔다. 그녀는 홍콩의 피난민 지역에서 선교회를 시작했고 타이베이(臺北) 근처에 고아원을 개설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너무 가난하여 생활필수품을 살 돈조차 없었다. 미국에서 그녀에게 간증과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게다가 그곳에서 세계비전선교회(World Vision Incorporated)라는 단체가 홍콩의 선교회와 타이베이의 고아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글레디스 아이일워드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보잘 것 없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연약한 여자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고통받고 의지할 데 없는 가련한 중국 백성들을 돌보고 위로하며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글레디스 아이일워드 선교사는 사람이 가진 외모와 지식에 하나님의 일의 성패가 달려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뛰어난 외적 조건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당신께 순종하며 헌신하는 자,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라는 진리 또한 가르쳐 주고 있다.

안정숙 / 본지 편집자



도시로 탈바꿈하는 중국 농촌들

장 쉰(江迅)

단양(丹陽)은 장쑤(江蘇) 남쪽 운하에 있는 옛 도시로 90년대 초만해도 그다지 눈에 띄지 않은 작은 현에 불과했다. 그러나 오늘 단양 운양대교 위에서 중심구를 바라보면 새로 지은 고층 건물들이 숲을 이루고, 주택들도 연이어 늘어서 한 폭의 웅대한 중소도시의 면모를 볼 수 있다. 게다가 단양은 현재 시내를 배로 넓힐 계획을 수립했다. 장쑤성의 진장(鎮江), 우시(無錫), 쑤저우(蘇州) 등의 크고 작은 도시에서도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그 밖의 현이나 진에도 새로운 농촌형 주택이 건설되기 시작했다. 특히, 루청(潞城)진은 외자를 끌어들이며 2천이량의 땅에 '싱가포르성'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주택을 건설했다.

쑤난(蘇南)지역의 도시변화는 경제발전의 축소판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현을 도시로 세우는 '도시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특별히 동부연해 지역은 일정기간 동안 매우 성행해 우(吳)현이 우시로, 완(萬)현이 완시로 변하고 현장이 갑자기 시장으로 바뀌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1949년 중국의 도시는 겨우 136개뿐이었지만, 78년에는 193개로 거의 매년 약 2개의 시가 증가한 셈이다. 이런 도시화의 물결은 78년 개혁개방된 이래로 더욱

빨라졌다. 그러나 저장(浙江)성의 자싱(嘉興), 샤오싱(紹興) 등 5개의 현과 진이 도시로 바뀔 때, 그 변화의 서막을 감지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통계로 보면 91년까지 13년 동안 2천11개 현이 1천7백14개로 줄어들었고, 96년 말까지 정식 도시가 이미 6백66개에 이르렀다. 현재 이미 형성된 대형 도시는 장강삼각지구, 경진당(京津唐)지구, 주강(朱江)삼각주 지구, 사천(四川)분지와 요중(遼中)남부의 도시군으로 5개의 대형 도시 지구이다.

현이 도시로 변하는 것은 중요한 국가 정책이다

현이 도시로 변하면서 농촌의 향(鄉-현 아래 단위)도 대부분 진으로 바뀌었다. 국가건설부는 이전에 작은 진은 1만 7천여 개로 중국도시지역 인구의 3억5천여만에 달하고 도시화의 수준도 27%라고 밝혔다.

베이징(北京) 정부로 보자면 현이 시로 되는 것은 행정관리 체제의 중요한 변혁이며 국가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요 몇 년간 현급의 경제 능력과 구조에는 큰 변화가 있었지만 행정 구획과 상응되는 관리체계는 이미 경제발전의 요구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사람이 많고 땅이 넓은 중국땅에 작은



사람이 많고 땅이 넓은 중국땅에 작은 집을 세우는 것은 도시화하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진을 세우는 것은 도시화하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중국 향진발전협회 비서실장 왕진야오(王振耀)는 “현을 도시화하는 것을 국가정책으로 삼은 것은 전문적인 현금 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중국의 대중도시와 광대한 농촌사이에 현대 문명의 폭을 좁혀보는 연결점이 될 수 있다. 그것은 한 측면으로는 대도시, 심지어 선진국가 문명의 영향을 받아 건설, 관리,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구역 내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으로서 관할 향진의 경제 문화 건설을 이끌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 입장에서는 현이 도시로 되면 발전의 계기가 된다. 네이멍구(內蒙古)의 얼구나요우(額爾古納右)가 시로 되었을 때, 《인민일보》는 “이것은 그곳 역사상 새로운 ‘이정표’이며 일대영웅 징키스칸의 옛 고향에 또다시 찬란한 새시대가 개혁개방의 조류에 의하여 열릴 것을 예시하는 것이다. 또한 국내외빈의 관광이나 투자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광고에 실

었다.

사람들은 현(縣)과 시(市)가 단순히 행정상의 구별보다는 촌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로 생각하여 구역계층을 넓히고 지명도를 넓히려는 의도로 시로 바뀌기를 원한다.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시의 서기, 시장이 이전의 현 위원회의 비서나 현장보다 더 중요한물이 되고 있다. 일반 공무원도 공공 보조금이 더 증가되고 반계급 정도 승진하기도 한다. 또한 보통 시민도 “나는 도시사람이다”라고 말하며 우쭐대기도 한다.

공업은 도시 발전의 동력

장강(長江) 삼협 지구의 한 현장은 술자리에서 현을 시로 바꾸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중요한 회의 때마다 농업문제를 거론해야 하며 향진의 공업과 상업은 농업의 안정과 발전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불이익을 당할 뿐 아니라 모든 현에 지속적 경제발전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현장은 공업, 제3산업, 도시계획과 건설에만 신경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현과 시가 한 나라 정부라고 할 때, 각각 농업국가의 정부, 공업국가의 정부에 비유한다. 또한 국민들의 머릿속에도 시는 현대문명의 상징이고, 현은 전통적으로 낙후된 명사로, 한 측면으로는 문명화된 상공업 경제 발전의 체계로, 한 측면으로는 낙후된 농업경제 사회체제로 생각하고 있다. 만약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후자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광둥(廣東)성은 매우 빠르게 현이 시로 승격되고 있다. 광저우(廣州) 주위는 허산(鶴山), 순더(順德), 선우(審禹), 장먼(江門), 중산(中山), 청위엔(淸遠), 카이핑(開平), 신후이(新會), 언핑(恩平), 둥완(東莞), 난하이(南海), 타이산(臺山) 등 20여 개의 시를 포함하여 전국의 성 중에서 가장 많은 시를 가진 성으로 방사성 모양의 위성도시로 둘러싸여 있다.

신도시는 새로운 큰 언과 같다.

그러나 몇 개의 새로이 건설된 시는 도시 규모가 매우 조화롭지 못하다. 《粵港信息日報》는 몇몇의 시로 승격된 현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나 독립적인 관리체계가 세워져 있지 않다고 비평했다. 현급시는 경제와 기술이 아직은 뒤떨어져 건설 계획이 낙후되었다. 경제와 기술적인 원인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관념상의 문제이다. 광둥성 건설위원회의 한 간부는 “농촌에서 장기적으로 일하는 간부는 농촌에 알맞는 사상관념과 지도 방법으로 시 계획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시를 건설하는 데 자질구레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전체적인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낮은 기준의 건설이 되고 만다”고 하였다.

중국의 ‘도시화’ 과정 가운데 새로 생겨난 시 중 일부는 아직은 여전히 시설면에서 시의 규모를 갖추지 못하여 아직은 현같은 인상을 준다. 수많은 신도시들이 서 있는, 한 300km되는 고속도로를 따라 주행하다보면 정체가 되어 8시간 이상 걸린다. 정부가 시를 설립하는 것은 지명도와 흡인력을 높여 외부자금과 사업가들을 불러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국민의식, 교통 의식, 공공의식 관념이 아직은 미비하여, 오염, 도박, 마약, 천재지변 등 여러 사회문제들이 많이 나타난

다.

또 ‘도시화’는 중소 도시간의 모순점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지구급 시에는 자기의 지역 내의 자금을 집중하여 생산하려 하지만, 그에 속한 현급시는 개별적으로 발전하기를 원한다. 어떤 시의 간부는 공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농업을 소홀히하기도 한다. 몇몇의 농민은 이러한 ‘도시화’ 과정에 보상의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항의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도시화’ 되는 과정은 농촌사람이 도시사람으로 바뀌는 과정이다. 국제적으로 인구수를 시 규모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는다. 중국의 어떤 지방은 시로 승격되기 위해 인구수를 허위 보고하기도 하고, 어떤 산간지대의 현에서는 시로 승격하기 위한 인구수 표준을 채우기 위해 도시 호구(戶口)를 대량으로 팔기도 한다. 이 호구는 대부분 농민들이 사게 되지만 산간지대는 대부분이 농민이고 도시에 살만한 능력이 없어 “곡식이 없는 농촌”이 나타나고 있다. 한 시민은 “도로는 하나에 가로 등 두 개가 있고, 도로는 울퉁불퉁하고 불은 희미하기만 하다”고 불평한다.

베이징 정부는 《중국 도시설립 계획》을 제정하고 도시 배치에 대대적인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도시인구는 중국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34%로, 2010년에는 42.6%로 오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였다.

서부로 진행되는 도시화

이 계획에 따라 세기말에는 중국의 도시가 8백 개에 이르고, 새로운 도시는 동부 연해지방에서 중서부쪽으로 도시 배치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국토의 1/5을 차지하고 있는 동부 연해 지구는 도시가 2백75개이고, 국토 면적의 약 3/5을 차지하고 있는 서부지역은 도시수가 그 반도 차지하고 있지않아 도시 배치 밀도에 차이가 심하다. 연해의 도시에는 너무 인구가 많은 반면에 중서부 지역은 부족하여 동부와 서부 발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출처/ 《亞洲週刊》98. 3. 9 “農村變城市喜憂參半”

번역/ 김은희 · 본지 편집기자

21세기 중국 “열린 경제, 젊은 관료”

-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젊고 유능한 지도부로 개편

21세기를 향해할 중국호가 막 출발하였다. 제9기 1차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이하 ‘전인대’라 한다.)가 3월 5일 개막, 대표자 2천9백79명이 참석하여 2주간에 걸쳐 중국의 최고지도부의 인사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과, 올해 경제정책 방향 등을 논의한 후 20일 폐막되었다.

정기국회에 해당되는 전인대 회의가 금번에 특히 주목된 것은, 21세기 중국을 이끌어갈 지도부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중국공산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장쩌민(江澤民) 총서기 체제의 ‘당의 골격’이 새로 짜여진 것이라면, 이번에는 국가주석, 국무원 총리를 비롯한 부장(장관)급 요직, 법원과 검찰 수뇌부, 중앙군사위주석 등 ‘정부조직’이 새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입법, 행정, 사법 분야의 고위직이 총망라되는 대규모의 인사변동인 것이다.

국가 주석 및 중앙군사위 주석에 장쩌민 현주석을 유임시키고, 국가 부주석에 후진타오(胡錦濤) 정치국 상무위원을 새로 선출했다. 이로써 공산당 총서기직을 겸하고 있는 장 주석은 향후 5년 간 당정군(黨政軍)의 최고 직위를 계속 보유하게 됐으며, 신임 후 부주석은 장 주석의 뒤를 이어 21세기 초 중국을 이끌어갈 후계

자로 떠올랐다.

국무원 총리는 이미 예상했던 대로 주룽지(朱鎔基, 70) 부총리가 임명되고, 리펑(李鵬) 총리는 전인대 상무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 장쩌민의 최대 정적이었던 차오스(喬石)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은퇴하였다. 그는 덩샤오핑(鄧小平)이 사망할 때까지 당서열 3위를 유지해, 덩 사후 집단지도체제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당서열 3위를 장쩌민 주석의 후원을 얻어낸 주룽지에게 내주면서 실권에서 멀어졌다.

1928년 후난성(湖南省) 창사(長沙)에서 태어난 주룽지는, 베이징(北京)의 칭화(淸華)대학 전자공정과를 졸업했다. 그는 지난 57년 헝가리와 유고슬라비아의 실용적 경제개혁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우익분자로 낙인 찍혀 그 후 20년 이상 경제기획부서 중간관리로 지내야 했다. 그러나 지난 79년 복원된 이후에는 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87년 상하이(上海) 시장으로 부임했던 그는, 상하이방의 대표적 인물로, 부정부패 척결과 시민 위주의 행정으로 “미스터 클린”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 이번 전인대에서 선출될 사람들은 다음의 표와 같다.

<확정된 중국 새 권력기구도>



이들이 5년 간 중국을 이끌어갈 지도부로 21세기 첫 중국 지도부인 셈이다. 21세기 중국을 이끌어갈 이들은 최고지도부를 정점으로 “젊고 유능한” 각 분야의 책임자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의해 주도될 전망이다. *기구개편: 주룽지 총리는 기존 국무원 내 40개 부서를 29개 부서로 축소하였고, 5년간의 임기 중에 개혁작업을 완료하고자 했다. 축소된 기구는 아래와 같다.

<중국의 새 국무원 기구>

중국의 새 국무원 기구	
외교부	노동·사회보장부 (신설)
국방부	국토자원부 (신설)
국가발전계획위	건설부
국가경제무역위	철도부
교육부	교통부
과학기술부	정보산업부 (신설)
국방과학기술공업위 (신설)	수리부
국가민족사무위	농업부
공안부	대외경제무역협력부
국가안전부	문화부
감찰부	위생부
민정부	국가계획생육위
사법부	중국인민은행
재정부	심계서
인사부	

※ 40개부처 → 29개 부처로 축소
 ※ 폐지 및 기능조정
 매탕공업부 기계공업부 이공공업부
 화학공업부 국내무역부 → 국가경제무역위
 우선부 전자공업부 → 정보산업부

전인대 정치적 기능 높아져

이번 전인대를 볼 때, 헌법상 ‘최고 국가권력기관’인 ‘전인대’의 역할과 비중이 앞으로 더욱 확대되고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외에서는 경제개혁과 발전이 계속되면서 이에 걸맞는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실제적으로 정치의 제도화가 구체화되고 있는데, 전인대가 이러한 움직임의 중심에 서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인대와 정협을 빗대어 흔히 이렇게 말한다. “당이 손을 흔들면, 정부가 일을 시작하고, 전인대는 거수로 통과시키며, 정협은 박수를 친다.” 나라의 의회적인 전인대가 독자적인 판단이나 결정을 하는 집단이 아니라, 당과 정부의 결정에 합법성을 부여해주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빈정거림이 담겨 있는 말이다.

그러나 이런 관념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다. 이제 단순한 ‘거수기’나 ‘박수부대’가 아니라, 당과 정부 정책에 비판도 하고 결정을 반복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정이 반복된 사례는 이번 전인대시 정부기구 조정 심의과정에서 나타났다. 주룽지 총리가 주도한 정부조직 개편팀은 당초 농업부와 임업부 수리부를 통합하여 하나의 부서로 만들 계획이었다. 그러나 농촌 출신의 전인대 대표들이 토론과정에서 “12억 인구의 먹는 문제가 달린 농업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농업부의 폐지는 말도 안 된다”며 강력히 반발, 통합방침을 철회했다.

또한 비판과 견제 기능도 나타나고 있다. 3월 7일 진행된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원장 인선투표에서 2천9백 50명의 전인대 대표들은 검찰원장 후보 한쯔빈에 대해 반대 6백87, 기권 3백44표로 그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했다. 전체 대표의 35%가 당의 방침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같은 ‘전인대의 반란’은, 철도부장에서 검찰원장으로 옮겨오려는 그의 경력과 능력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3월 16일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부위원장, 상무위원 선출 과정에서도 ‘반발’이 있었다. 리평 상무위원장 투표에서는 2백표의 반대표와 1백 26표의 기권표가 나왔다. 장쩌민 국가주석과 후진타오 부주석 인선투표에서 반대표가 각각 36표와 67표 나온 것과 비교하면, 리평에 대한 일부 계층의 ‘거부의사’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상무위원 투표과정에서는 최고 8백84표의 반대표도 나왔다.

전인대는 지난 8기 때 장춘윈(姜春雲) 부총리 임명동의안 표결 때도 30%의 반대표를 던진 일이 있다. 전인대의 자율성이 제고되었음을 보여주어주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앞으로 중국 정치가 인치(人治)적 전통을 벗어나 법치(法治)화되면서 제도화 될수록 전인대의 정치적

기능은 중요해질 것이다.

낚은틀 3년 내에 뜯어고칠 계획

3월 19일 전인대 폐막 후 가진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주 총리는 “신정부의 최대 임무는 과학교육을 통한 국가진흥”이라며 “3년 내에 국가개조작업을 완성하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그가 제시한 국가개조작업의 해법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불필요한 인력을 과감히 축소하여 ‘먹는 재정’(吃飯財政)이 돼버린 국가재정상태를 정상화하는 것과 중복 낭비 투자를 추방하는 것이다. 이같은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재원을 과학교육과 첨단산업에 투입, 21세기 선진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그의 복안이다.

주 총리는 3대 분야에 걸친 구조조정을 2000년까지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만성적자인 국유기업을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과감히 도태시키면서 증점육성기업을 현대적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고, 둘째, 중앙은행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면서 상업은행의 자주경영이 가능하도록 금융체제를 개혁하며, 셋째, 중앙 및 지방정부의 기구를 축소해 공직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중국개조작업이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데 지도부의 고민이 있다.

중국의 ‘실질적 실업자 수’는 등록실업자 5백50만 명, 정부기구 개편으로 감축될 공무원 4백만 명, 국유기업의 사양(下崗·정리해고) 직공 1천1백50여만 명, 앞으로 국유기업에서 쏟아져 나올 1천만 명의 추가 사양 직공에 농촌의 잉여인력 등 1억8천여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 때문에 실업대책이 중국의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은 실업자 문제의 악화를 막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연간 경제성장률을 8% 이상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은 3% 이내에서 잡으며, 원(元)화 환율은 현재 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철도, 도로, 수리사업, 주택, 건설 등에 집중 투자, 국내 수요를 대대적으로 진작할 계획이다.

리란칭(李嵐清) 부총리가 최근 향후 3년 간에 걸쳐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를 7천5백억 달러로 늘리는 이른



장쩌민(왼쪽)과 주룽지(오른쪽)

바 ‘중국판 뉴딜정책’을 펴겠다고 발표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실업사태를 방치했다가는 분노한 민심이 언제 폭발할 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중국지도부도 느끼고 있다.

원화 문제 역시 현상유지를 공언하고 있으나 정책당국은 내심 불안해 하고 있다. 베이징(北京)당국자들은 “개혁개방 이후 2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온 인민들의 소득수준이 원화 평가절하로 인해 갑자기 곤두박질치는 상황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 한다”고 다짐하는 한편, 절하의 압력도 만만치 않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장쩌민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신지도부의 지향점은 21세기 중국을 경제강국으로 만드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원리에 따른 경쟁력이 있는 경제체제 구축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이들은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이제 또 한 차례의 「대장정」 길에 나섰다. 12억 인구 초대국의 기본틀을 바꾸겠다는 웅대한 구상은 과연 성공할 것인가. 그 성패가 판가름날 향후 2~3년이 21세기 중국의 위상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 조선, 동아, 중앙일보 등 일간지
- 한겨레21(98. 3. 21)
- 월간 아태지역동향(74호)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일자리만 있어다오

인지푸(殷紀夫)



온통 실직자로 난리다. 실직의 바람은 사람 많은 중국도 예외는 아닌가보다. 그나마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일까? 가면 아닌 가면을 쓰고 하루해를 보낸 후 집에 들어서 가면을 벗고 나면 남은 건 환승과 늘어진 어깨. 언제까지 이 가면으로 버틸 수 있을까. 두려움 아닌 두려움으로 오늘 하루를 마감한다.

기 획

중국 소수민족을 알자



중국 55개 소수민족은 숫적으로는 불과 10% 미만으로
극히 미미한 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종족이 많이 있다.
따라서 중국선교를 생각할 때, 소수민족을 간과할 수 없다.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윈난성의 소수민족 중 나시족과 다이족을 다루었다.
중국 소수민족 현지 사역자를 통해 전해지는 정보가
중국 소수민족 선교에 도움을 주리라 믿는다.

윈난성의 소수민족(Ⅲ)

허 종 선

나시족(納西族)

인구 277,750명(1990년 통계에 따르면 226,700명의 인구가 윈난(云南)성에 집중해서 산다)

분포 윈난성의 북부 일대(麗江納西族自治縣, 宁蒗, 永胜, 中甸, 德欽, 鶴慶, 劍川, 蘭坪, 華坪, 貢山 등)에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리장나시족자치현(麗江納西族自治縣)에 전체 인구의 2/3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이외에도 쓰촨(四川)성(鹽源, 鹽邊, 木理), 시짱(西藏)자치구, 망강(芒康) 등지에 분포하고 있다.

언어 나시족은 고유한 언어가 있다. 나시어(納西語)는 한장어계(漢藏語系) 장면어족(藏緬語族) 이어(彝語)지(支)에 속하며, 이어(彝語), 하니어(哈尼語), 라후어(拉祜語) 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나시어는 크게 2가지 방언지역(동부, 서부)으로 나눈다.

* **동부방언지역**—진샤(金沙)강 동쪽, 윈난성과 쓰촨성의 경계지역인 누구(瀘沽)호의 모취인(摩梭人)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그 대표로서, 약 5만 명의 인구가 사용하고 있다.

* **서부방언지역**—진샤강 남쪽, 리장나시족자치현 파옌(大研)진의 언어가 대표이며, 약 25만 인구가 사용하고 있다. 각 방언에는 3개씩의 토속어(土語)가 있고, 동, 서부

방언 사이에는 교류가 적으며, 서로 대화하는 데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문자 본래 2종의 고대문자가 있었으나(東巴文, 哥巴文) 현재는 1957년 라틴 자모형식을 기초로 한 병음문자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동파문(東巴文)은 일종의 상형문자로서, 지금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주로 동파교(東巴教: 나시족의 원시종교)의 동파만이 사용하고 있다. 동파문은 약 1,300개의 글자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사용해서 기록한 대량의 동파경(東巴經: 전설, 철학, 시, 종교제사, 천문학, 의학, 예술, 풍습 등을 기록한 경전)이 있다.

민족역사 나시족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민족으로, 문헌상 3개 방면에서 초기 나시 선민의 근거를 두고 있다.

① 간쑤(甘肅)성과 칭하이(青海)성의 황허(黃河), 황수이(滄水) 일대의 '구창인(古羌人)'. 이들은 유목민족으로 전국시대(BC.475—221)에 서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쓰촨성을 걸쳐 지금의 리장(麗江) 일대에 거주하게 되었다.

② 고대 서남민족 중 하나인 '마오니우이(旄牛夷)', '바이랑이(白狼夷)'의 지파인 '이인(夷人)'.

③ 본래 윈난성 리장현 일대에 거주하고 있었던 '투주(土著)' 주민.

이상의 3개 부분이 나시 선민의 주체를 이루어 왔으며,

계속적인 주변 민족과의 융화과정을 거쳐 오늘의 나시민족이 형성되었다.

건축 문헌상 고대 나시인은 굴을 파고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점차 나무를 이용한 ‘무령방(木楞房)’을 사용하였다. 현재 도시 지역에는 돌이나 기와를 사용하여 집을 짓고 있으나, 도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는 아직도 나무를 이용하여 집을 짓고 있다. 무령방은 원통의 나무를 이용하여 벽을 가로 세로 겹겹이 쌓는 방법으로, 지붕은 나무판으로 덮고, 그 위에 돌덩이를 누른다. 무령방을 만드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그러나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할 뿐만 아니라 지진을 견디는 데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유익한 점이 많다.

복장 나시인의 전통적인 복장 풍습에는 “男女皆披羊皮(남녀 모두 양가죽을 걸친다)”는 것이다. 이는 나시족이 거주하는 지역에 목축업이 특히 발달하고, 또 본래 유목민족이라는 요인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남자 복장의 경우 점차 한족(漢族) 복장으로 바뀌었고, 여자 복장은 치마를 입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긴바지를 입는 풍습으로 바뀌었다. 현재 여자 복장의 경우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리장 일대에 거주하는 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넓은 옷소매에, 앞에는 폭이 짧고, 뒤에는 폭이 긴 테두리를 한 저고리에 자색 혹은 남색 조끼를 입고, 허리에는 주름앞치마를 두른다. 하의는 바지를 입고 발에는 배모양의 꽃으로 수놓은 신발을 신는다. 그리고 등에는 일종의 ‘요우아오(有襖)’라고 부르는 양피를 어깨에 걸친다.

중전(中甸)과 더센(德欽) 일대에 사는 여자의 경우, 상의는 일반적으로 방직으로 짠 무늬 색깔의 옷깃을 단 긴 삼베 홑옷을 입고, 하의는 두꺼운 삼베의 주름치마를 입는다. 허리에는 색깔이 있는 띠를, 등에는 주머니식 양피를 걸치고, 발에는 긴 장화를 신는다.

누구호에 사는 모췌인(摩梭人)의 경우, 쟁족(藏族)과의 많은 교류로 인해 대부분의 남자 복장은 이미 쟁족화되었고, 여자의 경우 상의는 각종 색깔이 있는 짧은 홑옷을 입고, 하의는 주름계통의 긴 치마를, 허리에는 색깔이 있는 띠를 묶고, 등에는 양피를 걸친다. 그리고 머리꼭지에는 마오니우(牦牛) 꼬리에 있는 털로 엮어 만든 굵은 땀은 머리를 하고, 다시 둘둘 땀은 머리 바깥에 검은 남색 등의 색깔이 있는 견사재봉실을 한 바퀴 감아 허리까지 늘어뜨

린다.

음식 고대 나시인의 주식은 메밀, 감자, 무청 등이었으나, 명, 청나라 이후 한족의 선진 농업기술의 영향으로 농업부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현재 일반적으로 쌀, 밀,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고 있으며, 부식품과 과일 채소 등 품종이 풍부한 편이다. 그러나 산지 농민들은 아직도 메밀과 감자를 주식으로 하고 있다. 요리는 주로 시고, 매운 맛 2가지를 위주로 만들며 술과 담배를 좋아한다.

일반적으로 아침은 ‘바바(粑粑: 밀로 만든 빵 종류로 특히 리장바바(麗江粑粑)는 유명하다)’를 먹으며, 손님을 초대할 경우 닭, 오리, 생선, 휘귀(火鍋: 신선로) 등으로 대접한다.

결혼 나시족의 결혼제도는 일부일처제이고, 남녀 혼인문제는 주로 부모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나 중매인을 통하는 경우도 있다. 남자의 경우 7, 8살 때 부모가 며느리를 물색하지만, 남자가 20세 이상이 될 때 비로소 정식으로 결혼을 할 수 있다. 결혼은 가장 큰 경사로서, 결혼예식이 있기 전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함께 예식을 준비하며, 결혼식 당일 저녁에는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 불을 피워놓고 노래와 춤을 추며 예식을 축하한다.

누구호 모췌인의 결혼풍습은 일종의 독특한 ‘아샤(阿夏) 혹은 ‘아주(阿注)’ 혼인제도가 있다. 아샤는 “친밀한 관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혼인관계로 이루어진 남녀는 서로간의 호칭 역시 ‘아샤’라고 부른다. 아샤 혼인제도의 특징은 남녀간에 서로를 위한 공동의 가정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자는 밤에만 여자의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이튿날에는 아침 일찍 자기 집으로 돌아가 생활한다. 이러한 아샤제도는 일종의 모계(母系)형태이다. 모계형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가정에서 연령이 가장 많은 여자가 가장 임무, 즉 권한(재산권 포함)을 갖고 있다. 가족 구성원은 외할머니와 그의 형제자매, 어머니와 그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와 자매들의 자녀들로 구성되며, 한 가정에 일반적으로 2~4대(약 20~30명 정도)가 함께 모여 산다.

장례 일반적으로 토장(土葬)을 행하나, 저랑(宁蒗) 등 소수의 산지에서는 아직도 화장(火葬)을 행하고 있다. 이는 달파교(達巴教: 리장 동부에서는 동파교를 달파교로 부른다)와 라마교의 영향 때문이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주위



나시족의 결혼제도는 일부일처제이고, 남녀 혼인문제는 주로 부모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사진은 나시족 아가씨들)

의 친지에게 소식을 알리고, 친지 중 먼저 상가에 온 사람이 시체를 씻고, 죽은 사람의 입에 약간의 은전과 차잎, 기름(소, 양의 젖을 바짝 졸여 만든 기름)을 넣는다. 이 기간 동안(3일장) 죽은 사람의 영전에 등불을 켜고, 술, 차, 고기 등 제물을 놓고, 라마승을 불러와 경을 읽는다. 화장할 하기 하루 전날에는 라마승이 경을 읽으면서 시체를 땅굴 속에서 꺼내 나무관에 집어 넣는다. 그리고 날이 밝기 전에 시체를 화장터에 보내 화장할 한다. 화장할 한 후 뼈를 수거하여 작은 주머니에 담아 집으로 돌아온 후 다시 한 번 라마승이 경을 읽으며 제사의식을 드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 공동묘지에 묻는다. 화장이든 토장이든 관계없이 반드시 3일 동안 매일 묘지나 화장터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며, '7일제', '백일제' 등을 지킨다. 금기 : 현재 지켜지고 있는 중요한 금기에 대해서만 몇

가지 소개한다. 특히 나시지역을 방문했을 때의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외부인이 집 안으로 들어갈 때, 대문 양쪽에 돌로 된 '문신(門神)'을 만져서는 안 되며, 문 위의 가로로 된 네모진 곳을 손으로 만져서도 안 된다. 그리고 본체(전통가옥인 '쓰허팡(四合房)'에서 정면에 위치해 있는 방) 안에 있는 '휘탕(火塘: 방바닥을 파서 만든 화로)' 위의 삼각대를 함부로 뛰어 넘어서도 안 된다. 앓는 요령에 대해서도 방의 문턱이나 금이 나가거나 부서진 물건 위에 앉아서도 안 되며, 방안 뒤편에 배경으로 있는 신(神) 가까이에 앉아서도 안 된다. 그리고 집안에서는 휘파람을 불며 노래를 할 수 없다. 이 외에 제사드리는 장소 안에서는 웃거나 떠들면 안 되며, 조상에게 제사의식을 드리는 동안에는 외부인은 볼 수 없다.

주요절기 나시족이 일년 중 지키는 절기는 다양하다. 그 중 중요한 절기만 소개한다.

① 위엔샤오 덩후이(元宵燈會), 정월 15일

정월 대보름 전후 리장일대 나시족 거주지역에서 행하는 등불축제(燈會)로서, 위엔샤오절 당일 저녁이 가장 성대하다. 이때 용춤, 사자춤, 봉황춤등을 추며, 나시어로 된 민간전설 등을 발표한다. 이 기간 중 아이들은 각 가정에서 만든 형형색색의 등을 손에 들고, 길거리를 여기저기 다니며 장난을 치며, 가는 곳마다 한 그룹씩 모여 절기를 축하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

② 산뉘제(三朵節: 음력 2월 8일)

일명 “베이웨션후이(北岳神會)”라고도 부르는 절기로서, 나시족 본래 민족의 수호신 혹은 전쟁신에게 제사드리는 절기이다. 매년 2월 8일과 8월에 위룡(玉龍)산의 산뉘파오(三朵廟)에 모여 양을 희생물로 드리며 제사의식을 거행하는데, 각 가정의 호주(戶主)는 삶은 음식을 준비하고 향을 피우며 제사를 드린다. 이 때 젊은 남녀들은 야외나 집회장소에 모여 서로 친교를 한다.

③ 룡왕마오후이(龍王廟會), 음력 3월 15일 전후

룡왕마오후이는 나시인이 룡왕(水神)에게 제사드리는 절기로서, 약 일주일 동안 진행되며, 동시에 각 지역의 민족 간의 물물교류도 이루어진다. 미아오후이 장소는 일반적으로 리장현에 있는 헤이룽탄(黑龍潭)에서 열리며, 이 기간 동안에는 나시민요를 부르고 나시 고대음악을 연주할 뿐만 아니라 경마등 각종 문화활동이 이루어진다. 이 때 리장 현지인들 뿐만 아니라 따리(大理), 바오산(保山), 쿤밍(昆明) 등의 행상인도 참석한다. 현지인의 경우 내지에서 온 일용품을 주고 구입하고, 외지에서 온 상인들은 주로 토산품을 구입한다.

④ 휘바제(火把節), 음력 6월 25일~27일

전설에 의하면 옥황상제가 하늘에서 번민과 따분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늘문을 열어 세상을 보다가 나시인이 사는 지역이 마치 녹색 방석을 깔아 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꽃이 많고, 노래와 춤을 추는 태평한 풍경을 보고 질투심이 생겨 하늘사자를 보내 불을 지르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이 사자가 나시인이 사는 곳에 내려갔다가 그 역시 아름다운 모습을 보자 명령을 어기고 돌아가 옥황

상제에게 거짓으로 보고한다. 그해 음력 6월 하순에 옥황상제가 다시 하늘문을 열어 세상을 보니 이전과 똑같은 풍경을 보고 노하여 그 하늘사자를 죽여버린다. 이후 또 다른 하늘사자를 보내 똑같은 명령을 집행하도록 했으나, 이 두 번째 사자 역시 명령을 지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늘로 돌아가면서 나시인에게 주의사항을 알려주었는데, 3일 밤 계속해서 곳곳에 횃불을 피워 놓으라고 했다. 사자가 하늘로 돌아간 후 옥황상제가 횃불을 피워 놓은 광경을 마치 불바다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진노를 가라앉혔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이 선한 하늘사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6월, 3일 동안에 계속해서 불을 놓는 행사를 하고 있다.

이 기간 중에 낮에는 장이 열리고 소싸움이나 씨름 그리고 민요를 부르며, 저녁에는 집집마다 큰 횃불을 대문 앞에 매달거나 혹은 쌀을 보관한 쉼막 위나 나무 위에 매달아 놓는다. 그리고 집안 뜰 중앙에도 많은 횃불을 매달아 놓는데, 이는 아이들을 위해 놀고 춤을 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때에 젊은 남녀들 역시 서로 춤을 추며 연애를 하거나 오락활동을 한다.

⑤ 차오바이스산 간무뉘선(潮拜彌山‘干木’女神), 음력 7월 25일

이 절기는 누구호의 모쉰인이 사자산의 여신 “간무(干木)”에게 드리는 성대한 절기로서, 일명 “쥘산제(轉山節)”라고도 부른다. 사자산은 간무여신의 화신으로서 인구의 증감, 가축의 증감, 그리고 농작물의 풍년과 흉작을 주관하며 동시에 여자의 건강과 아름다움, 결혼과 생육 등을 주관한다. 전설에 의하면 간무여신은 매우 아름답고 사자산 정상에 동굴안에 거주하면서 주위의 남자산의 신들을 관장하며 ‘아샤’(결혼후분에서 이미 소개했음) 생활을 했다. 그리고 매년 7월 25일 당일에는 각 지역의 산신들이 사자산에 모여 오락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쉰인은 이 때를 기념하여 집집마다 벌꿀, 우유, 차, 기름 생화 등을 제물로 준비하여 사자산을 향해 제사를 드리며 야외에서 식사와 더불어 경마 혹은 오락활동을 한다. 젊은 남녀들은 사자산 혹은 누구호 주변에서 정을 나누며 노래와 춤을 춘다.

종교 나시족은 자기 고유의 원시종교인 동파교를 비롯하여 라마교, 불교, 도교, 그리고 자연신을 섬기는 일종의

다신종교형태를 지니고 있다.

동파교는 나시 고유의 다신종교로서, “딩바스뤄(丁巴什羅)”를 창시자로 섬긴다. 동파교는 역사 발전 과정 중에 짱족 라마교의 지대한 영향을 받았는데, 일부 동파경 가운데 짱문(藏文)으로 기록된 책도 볼 수 있다. 동파교는 자기 고유의 문자인 상형문자로 기록한 경전이 있으며 이를 “동파경”이라고 부른다. 동파교의 발원지는 지금의 윈난성 중뎨(中甸)현 바이띠(白地)촌 일대이며, “沒有到過白地, 不算眞東巴”(만일 바이띠에 왔다가 지 않으면 진정한 동파가 아니다)라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동파교의 성지로 알려져 있다. 동파교는 교의상 계통이 없으며 통일된 조직이나 사원조차 없다. 제사장인 동파는 지역마다 있으며 대부분은 청빈한 농민으로 평상시는 자기노동을 하며 살면서 요청이 있을 때 제사의식을 주관한다. 동파들 간에는 서로가 수평관계이고, 오직 경전의 숙달 정도와 제사의식의 방법, 능력 등으로 수준을 구별한다.

라마불교(시짱의 라마교)는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에 퍼져있고, 그 영향 또한 깊어서 특히 누구호의 모쑤인은 거의 라마교를 믿고 있다. 그 밖에 도교 역시 부분적으로 나시인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기독교 20세기 초 선교사가 들어와 복음을 전했으나 현재 신자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물론 리장 전체지역을 보면 몇 개의 교회가 있으나, 이는 순수한 나시족이 아닌 리쑤(傈僳)족이나 바이(白)족 교회가 대부분이다. 1932년 나시어로 된 마가복음이 번역되었으나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복음활동 역시 어려운 형편이다. 이전에 있던 리장현 천주교회당과 기독교인들의 집회장소가 지금은 천주교회당은 병원으로, 기독교인들의 집회장소는 복지회관으로 바뀌었다.

나시족은 독특한 문화를 가진 그래서 윈난성에서는 이른바 “중심구문화”라고 불리운다. 특히 리장 꾸청(故城)은 1997년 12월 초 중국에서 유일하게 세계문화유산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전통을 지닌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필자가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을 접하면서 느낀 점은 많은 종교를 수용하는 문화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믿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고유한 정신과 문화였던 동파교 역시 지금은 거의 그들의 정신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종교적 형태가

바로 기독교 복음을 받아 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바로 이러한 점이 복음을 전하는 좋은 환경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행스러운 점은 지금 소수의 가정교회형태의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데 있다. 계속해서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고 이들은 향한 사역자 역시 많아져야 할 것이다.

나시족 지역을 방문하려면

- * 한국에서 항공으로 (홍콩—선전(深圳)을 경유하면 경비가 저렴, 베이징, 상하이)를 경유하여 쿤밍(昆明)에 도착.
- * 쿤밍에서 항공으로 리장에 도착(40분 소요) / 버스로 리장에 도착(16시간 소요)
- * 중뎨의 나시족을 방문하려면 쿤밍에서 버스로 중뎨에 도착(20시간 소요), 리장에서 버스로 중뎨에 도착(5시간 소요)
- * 모쑤족이 있는 곳으로 가려면 리장에서 버스로 약 1박2일이 소요됨.

▶기도제목

1. 나시족 가운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2. 소수의 가정교회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3. 나시족 언어로 된 성경 번역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4. 나시족 사역자들이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참고서적

1. 「納西族史」, 四川民族出版社
2. 「納西族」, 和少英
3. 「納西族社會歷史調查」, 云南民族出版社
4. 「永宁納西族的母系制」, 云南人民出版社
5. 「納西族—在女神的天地里」, 云南教育出版社
6. 「納西族民間故事選」, 上海文藝出版社
7. 「東巴文化論集」, 云南人民出版社
8. 「麗江年鑑」(1997年), 云南民族出版社
9. 「中國少數民族語言使用情況」, 中國藏學出版社
10. 「中國民族統計年鑑」, 民族出版社

다이족(傣族)

인구 1,025,402명(1990년 통계)

분포 윈난성의 서남부인 시쌍판나(西双版纳) 다이족자치주, 더홍(德宏) 다이족자치주, 경마(耿馬) 다이족자치현, 멩렌(孟連) 다이족 라후족 와족 자치현 등 4개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기타 린창(臨滄), 란창(瀾滄), 신평(新平), 위엔장(元江), 위엔양(元陽), 진평(金平), 징둥(景東), 징구(景谷), 진사강 주변의 화평(華平), 뤼첸(祿勸), 그리고 쓰촨성의 후이리(會理), 옌벤(鹽邊) 등지에도 적은 수의 다이족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다이족은 적은 수만이 윈난성 내지에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변방지역(미안마, 라오스, 월남과 국경을 두고 있음)에 걸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하천과 계곡 사이의 평지에, 그리고 평균해발 500m~1300m 사이에 걸쳐 생활하고 있다.

언어 다이족은 자기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있다. 언어는 한 장어계(漢藏語系) 장둥어족(壯侗語族) 장태어(壯傣語) 지(支)에 속하며, 쑹어(壯語), 부이어(布依語), 수이어(水語), 마오난어(毛南語) 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다이어는 크게 두 개의 방언(일반적으로는 4종)으로 나뉜다.

* **더홍 방언** — 더홍 다이족 징퉁족(景頗族) 자치주와 경마, 쌍장(雙江), 진장(鎮江), 창위엔(滄源), 징구(景谷), 징둥(景東), 바오산(保山), 창닝(昌寧) 등지에서 사용되는 망스화(芒市話)로서, 약 43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

* **시쌍판나 방언** — 시쌍판나 다이족자치주와 멩렌, 진핑, 란창, 푸얼(普洱), 위엔장, 헤이장(墨江), 장청(江城) 등지에서 사용되는 징홍화(景洪話)로서, 약 25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

시쌍판나 방언과 더홍 방언 사이의 교류는 많고 매우 가깝지만, 실제로 언어소통하는 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문자 : 다이문은 본래 고대 인도 자모계통의 병음문자로서, 태국, 미안마, 월남 문자와 동일한 계통에 속한다. 1954년 이전에는 4종의 문자를 사용했다.

* **다이나문(傣那文)** — 더홍(德宏) 다이족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문자(사각형 자모형식).

* **다이어문(傣仂文)** — 시쌍판나와 멩렌 지역에서 사용되는 문자(원형 자모형식).

* **다이병문(傣緬文)** — 더홍 루이리(瑞麗)현과 란창, 경마 지역에서 사용되는 문자(원형 자모형식).

* **진핑다이문(金平傣文)** — 진핑지역에서 사용되는 문자(사각과 원형형식).

이 중 더홍의 다이나문과 시쌍판나의 다이어문이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 사용되어 왔으며, 동시에 다이족에게 가장 영향을 깊게 주었다. 그러나 이 두 방언 사이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 1953년에 다이나문을, 1954년에 다이어문을 변형해 새로운 다이문(傣文)을 만들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원래의 다이문을 좋아하여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민족역사 다이족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독특한 민족으로, 문헌에 의하면, 고대 남방의 '위예인(越人)'이 선조이다. 이는 고대 창장(長江) 일대(지금의 장쑤, 후베이, 쓰촨, 윈난성)와 동남 연해 근처(지금의 저장, 푸젠, 광둥, 광시성)의 광대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던 '바이위에인(百越人)'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바이위에 민족그룹은 많은 씨족집단으로 구성된 형태로서, 그중에 당시 지금의 윈난과 미안마 경계지역인 더홍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뎬위에(滇越)'가 오늘날 다이족의 조상이 된 것이다.

다이족은 당(唐), 송(宋)대에 사회의 빠른 발전을 가져왔고, 한동안 남소국(南詔國)과 대리국(大理國)의 통치를 받게 된다. 그러나 10세기 말 다이족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를 형성한다. 이른바 '경릉금전국(景隴金殿國)'이다. 이후 원(元)대에 토사(土司: 세습주장) 제도가 사회에 출현하였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기 전까지 약 38대를 이어오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다.

다이족은 진, 한대에는 '뎬위에(滇越)', 당, 송시대에는 '진즈(金齒)', '헤이즈(黑齒)', 원, 명대에는 '바이이(百夷)',



다이족 여자는 장식을 좋아하는데, 금이나 은, 동으로 만든 팔찌나 귀걸이, 목걸이를 달고 다닌다
(사진은 다이족 아가씨들)

청대에는 ‘바이이(擺夷)’로 불리우다가 1950년 이후 지금의 다이족으로 통일되어 부른다.

건축 다이족의 주택 구조는 각지역마다 다르나, 간란식(干欄式)과 목루(木樓)가 가장 많으며, 흙으로 만든 집도 볼 수 있다. 주로 물이 있는 근처에 거주하는 관습이 있으며, 촌락을 구성할 때 크기는 200~300가구, 적을 때는 10가구 이상 모여서 촌락을 구성한다. 이들의 방은 모두가 하나로 되어 있고, 사방에 토지가 있으며 각 집마다 뜰을 가지고 있다.

다이족의 전통적인 주택은 간란식 방법의 죽루(竹樓)이다. 시왕판나, 더홍, 멩렌 등지에서 유행하며, 특히 시왕판

나의 죽루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다이족 죽루의 상징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죽루는 상, 하 이층으로 되어 있는데, 상층에는 주로 사람이 거주하고, 하층에는 가족이나 농기구, 직물기 등을 놓는다. 그리고 집을 새로 건축할 때는 반드시 좋은 날짜를 선택해서 집을 짓는 풍습이 있다.

복장 다이족의 복장과 장식은 독특한 민족의 예술적 상징을 나타내고 있다. 남자의 복장은 일반적으로 단추로 채우게 되어 있는 오른쪽 앞섶에, 하의는 좁게 단을 접은 길고 넓은 통의 바지를 입는다. 의복은 대체적으로 백색이나 청색면으로 만들며, 청색으로 만든 허리띠를, 백색이나 청

색으로 만든 머리수건을 두른다. 여자의 경우 지역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결혼 전에는 큰 옷깃의 짧은 셔츠에 긴 바지를, 그리고 허리에 끈을 두른다. 그러나 결혼 이후에는 짧은 셔츠의 옷깃에 바지를 입지 않으며, 대신 청색 면으로 만든 통치마를 입는다.

장식의 경우 남자는 일반적으로 착용하지 않으며, 단지 흙이나 나무로 만든 인형이나 은으로 만든 팔찌를 끼고 다닌다. 반면 여자의 경우는 다르다. 여자는 장식을 좋아하는데, 금이나 은, 동으로 만든 팔찌나 귀걸이, 목걸이 등을 달고 다닌다. 그리고 허리에는 금, 은으로 만든 허리띠를, 머리에는 금, 꽃, 비취색진주 등을 늘어뜨리고 다닌다.

음식 다이족은 옛날부터 쌀을 주식으로 해왔으며, 하루 세 끼의 쌀밥을 먹는다. 더홍 지역의 다이족은 멧살을 주식으로 하고 있고, 시황판나, 멩렌, 위엔장, 신평(新平) 지역의 다이족은 찰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다. 특히 찰쌀을 이용해서 만든 음식만 40여 종에 이르고 있다. 예를 들면 상주관(香竹飯), 황미관(黃米飯, 미간(米干)) 등이다. 부식은 주로 돼지, 소, 닭, 오리고기 등이며, 독특하고 특색있게 먹는 방법으로 고기를 신맛이 나게 하거나 날고기를 잘게 썰어서 먹는다.

다이족이 특히 좋아하는 것은 술과 담배, 차 등이다. 술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만들며, 특히 쌀로 만든 술을 좋아하는데, 맛은 달며, 술 온도가 높지 않다. 그러나 술 온도가 60° 이상 되는 것도 있다(시황판나 지역에서 찰쌀로 만든 술).

다이족의 음식 중 가장 특이한 것은 곤충을 먹는 풍습이다. 이것은 일종의 특색있는 식품으로서, 가장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음식이다. 예를 들면 구더기의 일종인 쯤바오취(棕包蛆), 사취(沙蛆), 주취(竹蛆) 등이다.

결혼 결혼제도는 일부일처제이고, 남녀간의 교제는 매우 자유스러운 편이다. 일반적으로 13세부터 마을의 사회활동에 참석하며, 17살 이후부터 정식으로 결혼을 위한 교제를 한다. 연애 이후 정식으로 결혼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예물을 보내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역마다 다르나 시황판나의 경우, 먼저 결혼 의사를 양쪽 부모에게 알리고 난 뒤, 남자의 부모가 결혼에 동의하면 친지중 한 사람을 여자집에 보내 정식으로 청혼을 한다. 이때 남자 측에서는 노래로 청혼을 알리고 동의를 기다리며, 여자 측에서도

역시 노래로 대답한다. 동의를 이루어지면 이어 남녀 서로 간의 궁합을 맞춰본다. 만약 궁합이 맞으면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맞지 않으면 도중에 중단된다. 최종적으로 여자 측의 동의를 이루어지면 남자 측에서는 미리 준비한 예물을 여자 부모에게 주는데, 이때 일반적으로 사탕이나 파초, 담배, 술 등을 준다. 특히 사탕을 주는 의미는 사탕을 먹고 기분이 좋으라는 뜻을 내포한 것이다.

다이족의 결혼의식은 민족적 특색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기 또한 대단하다. 결혼식이 있기 전 신랑과 신부는 먼저 사원에 가서 불상에게 절을 한다. 그리고 난 후 집으로 돌아와 결혼의식을 행한다. 결혼식은 먼저 신부집에서 거행된다. 신랑이 신부집 앞에 도착할 때가 되면 신부 측에서는 미리 통로를 막고 문을 닫는다. 이때 신랑 측에서는 돈을 주며 그 때야 비로소 여기저기에서 폭죽이 터지며 문이 열린다. 신랑이 집안으로 들어 갔을 때 신부 측에서는 다시 한 번 길을 막는다. 이때 신랑 측에서는 또 한 번 돈을 주면서 길을 비켜줄 것을 요구한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비로소 신랑은 신방에 들어가게 된다.

장례 일반적으로 장례풍습에는 토장(土葬), 화장(火葬), 수장(水葬)의 3가지 방식이 있다. 이 가운데 화장과 토장은 일반 평민들이 행하고, 수장은 특별하게 죽은 자가 행한다. 현재는 일부 화장을 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토장을 행한다.

장례절차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염을 하여 입관을 하는 게 보통이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으나, 시황판나의 경우, 먼저 시체를 씻고 옷을 갈아입힌다. 이 때 상의는 거꾸로 입히고 백색 무명의 천으로 시체를 감아 관 안에 집어 넣는다. 이후 관을 자녀나 친지가 집의 중심 기둥 앞에 놓는데 이때 시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놓는다. 이유는 만약 시체가 움직이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관습 때문이다.

토장의 경우를 보면, 일반적으로 봉이 있는 묘지형식이 아니라 평면이다. 그리고 관 그대로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시체만 꺼내 땅에 묻는다. 그리고 난 후 묘지 주변에 사방으로 대나무를 이용하여 원을 그리며 씌운다. 이 때 시체의 머리와 발은 집들이 있는 촌락을 향하면 안 되며, 반드시 촌락과 묘지 사이를 수직선상으로 볼 때 가로로 놓여야 한다.

금기 다이족의 금기는 다른 소수민족보다 많은 편이며 동시에 규정 역시 엄격하다. 만약 손님으로 집 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신발을 문 밖에 벗고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 앉을 때에도 문 난간에 앉아서 안 되며, 특히 방 가운데에 있는 화로 주위를 마음대로 앉아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화로 주위는 본래 집주인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만약 집 안에서 자기의 물건을 잃어 버렸을 때에도 말을 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이는 주인을 향한 모욕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 집에서 잠을 잘 경우 안채의 한가운데 방에서만 잘 수 있으며 머리부분은 주인의 방쪽을 향하여 잘 수 없다. 그리고 집주인 허락 없이 안방을 보거나 들어갈 수 없다.

주요절기 다이족은 다양각색의 민족 절기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이 농업생산 및 종교활동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그 중 중요한 절기 3가지만 소개한다.

① **포수이제(放水節), 다이력(傣歷) 6월 6일~7월 6일 (양력 4월)**

포수이제에는 다이족의 절기 중 가장 민족적 특색을 지닌 3대 절기중 하나이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 아주 흉악한 마왕이 있었는데, 그는 강력한 마법을 지니고 있어서 몸이 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칼로 찢어도 들어가지 않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하늘의 16층 가운데 1층을 다스리고 있는 제왕으로서, 사람들로 부터 약탈을 일삼았고 아름다운 처녀들을 빼앗아 자기의 아내로 삼았는데, 그에게는 이미 6명의 아내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만족하지 않았고 결국 또다시 일곱 번째 처녀를 빼앗아왔다. 그런데 일곱 번째 처녀는 다른 처녀들보다 더 아름다웠기 때문에 마왕이 특별히 좋아했다. 어느 해 6월 마왕이 궁중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때 마왕은 술에 만취가 되어 자기의 약점을 사랑하는 일곱 번째 처녀에게 알려준다. 즉 자기의 머리카락을 목에 감으면 죽는다는 것이다. 이 비밀을 들은 그녀는 마왕이 완전히 술에 만취되어 누워있는 틈을 타 그의 머리카락을 목에 감았고, 마왕의 머리는 곧 땅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자 마왕의 머리로부터 흘러 나오는 피가 갑자기 불로 변하여 타기 시작했다. 그녀가 머리를 들자 불꽃이 꺼졌고, 내려놓자 불꽃이 다시 일어났다. 이 광경을 본 다른 6명의 처녀들이 달려와 함께 마왕의

머리를 들었고 그러자 불꽃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후 일곱 번째 처녀가 집으로 돌아 왔는데, 그녀의 몸이 피로 더럽혀진 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보고, 그를 향해 물을 뿌리면서 몸을 깨끗하게 해주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처녀를 기념하여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서로가 물을 뿌려 주는데 이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포수이제 첫날 새벽, 남녀 모두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는데, 청년들은 화려한 옷차림과 화장을 하며, 특히 여자들은 가장 아름다운 치마와 좋아하는 장식과 생화로 몸을 치장한다. 그리고 아침 일찍 불교사원에 가 불상에게 절을 하는데, 이 때 미리 준비한 제물을 드리기 전 물을 뿌리는 의식을 행한다. 이는 집안의 축복을 위한 의미이다. 그리고 난 후 젊은이들은 먼저 노인들을 위해 물을 뿌리며 축복을 빌며, 자유롭게 서로를 위해 물을 뿌리며 축복을 빈다. 물을 뿌릴 때 한편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수이 수이 수이(水—水—水)”라는 소리를 내면서 물을 뿌린다.

② **관면제(關門節), 다이력 9월15일(양력 7월 중순)**
관면제는 양력 7월부터 시작해 10월의 카이먼제(開門節)에 이르는 이른바 3개월 동안 지키는 불교절기이다. 관면제가 시작하는 첫날에 사람들은 불교사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참석하여 절하는 의식을 갖는다. 이때 미리 준비한 음식과 생화, 그리고 돈 등을 불상에게 봉헌하고, 그 앞에서 경을 읽고 물을 뿌린다. 그리고 난 후 앉아서 불교에 대한 강의를 듣는데, 이는 행복한 삶을 기원하는 의미이다. 말씀의 내용은 대부분 불교사상에 관한 것이지만 이 밖에 다이족의 신화, 천문학, 의학, 역사, 문화 등 다방면에서 강의를 듣는다.

관면제 기간 중 7일마다 한 번씩 오래된 신도들은 사원 안에서 경을 통독하며, 불상을 향해 물을 뿌리는데, 이는 경건하고 정성스러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특히 이 기간 중에는 불교활동 이외에 일체 다른 활동은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남녀가 연애는 할 수 있지만 결혼은 할 수가 없고, 다른 곳으로 외출할 수도 없다. 이유는 불상에 대한 경건을 표현하는 동시에 죽은 후 자기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 갈 수 있다는 믿음의 표현이다.

③ **카이먼제(開門節), 관면제가 끝나는 10월 중순**
카이먼제는 開門節은 일명 ‘추와(出窪)’라고 부르는데, 3

개월 동안의 불교활동을 마치면서 지키는 절기로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성대한 축제를 연다. 북치는 경연대회가 열리고 밤에는 폭죽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사람들은 사원에 가서 불상에게 기도하고, 1년 동안 지은 죄악에 대해서 참회를 한다. 이때 그동안 금지되었던 다른 모든 활동도 다시 할 수 있게 된다.

종교 다이족은 대부분이 불교(소승불교)를 믿고 있으며 동시에 원시종교 신앙형태도 가지고 있다.

불교는 원시종교보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일종의 전민족의 신앙으로 다이족 고유의 민족적 특색이 있는 종교이다. 다이족은 일생동안 불교와 분리되어 살 수 없다. 출생시부터 불교신도가 될 뿐만 아니라, 이름 역시 불교로부터 받는다. 특히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불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다가 일정기간 집을 떠나 수행을 한다. 예를 들면 시황판나, 경마, 명렌 지역의 경우 남자는 어려서부터 집을 떠나 일정기간(수개월 혹은 10년)동안 승려 생활을 한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회에 진출하면 경시와 천대를 받는 풍습이 있다. 이처럼 불교는 이들의 삶 전체에 있어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밖에 귀신을 섬기는 일종의 원시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농업생산과 생활에 연관된 것이다. 자연만물에는 모두 영혼이 있고 그래서 각각각색의 신과 귀신이 있다는 것이다(太陽神, 山神, 水神, 家神 등). 이들이 사람에게 행복도 주고 재난도 주기 때문에 이들에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 19세기 초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선교사들에 의해 기독교가 들어왔으며, 통계에 의하면 약 1천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나 정확한 통계는 어려운 편이다. 주로 신평(新平), 이족, 다이족 자치현과 위엔장(元江), 하니족(哈尼族), 이족(彝族), 다이족 자치현에 기독교인이 분포하고 있으며 적은 수가 시황판나에 분포하고 있다. 1922년 마태복음이 번역되었고, 1993년 중국 정부에 의해 신약성경 전체가 공식적으로 출판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불교는 다이족의 민족종교이며 삶이다.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방문해 보면, 마치 불교 사원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삶이 곧 불교라는 것이 느껴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선교사역에 어려움이 많았다. 반면 대부분의 소수민족들처럼 이들

역시 손님에 대한 접대는 인색하지 않고 친절하다. 그래서 이들과 접촉하는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다. 결국 불교라는 장애물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과 오랜 시간 교제와 더불어 이들의 문화를 이해한다면 효과적인 선교사역이 이루어 지리라고 믿는다. 현재 비록 소수지만 기독교인이 늘어나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기도가 요청된다.

다이족지역을 방문하려면

- * 한국에서 항공으로(홍콩—선전을 경유하면 경비가 저렴, 베이징, 상하이)를 경유, 쿤밍에 도착.
- * 시황판나 다이족 지역으로 가려면
— 쿤밍에서 항공으로 시황판나에 도착(40분 소요) / 버스로 시황판나에 도착(20시간 소요)
- * 더홍 다이족지역으로 가려면 —쿤밍에서 항공으로 망시(芒市)에 도착(40분 소요), 버스로 망시에 도착(24시간 소요)
- * 진핑(金平) 다이족 지역으로 가려면 — 쿤밍에서 버스로 진핑에 도착(15시간 소요)

▶기도제목

1. 불교 문화가 무너지고 기독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2. 다이족을 향한 헌신자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3. 기존의 교회와 성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참고서적

1. 「傣族社會研究」, 云南人民出版社
2. 「傣族文化志」, 云南民族出版社
3. 「傣族風俗志」, 中央民族大學出版社
4. 「傣族哲學思想史」, 民族出版社
5. 「西双版纳傣族的歷史與文化」, 云南民族出版社
6. 「德宏傣族社會歷史調查」, 云南人民出版社
7. 「中國少數民族語言文字使用和發展問題」, 中國藏學出版社
8. 「中國民族統計年鑑」, 民族出版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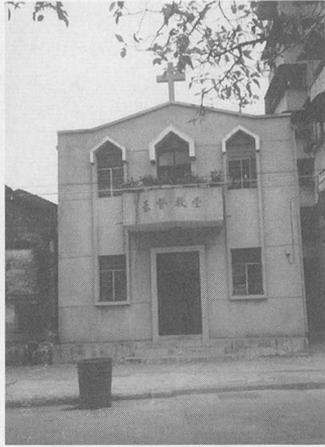
특별한 헌신이 필요한 소수민족 선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요(겔 3:17~18)”

언젠가 ○○족의 마을인 △△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미가서 4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모으시고 심판하실 날이 임한다는 말씀이 있다. 그런데 만약 마지막 날에 ○○족 사람들이 “하나님, 하나님 우리 족속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아무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신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았습시다. 우리는 몰랐어요. 우린 얼마나 착하게 살았다고요.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과연 그들의 피값을 누구의 손에서 찾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를 출발하여 남쪽지방의 여러 소수민족

자치주와 자치현들을 둘러보는 데는 약 10일 가량이 걸렸다. 특별히 이번에 답사했던 땅들은 우리 나라의 중국선교 역사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들과 거의 가본 적이 없는 땅들이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의지하여 지도책 2권과 나침반만 가지고 ☆☆☆와 작은 하천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변방 지역까지 내려갔다. 때로는 하루종일 버스를 타고 덜컹 거리는 산길을 가기도 했으며, 때로는 잠 잘 곳이 없어서 밤새도록 잘 곳을 찾아다니기도 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소수민족들을 만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깊은 내면과 삶은 만나기 힘들었다. 비록 아직 그들이 전통의상을 그대로 입고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었지만, 지도에 표기된 지명 위의 그들은 이미 ‘변화’라는 두 글자에 너무나도 노출되어 있었다.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들이 그들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대다수의 중국인인 한족을 싫어하며, 자신의 문화를 지키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현상일 뿐 그들은 이미 ‘변화’하고 있었다. ○○족의 식당에는 곳곳마다 가라오케가 설치되어 있었고, 바구



가? ◇◇에서 만난 모 선교사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다. “한국에는 지금 소수민족 선교가 마치 봄을 타듯이 일어나고 있다. 물론 그것은 좋은 시도이지만 단지 바람만 일으킬 뿐 실제로 그들을 위해 준비하기는 커녕 심지어 그들의 말조차 배우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미있어 보이고 보고하기 쉬울지는 모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구경만 하다가 그만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물론 소수민족을 위한 사역이 없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역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 보안관계로 구

체적인 언급은 피하겠다. 그러나 우리의 소수민족 선교, 다시 말해 미전도종족 선교가 지나치게 낭만에 빠져 있지 않나 내심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 갖가지 이름 모를 아열대 식물, 진귀한 과일과 원시 그대로의 움막, 화려한 옷과 형형색색의 두건, 태양 아래 가장 가까운 밀림과 계곡 속의 신비함과 경이감, 일월신 숭배와 독특한 종교의식... 그러나 선교는 막연한 낭만시(浪漫詩)가 결코 아닌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견디기 힘든 고난과 죽음의 위험도 마다 않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쉬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것이다.

소수민족. 그들은 막연한 동경의 대상도 아니요 단순한 도움과 구제의 대상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계획아래 있는 구원의 대상이다. 이번엔 깊고 깊은 그들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물론 더 깊은 원시림 속에는 어쩌면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종족이 있을 수도 있다. 주님은 그들을 살리실 수도 있고 그냥 두실 수도 있으며, 그리고 솔직히 말해 우리의 손에서 그들의 피 값을 찾으실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가 그분의 손을 움직일 수 있음...; 그리고 그 땅에서 죽기까지 충성하길 원하는 헌신자를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을 말이다.

니를 등에 맨 전통복장을 한 여인의 길 옆에는 ‘성병 치료와 예방’에 관한 광고가 붙어 있었다. 늦은 밤 당구장의 손님은 7~8세 소년부터 10대 후반의 청소년들이었으며, 거리의 가판에는 도색잡지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었다. 우리의 사진기에 우리와 전혀 다른 수많은 소수민족들의 모습이 찍혔으나, 그 기분은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를 찍는 듯한 기분이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으로는 도저히 변화하는 그들의 진정한 내면의 모습을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 대부분의 땅은 안타깝게도 외부인 특히 외국인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며칠 동안 지내면서 정답하고 인터뷰 정도는 할 수 있다. 적어도 그 정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한 달은 커녕 일주일 이상도 지낼 수 없는 곳이 바로 그 곳이다. 낯선 외국인... 그가 아무리 신분을 숨기고 말을 잘한다 해도 여차피 중국 정부의 주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렵고 힘들게 들어간 소수민족의 자치현, 비록 이 곳이 개방되고 변화되어 가고 있다지만 복음의 문은 그 어떤 곳보다 굳게 닫혀 있었는데, 하물며 더 깊은 곳 전기마저 들어오지 않는 완전히 외부와 차단된 산속 깊은 곳의 소수민족 마을에는 누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것인가?

허국화/ 자원봉사자

유행가를 좋아하는 중국 아저씨

“이 열차 안에 혹시 조선족이나 중국어 통역할 수 있는 한국인 있어요?”

선양(瀋陽)에서 베이징(北京)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용감한(?) 한국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때 나는 열차 침대에 누워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막 잠을 청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너무 큰 목소리로 알아듣기 쉬운 한국말이 들리는 것이 아닌가? 중국에 언어 연수를 간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나는, 청력(聽力)을 기르려고 열심히 중국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중국인들이 말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가끔씩 생소한 단어를 듣게 되면 답답함을 느끼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곤 했는데,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반가움이란...

나는 호기심이 발동하여 열차 침대에서 일어나 그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무슨 도움이 필요하세요?”

“이 앞에 있는 중국 사람에게 자리를 바꿔달라고 말 좀 해줘요.”

알고보니 그 할아버지는 사업하시는 분으로 중국에 와서 투자할 만한 마땅한 사업이 없을까 하고 선양 조선족 지역을 살펴보기 위해 왔다. 온 김에 베이징을 구경하고 돌아가기 위해 할머니와 열차를 탄 것이다. 말도 통하지 않는 노인 부부가 여행을 하겠다는 그 용감함에 나는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이 열차에 올라와 자리를 확인해 보니, 자리 하나는 맨 아래 칸(下鋪)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맨 위 칸(上鋪)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할아버지는 위칸에 올라



내가 만난 중국의 벼락부자

석 은 혜

가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거니와, 할머니만 아래 칸에 남겨놓는 것이 영 마음 내키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앞에 앉아있는 젊은 중국인에게 자리를 바꿔달라고 부탁을 해 보고 싶은데 말이 통하지 않자 큰 소리로 도와줄 사람을 찾았던 것이다.

나는 정중하게 맞은편에 앉아 있는 중국인 아저씨에게 할아버지의 사정을 설명하고 자리를 양보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기꺼이 자리를 양보해 주겠다고 했다. 이것을 계기로 이 중국 아저씨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그의 성은 왕(王) 씨였고, 그

는 중국 유행가를 무척 좋아했다. 열차 안에서도 이어폰을 끼고 소형 카세트를 통해 들려오는 유행가를 연신 따라서 흥얼거렸다. 그는 원래 동북지역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그 곳에서 자란 사람인데, 현재는 베이징에서 형님과 개인회사를 차리고 집을 짓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형이 사장이고 그는 부사장이었다. 그는 한국 경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고, 한국에 대해 알고 싶다면서 많은 것을 물어 보았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한국 경제에 관심이 있듯, 그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국인들이 한 달에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집값은 얼마인지? 또 승용차 값은 얼마인지?

비교적 물정에 어두운 나는 내색하지 않고 애써 기억을 더듬으며 시세를 아주 잘 아는 척 인민페로 환산까지 해서 알려주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그 중국 아저

씨와 나는 친구가 되었다.

원래 아침 7시쯤 베이징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던 열차가 3시간이나 연착되었다. 열차 안에는 아침을 팔지 않았고, 아침에 도착될 것을 예상해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은 나는 매우 난감했다. 그런데 이미 이런 일에 익숙한 이 아저씨는 먹을 것을 많이 준비해 왔다. 결국 초면인 중국 아저씨의 도움으로 허기를 겨우 면할 수 있었다.

베이징역에 도착하니 그 아저씨를 기다리는 승용차가 와 있었다. 그 차는 원래 회사차인데 출장 갔다가 돌아온 그를 마중 나온 것이었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그 차로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도록 부탁했다. 아! 중국에서 승용차를 타보다니!

하루 식사비가 일반인들의 다섯 달치 월급

한 번 만났는데 어찌 사람의 깊은 속을 알겠는가? 그런데 그는 타국 생활에서 불편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종종 전화를 했다.

그 해 가을 어느 토요일, 그는 나에게 단풍으로 유명한 향산(香山)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했다. 토요일이 휴일인 중국에서 토요일에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매우 무료하다. 그런데 자원해서 가이드가 되어 주겠다는 그가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다. 나는 별 부담 없이 친구와 같이 향산에 단풍 구경을 가기로 했다. 토요일 아침 그는 멋진 자가용을 타고 운전 기사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아니 이건 또 웬 차?’

친구와 나는 그의 행동에 대해 약간 의아함을 느끼면서 그 차를 타고 향산을 갔다. 산 입구는 단풍구경은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그 사이로 자가용을 타고 갈 때의 기분은 참으로 미묘했다. 향산을 구경할 때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그가 부담했다. 게다가 산을 내려와서 점심을 사 주겠다고 근사한 식당으로 안내했다. 그의 단골집인 모양이었다. 그 식당은 구석에 작은 홀들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었다. 한국에서도 못 가본 그런 곳이었다. 홀 안은 한쪽에서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쪽에서는 비디오와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었다. 말하자면 노래방인 셈이었다.

중국 정식을 풀 코스로 주문했다. 식사를 하는 사람은 운전 기사까지 포함해 네 사람인데 음식은 비교적 풍성했고, 자리가 8인석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8인분 음식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화려한(?) 식사를 마치고 그는 옆에 있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신청해 혼자서 열심히 노래를 불렀다. 우리에게도 불러 보라고 청했지만 알고 있는 중국 유행가가 하나도 없어서 사양했다. 식당에서 나올 때 식사비 지불 청구서를 보고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인민폐 800원(한화 16만 원 정도)이 적혀 있었다. 보통 중국 일반인들의 한달 월급이 500원(한화 10만 원 정도) 선인데, 한 끼 식사가 800원이라니? 혹시 ‘0’을 하나 잘못 붙인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그런데 그가 돈을 내는 것을 보니 800원을 내는 것이 아닌가. 음식값이 왜 그렇게 비싼지 묻자 노래방 사용료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후에는 해양공원(海洋公園)과 경산공원(景山公園)에 가서 구경을 했다. 왕씨 아저씨는 저녁에 친구들과 같이 식사 약속이 있는데, 우리만 괜찮다면 같이 가자고 했다. 용기를 내어 우리는 중국 문화와 중국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그를 따라가기로 했다.

그는 어떤 호텔 식당으로 우리를 데리고 갔다. 그곳에는 그의 친구 5명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훘궈’(火鍋) 뜨거운 국물에 고기를 넣고 익혀서 양념을 찍어 먹는 음식)로 저녁을 먹었다. 그들은 거기다가 술을 곁들여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중국어를 하는 한국 사람을 신기해하면서 “왜 중국어를 배우냐?”, “학비는 얼마냐?”, “누가 학비를 주느냐?”, “국비냐, 자비냐?” 등 여러 가지를 물었다.

저녁을 먹은 뒤 음식점 옆에 있는 노래방으로 갔다. 호텔 노래방은 점심 식사했던 곳과는 또 달랐다. 세 명의 아가씨가 따라와 옆에서 시중을 들었고, 음료수와 약간의 간식이 나왔다. 한국에서도 자주 가보지 못한 노래방을 하루에 두 번씩이나 가서 본 나는, 중국의 참 모습이 어떤 것인지 혼란이 오기 시작했다. 밤 10시가 넘어도 그들의 노래는 끝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너무 늦어서 집에 가겠다고 했더니 운전 기사에게 우리를 데려

다주라고 했다. 돌아오는 길에 운전 기사에게 오늘 밤 음식값과 노래방 사용료가 얼마나 되느냐고 묻자 인민폐 2,000원(한화 40만 원 정도) 정도 된다고 태연하게 대답하였다. 혹시 잘못들은 것이 아닌가 하고 다시 묻자 2,000원이라고 다시 말하면서 오늘날 특별히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고 보충 설명까지 곁들였다. 집으로 돌아온 나에게 무력감과 허탈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일 주일에 두 번씩 점심시간을 이용해 나에게 중국어를 가르쳐 주는 한 여선생이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10여 년 동안 교직에 몸담고 있던 그녀의 한 달 월급은 700원(한화 14만 원 정도)이었다. 그녀는 2~300백 원을 더 벌기 위해 남들이 오수(午睡)를 즐기는 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우리 집까지 와서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런데 더이상 중국은 어제의 중국이 아니었던 것이다.

개혁개방이 만들어 낸 벼락 부자

중국이 개혁·개방 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 국민들의 평균 경제수준이 높아졌다. 그러나 빈부 격차가 커지면서 상대적 빈곤감 역시 더 커가고 있다. 지금도 6천만 명 정도의 극빈층 농민은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특별히 외딴 남부, 서부지역은 근근히 연명을 하고 있다. 연간 8%의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개의 촌락에서 소득이 감소되고, 빈곤 탈출은 요원해져만 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백만 명의 농민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올라오게 되었다. 그 중 많은 사람은 직장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고, 직장을 찾았던 사람도 국유기업이 도산되면서 또 다시 실업자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왕씨 아저씨는 개혁개방 덕분에 돈을 벌어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 중의 하나이다. 그의 성공 배후에는 개혁개방 정책으로 나타난 중국 도시민들 사이에 '내 집 마련 붐'이 있었다. 지금까지 중국인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주택에서 적은 임대료를 내며 사는 것을 사회주의 국가의 자랑으로 여겨 왔다. 그러나 도시민들의 소득수준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면서 개인 소유 주택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는 '내 집 마련 붐' 조류를 타고 집 짓는 사업으로 성공해

벼락부자가 된 것이다.

이처럼 새로 등장한 신흥 벼락부자는 중국 전체 인구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몇 천만 명의 사람들이다. 이런 벼락 부자 중 일부는 불법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돈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일반인들과 너무 현격한 수입차이로 보통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심어 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단 돈 백원이 없어 자녀를 초등학교에 못 보내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저녁 식사비로 2~30만 원(한화 40만 원~60만 원)을 쓰고, 한 장에 미화 20달러(한화 26만 원 정도)하는 골프 티켓 회원권을 서슴없이 구입한다. 이러한 불균형은 오늘날 중국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다 같이 못살 때는 그래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갈등없이 편하게 살았다. 그러나 이제 경제적 차이의 불균형은 현실에 대한 불만과 배금주의 사상을 심어주어 결과적으로 각종 사회 범죄를 낳고 있다. 돈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몇 명의 사역자에게 왕씨 아저씨의 이야기를 했더니 아마 그는 틀림없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을 것이라며 더이상 만나지 말라고 충고해 주었다. 그 후 나는 왕씨 아저씨를 만나는 것이 웬지 개운치가 않아, 그가 몇 번 전화를 걸어왔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만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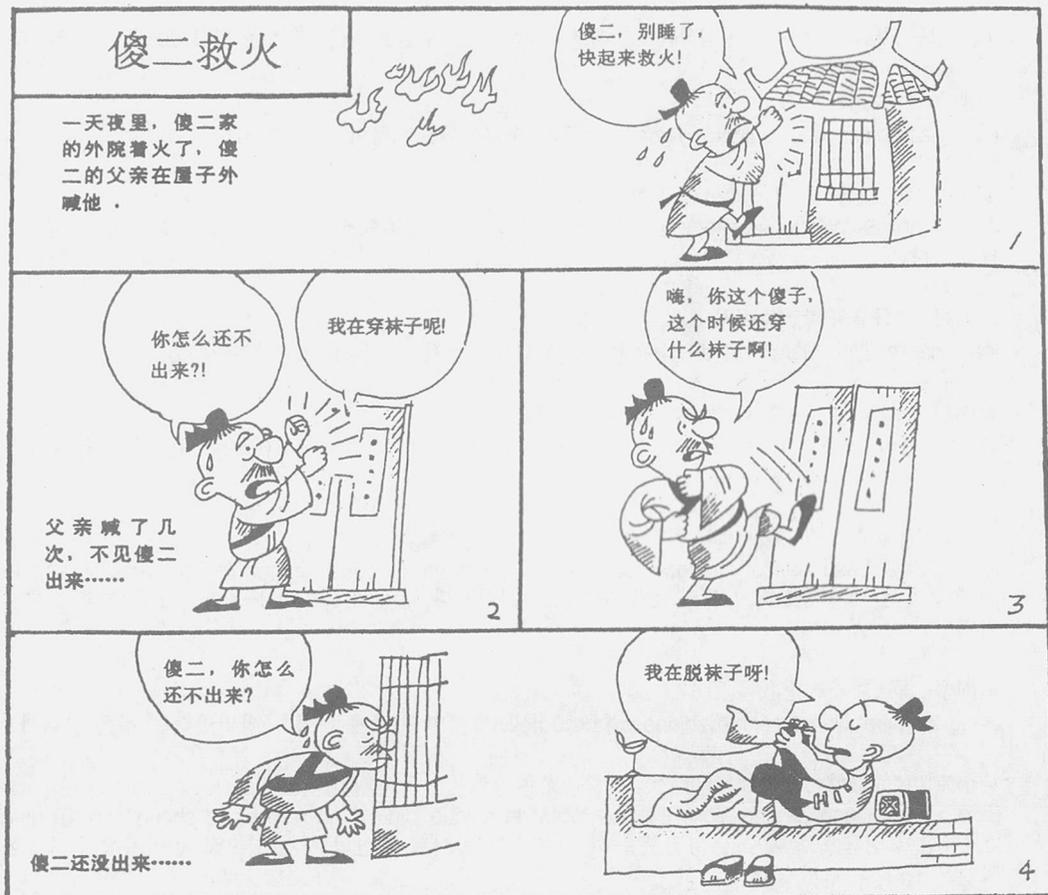
왜 하나님은 나에게 왕씨 아저씨를 만나게 하셨을까? 아마도 중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하신 듯 하다.

계속해서 커져가는 중국의 빈부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황금만능주의로 몰들어 가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자리는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다.

“하나님! 황금만능주의에 몰들어 가는 중국 영혼들을 구해 주소서.”

傻二救火

멍청이네 불 끄기



어느 날 밤, 멍청이네 집 뒷뜰에서 불이 났다.
 집밖에 있던 멍청이네 아버지가 그에게 소리쳤다.
 “멍청아, 잠들지 말아라, 빨리 일어나서 불을 꺼야지!”
 아버지는 몇 차례 소리를 질렀지만, 멍청이는 나오지 않았다.
 “너 왜 아직도 안 나오는 거냐!”
 “아버지, 저 지금 양말 신고 있어요!”
 “아이, 이 바보야, 이런 때 무슨 양말을 신고 있어!”
 멍청이는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멍청아, 너 뭐하고 아직도 안 나오냐?”
 “저 지금 양말 벗고 있어요!”

선교 중국어

得救的道理(구원의 진리)

déjiù de dàoǐ

백(朴)양은 고풍에 놀러 갔다가 상하이(上海)에서 여행온 강(姜)씨 성을 가진 대학생을 만나 전도를 하게 되었다.

朴小姐: 您去過教堂嗎?

Piáo xiǎojiě: Nín qùguo jiàotáng ma? (당신은 교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姜同學: 我去過教堂, 但是我不信耶穌。

Jiāng tóngxué: Wǒ qùguo jiàotáng, dànshi wǒ bú xìn Yēsū.(교회에 가본 적이 있지만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朴小姐: 您願意罪得赦免嗎?

Piáo xiǎojiě: Nín yuànyì zuì dé shèmiǎn ma? (당신은 죄사함받기를 원하십니까?)

姜同學: 我要得救, 可是我不知道怎麼辦才能得救。

Jiāng tóngxué: Wǒ yào déjiù, kěshi wǒ bù zhidao zěnmé bàn cái néng déjiù. (나는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朴小姐: 耶穌現在正在敲着你的心門。你打開心門接受耶穌就可以了。

Piáo xiǎojiě: Yēsū xiànzài zhèngzài qiāozhe nǐ de xīnmén. Nǐ dǎkāi xīnmén jiēshòu Yēsū jiù kěyǐ le.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당신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姜同學: 那麼怎麼知道我得救呢?

Jiāng tóngxué: Nàme zěnmé zhidao wǒ déjiù ne? (그러면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압니까?)

朴小姐: 當你憑信心接受耶穌的時候, 基督已經進入你的生命, 就得救了。

Piáo xiǎojiě: Dāng nǐ píng xìnxīn jiēshòu Yēsū de shíhuò, Jīdū yǐjīng jìnrù nǐ de shēngmìng, jiù déjiù le. (당신이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리스도는 이미 당신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姜同學: 那麼, 我怎麼辦?

Jiāng tóngxué: Nàme, wǒ zěnmé bàn?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죠?)

朴小姐: 您每天向神禱告, 念聖經, 並且每星期去教堂做禮拜。

Piáo xiǎojiě: Nǐ měitiān xiàng Shén dǎogào, niàn Shèngjīng, bìngqiě měi xīngqīrì qù jiàotáng zuò lǐbài.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매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得救(déjiù): 구원을 받다.

禱告(dǎogào): 기도하다.

教堂(jiàotáng): 교회당, 예배당

禮拜(lǐbài): 예배드리다

석은혜/ 본지 편집장

對你的祝福歌

당신을 향한 노래

○ L ○ L



昔日在天上 眞神行創造 祂微妙計劃 爲你安排好
 Xī rì zài tiān shàng zhēn Shén xíng chuàng zào Tā měi miào jì huà wèi nǐ àn pái hǎo
 시르 짜이텐 상 전 선 싱 창 자오 타 메이 마요 지 화 웨이 니 안 파이 하오
 全能大主宰 造化功顯神 看這一切 萬物都甚好
 Quán néng dà zhǔ zǎi zào huà gōng xiǎn shén kàn zhè yí qiè wàn wù dōu shèn hǎo
 천 닝 따주 짜이 자오 화 공 시엔 셴 칸 저 이 치에 완 우 떠우 셴 하오



爲生名在萬物之中極寶貴 因神親手行偉大妙功無比
 wéi shēng míng zài wàn wù zhī zhōng jí bǎo guì yīn Shén qīn shǒu xíng wěi dà miào gōng wú bǐ
 웨이 성 밉 짜이 완 우 즈 중 지 빠오꾸이 인 셴 친 셔우 싱 웨이 따 마요 궁 우 비



我的心因你們而歡喜快樂 我以永遠的愛著你
 Wǒ dì xīn yīn nǐ men ér huān xǐ kuài lè wǒ yǐ yǒng yuǎn dì ài zhù nǐ
 워 디 신 인 니 먼 얼 환 시 콰이 러 워 이 용 위 엔 디 아이 주 니



眞誠上愛衷心祝福
 Zhēn chéng shàng ài zhōng xīn zhù fú
 천 청 상 아이 중 신 주 푸



願我們蒙恩 愛的心靈
 Yuàn wǒ men méng ēn ài dì xīn líng
 위엔 위 먼 멩 언 아이 디 신 링

우리말 가사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라마불교 지역으로 유명한 라싸(拉薩)

유재승

가장 서쪽에 위치한 티벳 시장(西藏)자치구의 구도(區都), 라싸

검푸르게 보일 정도로 파란 하늘이 매력적이고, 세계의 어느 곳보다도 문명의 손길이 적게 닿아 있는 곳이다. 그들 나름의 독특한 문화가 살아 있어 미지로의 여행을 좋아하는 여행자들이 선호하는 곳이기도 하다.

한때 티벳은 중국과의 대립관계로 1989년 3월부터 1990년 5월까지 계엄령하에 있어서 외국인의 출입이 제한되었다. 그 후에도 외국인 개인 여행자들의 출입이 제한되었다가 1992년 가을부터 출입이 허용되었다. 단, 외국인 여행허가증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1994년 5월부터 허가증 없이 개인의 자유여행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1994년 7월에는 다시 여행 허가를 얻어야만 가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티벳 지역으로의 여행은 출입제한에 있어 매우 유동적이므로, 청두(成都)나, 충칭(重慶)의 공안국 외사과에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라싸(拉薩)로 가는 길

중국 내에서도 오지에 위치하므로 라싸로 가는 교통편은 그리 좋지 않다. 일반 여행자들은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비행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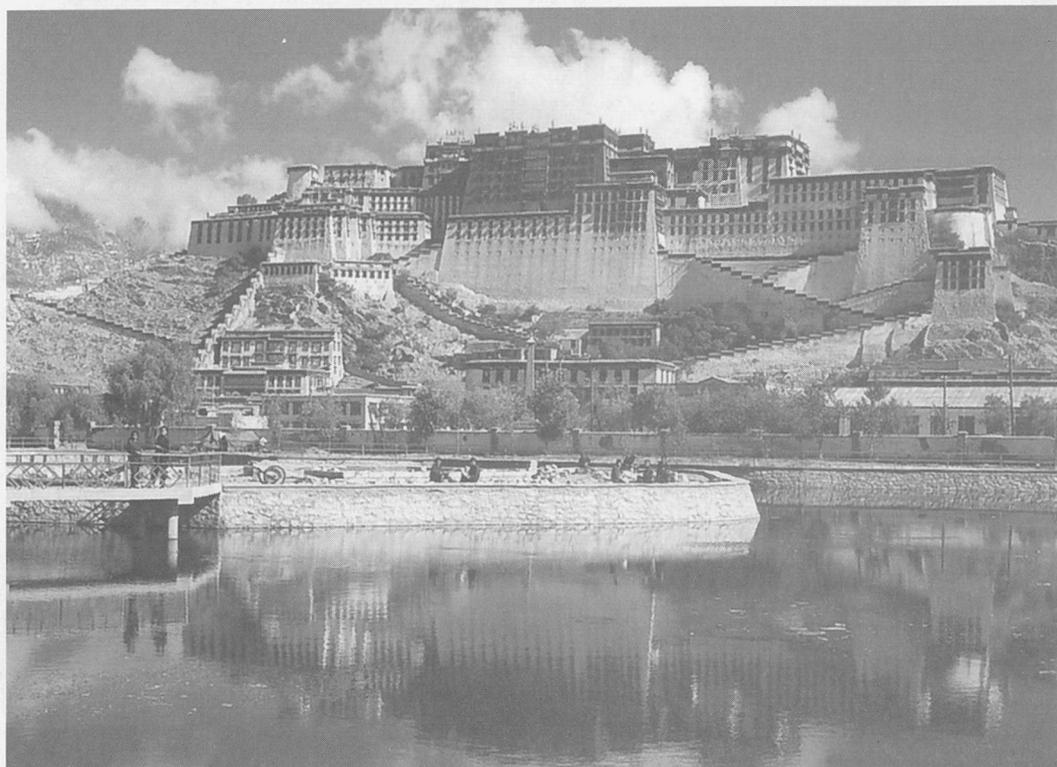
청두에서 가는 편이 가장 편하고 항공편수도 가장 많다. 청두에서 매일 2편씩 운행한다. 1시간 40분이 소요되며, 화, 토, 일요일에는 1편씩 더 있다. 충칭에서는 수요일과 일요일, 주2회 운행에 약 2시간 소요된다. 네팔의 카트만두에서는 화, 토요일에 각각 1편씩 운행되며 1시간 정도 소요된다. 그리고 베이징과는 주 1편이 운행되는데, 일요일 10시에 라싸발 항공편은 약 4시간 15분이 소요된다.

*버스

라싸로 통하는 주요 도로는 다섯 곳의 루트가 있다.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칭하이(青海)성의 거얼무(格爾木: Golmud)에서 오는 것과 네팔의 카트만두에서 오는 것 두 가지 길이 있다. 그 외에는 외국인이 이용하기가 힘들다. 또한 이 곳은 많은 통제를 받게 되므로, 보통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 없는 목적지로 가는 승차권은 살 수가 없다.

티벳의 역사와 달라이 라마

티벳이 처음으로 통합되어 통일체제를 유지하게 된 것은 7세기경의 송첸감포(Songtsen Gampo: 608-650)왕에 의해서이다. 그는 티벳 전역을 통일한 뒤, 라싸를



포탈라궁(布達拉宮)

수도로 정하였다. 이에 당 태종은 수양딸인 문선공주(文宣公主)를, 황금부처상과 함께 화려한 의식을 갖춰 티벳으로 보냈다. 이를 계기로 티벳에 불교가 처음 전래되어 티벳 특유의 라마불교가 형성되기 시작하여 곧 전성기를 누리기 시작하였다. 그후 다르마왕(836-842)이 죽으면서 400여 년간 혼란의 시기를 거친 뒤 원 세조 쿠빌라이 칸은 티벳의 라마교 고승인 파스타를 그의 스승으로 임명하였다.

그 후 티벳의 승려들에게 정치적인 권한, 즉 통치권이 주어지면서 정교합일의 체제가 되었고, 청 태조 누루하치는 달라이 라마(Dalai Lama)라는 칭호를 부여하게 되었다.

그것이 5대 달라이 라마에 이르러서는 점차 극에 달했다. 웅장한 포탈라궁을 세웠을 뿐 아니라 모든 달라이 라마들을 신(神)과 같은 존재로 인식시켰고, 신앙으로 만들었다. 그는 특히 외부세계를 두려워하여 외교관계를 두절하고 문호를 닫아버렸다.

13대 달라이 라마(1876~1933) 때까지 뒤를 이은 통치자들 중 어느 누구도 5대 달라이 라마가 이룬 성과를

얻을 수는 없었다. 이후 중국을 비롯한 많은 열강들이 내정 간섭하여 그들의 세력권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였지만, 세계 2차대전을 거치면서, 중립을 지키고 독립정부를 구성하였다. 1950년 10월에 중국에 의하여 침공당하였고, 1951년 5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중국의 군사령부와 민간주재 기관을 설치하고 티벳을 중국의 시장성(西藏省) 창두 지부로 편입시켰다.

14대 라마에 텐진 가초가 오르게 되면서 1959년 티벳 인들은 그들의 독립을 얻기 위해 봉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가혹한 보복을 받게 되었다. 이때 달라이 라마와 8만여 명의 티벳인들은 인도로 망명하여 히말라야 기슭인 다름살라에 임시정부를 세웠다.

이에 따라 중국 내의 티벳 지역에서는 티벳인의 여행 억제와 강제노동 등 강력한 억제정책이 펼쳐졌고, 1961년과 1962년에 다시 민중봉기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1965년에 중국 정부는 티벳을 자치구로 만들어 민족자치를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문화혁명(1966~1976)기간 중에 중국정부의 무자비한 파괴가 행해져 티벳 문화유산이 상당 부분 파괴되었다.

1980년 중국의 새로운 정책으로 종교와 경제상의 자유를 허용하였을 때, 티벳인들은 다시 붕기하기 시작했다. 라마교 승배자들과 무역상들은 라싸로 순례를 재개했고, 대부분 이전에 승려들이었던 티벳인 십장들이 공예가들과 함께 유명한 사적지를 보수하기 위해 자금을 모으기도 했다.

이러한 그들의 움직임에 중국 정부에서는 1989년에 계엄령을 선포하기도 하고, 1990년에 다시 해제하기도 했지만, 이후 티벳과 중국 간의 관계는 밀고 당김이 계속되었다. 59년 중국의 강제합병 이후 줄기차게 비폭력 독립운동을 펼쳐온 14대 달라이라마는 8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지만, 그가 티벳의 독립을 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라싸 시내의 모습

라마 불교 즉, 티벳 불교의 최대 성지인 라싸는 포달라궁을 기준으로 건축 양식이나 인구 규모, 생활양식 등이 다른 2개 지역(구라싸, 신라싸)으로 구분된다. 구라싸는 티벳에서 포달라궁의 동쪽지역으로 대소사를 중심으로 한 주변이다. 이 곳에는 좁은 골목사이로 회반죽을 바른 암석건물들이 늘어서 있으며, 주로 티벳인이 거주한다. 신라싸는 한(漢)족의 중국인들이 거주하며 포달라궁 서쪽지역으로, 곧고 넓게 뻗은 길과 백화점과 관청이 모여 있다. 라싸의 변화로는 베이징 동루(東路)와 시루(西路), 그리고 대소사를 중심으로 한 주변 일대이다.

여행 일정

티벳은 평균해발 4,000m 이상의 고산지대이므로 여행 일정을 잡을 때에 고려해야 할 우선적인 것이 여행자의 컨디션 조절 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고산지대의 신체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하루 내지 이틀은 여유있게 산책을 하거나 쉬는 것이 좋다.

일단 고산지대에 몸이 적응되면 무리하지 말고 관광을 시작하도록 한다. 포달라궁을 돌아보는 데에도 반나절 정도는 잡아야 여유있게 돌아볼 수가 있다. 또한 시내에 있는 티벳 성지나 공원, 박물관 등을 돌아보는 데는 하루 내지 이틀은 잡아야 한다.

그리고 라싸에서 멀지 않은 시가체(Shigatse)를 돌아보거나 라사 교외에 자리하고 있는 명소들을 돌아보는 데 2~3일 정도 투자를 해야 한다면, 이곳 티벳에서

의 일정은 1주일 정도는 잡아야 여유가 있다.

라싸의 관광명소

포달라궁(布達拉宮)

라싸의 중심에 높이 솟은 언덕 위에 세워진 포달라궁은 달라이 라마가 거처하던 곳으로, 정치와 종교 권력의 중심지로서 성스러운 곳으로 여겨진다. 지금의 포달라궁은 1645년부터 1693년 사이에 5대 달라이 라마가 개축한 것으로, 원래는 티벳을 최초로 통일한 송첸 감포왕이 당나라로부터 맞아들인 문성공주를 위해 창건한 것이다.

이 궁 안에는 1천 개가 넘는 방들이 있다. 그 방들은 달라이 라마들이 살았던 막사를 비롯하여 그들이 문헌 화려한 무덤들과 정부관청들, 불교 경전을 손으로 목판 인쇄해왔던 인쇄소, 신왕 즉 달라이 라마를 직접 호위 하였던 최고 지위에 있는 승려들이 운영하는 청부관리 교육 학교, 화려하게 장식이 된 수백 개의 회당과 성전으로 쓰인 것들이다. 방 외에 홀과 복도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부채, 보살, 성인 그리고 악마 등 티벳의 만신전상(만신전상)들이 수천 개가 있다.

궁 밖에는 원형의 하얀 담들이 서 있는데, 원래 방어 시설로 되었던 것으로, 전설에 의하면 미래의 엄청난 홍수로부터 포달라궁을 안전한 곳으로 날려보내기 위한 날개들이었다고 한다.

왕궁의 이름답고 화려한 건물 밑에는 승려들과 시중들이 거주하고, 달라이 라마와 섭정들의 보물과 국가보물 등을 보관하는 작은 방들이 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식량 보고와 순례자들의 선물들, 여러 해 동안 포달라궁 안의 많은 방에 램프를 켜기에 충분할 정도로 많은 양의 기름을 쌓아 놓은 창고가 있다. 건물 바닥에는 적들을 가두기 위한 지하감옥이 있다. 현재는 승려들이 관리하는 국립박물관으로 되어 있다.

대소사(大昭寺, 다카오스 : 조강)

티벳의 감포왕이 그의 두 아내(중국과 네팔에서 옴)가 티벳으로 가져온 부처상을 간직하기 위하여 지은 절이다. 오랫동안 수백만 티벳 순례자들에게 영적 중심이자 가장 성스러운 곳으로 티벳의 불교중심 사원이다. 티벳을 여행하다보면 이곳을 목적으로 순례를 하러 오는 많은 티벳 순례자를 볼 수 있다.

대소사에는 3개의 기념비가 있다. 왼쪽 기둥은 823년

에 티벳 왕과 중국 황제 간의 동맹을 기록하기 위해 남긴 돌이다. 오른쪽에 있는 순례자들로 보인다. 가장 왼쪽에 있는 성전에는 티벳에서 가장 오래된 물건 중의 하나인 문성공주가 1,300년 전에 장안(지금의 시안)에서 가져온 석가모니상이 안치되어 있다.

소소사(小昭寺)

송첸 감포왕에게 시집은 네팔의 척굴공주가 가져온 아슈크 금불상이 안치되어 있는 사찰이다.

야오왕산(藥王山)

라싸 남서쪽 부분에 있는 작고 바위가 많은 산, 비교적 높지는 않지만 올라가는 데 3시간이 걸린다. 고산적응 훈련에 매우 좋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라싸의 전경은 그야말로 일품이다. 산에는 물이 없으므로 충분한 물을 가지고 가야 한다.

색탑사(色塔寺)

티벳의 2대 불교 사원이다. 1419년 창건되었으며 한때는 5천여 명의 승려들이 수도를 하였지만 지금은 약 300명의 승려가 있다. 경내에는 대집회당, 승려들의 교육장소, 이나당, 하방당, 진연당 등이 있다.

철방사(哲蚌寺)

티벳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찰이다. 5,200개의 높이를 가진 라싸 서쪽에 있는 감포 위제산 위에 세워져 있는데, 하얀 건물이 인상적이다. 1416년 티벳의 고승인 총카파의 지시로 창건되었고 5대 달라이 라마가 증축하였다. 포달라궁이 완성될 동안 달라이 라마가 이곳에서 통치하기도 하였고, 한때는 일만여 명의 승려가 수도를 했을 정도이다. 1959년에는 6천여 명에 달했고, 달라이 라마가 인도로 망명하면서 현재는 400여 명 정도만 남아있다.

감단사(甘丹寺)

라싸에서 45km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이 사찰은 티벳 불교의 여러 종파 중 황도파(노란 모자를 쓰고 다니는 승려)들의 본거지로 비교적 규모가 크다. 총카파가 철방사와 색탑사를 세우기 이전인 1409년에 창건되었다. 이 곳으로 오르는 길의 하나인 순례자의 지름길은 많은 트레킹 여행자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이 길을 오르면서



바라보는 경관은 푸른 하늘과 대지가 어우러지는 환상적인 파노라마이다.

숙박

라싸반점 : 民族路 1号 Tel.(0891) 22221, 23222, 32221
시짱빈관 : 北京西路 221号 Tel.(0891) 34966, 34554
아려사 : 北京東路 거의 중앙에 위치. Tel.(0891) 23496

음식

티벳 지방은 한랭건조하기 때문에 기후에 적응되어 자라는 라이보리가 주요작물이며, 목축지대에 방목되고 있는 들소 종류의 하나인 야크는 내장에서부터 고기가 지 알뜰히 이용할 수 있는 식량이 되고 있다. 주요음식은 모모(티벳식 만두), 투쿠파(티벳식 우동), 주민들은 인도의 영향을 받아 카레라이스류도 즐겨먹는다.

유재승/ 천지여행사 부사장, 배재대학 교수



천안문 에게이
난문

확대지향형의 중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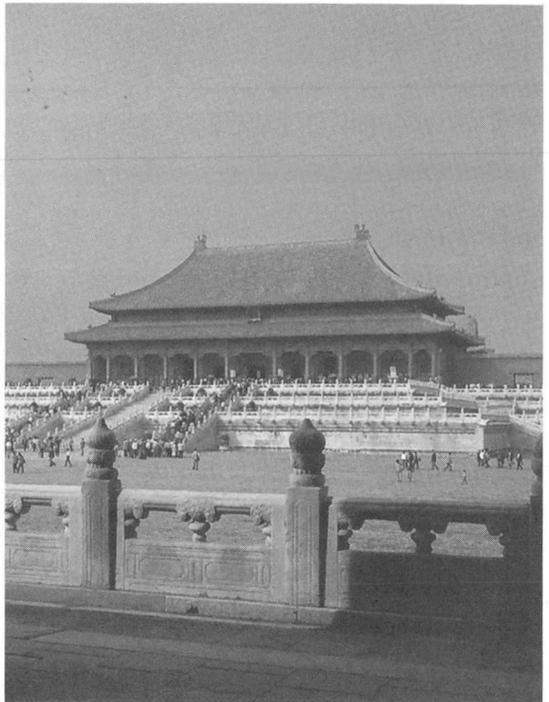
홍순도

중국인들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확대지향의 운명을 타고난 민족이라 해도 좋다. 한반도의 무려 40여 배에 이르는 광대무변한 국토만 봐도 우선 이런 단정을 내리는 것이 그리 무리가 아닐 것 같다. 여기에 56개 민족에 무려 12억 5천여만 명에 이르는 인구와 수천 가지가 넘는 방언까지 더하면 보다 더 그렇다. 아무리 일본인들처럼 '축소지향'으로 나아가려 해도 그러기 어려운 조건을 철저히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은 거의 1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중화문화의 정수에서도 잘 드러난다. 완리창청(萬里長城)을 비롯해 즈진청(紫禁城), 친스황릉(秦始皇陵), 병마용(兵馬俑), 실크로드(絲綢之路) 등 그 어느 것 하나 규모면에서 타의 추종을 조금이라도 허용하는 문화유산은 찾기 어렵다. 하기가 완리창청은 우주공간에서 관찰이 가능한 유일한 지구촌의 건축물이므로 더 이상의 긴 설명은 사족일지 모른다.

문학 작품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 중 도가(道家)사상의 정수로 일컬어지는 '왕즈(莊子)'는 큰 것을 유난히 좋아하는 중국인들의 습성을 그 어느 것보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고전이다. 첫 장에 해당하는 소요유(逍遙遊)에서부터 몸의 길이가 각각 수 천리에 이른다는 대어 곤(鯢)과 전설의 새 봉황을 등장시켜 후학들의 입을



즈진청(紫禁城)

다물지 못하게 하고 있다.

당대(唐代) 최고의 주선(酒仙)으로 유명한 리바이(李白)의 수많은 시에 등장하는 구절들도 이 점에서 둘째 가라면 서럽다. 유명한 '백발삼천장(白髮三千丈)'과

‘상이옹(上李邕)’에 나오는 “바람이 언뜻 부니 대붕(大鵬)이 구만리를 나는구나”라는 등의 표현은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꼽힌다. 심지어 그는 부인에게 바치는 참회시 ‘증내(贈內)’에서 “360일을 매양 진흙탕 속에서 취하니...”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음주 행각을 사실 보다 크게 과장하고 있다.

이 점은 현대에 이르러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수도 베이징(北京)의 왕푸징(王府井)이나 상하이(上海)의 푸둥(浦東) 등에 경제 수준을 훨씬 웃도는 느낌의 마천루들이 보란 듯 솟아오르는 것은 확실히 중국인들의 이런 확대지향의 민족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해도 틀리지 않을 듯 싶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싱가포르나 홍콩 등이 그 어느 서방 선진국 못지 않은 초대형 건축물들을 자랑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1차 회의가 폐막되었다. 대회 중에 중국인들의 눈과 귀는 한결같이 회의장인 인민대회장에 모아지고 있었다. 21세기 경제대국 진입의 전제조건인 경제의 새 틀을 짜기 위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들까지 과감히 줄이는 구조조정 등의 획기적인 개혁안이 대대적으로 논의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구조조정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의외의 것이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그게 다름아닌 한국형 재벌을 본떠 추진하려는 대기업 집단 설립 정책이다. 예컨대 국유기업 등을 과감히 통폐합해 설립할 대기업집단을 향후 경제성장의 주축으로 키워 나가겠다는 의지를 국론으로 집결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이처럼 대기업집단 정책에 집착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우선 재벌의 특징인 ‘공격경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뜻이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최근 세계 500개 기업에 진입할 자국 기업을 키우기 위해 거국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알고 보면 이런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21세기의 잠재적 경제대국이 변변히 내세를 만한 거대기업 하나 없으면 되겠냐는 예의 확대지향에 따른 자존심이라 해야 할 것 같다.

출처/ 베이징저널 제40호
홍순도/ 문화일보 북경 특파원

중국 도시 모두 666개 중·서부 낙후지역으로 도시화 이전

중국에는 현재 666개의 도시가 있으며 이는 80년대에 비해 3배나 증가한 것이라고 중국 언론이 지난주 보도했다. 중국 언론은 리쯔둥(李振東) 중국 건설부 부부장의 말을 인용, 중국의 도시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중·소 도시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화 추세가 중서부 지역으로 이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대도시의 규모와 숫자를 제한하고 중·소도시와 소읍(小邑)의 발전에 주력한다”는 것을 도시화 추진 목표로 삼고 있다. 건설부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666개 도시는 다시 특대도시 및 대도시 75개, 중도시 192개, 소도시 399개 등으로 분류된다.

리쯔둥 부부장은 중국에서 도시화의 진행과 함께 동·서부 지역간의 도시 분포상 불균형이 개선되고 있으며 현재 동·중·서부 지역의 도시 숫자는 각각 전국 총수의 44%·37%·19%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도시는 오는 2000년 800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베이징저널 제40호」 중에서 -





우림(熱帶雨林) 기후에 속하여 자연자원이 풍부하며, 열대우림 자연보호구 안에는 무성하고도 진귀한 식물들이 가득하다.

항저우 린안(臨安)현에 위치한 텐무(天目)는 국가급 삼림과 야생동물 자연보호구역이자, 천연 식물원이다. 그 뿐 아니라 구이저우(貴州) 시의 따팡(大方), 첸시(黔西)일대에는 수백 리의 두견림(杜鵑林)이 펼쳐져 있다.

또한 중국에는 성시마다 그 시(市)를 대표하는 시화(市花)가 있다. 베이징과 텐진 시를 대표하는 것은 월계(月季)와 국화(菊花)이다. 내몽고 자치주의 바오터우(包頭)시는 소려화(小麗花)이며, 랴오닝성 선양(沈陽)시는 유송

(油松), 상하이 시는 백옥란(白玉蘭), 지린(吉林)은 군자란(君子蘭),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는 계화(桂花) 등이다.

이렇게 다양한 자연을 누리며 사는 중국인들에게서는 시인들이 지은 시(詩)를 읊조리는 것 외에도 일상 생활 중 흔히 화차(花茶)를 마시는 것으로도 꽃을 즐기는 낭만적인 생활의 일면을 볼 수 있다. 게다가, 몇몇 중국의 소수민족들은 그들의 생활이 꽃과 얼마나 친숙한지를 느끼게 하는 풍습도 갖고 있다.

중국인의 꽃

이 민 선

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지만, 특히 중국 사람들은 꽃을 매우 사랑하는 민족이다.

중국은 광활한 대지와 함께 다양한 기후에 따라 피어나는 각종 초목들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여러 종류의 꽃과 나무가 있어 '식물왕국(植物王國)' 내지는 '동산의 근원(園林之母)' 등으로 불려지기를 좋아한다.

윈난성 최남단에 위치한 시쌍판나(西雙版納)는 열대

소수민족이 즐기는 꽃 진치-차화제(插花節)

차화제는 다야오(大姚)현 탄산구(曇山區)의 이(彝)족을 비롯하여 바이(白)족, 와(佯)족, 푸랑(布朗)족, 나시(納西)족, 리쑤(栗僂)족, 라후(拉祜)족 등이 공유하는 전통적인 절기이다. 매년 음력 6월 24일부터 시작되어 3일 동안 계속되는 데, 탄화산의 마영화(馬櫻花-자귀나무 꽃)와 산다화(山茶花)가 피면, 이들은 고유 의상을 잘 차려 입고, 가슴에 고운 꽃을 단다. 그리고 집

문 앞에다 속속히 꽃을 꽂아 기쁨을 나타낼 뿐 아니라, 노인들의 머리 위에 꽂아서 건강, 장수를 축원하기도 한다. 청춘남녀가 머리에 꽃을 꽂는 것은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담겨있고, 논밭이나 외양간 축사 혹은 가축의 뿔에 꽃을 꽂는 것은 가축의 번성과 오곡의 풍요를 비는 마음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중국인이 사랑하는 일 가지의 이름 난 꽃

평범한 중국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산다화(山茶花)는 인동(忍冬) 혹은 만타몽수(曼陀夢樹)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특히 윈난성의 산다화는 유명인데, 품종과 자색이 여러 가지다. 꽃이 필 때 마치 웅장한 사자를 연상케하여 “사자머리”라는 이름이 붙은 산다화와 줄기가 튀어나오고 왜소한 모양의 “헌텐가오(恨天高-높은 하늘을 한탄함)”등이 유명하다. 그 외 쿤밍에는 아직도 “이주첸화(一株千花-한 가지에 천 개의 꽃이 달린)” 등의 고산차(高山茶)를 보유하고 있다.

진달래로 잘 알려진 두견화(杜鵑花)는 중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남방에 야생하는 것이 많으며, 품종과 유형도 다양하다. 구이저우(貴州)성에는 고산 진달래의 원시림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키가 크고 일명 부귀(富貴)화라고도 하는 모란(牡丹)은, “낙양 모란, 양주 작약(洛陽牡丹, 揚州芍藥)”이라는 말이 있듯이 허난(河南)성 뤼양(洛陽)에 많아, 뤼양화라 부르기도 한다. 산시(陝西)성 진링 일대에 야생종이 서식하고 있는데, 당대에는 장안, 송대의 뤼양, 명대의 하오저우(亳州) 등 중국에서 모란이 재배된 역사는 매우 오래 되었다.

작약(芍藥)은, 장리(將離), 커리(可離), 메이구화(沒骨花) 등으로 불린다. 진링(秦嶺)과 다베산(大別山)에서 뿐 아니라 베이징의 바이화산(百花山) 등에서도 볼 수 있다. 봄철에 가장 늦게 피는 것으로, 백작약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

수선(水仙)은 야쑤안(雅蒜), 텐충(天葱)이라는 별칭이 있으며, 저장(浙江)과 푸젠(福建) 두 성에서 주로 생산된다. ‘민난(閩南) 제일의 초목’으로 불리는 푸젠 장저우(漳州) 룡하이(龍海)현 이춘(宜春)의 수선은 품격



이 높아 해외에서도 정평이 나 해마다 수출되고 있다.

국화(菊花)는 추국(秋菊) 또는 국화(菊華)로도 부른다. 국화는 다양한 품종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 시인들의 시(詩), 혹은 화가들의 그림 소재로도 널리 애용되고 있다.

달 속에서 지르던 월계수, 계화

신화처럼 떠도는 달 속의 월계수와 토끼에 관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 계화(桂花)는 우리에게 물푸레나무 또는 월계수로 잘 알려져 있다. 중국 서남과 남부 각 성이 원산지인데, 구이린(桂林)에서부터 구이화라고 불려졌다고 한다.

중국 여러 지방과 대만의 거리마다 가로수로 심겨져 있다. 보통 4월에 꽃이 피고 5월에 열매 맺는데, 흰꽃이면 은계(銀桂), 노란꽃이면 금계(金桂), 붉은 꽃이 피면 단계(丹桂)라고 구분한다. 그 밖에 가을이나 봄에 꽃이 피는 것과 사계절 모두 꽃을 피우는 것, 다달이 꽃을 피우는 것 등이 있다. 특히 항저우(杭州)의 서호(西湖)에서 아름다운 경치와 어우러진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관상용 외에도 식용이나 약용으로 쓰인다. 이 꽃이 필 때면 온 시내마다 그 향기가 가득 풍겨나는데, 중국인들은 ‘이 나무는 하늘에서 온 나무요, 이 향기는 천상의 향기’라고 여기며 차와 술을 만들어 마시기도 한다.

원산지가 중국 서남과 대만으로 알려진 매화(梅花)는 빛을 좋아하고 비교적 추위에 잘 견딘다. 남방에서는 2, 3월 언 땅에서 자란 매화가 춘절이나 춘절 이후에 꽃을 피운다. 특히 윈난에 눈이 내려 매화 위에 눈꽃이 덮이면 특유의 멋진 경관을 그려낸다. 그러나 북경에서

는 분재 관상용으로 많이 재배된다.

난화(蘭花)는 남쪽에서 시작해서 장강 이남까지, 서남에서 시작하여 윈난 구이저우 고원 및 쑤짱(西藏)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세한삼우(歲寒三友)로 불리는 소나무, 대나무, 매화와 더불어 중국인들에게 사랑 받고 있다. 이른 봄에 개화하는 춘란(春蘭), 늦은 봄부터 초여름까지 만발하는 혜란(蕙蘭), 여름철에 꽃 피는 건란(建蘭)을 비롯하여 겨울철에 꽃이 피는 흑란(黑蘭), 늦가을에서 이른 봄까지 꽃이 피는 한란(寒蘭) 등이 있다. 저장성 일대의 산지에는 야생란이 많다. 장강 유역의 각성을 비롯한 윈난, 구이저우의 산지에서 주로 볼 수 있다. 잎이 푸르고 흰꽃이 피는 것이 가장 좋다.

허화(荷花)는 연꽃이다. 단지 여름 한철을 만개하면 서도 고대 민간에서는 음력 6월을 허위에(荷月)로 부르게 했으며, 푸롱(芙蓉)이라 하기도 한다. 분홍과 도홍, 순백의 꽃이 있으며, 강남 각지와 호북, 호남에 많은데, 산시(陝西)성 화청지(華淸池) 허화각(荷花閣)의 연꽃과 항저우의 서호(西湖)에 있는 연꽃이 유명하다.

중국인들의 꽃과 생활

이 외에도 명화로 손꼽히는 꽃은 아니더라도 중국인들

의 삶에 깊이와 멋을 더해 주는 꽃들이 있다. 봄소식을 전해주는 황금빛의 영춘화(迎春花), '꽃 중의 신선'으로 불리는海棠花(海棠), 봄의 상징이자 절세미인의 얼굴을 상징하는 복숭아꽃(桃花), 살구꽃(杏花), 순백의 꽃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오얏꽃(李花) 등으로 이들은 중국 역대 문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중국인들은 모리화(茉莉花)의 향기를 꽃과 차로 주고 받으며, 매화의 정분을 시로 읊기도 하였다. 난화(蘭花)의 그윽한 품위를 즐길 뿐 아니라 장미의 달콤한 향기까지, 고상한 사람들이나 보통사람들 모두가 자연과 교유하며, 여유있는 마음과 사색하는 생활의 일면을 갖고 있다.

참고자료

- 「中國少數民族地區畫集叢刊」, 遼寧編輯委員會 編著, 民族出版社
- 「花文化」, 郭 榕 編著, 中國經濟出版社
- 「光華」, 光華書報雜誌社, 1997. 4月號.
- 「光華」, 光華書報雜誌社, 1997. 8月號.
- 「光華」, 光華書報雜誌社, 1997. 12月號.

편집자주: 이 글에 나오는 꽃이름은 편의상 우리에게 익숙한 한자음으로 달았으며, 주로 중국에서 불리는 것은 중국어 발음으로 달았습니다.

이민선/ 본지 편집기자



신간도서

한권으로 이해하는 중국

강준영 · 전병근 · 지세화 지음,
372쪽 · 9,500원 · 지역사

이 책은 중국학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체계적인 논리속에서 다룬 정통 중국학 입문서이다. 이 책은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살아 숨쉬는 중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를 한 지도 5년이 지났다. 그러나 5년이란 짧은 세월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는 여러 방면에 걸쳐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더욱이 최근 홍콩의 중국 귀속은 초강대국인 중국의 출현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이제 중국은 우리에게 가까운 나라에서, 우리의 국익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고, 또 중국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많지 않다.

중국은 이제 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적 강대국으로서의 부상을 꿈꾸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과거의 피상적이고 아전인수격인 대중국관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통해 여러 강대국들, 특히 중국과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21세기의 한국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이 책은 씌여졌다.



진시황릉

위에난 지음 · 유소영 옮김,
282쪽 · 10,000원 · 일빛

1974년 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던 시안(西安) 근처 여산의 서양촌에서 몇몇 사람들이 물을 얻고자 삼을 들었다. 그러나 물 대신 나온 것은 흙으로 구워 만든 8천여 점의 병마용(兵馬俑)이었다.



병사와 말의 도기 인형, 수천 점의 전차와 각종 청동검들이었다. 이로써 2천여 년 동안 지하에 갇혀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던 진시황의 군단이 비로소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작자인 위에난(岳南)은 세계 여덟 번째 불가사의로 불리는 진시황릉을, 고고학자와 소설가의 자세로 한편에서는 유물을 분석하여 역사적 서술을 하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사와 야사, 서양에서 유물을 보러온 유명인사들의 이야기, 유물에 대한 풀지 못한 의문들,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는 유물에 대한 안타까움, 서양에 의해 상처 입은 중국의 역사 등을 그려내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동안 '법가'에 의한 공포정치로 폭군의 이미지를 갖고 있던 진시황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쩌민과 신중국 건설의 청사진

류지 · 쉬밍 외 저, 도서출판 동방미디어, 518쪽 · 12,000원

을 봄, 세기의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이 사망하고 15차 당대회를 앞둔 시점에 금일 중국(今日中國) 출판사에서 결정적시각-당대 중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27가지의 문제(關鍵時刻)-當代中國極待解決의 27個問題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본 서는, 바로 이 책을 번역한 것이다. 원서가 다루고 있는 27가지 문제 중에서 한국의 국내 사정에 비추어 주요 관심대상을 별도로 선별하여, 그 중 13가지는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문제들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관심이 집약된 부분이다.

지금 중국은 바야흐로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위대한 제2의 혁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중국 전문연구자들뿐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쉽게 중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중국의 현대화 사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지평

보도물에 나타난 최근 중국 동향

중고

4년간 성직자 수 십 명 투옥

중국 당국은 지난 4년간 가톨릭교계에 대한 탄압의도가 내재된 것으로 보이는 각종 체포활동을 통해 수십명의 사제와 주교들을 억류해 왔다고 홍콩의 한 인권 운동가가 주장했다. 미기업인 존 캠퍼는 홍콩라디오와의 회견을 통해 “우리가 아는 한 지난 93년 말에는 중국 내에 투옥된 가톨릭 사제나 주교는 한 명도 없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사정이 달라져 여러 형태의 구금조치를 통해 최소한 수십 명의 사제와 주교들이 억류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 98. 2. 4)

중국기독교협회 대표 6명, 새로 전국정협 위원으로 피선되다

덩 후춘(鄧福村), 쑤더츠(蘇德慈), 쑤시페이(孫錫培), 루밍헨(陸明遠), 차이웨이성(蔡約生), 시옹보시앙(熊伯嚮)이 각각 전국정치협상회의 위원으로 피선되었다. 중국기독교계에는 이미 13명의 정협위원이 있다. (「중국교회」 제16호)

정치 · 군사 · 외교

일·중, 국방교류 합의

중국의 국방 수뇌로서는 14년만에 처음으로 일본을 공식 방문중인 지호전(遲浩田) 국방부장은 규마후미오(久間章生) 일본 방위청장관과 회담을 갖고 규마장관의 올 상반기내 중국 방문과 군최고 수뇌의 상호방문 조기실현 등 양국 국방교류를 본격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세계 98. 2. 4)

대북 국경에 철조망 탈북루트 사실상 봉쇄

중국은 지린(吉林)성과 랴오닝(遼寧)성의 대북한 국경에 철조망, 순찰로 등 대대적인 국경시설 건설공사를 진행중이라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북한과의 국경지대에 대한 ‘변방 기초시설’ 건설은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의 탈출로 이용해온 두만강과 압록강의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 관리가 더욱 강화되는 것이어서 탈출루트가 사실상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98. 2. 6)

중군군 50만 명 감군 착수

중국은 지난해 9월 개최된 공산당 제15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따라 인민해방군 병력 50만 명의 감군에 착수했다고 홍콩의 《명보》가 보도했다. 앞으로 3년간에 걸쳐 감군작업이 완료되면 해방군 병력은 2백20만~2백50만 명 수

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세계 98. 2. 8)

대만, 정당대표단 첫 중국 방문

대만 야당인 신당(新黨) 대표단 25명이 9일부터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신당 지도부가 밝혔다. 본토와의 통일을 지지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신당의 중국 방문은 중국의 대만 담당기구인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峽兩岸關係協會)의 초청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대만의 정당대표단이 본토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98. 2. 9)

대만인 지난 10년간 1,143만 명 중국 방문

지난 88년 대만인의 중국 본토방문이 허용된 이래 지난해 10월까지 1143만명의 대만인이 중국을 다녀왔다고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가 밝혔다. 한편 중국인들은 지난해 병에 걸린 친척방문과 장례식 참석 등의 이유로 6만7,731명이 대만을 방문했다. (한겨레 98. 2. 10)

반체제 인사 왕빙창(王炳章) 미국으로 추방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하던 귀국, 당국에 구금됐던 중국의 반체제 인사 왕빙창이 미국으로 다시 추방됐다. 중국 외교부는 “왕이 가명을 사용, 입국비자를 받아 불법적으로 중국에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문화 98. 2. 10)

바티칸, 중국에 특사파견 제의

바티칸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중국에 교황특사를 파견할 것을 제의했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했다. 바티칸은 지난 58년 당시 중국 공산정권이 임명한 주교 2명을 파문해 양측간의 외교관계가 단절됐고 바티칸은 중국과 단교 후 대만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문화 98. 2. 14)

유럽연합, 중국에 연례 정상회담 제의
유럽연합(EU)은 중국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EU와 중국이 매년 정상회담

을 갖자고 제의했다. 리인 브리튼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집행위가 새로 내놓을 대중국정책방침을 통해 ▶군축 ▶국제범죄 공동 대처 ▶돈세탁 및 마약거래 문제 등에 관한 협의 ▶관세 및 해운 분야 쌍무협상 ▶경제계 간의 긴밀한 대화통로 개설을 제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98. 2. 15)

천안문 사태 유족들 리펑 총리 해임 요구
지난 89년 천안문 민주화 시위의 희생자가족들이 중국 정부 측에 리펑(李鵬) 총리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천안문 사태 희생자 유족들은 청원서에서 사망자 및 부상자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리펑 총리를 전인대에서 축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문화 98. 2. 16)

인도네시아 화교겨냥, 중국 자국민 안전 우려
인도네시아에서 폭력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홍콩 주민들을 포함, 인도네시아에 있는 자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문화 98. 2. 17)

중·대만 WTO 가입작업 본격 시동
중국이 품목별 관세율 인하 계획서를 다음달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하고, 대만도 통신·농업 분야의 장벽 완화를 위해 미국과 고위급 협상을 갖기로 하는 등 중국과 대만이 WTO 가입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세계 98. 2. 18)

러·중 정상회담 개최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과 장쩌민 중국 주석간 최초의 비공식 정상회담이 올 여름이나 초가을께 열릴 것이라고 세르게이 야스트르젠프스키 크렘린궁 대변인이 밝혔다.
(세계 98. 2. 19)

중국 해방군 '미군 편제' 개편
중국은 군대의 효율성과 현대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7대 군구와 총 참모부·총정치부·총 후근부 등 3총부으로 이뤄져

있는 인민해방군의 기존 지휘편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미국식 군대편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현재의 인민해방군 편제는 조만간 육군부·공군부·해군부·특수부대부 등의 수직 편제로 바뀌며 각 부대별 참모장 회의인 '참모장연석회의'가 국방부와 중앙군사위 산하의 최고의결기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 98. 2. 20)

대만 총통 아프리카 순방 중국 압력으로 무산
중국의 외교적 압력으로 리덩후이(李登輝) 대만 총통의 아프리카 순방 계획이 무산되고 렌잔(連戰) 부총통의 레바논 방문도 취소될 것이라고 대만의 라디오방송인 중국 방송공사가 보도했다.
(중앙 98. 2. 26)

육·해·공 지휘 일원화 등 개혁 착수
중국 지도부는 현재의 대군구제를 개선, 육해공군의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대규모 군 개혁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조선 98. 3. 2)

중국 미래, 상하이(上海) 출신이 이끈다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계기로 상하이 인맥이 당정(黨政)을 완전 장악, 21세기 중국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상하이 출신이거나 이곳에서 정치적으로 성장해온 상하이 인맥의 정점은 장쩌민 당총서기겸 국가주석이다. 이외에도 총리내정자인 주룽지(朱鎔基) 부총리가 있다.
(동아 98. 3. 3)

중·러 연결 두만강철도 완공단계
중국 동북부 지린성의 훈춘과 러시아의 마할리노를 연결하는 두만강 철도건설이 완공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의 언론들은 빠르면 오는 7월 1일 훈춘-마할리노 간 국제 철도운행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98. 3. 5)

상반기에 대 대만 공작회의 개최
중국은 5일 개막된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회의를 통해 장쩌민 국가주석

겸 당총서기-리펑 전인대상무위원장-주룽지 총리의 3인 지배체제가 확립됨에 따라 올 상반기중에 대만과의 통일 문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홍콩의 《명보》가 보도했다. 지도부는 앞으로 5년안에 ▶양안간 정상회담 개최, 양안간 적대관계 종식 ▶3통(통상, 통우, 통항) 등을 실현시키겠다는 목표아래 대만 정책수립에 본격 나섰다.
(한국 98. 3. 5)

21세기 초강대국 건설 선언
리펑 총리는 중국이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21세기에 초강대국으로 발전할 강력한 의지를 선언할 것이라고 홍콩 《스탠더드》지가 보도했다. 리 총리는 전인대 개막식에서 중국은 21세기에 ▶경제적 안정 ▶성공적인 교육 ▶강력한 군사력 등을 갖춘 초강대국이 될 것임을 선언했다.
(조선 98. 3. 3)

국방비 크게 늘리기로
중국 정부는 올해 세출예산 증가율을 7.2%(작년 대비)로 억제하는 긴축예산을 편성키로 했으나 국방비는 전체예산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12.8%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조선 98. 3. 5)

행정부 개혁안 발표
중국은 지나치게 방대하고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현재의 31개 부, 9개 위원회를 25개 부, 4개 위원회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무원 기구 개혁방안' 내용을 발표했다. 주룽지 차기 총리의 진두 지휘하에 마련된 이 행정부 개혁 방안은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에 리펑 현 총리의 이름으로 제출돼 심의될 예정이다.
(조선 98. 3. 6)

중국 개혁파, 보통선거 도입 주장
중국 공산당내의 개혁파들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보통선거제도를 도입하고 국무원 장관급 요직들을 복수추천해 선거에 의해 선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했다.
(조선 98. 3. 11)

중국, 유엔 인권협약 서명 계획

중국은 유엔 인권협약에 서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첸치첸 중국 외교부장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10월 이미 경제, 사회적 권리에 대한 유엔협약에 서명했으며 인권과 정치적 권리에 대한 유엔협약에도 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 98. 3. 13)

홍콩 임시입법회의 내달 8일 해체

홍콩 임시입법회의가 오는 5월24일 추권 중국 반환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총선거를 앞두고 다음달 8일 해체될 것이라고 홍콩 《스탠더드》지가 보도했다. (한국 98. 3. 14)

중국 실무관료 대거 증용

중국 산업전반을 이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주임(부총리급)에 관료가 아닌 일반 기업인 출신 성화런 중국석유화학총공사 사장이 내정되는 등 실무관료들이 대거 기용될 것이라고 홍콩 신문들이 보도했다. (조선 98. 3. 15)

장쩌민, 국가주석-군사위주석 당선

중국의 국가주석 및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장쩌민 현주석이 당선돼 공산당 총서기를 포함한 3개의 최고직위를 다시 장악했다.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회의는 16일 상오 제4차 전체 회의를 열고 리펑 총리를 전인대 상무위원장으로 선출한 뒤 장쩌민 현주석을 국가주석으로 재선출하고 부주석에는 후진타오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뽑았다. (조선 98. 3. 16)

제9기 전인대 1차회의 폐막

중국의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회의가 보름 간의 회기동안 지도부 인사개편, 관료조직 개혁안 마련 등 주요 안건의 처리를 마무리하고 19일 오전 폐막했다. 장쩌민 주석은 폐막연설에서 "우리의 개발목표는 현대화 계획을 완수해 건국 1백주년을 축하하는 2049년에는 중국을 번영되고 강력하며 민주적이고, 문화적으로도 앞선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국 98. 3. 19)

신세대 반체제활동가 탄압 강화

중국은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앞서, 반체제운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 최근 수일 사이에 6명을 구속했으며 1명은 실종상태라고 반체제운동단체 및 인권단체들이 밝혔다. 이번 탄압조치는 최근 수개월간 광범한 민주화를 촉구하는 신세대 반체제운동가들이 속속 등장, 청원서를 통해 부패공무원 숙청, 독립노조 결성, 경영부실 국유기업 감시 등을 위해 민주선거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취해지고 있다. (한국 98. 3. 20)

중국 정치민주화 요구 거세

중국에서 최근 정치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서서히 표출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9일 폐막된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회의에서, '고무도장'으로 치부돼온 전인대 대의원들이 작은 반란을 꾀한데 이어 중국의 반체제 인사인 왕빙장은 22일 타이베이(臺北)에서 회견을 갖고 중국 본토내에 「민주정의당」 이 비밀리에 창당됐음을 공식 선언했다. (세계 98. 3. 24)

미·중, 핵기술 협정 시작

미국과 중국 양국이 핵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의 이행준비에 들어갔다. 《차이나 데일리》는 미국의 핵발전소 건설업체들이 오는 6월 클린턴대통령의 방중(訪中) 기간에 맞춰 중국의 핵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따내길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 98. 3. 25)

경제

첨단산업 육성 본격화

중국은 21세기에 선진국형 경제로 진입하기 위해 경제특구인 선전(深圳)과 베이징을 시작으로 첨단산업 육성에 본격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세계 98. 2. 1)

중·대만, 무역 증가세

대만과 중국 간의 간접무역은 97년 11개월 동안 2백20억 달러에 이르는 기록을

세웠으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7% 증가한 것이라고 대만 대외무역국이 발표했다. (조선 98. 2. 3)

韓·中 로펌간 합작결연 최초 성립

한국과 중국의 변호사 사무실간 합작이 최초로 이뤄졌다. 국내 합동법률사무소인 <비전21>은 공산권 국가와는 처음으로 중국 베이징 웨이헝 변호사사무소와 합작형태의 업무 지원 협정을 지난해 말 체결했다고 밝혔다. (문화 98. 2. 4)

철도부 대규모 감원계획

중국 국무원 철도부는 오는 2천 년까지 전체 종업원 1백10만 명 가운데 30만 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경향 98. 2. 4)

금리자유화 연내 단행

중국이 올해중 금리자유화를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 처음 실시되는 금리자유화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금리변동폭을 설정하면 이 범위 내에서 개별은행들이 자유로이 금리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상하이 《문화보》가 전했다. (경향 98. 2. 5)

8개 부처 공기업 전환, 통폐합부처 공무원 33%감원

중국은 중앙부처 중 8개를 공기업으로 바꾸어 폐지하는 등 정부조직(국무원)을 대대적으로 축소하고 이 과정에서 실질하게 될 50만여 명의 간부급 공무원들을 1, 2직급씩 강등시키거나 각급 당(黨)학교에 입교시킬 예정이라고 홍콩의 언론들이 보도했다. 부처 통폐합 과정에서 간부급 50만 명을 포함해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약 3분의 1이 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 98. 2.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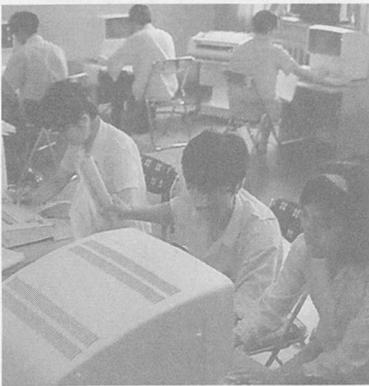
실업증가로 부작용 속출

중국 사회가 국유기업 개혁의 여파인 실업 증대에 따른 갖가지 부작용 속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가정의 파괴이다. 그리고 일거리

찾아 대책 없이 대도시로 향하는 실업자들의 급증 역시 심각한 부작용이다. 전국 총공회에 따르면 베이징, 상하이, 톈진(天津), 선전 등 도시로 흘러들어간 전국 실업자들은 지난 한해에만 약3백여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문화 98. 2. 12)

외환거래 감독 강화

중국은 외환거래를 취급하고 있는 국영 금융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시켰다고 주소천 국가외환관리국 국장이 밝혔다. 그는 이미 외환거래에 관한 47개 법안을 개정하고 8개의 새로운 법률을 만들었으며 앞으로도 경상수지계정과 자본계정에 대한 관리, 국제수익과 지출에 대한 통계 및 분석, 그리고 외환보유고에 대한 관리체계 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아 98. 2. 17)



국유회사 종업원 주식구매 금지

국유기업들이 구조조정 및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확보를 위해 자사주식을 종업원들에게 매각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을 중국 노동부가 금지시켰다고 중국증권보가 보도했다. (중앙 98. 2. 20)

향후 5년간 중국판 뉴딜정책 추구

중국의 차기 총리로 내정된 주룽지 상무부총리는 침체조짐을 보이고 있는 중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미대통령식의 뉴딜정책 실시를 구상하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했다. (동아 98. 2. 20)

국유은행 개혁 시급

만약 중국의 국유은행 중 하나가 파산할 경우 예금인출 사태로 금융공황 상태가 올 수도 있으며, 이러한 잠재적인 금융 위기에 대비하고 예금자를 보호하며 사회적 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행예금 보험회사와 같은 것을 설립해야 한다고 《차이나 데일리》가 보도했다. 그리고 국가 특수은행들은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선 98. 2. 22)

자동차메이커 2개 사로 통폐합 검토

중국은 자동차 산업 진흥을 위해 기존 13개 대메이커들을 2개 사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차이나 데일리》가 보도했다. 중국의 자동차시장은 지난해 거래 기준으로 50억 원(6억 달러)에 달했다. 전체 자동차 내수는 올해 승용차 55만 대를 포함해 모두 1백66만 대에 달할 전망이다. (경향 98. 2. 23)

강력한 인민폐 유지

중국은 인민폐의 강세 유지 및 보호를 중장기적인 통화전략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는 홍콩과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 및 금융안정에 유리하다고 《금융시보》가 보도했다. (한국 98. 2. 28)

중국 수출입은행 지원 60% 지원

중국 인민은행은 올해 주요 수출산업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지난해보다 60% 증액, 2백43억 원(29억 달러)으로 책정했다고 《해방일보》가 보도했다. (조선 98. 3. 11)

인민은행 5만 명 감원계획

중국 인민은행은 구조조정 노력의 일환으로 5만 명을 감원할 예정이라고 《명보》가 보도했다. (조선 98. 3. 25)

사회

이혼사유 제한법 논란

96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전인대의 혼인법 개정작업이 마무리 돼가는 가운데, 급증하는 이혼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단순한 '감정파탄'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한 중국에서 베이징의 경우 이혼율은 1981년 2.5%, 91년 16.6%에서 96년에는 25%로 치솟았다. 개정혼인법에서는 감정파탄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간통죄의 신설 여부도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동아 98. 2. 1)

대만 작년 낙태건수, 출산보다 많아

작년 한해 동안 대만에서는 낙태건수가 32만여 건으로 신생아 출산보다 많았으며, 낙태 이유는 신혼부부들의 피임 실패, 혼전 임신 등이 대부분으로 산모의 건강과 비정상 태아에 따른 임신중절은 전체의 1/10에 불과했다. (동아 98. 2. 8)

영화배우-탤런트 「자본주의 최대수혜자」

개혁개방 18년 만에 중국 TV탤런트와 영화배우의 출연료가 무려 8백 배나 뛰었다. 개혁개방이 시작된 이듬해인 79년 1회에 평균 60원(한화 약 1만2천 원)이던 TV탤런트의 출연료는 10년 후인 89년 3백 원으로 5배가 됐다. 그러나 현재는 3만~5만 원으로 최고 8백여 배나 오른 것이다. (동아 98. 2. 9)

실업 모르는 중국의 신흥부유층-전문 능력 갖춰 고소득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과 중국내 저임미숙련노동자들의 대량실업사태로 사회불안이 커지고 있는 중국에서 여전히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며 부를 늘여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른바 중국의 신흥부유층인 이들은 대부분 외국계기업이나 서비스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교육수준이 높고 전문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직장에서 쉽게 해고되지 않는다. 이들로 인해 평등을 중시해온 중국 사회의 빈부격차와 도농(都農)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동아 98. 2. 10)



공산당 원로 추이유에리 숨져

중국 공산혁명 당시 지도자로 활동했으며 공산당 중앙위원과 위생부 부장을 역임한 추이유에리(崔月犁)가 지난달 22일 베이징에서 사망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경향 98. 2. 11)

중국 세계 최대출판시장

중국에서 지난해 공식적으로 출판된 서적은 71억 권(12만 종)으로 96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며, 출판 수익은 무려 30배가 늘어나 3백60억 원(한화 7조2천억 원)에 달했다고 중국 신문출판사(新聞出版署)가 발표했다.
(세계 98. 2. 12)

대만여객기 추락 전원 사망

대만 중화항공공사(CAL) 소속 A300 여객기가 타이베이(臺北)에서 약 46km 떨어진 장제스(蔣介石)국제공항 부근에 추락했다. 사고기에는 승객 182명과 승무원 14명 등 모두 196명이 타고 있었으나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 98. 2. 17)

외국 유학생 입학 심사 대학에 자율화

중국은 대학 개혁 방안의 하나로 오는 9월 학기부터 외국 유학생들의 입학 자격 심사를 중앙 정부에서 하지않고 각 대학에 일임키로 했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했다.

(중앙 98. 2. 17)

국토 30%가 산성비 지역

중국의 산성비 및 아황산가스 오염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산성비 지역이 이미 서남지역으로부터 양쯔강 이남, 청장고원 이동 및 쓰촨분지 등 광대한 지역으로 확대돼 국토면적의 30%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 98. 2. 19)

차량 배기가스 엄격규제

중국 베이징 등 대도시의 극심한 대기 오염 주범으로 차량 배기가스를 꼽고 환경정화를 위해 보다 엄격히 배출가스를 규제할 계획이라고 《차이나 데일리》가 보도했다.
(동아 98. 2. 21)

교통사고도 '대국'

중국을 지난해 모두 30만4천2백17건의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 73,861명이 사망하고 191,028명이 부상해 세계에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고 중국 《청년보》가 보도했다.
(문화 98. 2. 21)

홍콩 자유여행 확대

그동안 홍콩 여행의 제한을 받아온 중국 주민들이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홍콩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중국 신문들이 보도했다.
(문화 98. 2. 26)

부패추방에 총력

중국 최고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웨이젠싱 서기는 올해 증가일로에 있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척결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웨이 서기는 특히 경제 개발과정에서 뇌물수수가 미치는 해악 제거에 집중적으로 나설 것이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무원조직 전체를 살필 수 있는 감독기구도 설립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98. 2. 28)

중국 노조 연 150만 노동자 재취업 교육

중국의 전국총공회는 국유기업 개혁 등으로 인한 대규모 정리해고가 사회문제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1백50만 명의 실직 노동자에 대해 재취업 교육을 실시하고 1백만의 노동자를 재취업 시키기로 결의했다고 홍콩의 《성도일보》가 보도했다.
(한국 98. 3. 1)

이동전화 가입자 2002년에 5천만 명

지난해말 1천1백80만 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 중국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향후 5년간 폭발적으로 성장, 오는 2002년에는 5천만 명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 98. 3. 1)

베이징, 첫 대기오염지수 발표

베이징은 지난해 28일 처음으로 대기오염지수를 발표하고 대기 오염이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조선 98. 3. 2)

광둥(廣東)성 개혁

중국 지도부는 광둥성 당서기에 처음으로 지역출신이 아닌 중앙 파견관리를 임명함으로써 중국에서 지역이기주의의 대명사격인 광둥성 개혁에 착수했다고 홍콩 신문들이 보도했다.
(한겨레 98. 3. 3)

세계 최대 콘돔 메이커, 중국 진출

세계 최대의 콘돔 메이커인 런던 인터내셔널 그룹(LIG)이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중국에 합작법인을 설립, 듀렉스(Durex)란 상표로 올연말부터 콘돔을 본격 생산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98. 3. 3)

〈뉴스위크〉 중국어판 첫선

뉴스위크는 미국 시사 잡지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어판을 발행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뉴스위크 중국어판은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및 대만에서 동시에 판매된다.

(조선 98. 3. 10)

중국 노동자 실업상의, 사회불안 고조

정부의 과감한 구조개편 계획으로 실업 위기에 직면한 중국노동자들이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고 있는 인민대회당 밖에서 보상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이는 등 사회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은 천안문광장 일대의 모든 도로를 철통같이 경비, 접근하는 사람들을 검색했다.

(한국 98. 3. 12)

삼협댐 공사 주민이주, 정착계획 실패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삼협댐 프로젝트로 실형민이 될 1백20만 명의 주민을 재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은 주민의 저항 확산, 관리들의 사기행각과 부패로 실패하고 있다고 한 보고서가 밝혔다.

(한국 98. 3. 13)

컴퓨터시장 급성장

중국의 컴퓨터시장이 내년에는 연간 2백4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된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1백56억 달러 규모였던 중국 컴퓨터시장은 올해 1백98억 달러로 커지는데 이어 99년에는 2백40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동아 98. 3. 15)

도시거주자 60% 시장개방에 긍정적

중국 도시 거주자들 가운데 약 60%가 시장 개방 확대에 반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10대 도시에 거주하는 5천13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어

론조사 결과, '더 많은 외제 상품의 수입이 허용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적극 지지한다'는 응답이 32.3%, '그래도 괜찮다'가 28.3%로 각각 나타나 대도시 거주자들이 대체적으로 수입 개방에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98. 3. 16)

올해 전국에 콘돔체인점 개설

인구증가억제를 위해 적극적인 가족계획사업을 펼치고 있는 중국 당국은 올해 전국적으로 콘돔 및 기타 피임기구를 파는 체인점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차이나 데일리》가 보도했다. 콘돔체인점에서는 중국 국내에서 생산되는 콘돔뿐 아니라 수입 피임기구도 판매하고 성문체에 관한 상담소 역할을 하는 등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 98. 3. 16)

중국 인구 2050년까지 계속 증가

세계 최대 규모인 중국의 인구는 2050년 무렵 16억에 달할 때까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중국 관영 언론매체들이 보도했다. 중국은 오는 2000년까지 매년 2천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 98. 3. 17)

중국 계층간 소득격차 더 벌어져

지난해 중국 도시주민들의 연간 평균소득은 전년보다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으며 계층간 및 지역간 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됐다고 중국 《신석보》가 보도했다.

(한국 98. 3. 20)

대규모 환경보호 사업 계획

중국은 60억 원(미화 7억5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 황하와 양쯔강 수원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5개 소수민족 자치구와 칭하이(靑海)성 34개 군을 포함, 62만6천km²에 이르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식목, 토양 부식 방지, 사막화 방지 등에 초점을 두게 된다.

(조선 98. 3. 26)

한·중 관계

중국인 제주관광 4월부터 비자 면제

4월부터 제주도 관광을 위해 입국하는 중국인에 대해 비자가 면제된다. 이와 동시에 제주~베이징, 제주~상하이 항공노선도 개설운항된다. 다만 불법입국이나 밀항을 막기 위해 양국정부가 인정하는 지정여행사를 통해 입국하는 단체 관광객에 한해 제주공항에서 15일짜리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서울 98. 2. 18)

엔벤에 한국학교 내달 개교

교육부는 현지 체류민 및 교포 자녀들을 위해 중국 엔벤에 초등 6년과정의 한국학교 설립을 인가하고 학력인정 학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3월1일자로 개교하는 엔벤 한국학교는 교사 15명(과건 1, 현직 14명)에 취학 학생수는 1백여 명이다.

(국민 98. 2. 20)

한국에 구상무역 제의, 물물교환 협상

중국은 한국의 외환부족 사태로 한-중간 무역량이 감소할 것에 대비, 중국의 농산물과 한국의 공산품을 서로 맞바꾸는 대규모 구상무역을 공식 제의했다.

(조선 98. 2. 25)

중국 동방항공, 제주-상하이 취항 추진

중국 동방항공이 연내 제주-상하이 노선에 취항할 전망이다. 동방항공 서울지사 에 따르면 지난해 한중회담에서 개설키로한 상하이-제주 노선의 중국측 항공사로 지정된 동방항공이 연내 항공기를 취항키로 하고 제주지사 개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국 98. 3. 3)

“남북한과 협력촉진-한반도안정 노력”

리펑 총리는 제9기 전인대 1차 회의에서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중국은 중국-북한간의 친선관계를 수호하고 중한간의 호혜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 98. 3. 5)

중국어문선교회 편집부

신 단 고 신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중국 단기선교

한국오픈도어선교회에서는 고난받는 성도들과 핍박받는 교회를 방문하여, 이들을 위로하고 성경을 전달할 뿐 아니라 성도와 선교사들과 함께 교제하며, 서로 이해하고 선교사역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는다.

성경전달 사역

- 기간 I : 1998년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 경비: 65만 원
- 기간 II: 1998년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 경비 II: 95만 원

단기선교 사역

- 기간: 1주에서 3개월까지 원하는 기간에 중국 체류 가능 (수시 접수)
- 자격: 영어회화 가능자
- 경비: 1주당 300\$(항공료 별도)
- 자세한 문의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로
- TEL. 02) 403-6797

실크로드 임팩트 오리엔테이션

인터콕은 이슬람권과 불교권 등과 같이 영적 전쟁이 치열한 미전도지역이나 국가 종족집단을 향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효율적이고, 다양한 사역을 통한 역동적인 선교를 담당하고 있다. 10/40 창, 중국 소수민족 등 창의적 접근지역 미전도종족 정탐 및 선교 베이스 구축을 목적으로 사역한다.

- 훈련기간: 1998년 6월부터 8월까지
- 마감: 1998년 5월 말
- 자세한 문의는 인터콕 본부 실크로드 팀으로
- TEL. 02) 796-3541

'98여름 중국, 몽골단기팀 비전트립

갈릴리세계선교회에서는 '북방을 향하여 복음의 기를 들자(사 62:10)'는 주제를 갖고, 중국 여러 지역과 몽골로 비전트립을 떠난다. 자신의 달란트(전도, 이미용, 봉사, 통역, 정탐 등)를 주님께 전적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분이나 북방선교 비전을 구체화하기를 원하는 분은 신청하기 바란다.

- ▲북방 북부지역: 1998년 8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 ▲북방 남부 지역: 1998년 8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 ▲몽골 지역: 1998년 8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
- ▲중부 지역: 1998년 8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
- 신청마감: 6월 5일
- 자세한 문의는 갈릴리세계선교회
- 중국선교부 담당 유갈렐 간사에게로
- TEL. 02) 420-1450, 424-1144 FAX. 02) 415-5466

동아시아선교회 제1기 중국선교학교 모집

동아시아선교회(EAM) 선교훈련원에서는 중국선교학교를 개강한다. 중국 선교에 대해 막연하게 고민하던 것들을 함께 나누며, 선교사들의 현지사역 경험을 통해 도전 받고, 분명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대상: 중국선교 관심자 및 헌신자
- 접수기간: 98년 4월 11일부터 5월 11일까지
- 개강 일시: 98년 5월 11일 오후 7시(예정)
- 장소: 동아시아선교회 사무실(봉천역 4번 출구)
- 자세한 문의는 동아시아선교회 선교훈련원으로
- TEL. 02) 878-3750

'98 여름 비전 트립

FIM 국제선교회에서는 타문화권에 대한 연구와 이슬람국가들을 향한 복음전도의 책임을 갖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관심자들과 모슬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비전 트립을 갖는다.

- 일시: 1998년 8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 지역: 이스탄불→불가리아, 앙카라→터어키, 모로코→영국, 이집트→이스라엘→영국 등
- 접수마감: 7월 15일까지
- 참가비: 185만 원
- 자세한 문의는 FIM국제선교회로
- TEL. 02) 847-5989, 835-5256 FAX. 02) 841-6783

大家的行李都到齊了嗎? / Dàjiā de xínglǐ dōu dàoqí le ma?
 (따이야 더 싱리 도우 따오 치 러 마?) 여러분들의 짐은 모두 도착했습니까?



선교복덩방

새 일꾼을 찾습니다

중국어문선교회 연구, 출판부 간사를 찾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뜨거운 열정을 불태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연구에 소명이 있는 분은 연구부로, 문서사역에 소명이 있는 분은 출판부로 지금 바로 연락해 주십시오

문의/ Tel. 533-5497 석은혜 간사

중국어문선교회 인천지부 간사를 찾습니다

선교의 소명이 있는 분으로 중국어를 구사하면 더욱 좋습니다.

사역내용: 인천항 중국인 선원 전도사역, 중국어 성경반 협력·지원, 대내외 홍보, 재정 및 사무행정 등

문의: 중국어문선교회 인천지부 임화평 간사

☎ 032)872-0742 호출: 015-8483-6807

유치원 교사를 찾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아이들을 가르칠 유치원 교사를 찾습니다.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을 환영하며, 침식은 제공됩니다.

☎ 02)533-5497 석은혜 간사

단기선교사를 찾습니다

사역기간: 1년 이상(본인이 원하는 기간 동안)

사역지: 동북 아시아

사역내용: 피아노 교사, 원예 전문가,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경력있는 비전공자도 가능)

문의: 두란노 해외선교회

☎ 02)793-7769(직통),

769-1300(교환202) 팩스: 749-5498

국어 선생님과 제빵 기술자를 찾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한글을 가르치실 선생님을 찾습니다. 국문과 출신으로 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제빵 기술이 있는 주 안에서의 신실한 기술동역자도 찾습니다.

☎ 02)533-5497 석은혜 간사

대전에 위치한 국제과학기술자선교회(SEM International)에서는 9월의 과학기술자 및 유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칠 교사를 모집하고 있다. 외국인 선교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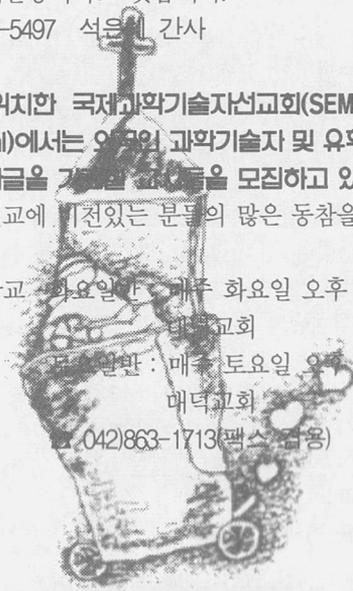
♥ 한글학교 : 화요일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 대덕교회

▶ 동서발전 :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 대덕교회

☎ 042)863-1713(팩스 전용)



還差一個箱子。/ Hái chà yige xiāngzi.
 (하이 차 이거 삼즈) 상자 하나가 빠졌습니다.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 강화의 몇 가지 중요문제에 관한 중공당중앙위원회 결의(Ⅱ)

四. 사회주의 문화 사업을 적극 발전시킨다.

(14) 문학예술과 신문·출판, 철학과 사회과학 등의 문화 사업을 발전시켜 인민 대중의 나날이 성장하는 정신문화적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은 민족 소질을 제고시키고 경제발전과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를 촉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갖는다.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위대한 실천은 문화 건설을 위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문화 사업이 크게 발전하도록 절박하게 요구한다. 인민 대중에 깊숙이 뿌리박은 역사적 창조 활동이 있어야 하며, 또한 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혁명 문화의 전통을 계승, 발양시키고 세계 문화의 우수한 성과를 적극적으로 흡수해야만이 우리의 문화사업은 비로소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고 더욱더 번영할 수 있다.

(15) 문학예술의 번영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우수한 작품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다. 인민을 위한 봉사과 사회주의를 위한 봉사라는 방향을 견지하고,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百家爭鳴)의 방침을 관철해야 하며, 주요 쟁점을 널리 발양시켜, 다양화를 제창해야 한다.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정립하고 월등한 전략을 실시하여, 문학예술의 각 부문에서 최대한 노력하여 사상성과 예술성을 통일시킨다. 강렬한 흡인력과 영향력을 갖추어 대중의 환영을 받는 우수한 작품을 많이 창작하여, 사회주의 문예 사업의 번영을 이룬다.

인민은 문학예술을 필요로 하고, 문학예술은 또 인민을 필요로 한다. 광범한 문학예술 종사자들은 대중의 생활 속에 깊이 들어가 풍부하고, 정확한 창작 사상을 수립해야 하며, 작품 자체의 사회적 영향을 진지

하고 엄숙히 고려하여 최상의 정신적인 양식으로 인민에게 공헌해야 한다. 문학예술 사업의 영향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간섭을 방지해야 하며, 또한 주도성의 소홀함도 방지해야 한다. 문예 창작의 규율을 존중하고 생동하고 활발하며 단결해서 향상시키려는 좋은 분위기를 힘껏 형성해야 하며, 문학예술 종사자들에게는 창조 정신을 충분히 발휘하여 예술적 품격과 예술적 형식이 자유롭게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건강한 문예 평론을 적극적으로 전개시켜 문예평론의 정확한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인민과 사회주의, 이 두 가지 측면을 위한” 방향에 냉담하여 대중과 유리되어 실천하는 경향이나, 저급한 취미에 영합하고 “모든 것에서 돈만 쳐다보는” 경향과, 혁명 문예 전통을 경멸하고 부패한 문예사조를 숭배하는 경향들은 모두 잘못된 것으로 마땅히 굳세게 반대해야 한다.

(16) 신문의 선전은 반드시 당성(黨性)원칙을 견지하고, 실사구시를 견지해야 한다. 단결과 안정에 대한 격려 및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선전을 위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견지해야 하고, 정확한 여론 지도 방향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당 신문(黨報)과 당 간행물, 국가 통신사와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은 주도적인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쟁점 문제 인도와 여론 감도를 강화하고, 당과 정부의 개선 공작에 협조해야 하며, 당과 정부 및 인민 대중의 연계를 밀접하게 하고, 인민 대중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대한 믿음과 정열을 강화시켜야 한다. 신문 매체들은 각자 장점을 발휘하며, 지속적으로 방법을 개선시켜 그 효과를 증시해야 한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하고,

우수한 국산 프로그램의 수를 늘려야 하며, 격조가 떨어지고 내용이 건전하지 못한 프로그램의 방송을 제지해야 한다.

출판 사업은 건전한 관리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출판물의 질적 향상에 힘쓰며, 좋은 제품을 많이 내고 나쁜 제품은 만들어 내지 않아야 한다. 국내의 새롭고 우수한 문화적 성과를 적시에 반영하고, 전통 있는 문화적 우수성과 가치 있는 학술 저작 출판을 중시해야 한다. 또한 소수 민족의 출판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 인민 대중의 다방면에 걸친 다양한 수준의 수요를 부단히 만족시켜야 한다. 신문 매체와 출판물은 사회적으로 조국의 언어 문자를 정확히 사용하는 데 모범이 되어야 한다.

신문 출판업에 대한 거시적 통제를 강화하고, 유력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현재 무질서하게 양산되어 구조적으로 균형을 잃고, 무질서하게 중복 난립되어 질적 저하를 무시하는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며, 광대한 규모의 수량 위주로부터 질적 효율성 제고하여 이러한 흐름을 전환하도록 노력한다.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키고 기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신문 출판 단위는 정리하고, 요구에 미치지 못한 단위는 반드시 업무를 정지시킨다.

(17) 철학과 사회과학은 반드시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 사상과 등소평의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 이론을 지침으로, 이론과 실제의 연계를 견지하되, 당과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르고, 두 개 문명 건설을 의해 봉사해야 한다.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주요 이론과 실천 문제의 연구를 중요한 추진 방향으로 삼아,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경제와 정치, 문화의 발전 법칙을 적극 탐색해야 한다. 기초 이론 연구를 중시하고, 중점 학과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현대 세계의 새로운 변화와 각종 사조들에 주의를 기울여 연구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며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철학과 사회과학 연구 기획 사업을 성실하게 완성하고, 중대 과제에 대해서는 역량을 조직하여 연구에 몰두하고, 가치 있는 연구 결과를 다량 배출한다.

백가쟁명(百家爭鳴)의 방침을 견지하여 과학적인 학풍을 제창하고, 상이한 학술적 관점의 상호 절차타마를 고무 격려하여, 학술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를 신중히 구별해야 한다. 사상 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도해야 한다. 정치적 방향이나 중대한 원칙에 관련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치를 선명하게 하고, 시비를 분명히 가려 철학과 사회과학 연구가 정확한 방향을 따라 발전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8) 한 손에는 번영을 잡고, 또 한 손으로 관리(管理)를 잡아서 문화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문화계는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중요한 진지로, 결단코 부패한 사상·문화가 피어나고 만연하는 장소가 되도록 허용할 수 없다. 문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건강한 문화창작품을 힘껏 보살피, 대중의 소비 수준에 적합하고 유익한 문화 오락 활동을 이끌며 문화생활을 더욱더 활발하고 풍부하게 해야 한다. 합법적인 경영을 옹호하고,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며, 문화창작품의 도입을 잘 관리해야 한다. 선정적인 출판물 소탕과 불법 출판 활동에 대한 단속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관련 법규를 확고하게 제정하고 법 집행을 강화하며, 관리 체제를 건전하게 하여, 대중 감독 기능을 발휘시켜, 문화 사업의 규범을 만든다.

(19) 문화 체제의 개혁은 문화 사업의 번영과 발전에 기본 방향이다. 개혁의 목적은 문화 사업의 활력을 증강시켜 문화사업 종사자를 충분히 동원하여 우수한 작품과 우수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는 데 있다.

개혁은 정신문명 건설의 요구에 부합되고, 문화 발전의 내재적인 법칙을 따라야 하며, 시장 메커니즘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한다. 문화창작품은 물질제품과 달리 특수한 속성이 있어 사람들의 사상·도덕 및 과학, 문화 소질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효율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사회, 경제적 효율성의 가장 적절한 결합이 실현되도록 힘껏 추구한다. 개혁은 상황에 맞게 지도해야 하며, 국가와 단위와 개인 사이의 관계를 순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국가가 이를 중점적으로 보장하므로, 문화 사업의 발전 구조를 점차적으로 사회가 일을 처리하는데, 고무 격려하도록 형성해야 한다. 문화 사업 단위는 개혁을 심화하여 관리를 강화하며, 경쟁에 대한 격려뿐 아니라 책임에 따른 제약이 있는 건전한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

五. 대중성 있는 정신문명 창건 활동을 철저히 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20) 전국 각지에서 광범하게 전개되는 대중성 있는 정신문명 활동은 인민 대중이 풍속을 바꾸고 사회를 개조하는 위대한 창조이며, 두 개 문명 건설 임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기층에서 구체화되는 데 도움을 준다. 문명 가정과 문명 단위 및 軍·民 공동 건설과 경찰·인민 공동 건설 등의 정신문명 창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하고, 대중적인 문화와 위생, 체육

과 과학의 보급 활동을 전개하며, 문명적으로 건강한 생활 방식을 창도해야 하고, 공동체 문화와 시골 및 소도시 문화, 기업 문화 및 학원 문화를 건설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擁軍優屬와 擁政愛民(인민해방군을 옹호하고 혁명군인 가족을 우대함)과 인민해방군은 정부를 옹호하고 인민을 사랑한다.' 활동과 민족 단결 진보 활동을 전개하고, 군대와 정부, 군대와 인민의 단결 및 민족 단결을 증강시킨다.

시민 소질과 도시 문명 정도의 제고를 목표로 삼아 문명 도시 창건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각 단위마다 아름다운 환경과 양호한 질서 및 우수한 서비스 실현을 중심으로 도시의 정신문명 건설을 주도해야 한다. 직할시와 성(省)정부소재지 도시, 자치구 수도 및 바다와 교통 간선에 연한 대도시들은 출선하여 창건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들은 기획을 제정하여 2010년까지 시범적 기능을 갖춘 문명 도시와 문명 市區들을 건설해 내야 한다. 정신문명 건설에서 노동자계급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농민의 소질과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과 '사회주의 新농촌 건설'을 목표로 문명 농촌을 창건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소도시를 중심으로 시골을 이끌도록 기획하고 점차적으로 추진한다. 문명 농촌 건설은 당의 기층 조직 강화 및 기층 정권과 결합시켜 나가며, 집단 경제의 실적 확대 및 범 농민을 위한 농촌 집단경제 조직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결합 하여, 가족 계획과 토지 절약 및 환경과 결합시켜 나가야 한다. 국가의 법률과 법규에 근거하여 향(鄉)의 규정과 민약(民約)을 제정하고 진부한 규약과 고루한 관습은 타파해야 하며, 불법적인 종교 활동에 반대해야 한다. 문화와 과학기술 지향의 농촌에 대한 공급과 빈민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잘 수행하여야 한다. 정신문명 건설 중에서 농촌의 당원 간부와 교사, 지식 청년 및 전역하여 취업한 군인들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킨다.

인민에 대한 봉사와 사회에의 공헌을 목표로 문명 창건 활동을 전개한다. 갖가지 업무에서 특히 대중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창구 업무"는 모두 자체의 특징에 근거하여 사무 직원과 생산 직원에 대해 직업에 대한 책임과 도덕 및 기강확립 교육을 보편적으로 진행하고, 직위 훈련을 강화하여, 업무 행위를 규범화하고, 업무의 새바람을 수립해야 한다.

각 향의 정신문명 창건 활동은 모두 인민 대중의 보편적으로 관심사인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더불어, 또 경제 발전 및 사회 진보와 더불어 긴밀하게

결합시켜 끈기를 가지고 지속하면서 반드시 실제효과가 있도록 애쓰며, 대중들의 참여와 교육 수준을 높이고 실천력이 향상되도록 하는 한편 형식주의를 확고하게 반대한다.

(21)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가운데 쏟아져 나오는 선진 집단과 선진 인물들은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실천하는 표본들로서, 다양한 종류의 형식을 채택하여 그들의 사적과 사상을 힘껏 선전하며, 전체 사회에서 선진을 숭상하고 선진을 학습하는 기풍을 형성시켜야 한다. 정신 문명을 건설하는 중에 두드러진 성적을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표창을 주어야 한다. 인민의 이익을 위해 공헌을 해낸 영웅적인 모범들과 의를 보고 용감하게 행한 선진 인물들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六. 정신문명 건설에의 투입을 적절하게 증가시킨다.

(22)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건설에는 물질적인 보장이 있어야 한다. 필요한 물질적 보장이 없다면 정신문명 건설의 많은 임무들이 구체화되기는 어렵다.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전반적 상황에서 출발하여 정신문명 건설을 경제 전반과 사회 발전 계획에 필수적인 자금을 보충해야 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요구에 적합하고도 효과적인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건립하고 정신문명 건설에 대해 다양한 경로로 투입할 수 있는 체제를 점차적으로 형성해야 한다.

(23) 현재 문화 선전 사업에의 투입이 전체 총량 및 비례적으로 낮은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한다. 국무원의 『문화 경제정책을 한층 더 완전하게 하는 데 대한 몇 가지 규정』을 성실하게 구체화한다. 문화 선전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 재정의 투입은 경제발전이 따라 해마다 증가되어야 하고, 증가폭도 재정수입의 증가폭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문화 선전 사업의 재정 특별 자금 제도를 건전하게 한다. 세금 수입과 융자 및 가격 등의 경제적 수단을 운용하여 문화선전 사업을 지원한다. 문화선전 사업의 재세 특혜정책을 한층 더 완비한다. 문화선전 사업에 대한 사회 역량의 자금 지원을 고무, 격려한다. 중·서부 저 발달 지역과 소수 민족 지역의 문화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하여 재정 투입을 증가시켜야 한다. 정부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과 박물관, 과학 기술관, 문화관 및 혁명 역사 기념관 등의 공익사업성의 사업 단위에 대해서는 마땅히 경비를 보장한다는 것을 부여해야 한다. 국가와 민족의 학

술 및 예술 수준을 반영하는 정신적 제품, 국가 수준을 대표하는 예술 대학과 공연 단체 및 국가중점 문물보호 단위, 지방과 민족의 특색을 대표하는 예술단체에 대해서도 지원을 증대시켜야 한다.

(24) 안배의 합리화와 구조의 특성화 및 중점부각 요구에 비추어 문화 선전 사업의 기본 건설을 강화한다. 유한한 자금을 중요한 문화 선전 단위와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봉사는 문화시설 건설에 더욱 많이 사용해야 한다. 도시 건설에서는 공공 문화시설을 건설하여 활성화해야 한다. 대·중 도시에서는 마땅히 도서관과 박물관을 중점적으로 잘 건설해야 하고, 조건이 되면 또 과학 기술관도 마땅히 건설해야 한다. 현(縣)과 향(鄉)은 종합적 성격을 가진 문화관과 문화 센터를 주로 건설해야 한다. 중앙과 성급(省級) 라디오·텔레비전 방송국의 가시청을 향상을 목표로 하여 라디오·텔레비전 방송망 건설을 강화한다. 국가 박물관, 국가 대극장 등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 국가 중점 문화 프로젝트를 건설 완료한다.

지속적으로 문화 사업을 근검하여 수행하고, 자금 사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기존 문화시설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고급 오락장 건설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문화, 관광을 발전시킨다는 명목으로 봉건 미신을 선양하는 장소를 건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七. 정신문명 건설에 대한 당의 영도를 강화하고 개선시킨다.

(25) 중국공산당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현대화 사업의 영도 핵심이다. 물질문명 건설의 관건은 당에 있으며, 정신문명 건설의 관건 또한 당에 있다. 각급 당위원회는 반드시 시종일관 “양쪽을 장악하고, 양쪽을 다 강화(兩手, 兩手都要硬)”해야 하며, 두 개 문명을 통일적인 분투 목표로 삼아 동시에 안배하고, 구체화하며, 검사해야 한다. 당·정 지도부와 주요 지도간부들을 시험, 평가하는 것은 비단 물질문명 건설 영도에 대한 실적과 수완뿐 아니라, 정신문명 건설 영도에 대한 간부 운용 및 상벌에 대한 기본적 근거로 삼아야 한다.

사상 문화 선전 공작 부서와 단위는 정신문명 건설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으므로 각급 당위원회는 지도를 적절하게 강화해야 한다. 여론 선전 진지는 반드시 당의 수중에 확고하게 장악되어야 하며, 마르크스주의에 충성하고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노선을 확고하게 추종하고 사업 의식과 책임감이 있으며, 정치 기율을 준수하고 업무를 잘 알고 있는 동지들을

지도부에 선발해야 한다.

사상 정치 공작은 우리 당의 우량한 전통이자 정치적 장점이며, 정신문명 건설의 기초적 공작의 하나이자 두 개 문명 건설 활성화의 기본적인 보증으로 새로운 정세 하에서 강화될 수 있을 뿐, 약화 될 수는 없다. 각급 당위원회는 이 공작을 중요한 위치에 두고 통상적으로 가지 지역과 자기 부서 및 자기 단위의 사상 정치 상황을 연구하고 유력한 사상 정치 공작을 운용하여 각종 임무 완성을 촉진해야 한다. 기관과 기업·사업 단위, 농촌, 학교, 가도(街道·區 아래의 행정 단위) 당조직은 사상 정치 공작을 적절하게 잘 수행하고, 정신문명 건설의 임무가 기층에서 구체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민주 원칙과 긍정적 인도의 방침을 관철하고, 대상의 상이함에 근거하여 상이한 방식을 채택하며, 적확성을 강화하여 사상 정치 공작의 실효성을 증강시켜야 한다.

정신문명 건설은 경제와 사회 생활의 각 분야를 관통하고 있으므로 전체 당과 전체 사회는 반드시 고도로 중시해야 한다. 당위원회의 통일적인 영도 하에 당·정 각부서와 노동조합, 공산주의 청년단, 부녀 연합회 등의 인민 단체들은 다같이 장악하고 공동으로 관리하여, 힘을 합쳐야 한다. 정신문명 건설 중에서는 민주당파(民主黨派)들의 역할을 매우 중시해야 한다. 각 부서들의 정책 제정은 모두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의 총체적인 포석에서 출발해야 하며, 경제와 각종 사업 발전에 유리해야 하고, 또한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에도 유리해야 한다. 어떠한 시기이든 정신문명의 희생을 대가로 경제의 일시적인 발전을 교환해서 얻을 수는 없다.

(26) 이론을 실제에 연계시키고, 실천을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표준으로 삼아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법칙을 인식하고 장악하며, 새로운 경험을 총괄하고 새로운 방법을 탐색하며, 창조적으로 일하고, 정신문명 건설에 대한 당의 영도를 부단히 개선시키는 것을 견지한다. 복잡하고 다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는 조건하에서, 지도 간부들은 학습 강화에 크게 힘써야 하며, 지도 수준, 특히 사상 정치 이론 수준을 제고시켜야 한다. 마르크스주의와 반마르크스주의, 변증법적 유물론·역사 유물론과 유심론 및 형이상주의, 사회주의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다양한 종류의 경제 요소를 공동으로 발전시키는 것과 사유화,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서방의 봉건주의 및 자본주의의 부패한 사상 문화 등의 중대한 문제상의 시비와 한계를 분명하게 하고,

정확한 정치적 방향과 정치적 입장을 견지하며, 각종 잘못된 사상 경향의 방해를 적시에 배제하여, 정신문명 건설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27) 정치에 강하고 업무에 능하며 작풍은 곧아야 한다는 요구에 맞게 높은 소양을 갖춘 사상 문화 선전 교육 군단을 조성하는 것은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절박한 요구이다. 정신문명 건설의 각 영역들은 모두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며, 진정한 재능과 진실한 학식을 가진 전문 인력들을 힘써 배양해야 한다. 우수한 인재들이 새로운 고지에 이르도록 지원해야 한다. 발전적 희망이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하고 배양하여 임무와 책임을 맡기며 적극 인도하여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 각 지역과 각 부서는 다가올 15년의 발전 수요에 적응하여, 기획을 제정하고, 예비 대열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기층 단위에서 사상 문화 선전 교육 공작에 종사하는 동지들은 정신문명 건설 임무를 가가호호까지 구체화하는 책임을 맡고 있으므로, 그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

건전한 규칙과 제도를 수립하고, 대오의 교육과 관리를 강화한다. 돈을 받고 뉴스를 보도해 주는 것과 전화번호를 매매하는 것, 무리하게 고액의 사례금을 독촉해서 받아 내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직업 도덕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비판 교육을 해야 하며, 여러 차례 교육해도 고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28) 정신문명 건설 강화는 먼저 당을 엄중히 다스리고 당풍을 잘 처리해야 한다. 중국공산당은 중국 노동자계급의 선봉대이다. 공산당원은 전체 사회에서 모범적 역할을 발휘해야 하고, 당의 지도간부들은 당에서 모범적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당원, 특히 지도간부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영도 간부는 자중하고, 서로 반성하며, 스스로 경계하고 채찍질하여, 몸소 모범을 보이고 언행이 일치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을 스스로 먼저 하고, 다른 사람에게 금지하는 것은 스스로 굳게 하지 않으며, 자각적으로 당과 인민의 감독을 받고, 권력과 금전 및 미색의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중앙의 안배에 따라 헤이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당 기풍과 청렴한 행정 건설을 강화하고, 反부패 투쟁을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기술 위반과 법률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에 관련되었는지 모두 단호히 저항을 배제하고 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집권당의 기풍은 당의 생사 존망에 관계된다. 각종

경제 개혁과 대외 개방 정책을 실행하면 할수록, 공산당원, 게다가 당원 지도 간부는 공산주의 신념을 더욱 굳게 하며, 공산주의 도덕을 몸소 체험하고 힘써 실천해야 하며, 공평무사하고, 청렴결백하며 공정해야 하고, 어려움을 견디면서 분투해야 하며, 전심전력을 다해 인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현재 전체 당은 이론을 학습하고 당장(黨章)을 학습하는 활동을 막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 중에 현(縣)급 이상 지도간부에 대해서는 학습 중시와 정치 중시 및 정기(正氣) 중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당성당풍(黨性·黨風) 교육을 한 차례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교육은 사상적 실제와 실천적 실제를 연계시켜야 하고, 이상·신념과 사상 작풍 분야에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 해결에 착안점을 두어야 하며, 당의 기본 이념과 기본 노선 및 기본 방침을 관철·집행한다는 자각성과 견고성을 증강시켜야 하고, 일부 지도간부, 특히 중·청년 간부들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투쟁 속에서 방향을 상실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29) 협조 강화를 위해 중앙에 정신문명 건설 지도 위원회를 설립한다. 각 성(省), 자치구와 직할시는 상응하는 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30) 중국인민해방군과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는 우리나라 정신문명 건설의 중요한 역량이다. 우리 군의 우수한 전통과 우수한 작풍과 전체 전투 지휘관의 사상 정치적 소양을 한층 더 높여, 정신문명을 건설하는 가운데 전체 사회의 선두에서 달려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분야의 공장에 관하여는 중앙 군사위원회가 결의의 정신에 근거하여 안배한다.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사업은 하나의 새로운 위대한 혁명이다. 이 혁명 가운데서 중국공산당의 성원들과 중국 인민들은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갖고 객관적 세계를 개조하는 동시에 주관적 세계를 개조하며, 고도의 물질문명을 건설하는 동시에 고도의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건설한다. 전체 회의는 전체 당의 동지와 전국의 각 민족 인민들이 장저민(江澤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을 향해 긴밀하게 단결하여,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모든 대중이 한마음으로, 개척하면서 나아가고 건설하게 공작하여 우리 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 문명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로 건설해 내기 위하여 분투 노력하도록 호소한다!

번역 金仁 中蘇研究所 연구원

출처/ 『中蘇研究』, 통권 71호 제공

중국선교 적응훈련을 아십니까?

지금 중국선교훈련원의 성실한 준비 프로그램
중국선교 적응훈련을 만나십시오.
선교현지에 무리없이 정착하기 위해
정말 값지고 귀한 6개월을 투자하십시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6개월-
급한 건 사실이지만
조급하게 서둘러서는 안됩니다.
열정은 이해하지만
무모함은 혼란을 불러올 뿐입니다.
먼길을 가려면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중국선교훈련원의
성실한 준비 프로그램
중국선교 적응훈련을 만나십시오.

교육목표

첫째, 중국에 대한 바른 이해로 현지 적응능력 배양
둘째, 생활중국어와 선교중국어를 자신있게 구사
셋째, 중국선교사역에 대한 비전의 구체화

교육기간

6개월(매년 3월·9월 개강, 주 5일)

교육내용

선교중국어 집중훈련, 중국문화 및 선교연구 세미나,
중국어 공동훈련, 현지 언어연수 및 답사

교육대상

중국선교 헌신자 및 관심자
훈련 후 선교지에 곧 나가려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음

참가인원 및 선발기준

본 훈련원의 선발기준에 의함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402호
우 137-069
TEL: 02) 535-4255, 594-8038
FAX: 02) 599-2786

선교도서안내

중국선교 소책자 시리즈

- | | |
|--------------------------------------|--------|
| 1.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교회와 국가/ 조나단 차오 저 | 1,500원 |
| 2. 중국어성경 번역소사/ 中文聖經信譯會 저 | 1,500원 |
| 3. 만남/ 中國教會中心 저 | 2,000원 |
| 4. 전도중국어/ 중국어문선교회 교육부 역(Tape:1,000원) | 1,500원 |

중국어 학습 교재

- | | |
|--|---------|
| 1. 使徒信經, 主禱文 외 (Tape:1,000원) | 2,000원 |
| 2. 經文背誦 (Tape:1,000원) | 1,500원 |
| 3. 神愛世人 (Tape:1,000원) | 2,000원 |
| 4. 我的第一本聖經 (Tape:1,000원) | 2,500원 |
| 5. 信仰讀本
(Tape 2개:2,000원) | 5,000원 |
| 6. 中國語 신약성경(和合本/한어병음 표기)
(Tape 19개:25,000원) | 12,000원 |
| 7. 中·韓 주제별 성경암송 카드(60구절:네비게이트 출판사) | 900원 |
| 8. 중국어 신구약 성경(번체자, 주음부호) | 30,000원 |
| 9. 중국어 찬양 Tape | |
| ◆ 耶和華是我的牧者(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 4,000원 |
| ◆ 我的中國心(나의 중국 마음) | 4,000원 |
| ◆ 是愛(사랑은) | 3,000원 |
| ◆ 奉主耶穌的名 | 3,000원 |
| 10. 종합선교중국어 | 8,000원 |
| 11. 讚美歌 | 5,000원 |

위에 소개되지 않은 다른 교재들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방법: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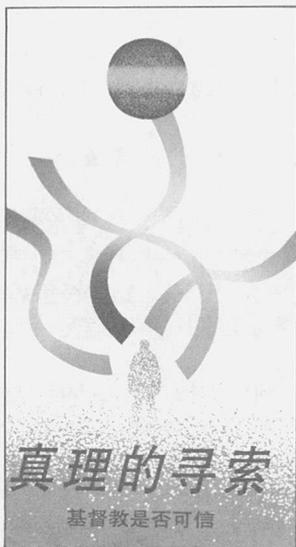
지방인 경우 우편발송이 가능하오니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우편으로 신청하실 때는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우편요금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CCL 소책자 소개

眞理的尋索

(Basic christianity 기독교의 기본진리)

존 스토티(J.R.W. Stott-) 저/ 시에쯔위(謝志偉) 역/ CCL(복음증주협회)
간체자(簡體字)판



존 스토티는 중국 대륙 성도들의 총애를 받는 얼마 안 되는 서구 신학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의 저서는 중국 성도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듣고 있다. 저자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존재했던 역사를 시작으로, 성경의 증거와 역사적 근거 및 권위있는 언론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권한다. 이는 기독교의 본질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진리이다.

중국 성도들이나 국내 중국인(근로자, 유학생)들을 위해 이 책이 필요하신 분은 중국어문선교회 CCL 협력부를 방문하셔서 구입하십시오. CCL 협력부는 이 외에도 중국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필요한 소책자와 문서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도들이
영의 양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에 자주 가신다고요?
중국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신다고요?

중국어문선교회 CCL 협력부로 오십시오.

중국인을 위한 전도소책자와 양육·훈련교재가 있습니다.

여행, 단기선교, 비즈니스 등으로 중국을 방문하시려는 분들이 갖고 가는 이 책은,

중국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기쁨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국내 중국인 근로자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회나 개인도 환영합니다.

담당/ 중국어문선교회 심영아 간사(근무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오시기 전에 꼭 전화를 주십시오.

☎ 02)594-8038

작업을 사랑하는 이들의 동반자
1998년 5·6월호(통권51호)

발행처/ 시님(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대표/ 박성주
 발행·편집인/ 이동화
 편집위원/ 강성광·김중선·김중하·김피득
 왕쓰웨이·지인성·한수애(가나다 순)
 편집장/ 석은혜
 편집기자/ 한영혜·이민선·김은희·안정숙
 편집디자인/ 안상희

중국을 주제로

등록일자/ 1994년 2월 14일
 등록번호/ 바 - 2078
 발행일자/ 1997년 4월 20일
 인쇄처/ 신구인쇄 ☎ 02) 275-5963
 인쇄인/ 김기환
 총판/ 크리스찬 매거진 ☎ 0344)906-9191~4
값/ 4,500원
(1년 정기구독 24,000원)

중국어문선교회

본부, 출판부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301호
 전화: 02)533-5497, 02)592-0132
 팩스: 02)599-2786
중국선교훈련원, 선교국, CCL 협력부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402호
 전화: 02)594-8038, 02)535-4255
 팩스: 02)599-2786
인천지부
 인천시 남구 용현4동 89 9/1
 성광교회 세계선교센터 B01호
 전화: 032)872-0742

독자투고 및 정보제공

<중국을 주제로>는 중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만드는 잡지입니다. 본지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독자들의 정성어린 의견과 정보에 귀기울이고 있습니다. 본지를 읽은 소감 및 의견을 전자우편을 통해 보내주세요.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cm.co.kr/sinim>

☆ **PC 통신 천리안, 하이텔**
 sinim

편집후기

요즘 우리의 관심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IMF환파'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목련꽃은 이미 화사함을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재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지에 계신 선교사들은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기도를 요청해 오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도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

『중국을 주제로』지의 지면을 약간 줄였지만,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글을 쓰기 위해 우리 편집부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호에 특집으로 다룬 "사역언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사역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또한 '독자 카드'를 보내주는 독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요청하는 내용들을 지면 관계상, 혹은 보안상 다 다루지 못함에 대해 죄송함을 전하며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머지 않은 날에 '한국 경계의 봄'을 돌려 주실 것이다. 독자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 찬양하자.

★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다 함께 겪고 있는 경제난으로 인하여 인쇄 비용이 오르고 종이 값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리하여 부득이 다음 달(7/8월호)부터 책값을 5,000원으로 인상하오니 이점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호부터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이미 정기구독을 하고 계신 분은 구독 마감일까지 예전 가격으로 보내드립니다).

**국의 정기구독료(1년)
 항공우편**

1지역	일본, 홍콩, 대만, 마카오 책값 24,000원, 우편료 12,900원, 합계 36,900원
2지역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책값 24,000원, 우편료 17,400원, 합계 41,400원
3지역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 스리랑카, 뉴질랜드, 네팔, 파키스탄 책값 24,000원, 우편료 19,200원, 합계 43,200원
4지역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아시아 책값 24,000원, 우편료 31,200원, 합계 55,200원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중국을 주제로>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사진, 그림은 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의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국어문선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국을 주제로

중국을 주제로는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반잡지입니다.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소개하며 특히 중국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의 교회 소식, 선교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국내의 교회와 관심자들에게 중국을 알려주는 중국선교 전문정보지입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전화

-

받는 사람

중국을 주제로 편집부 앞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301호)

137 - 069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전화

-

받는 사람

중국을 주제로 편집부 앞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301호)

137 - 069

중국을 주제로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 신청요령

정기구독 및 주소를 변경하실 분은 신청서를 이용하시거나
직접 전화(O2-592-0132, O2-533-5497)를 주시면 됩니다.

구독료 납부방법

정기구독을 신청하신 분은 아래로 대금을 입금하신 후, 반드시 전화주시시오

시중은행 99번 창구/ 지로번호 7602362(정기구독으로 표시)

국민은행/ 008-01-0454-178(예금주: 박성주)

독자카드(1998년 5.6월호)

귀하의 의견은 「중국을 주제로」의 발전에 더없이 소중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했던(도움이 되는) 기사는 무엇이었습니까?
2. 「중국을 주제로」에 보완될 부분이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3. 앞으로 「중국을 주제로」를 통해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기사나 주제가 있다면?
4. 그밖에 편집자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적어주시시오.

정기구독 신청서

1.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하십시오.

신규구독

재구독

구독기간(신규 및 재구독): 19 년 월부터 19 년 월까지

1년 24,000원(6권) 2년 48,000원(12권) 3년 72,000원 (18권)

년 월 일 위와같이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이름	(남, 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 -)	(통 반) 출석 교회
주소변경	회원번호		
	변경주소	(우 -)	(통 반)

중국을 주께로 월례 중보기도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 33: 3)

중국 선교의 문이 왜 열리지 않을까를 묻기 전에 당신은 중국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중국 선교의 단단 문을 기도의 열쇠가 엽니다. 우리의 기도로서 모든 단단 문들을 열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세대에 기도의 큰 용사로, 이 영고된 책임을 다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은 크고 그 책임을 또한 막중합니다.

• 이제,

『중국을 주께로』 월례 기도회중보회가 98년 4월부터 시작됩니다. 모세의 두피를 붙잡았던 “아론과 훌”처럼 중국어문선교회가 여러분이 영광을 붙들고 기도의 피를 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로 중국 선교의 문을 열어나갈 기도의 용사들을 초대합니다.

시 간 : 매월 셋째 월요일 (저녁 6시30분~8시30분)

장 소 : 이수성결교회 (중국어문선교회 맞은편)

문 의 : 중국어문선교회 개척선교부 ☎ 594-8038

잠깐 그 외

매주 첫째 둘째 넷째 월요일은 저녁 6:30~8:30

“중국을 주께로” 중보기도회가 원래대로 훈련원에서 진행됩니다

장소: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유성당) 402호
전화: 02)592-0132, 594-8038



**극동방송
아세아방송**

아직도 선교사 파송과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북방지역에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은 전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기도와 헌금으로 동역할 전파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방 송 의
메 아 리**

**별목장에서
귀순한
북한주민**

"시베리아 별목장에서 남몰래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유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한 끝에 목숨을 걸고 남조선으로 귀순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시골주부**

"주부인 저는 사는 것이 고달파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귀 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만게 됐지요. 지금은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중국교회
지도자**

"지금 중국에 처소교회가 약 3만 군데 있는데, 그들은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을 들으며 믿음 생활을 한다. 어느 한 집에 라디오가 있으면 밤중에, 시간에 맞춰, 그 집에 모여 설교를 듣습니다."

**북한지역
주민**

"하루는 새벽에 방송을 들으니까 합창(찬송)이 끝난 후에 어느 사람이 연설(설교)을 하는데 참 좋더군요. 그후 하루라도 그 방송을 듣지 않고 출장을 간다든지 하면 불안했습니다. 이제 저는 공산주의자도 민족주의자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부터 예수주의자입니다."

**전파선교사
신.칭.방.법**

- 1] 저희 방송사에 전화(또는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 전용 전화 번호 / (서울 02) 322-0·6·9·1
영 육 구 원
(서울 02) 320-0283, 0290
- 2] 어느 은행이든 99번 창구에 가서서 지로 용지를 요청, 아래 번호를 적어 작성 금액을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전용 지로구좌번호
1 · 1 · 2 · 0 · 6 · 9 · 1
익 익 이 - 영 육 구 원



기도와 헌금으로 북방선교 사역에 동역할 전파선교사 100,000명을 주옵소서!